

제 3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를 바울은 “사랑하는 의원” 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의 고용주였다는 여러가지 추측이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은 흔히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이들은 누가가 데오빌로 개인의 의사였고 또한 그의 종이였다는 이론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는 추측할뿐이며 그것을 깊이 탐구할 가치는 없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이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인정을 받은 성서의정경에 그의글이 들어가는 특권을 가지게된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누가가 쓴책이 두권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쓴 글로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행 1:1) 라고 합니다.

데오빌로가 전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데오빌라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라는 말이며 누가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망이나 열정이나 부모들이 바라는 것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상, 데오빌로각하 라고 부른것을 보면 그는 실제로 로마제국의 한통치자였으며 그 직함은 로마제국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일장의 네 구절에 걸쳐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소개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1:1-4).

누가는 이러한것들에 대하여 실제로 증인이었던 사람들로 부터 들은 메세지를 선포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려고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접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의학적으로 관련이있는 여러면에 흥미를 느꼈을것입니다. 일장과 이장에 있는 사건들의 정보는 마리아로 부터 직접받은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와 면접하고 질문하여 일장과 이장에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두장에 담겨있는정보를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이처럼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수 없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직접본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의 관계와 그분의 하신일과 사역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누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철저히 이해하려고 더욱더 자세히 물어 보았을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느껴지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쓰기 시작했으며 그가 그것을 듣고 그들은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예수의 복음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의 탄생과 무엇보다 먼저 예수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할 사람 이었던 침례요한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1:5).

당장 그는 여기에 있는 그의 해설의 첫부분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가랴는 레위족속으로 그때 제사장들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비람의 계열이었으며 그의 아내도 레위 족속이었고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는 약 20,000 명의 레위의 남자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00 명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섬기는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각 가족들이 그들의 차례대로 일주일씩 일년에 두차례 섬겼습니다. 섬기는 차례가 다가오면 제비를 뽑아 섬겨야할 특별한 분야를 결정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 일생에 단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향단에 분향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일생에 하루를 향을 가지고 주님앞에 있는 향단에 나아가는 특권은 통상적으로 일생에 단 한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로 사가랴에게 의미가있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섬기는동안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제비가 뽑힌것이었습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1:6).

세상을 볼때 이 두 아름다운 의인들은 참으로 귀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관해 듣게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듣는것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1:7).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늙었고 허리가 꼬부라졌으며 연약합니다. 늙은 결과로 연약하여 진것입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이혼할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아이를 낳지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그녀에게는 말할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도없이 그들이 나누는 굉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과 슬픔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1:8).

그들에게는 제사장의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들어왔던 한주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9).

거의 그의 평생에 단하루만이라도 섬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것에 대한 이 노인의 감격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지금쯤에는 분향할 기회 가지는것을 아마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을때 그의 제비는 그날 주님앞에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0).

이제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렸던 제단에서 타는 숯을 취하여 조그마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향단앞으로 나갑니다. 아침과 저녁에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숯을 취하여 조그마한 금대접에 넣고 그위에 향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향로를 흔들면서 향단 앞으로 나아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연기가 올라가게되며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앞에 향기로운 냄새와 즐겁고 아름다운것으로 하나님앞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5 장에 어린양이 보좌에 앉으신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때 요한이 말하기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법과 모든 설비와 제사하는법을 주신것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차례 반복해서 “너는 규정에따라 정확하게 만들도록 주의할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준 식양에따라 정확하게 성막을 만드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것이 하늘에 있는것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장면과 하나님의보좌와 모든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싶거든 성막을 공부하면 알수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작은 금대접을 취하여 그것들을 향으로 채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 가는것같이 하늘에서도 그러합니다. 계시록 5 장을 보면 그것이 성취된것을 24 장로들이 향기로 가득한 향 즉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작은 금대접을 바치는 하늘나라의 장면을 볼수있습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성전안의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는 향단앞에서 분향한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소는 지성소의 밖에 있는곳 입니다.

그가 성소에 있을동안 무리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을때 그곳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행사였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부터 이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11-13).

무슨 기도를 말합니까? 그는 오랫동안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고 기도하도록 격려해줍니다.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당히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 주님, 아들 하나 갖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13).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름은 요하남 (Johanam) 이며 줄여서 요한 (John) 이라고 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14-17).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말라기 4 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 장 5 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는 것이었습니다 (말 4:5-6).

그것은 천사가 주님의 향단에서 사가랴를 만나기전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약속을 주신 이후 400 년간 주님이 잠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단계에 있고 아들이 태어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갈것입니다.

침례요한과 엘리야의 오심에 관련된 예언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다고 했으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의 권세에 대하여 물었고 또 누가 그에게 이런일을 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때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을때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고 했습니다 (요 1:20-23).

메시야가 두번 오신다는 사실에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오심은 첫번째 오심입니다. 두번째 오심은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번째 오시기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날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왔던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드릴수 있다면 주님 앞에 엘리야가 먼저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약속이 침례요한에 의해 성취된것도 받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야의 두번 오심과 또한 엘리야의 두번온다는 사실에도 대해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번 다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나실인이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것 임이라.

잠시후에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지, 그녀를 통해 메시야가 탄생하리라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임신한지 육개월이된 엘리사벳을 찾아 유다의 작은 고을에 간것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걸어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 노는것을 느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요한도 태중에서 성령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는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죠.

사가랴가 아들을 얻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어렴풋한 소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가지게 되리라고 말했을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천사에게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라 하더라 (1:18-20).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하시도록 빈번히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강조하는것은 흥미있는 일 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것 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좋아, 네가 표적을 원한다고? 네가 믿지 않음으로 어린 아이가 태어날때까지 네가 말할수 없게 되리라” 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믿든지 상관없이 이루실것 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 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빈번히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이 전적으로 내가 그것에 매달려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것처럼 느끼기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면 그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잃은것처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성취됩니다. 우리의 믿고 믿지않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와 나의 충성에 달려있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기때문입니다.

하만이 정해진 어느날 모든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에 왕의 서명을받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멸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을때를 기억하실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연을 전하여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의 회답이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홍을 내어 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회답을 보내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자는 모든것을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충성스러웠더라면 경험할 뻔했던 모든 상급과 축복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불신이 하나님이 뜻하신바를 멈출수는 없습니다.

사가랴는 불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었고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내게 아들이 있겠다는 말이 무슨뜻인지요?” 라고 대답했을때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가브리엘이 이 특별한 사건 이전에 이땅에 마지막으로 나타난것은 500 여년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오실때에 관한 분명한 예언들중의 하나를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복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는 예언을 전해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때에 관한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해준 천사가 다른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친구 가브리엘 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에 관계가 없는것 같습니다. 500 년이 지난후에 다시 나타났기때문입니다. 그는 그전처럼 젊어 보였겠죠. 이제 그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것이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갈때 주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 의 앞서 가는자가 되리라는것을 사가랴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질서를 세우신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것에 대한 모든 섬세한일을 가브리엘이 책임지도록 감독으로 세웠을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마리아를 준비하기위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으며 또 여기서 그는 사가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서는 비밀을 지키는것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500 여년전에 그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 메시아의 오실때에 관해 약간의 비밀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500 여년후에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가브리엘을 만나보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이전 처럼 젊고 새롭게 보일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큰 책임을 주신 특별한 천사들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빨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가 내 거실에 앉아 개를 쓰다듬어 주고 있을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책을 읽으신분들은 내가 무슨얘기하는지 아실겁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병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1:21-23).

한 차례마다 일주일씩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며칠후에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 그 근처의 유다 지방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 보시는 날에 인간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1:24-25).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수 없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1:26-27).

세가지 용어를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약혼 (engaged), 정혼 (espoused), 결혼 (married) 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결혼은 중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살쯤 되었을 때도 약혼이 가능했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친구일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 아름다운 딸이있고 또 다른 한부모에게 작은 아들이 있으면 그들은 “우리가 서로 친구간인데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과 결혼하는게 어떨것소? 자, 약속합시다.” 그러면 이 소년과 그 소녀는 네살이 되었을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약혼했다” 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약속을 맺었기때문에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될것입니다. 이

약속이 결혼 만큼이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번덕스러운 마음으로 바꿀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짝을 찾을수있는 충분한 지혜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보통 15 - 16 세의 나이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의 연령이 차면 결혼식이 있기 일년전에 정혼 (espousal) 이라고 불리는 기간에 들어가게되며 그때부터 마치 두사람이 결혼한것처럼 서로가 철저히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기간 동안에 결혼이 완성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 정혼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결혼한것과 다를바 없으며 남자가 그것을 무효시키려면 비록 결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혼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결혼하기로 완전히 약속했으나 후에 있을 결혼식때까지 그들은 같이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란 결혼이 완성되기 일년전의 정혼 시기에 있었으며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였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28-31).

헬라어로 예수 (Jesus) 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Jehoshua) 이며 그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것을 발견하고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혼증서를 주어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드러내면 돌로 맞아죽게 되기때문 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마 1:20-21).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 말했을때 그는 “그가 자기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던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임무를 표현하기 때문에 지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것입니다. 여호수아 즉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1:32).

모든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볼때 메시야가 다윗의 위에 앉으사 질서를 바로잡고 의와 공의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확립하실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1:33).

계시록에 있는말씀을 헨델은 영광스러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만왕 의왕 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1:34).

사가랴의 질문과 마리아의 질문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절차들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는지를 알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잠시후에 에리사벳이 지적한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는 주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른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질문 이었습니다. “나는 처녀로서 사내를 알지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1:35-38).*

마리아를 중보자로 심지어 어떤이들은 동등되는 구속자로 추앙하려는 카톨릭을 반박하는 개신교 그룹들이 있으며 심지어 그들 중에서도 다투며 심지어 마리아를 격하시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자라고 천사가 말한것과 같이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그녀는 여인들 중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도구를 선택하실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신 도구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마리아는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여인들보다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중의 한사람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잘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오직 16 세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인격의 깊음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그녀의 정혼한 요셉과 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이 놀랍고도 이상한 일들을 마리아에게 말할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제 삶에 이루소서” 라고 한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또 다른 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특출한 인물입니까? 그녀는 진실로 이세상에서 가장 축복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세상에 보내시는데 사용하실 도구가 되는것은 모든 유대인 소녀들의 꿈과 소원과 바램 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았을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것을 저주로 여겼던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길이 없습니다. 모든 젊은 유대인 소녀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사용 하실 도구가 되는것 이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또 소망 이었습니다. 물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잃었습니다. “오, 나는 그 도구가 될수없어.” 그것은 말할 여지도없이 대단히큰 실망이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쓰실 도구가 될수없어”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한 도구가 되는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드루족 (Drews) 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 자신들도 모르는 종교를 가졌습니다. 드루 종교는 이슬람교에서 빠져나온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제사장들만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뿐이고 평민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종교의식을 행하며 그들이 드루족속인것도 알고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도 모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사장들만 그것이 무엇에 관한것인지 알뿐입니다. 제사장들은 알지만 평민들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오느날 드루 사람들의 동네에 가보면 앞에 큰 호주머니가 달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드루족이 믿는 것중의 한가지는 메시아가 오실때 그가 남자로 태어날것이라는것입니다. 드루족의 동네를 지나가는것은 황홀한 경험으로 앞에 큰 주머니를 단 바지를 입고있는것을 볼수있으며 이 주머니들은 앞에 축 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택함을 받을경우를 대비하는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이 메시아를 임신하게될 사람들이며 앞에 큰 주머니가 달린 바지를 입고 준비하는것입니다. 그들은 임신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들은 임신부의 옷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처녀들의 소망 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나사렛의 한젊은 처녀에게 이루어 졌습니다. 인격으로나 영적인면에서 아름다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처녀였습니다.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1:39-40).

고전 영어에서 인사한다는 말과 현대 영어의 인사 한다는 말이 다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차 대전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전영어로 인사한다는말을 이해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키쓰하겠습니다” 로 바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라 (1:41-45).

내 생각엔 여기에서 유산에 에대하여 언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요한이 태중에서 육개월이 되었지만 마리아가 말했을때 그가 태중에서 알아듣고 반응하는것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때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신한 어머니들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이야기 해야합니다. 태중에 있을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태어난후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마의 목소리를 벌써 들었으므로 알기때문입니다. 태아의 발달에 대하여 재미있는 사실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개월된 요한도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을때 엄마의 태중에서 기뻐 떨수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이 있으며 그 아이가 마리아의 말에 기뻐 뛰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사회에서 옳고 그른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또 철학이 우리의 문화에 끼친 영향도 얘기했습니다. 도덕이 그 사회의 받아드려질 행동과 받아 드려 지지 않을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 선한것과 악한것과 옳은것과 그른것도 도덕이 결정합니다. 이 특별한 철학적인 결정에서 만일 그 사회에 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것을 행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선한것이 되거나 옳은것이 되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 자체의 도덕에 의해 결정 되었기때문입니다.

옳고 그른것이 그사회에 행해지는것에 의해 엄격히 결정된다면 그사회는 그다지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권리가 전혀없는 사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삼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것도 완전히 받아드려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회는 많은 아내를 가지거나 또 많은 남편을 가질수 있는 사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사회에서 받아드려 지는것이고 아무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도덕이 옳고 그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것을 행할때 그것이 갑자기 옳은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많이하고 수백만의 순진한 아기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하는것도 괜찮다고 여기며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여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곁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기 아주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과 대화 하기위해 그들의 수준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어린 아이들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나는 아이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작은 소년들과 소녀들을 다 좋아합니다. 내겐 아이들과 대화하는것처럼 즐거운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표정을 연구하기를 즐깁니다. 그들의 습관을 연구하는것도 즐겁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연구하는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을 안고 여러 시간동안 쳐다보며 그들의 얼굴의 표정의 변하는것과 모든것을 지켜볼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발달하고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학대하는것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의도적으로 아프게하거나 상해하거나 때리거나 파멸시키는 어린아이 학대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상 금년에 로스엔젤리스 카운티에서 살해된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로스엔젤리스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은 최고 기록 이었습니다. 어린아기들이 맞아서 죽고 물에 빠져죽고 질식사하여 죽거나 학대를 받아 죽었습니다. 금년에 그 사상률이 최고의 비율에 도달했으며 나는 이것을 참기가 어렵고 온 사지가 뒤뜰립니다. 이것을 오래 생각하면 내게 너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산을 합법적으로 만듦으로 인해 생명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봅니다. 어린아기가 탄생하기전에는 학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봅니다.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깐 아이를 학대해도 별 차이가 없지않는가? 그것은 실제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직까지 잘모르기때문이죠. 유산의 합법화가 어린아이 학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수없으나 내가 알고 있는것은 생명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이며 자유주의인 국회의 결정들로부터 사회에 극히 위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들을 경고 하려고 이 말을 할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오랜기간동안 다룰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일이 오래 지속되도록 버려 두시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다면 나는 충격을 받을것입니다.

내가 할말은, 만일 내가 하나님 이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1:45a).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라. 마리아가 가로되(1:45b-46a).

여기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때 이젊은 처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깊이를 통찰할수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45-56).

아마 요한이 탄생할때까지 었던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56).

아마 임신 기간동안 도와주기 위하였나봅니다.

마리아는 이제 51 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에 대하여 말합니다. 제일먼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첫번째 혁명은 진실로 하나님이 교만한자를 흠어시는 개인의 혁명입니다. 두번째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경제적 혁명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공홀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1:57-63).

여인이 산고를 할때 이웃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악기와 음식을 가져와서 아기가 태어날때 별릴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때 그들은 “사내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 음악기구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춤을 추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났을때 “계집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 악기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엔 집안에 사내 아이를 낳는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계집 아이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영광과 존귀의 적절한 수준까지 높이기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 했습니다.

여성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할것입니다. 여성들이 꼭 해야할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한 영향을 주지못한 문화권속에 들어가서 여성들의 역할을 살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될것입니다.

베두인 사회나 인디안 문화권이나 뉴기니아 에 사는사람들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땅의 주인들 이란 책을 읽어 보십시오. 그 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전의 뉴기니아의 문명에 관한 놀라운 사회학적 통찰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일, 즉 여인들의 위치를 아름다운 적절한 곳까지 이끌어 올리신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실것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쓰기를 마치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함께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1:64-67).

마리아가 그녀에게 인사했을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 졌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1:67-68).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신것을 송축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언할때 첫번째 선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돌아보셨다는것 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2,14).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보신 목적은 속량하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을 알리실때 이렇게 선언 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19). 속량 또는 구속, 그것이 주님의 오신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별은 항상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롬 1:16).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나님이 속량하시며 그의종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구원의 별을 이рки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라 (1:70).

구세주와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은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하여 타락하기시작할때 부터 존재 했던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고 하였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죄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될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후손, 즉 동정녀를 통해 탄생한 아기에 의해 우리를 속량하신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1:72-73).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1:74).

구원이란 무엇에서 구조를 받는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두려움 이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결과 의로 (1:75b).

성결과 의 라는 두단어는 옳은것이라는 근본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결은 옳은 인격인가 하면 그 반면에 의는 행실이 옳은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성결이 뿌리입니다. 의는 뿌리에서 솟아나와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결이 없이 의롭게 되려는 노력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은 실패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없이는 의로움을 유지해 나갈 강한 동기가 없기때문입니다. 먼저 핵심이 정결해야합니다. 의로운 행동과 활동을 가지려면 성결과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로 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성결로 섬기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결을 떠난 의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 □□□□ □□□□□□ □ □□ □□□ □□□ □□□□ □□□□” (마 5:20).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것보다 충격적인것 이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 보다 더 의롭게 행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의는 성결이 없기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의하면 그들의 태도는 부패했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으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겹시의 겹모양은 깨끗하나 잔은 해충으로 가득찼도다.” 겹은 깨끗케하나 그안에는 성결이 없는 의가 있지만 전적으로 받아드려 질수 없는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성결에서 흘러 나오는 의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1:75).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갈 어린아이 거기에 누어있는 작은 요한 자신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1:76).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것이라.”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1:76-79).

하나님이 그의 자비로 우리를 돌아보사 어둠과 그늘에있는 사람들에게 비치시려고 높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 곧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도하시려는것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1-7).

“이 때에...” 이때란 로마제국이 형성된 그때를 말합니다. 본래 로마제국은 여러 장군들이 통치했으며 점차적으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한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드디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양아버지 그의 삼촌의 이름 ‘씨저(Caesar)’ 라는 이름을 채택하였으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그가 권력을 장악했을때 로마 상원이 준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로마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했을때 상원은 그에게 칭호를 주기로 결정했으며 처음엔 로마의 왕 으로 부를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후에 그들이 “우리는 당신을 로마의 독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신의 배경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나왔으며 그는 그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씨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권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사람에게 세금을 바치게 하려함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로마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영을 내려서 온세상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게 할수 있을때까지 점차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던것입니다.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영을 내릴수 있고 온세상은 그영에 따라야합니다. 로마는 온세상을 무력으로 복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제니스 사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제니스는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언제나 로마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원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16년간이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기에 아주 알맞은 시기이네요” 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평화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로마가 너무나 강력한 통치를 했기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로마의 노예였고 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저가 얻기를 바라던것이었고, 이제 그는 영을 내렸습니다.

로마 정부가 실시한 이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들이 애굽에서 발견된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인구조사를 매 14 년마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 14 년마다 실시한 인구조사의 기록이 애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마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지역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않은 나사렛이라 불리우는 작은 도시에 젊은 부부가 있었고 그들은 두사람이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온세상에 세금을 바치도록 호적하라는 씨저 아우구스투스의 영이 내렸을때 그들은 씨저 아우구스투스에게 복종하여 인구조사에 등록하려고 그들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응하기위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들이 애굽에서 발견 되었으며 그것들은 성경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임신기간중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시기는 아주 괴로운 때입니다. 인체내에 여러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며 신체적인 반응이나 역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이 사람이 영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임신을 늦출수도없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 긴 여행을 하지않을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은 긴여행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친구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70 마일을 여행 해야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2:4-7).

흥미롭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 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세상을 찾아 오셨을때 여인숙에 방이 없었습니다. 내집작에 그것은 마치 그의 생애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님에게 장소 제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것을 위한 장소와 시간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것에는 시간과 장소를 바칩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일반사회의 바깥에 방치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더 심각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관점에서 보는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다 봅시다. 한걸음 물러서서 좀더 넓은 시야로 볼때 우리가 볼수있는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0 년전에 그리고 이 젊은 부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기전에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사건의 700 년전에 한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딤크 5:2). 그 선지자는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될것이라고 예언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본문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은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일이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보좌에 앉아있는 작은 사람이 모든일을 조종하는것이 아니라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그가 소원했던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얻은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진짜 주권을 행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나사렛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부부는 만삭이된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긴 여행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나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가게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줄을 당기기 시작하셨고 씨저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상이 호적하도록 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라” 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씨저의 영에 “예, 폐하” 라고 대답했을때 그는 자신이 온세상을 다스리는줄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700 여년전에 선언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의 반응일뿐이었습니다. 아기가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기 위함 이었던 것입니다.

심한 고독이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아들을 낳았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분명히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얻지못했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서 강보에 싸고 돌보는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 자신도 16 세나 17 세밖에 되지않는데 짐승을 보관하는 마굿간의 구유에서 아기를 출생한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돌아보사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 참으로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2:8).

한가지 지적할점 - 이것은 예수께서 12 월 25 일에 탄생하실수 없었다는것이며 겨울철에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지내기엔 너무나 춥습니다. 그리고 12 월 25 일은 농신제 라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휴일에서 빌려온것이며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보다 더욱 세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12 월 25 일의 가짜 탄생을 얼마나 더 지속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2:9).

그 목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려질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릴 양들을 충분히 기르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목동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려질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죄 를 지고갈 어린양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들판에 나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을때 주의 영광이 저들을 두루 비쳤고 그들은 두려워 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10).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과 큰 기쁨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2:11-15).

주의 사자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강한 느낌일뿐입니다. 그는 비밀을 지킬수 없기때문에 아기의 탄생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야하는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임무는 끝났고 아기도 안전하게 탄생하여 거기에서 강보에 싸여 있으므로 그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 아기는 첫울음을 터뜨렸고 구유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의 모든 임무는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무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속량하시려고 인간을 찾아 오시기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오, 모든 사람이 알아야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모든 불이 꺼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일대에 촛불도 다 꺼져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모든 정경을 관찰할때 그는 예레살렘을 향하여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잘 됐다. 그는 거기에 가서 비로소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봐, 애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리고 난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라운 광경들입니다. 결코 싫증이 날수없는 장면들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2:16-21).

사람들은 아들의 출생후 팔일이 지난 할례일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권리인지라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팔일에 할례를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희귀한 경우중의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21-22).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면 40 일간의 결례의 날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그가 딸을 낳았다면 80 일의 결례의 날을 거쳐야 합니다. 여자를 낳은것에 대한 일종의 벌을 받는셈 입니다. 이제 40 일의 결례의 날이 지났습니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22b).

40 일이 지난후 그들은 하나님께 결례를 바쳐야 했습니다.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하면 양 대신에 두 반구(산 비둘기) 를 드릴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23).

실제로 하나님이 첫째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장자를 대속할 처지가 되었을때 하나님은 드디어 레위 족속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임되어야할 자기들의 장자 를 구속하는 속전을 레위족속에게 치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자는 데려왔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들로 제사하려함이더라 (2:24).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다는것을 나타냅니다. 내게 흥미있는것은 예수께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것인지 알아십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어떻게 지불할까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것 저것 필요한것들을 어디서 구할까 걱정하는것도 잘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것 때문에 걱정 하는 우리의 입장을 알아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25-26).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27-32).

여기 있는 예언에서 빛은 이스라엘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 즉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입니다.

요셉과 어머니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2:33-35).

그리고 그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가 어느날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것을 보며 경험하게될 고뇌와 아픔을 준비시키는것이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2:36).

소녀의 경수가 시작되고나서 7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결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하여 줄곧 같은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처녀로서 7년이 지난후 결혼하여 그 남편과 같이 살았다는것입니다. 그는 지금 84 세 입니다.

과부 된지 팔십 사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2:37).

경건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한가지는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 두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2:38-42).

아마 그가 처음으로 갈수 있는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열두살이 되어 그의 바-밧수바 (bar mitzvah – 유대인들 의 12 세 생일 축하) 행사를 할 시간을 갖게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2:43a).

그들은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경건한 부부였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2:43b).

수 백명씩 여행을 같이 합니다. 통상 여자들은 느리기 때문에 먼저 떠나고 남자들은 늦게 출발합니다. 언제나 저녁때까지는 그들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저녁에 캠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온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 밤에 캠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따라가서 “예수는 어디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친척들에게 그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줄로 알았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2:44-45).

이제 여기에 12살 먹은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에 “오, 아빠와 엄마가 가고 없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2:46a).

그들이 되돌아가 보았으나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찾았을때에 그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2:46-48).

주의: “네 아버지와 내가” 는 요셉을 가리키며 그는 재빨리 그의 어머니의 말을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2:49).

이 시점에서 그는 요셉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가 존재하는 목적을 표현한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가 그걸 마땅히 해야하는건 알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할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오, 해야되는건 알아, 정말 해야돼.”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반드시 해야돼” 라고 말할때 들으십시오. 이제 당신이 실생활의 중심에 가까워 지고 있기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할일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에 관여 해야한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50-52).

첫 두장에서 배경을 알았고 3 장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라고 배우는 기회를 가질때 하나님께서 축복 하시고 말씀의 지식과 이해가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 장을 펴봅시다.

누가가 3 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침례요한의 사역을 시작한 날자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언제 그의 사역을 시작했었는지를 말해주는 여섯개 이상의 역사적 참고가 되는 시점을 사용합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열 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3:1).

“분봉왕”이란 말은 사분의 일의 통치자 라는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을때 그 지역의 통치를 남겨놓았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사 등분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주어 통치하게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자였고 빌립은 이두래 의 분봉왕 이었으며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이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3:1-2).

이것들이 역사적 시점으로 참고가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디베료 가이사가 주후 13-14 년에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린지 15 년이 되었다면 그것은 주후 29 년으로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해 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여기에 두 대제사장들의 이름인 안나스 와 가야바 를 적어놓은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한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AD 13-14 년에 대제사장이었으나 로마 정부에 의해 교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로마 정부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다른 세 사람을 대 제사장으로 임명 했던것입니다. 가야바는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고 반면에 안나스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 였고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로마의 정치가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두 대제사장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한사람은 로마 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했을때 그를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력 있는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형식적인 대제사장 이었고 실권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실제로 안나스의 사위 였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은 헤롯 아그립바 였으며 잠시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2).

요한에 대하여는 벌써 소개했습니다. 그는 늙은 부모에게서 기적적으로 탄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메시아의 앞서 갈자가 될 아이의 탄생에 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 AD 29 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3:3-4).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때 항상 시종드는 하인들을 왕보다 먼저 앞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왕이 어느 어느날 방문하실테니 그지역을 깨끗하게 청소 하고 왕이 오실 길도 수축하시요” 라고 알리게 합니다. 왕이 오실때 모든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주변이 깨끗하며 길도 잘 수축되어 구멍도 없고 모두가 평안한줄로 알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수종드는자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왕이 오시니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3:5).

왕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3:6).

이것은 요한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 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준비될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이 개심하려고 당신의 교회로 온다는 것을 알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목소리 같이 들리죠? “당신들은 죄인들이야. 잘 알잖아” 로마인은 우리의 요한 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8).

그것이 회개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회개를 보이세요. 단순히 침례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만이 아니라 당신의 행실에서 변화된 삶을 볼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정적인 순간 흥분하여 그들 자신의 죄와 과거를 청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달라 질꺼야, 나는 행동도 잘할꺼야. 내가 약속 하마. 하나님 앞에서 맹서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꺼야” 라고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요한은 “그 열매를 보여라. 네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라’ 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자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들 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지극히 중요한것 이었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그들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도전하셨을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의존 하면서 그 언약을 인식하고 “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고 나는 그 언약 아래 있으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참된 회개, 변화된 생활과 변화된 행동을 요구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3:9).

침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 열매를 보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3:9-10).

질문들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보면, 그가 사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하고 (3:11-13).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가로 징수한 세금이 그들의 임금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데 특정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본래 세금에다 자신의 월급을 덧붙여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리를 지극히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세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은 항상 괴롭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고 말합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3:14-17).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야 인가?” 하고 생각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야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이가 그의 뒤에 오시며 그가 메시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것이라고 대답 했습니다.

성령과 불의 침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불의 침례라고 규정짓는 열광적인것을 많이 봅니다. 만일 한 설교자가 그의 설교에서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낼때 그의 멧세지에 그의 폐활량을 최고로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빠르게 말하며 공기를 들이 마시고 손을 흔들어 대면서 손가락질을 할뿐만 아니라 몸짓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아, 진실로 그는 불을 받았다” 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아마 인간의 불일수는 있습니다만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나쁜 형태의 연출을 봅니다. 그것들은 난폭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오, 저들이 정말 불을 받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부터 온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항상 깨끗케 하며 정결케 하는 불 입니다. 소리를 지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목적은 찌꺼기를 제거 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성령의 불이 당신의 마음에서 탈때 감격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아픔의 비명을 지를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볼때 그가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할때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작 마당 입니다.

키는 크고 넓적한 삽으로서 그것으로 밀을 떠서 공중에 던집니다. 그러면 바람에 쭈정이는 날라가고 밀은 타작 마당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밀을 타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을 기다렸다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 갑니다. 키라고 하는 크고 넓적한 삽으로 밀을 퍼서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쭈정이는 바람에 날라가고 밀은 마당에 떨어 집니다. 밀 앞에서 겨가 분리될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난후 그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청소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실로라는 곡창에 넣지만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는 시편 1 장을 던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복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것은 정화하는 모습이며 밀에서 겨를 분리시키는것입니다. 순금에서 찌꺼기를 분리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과 불의 침례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었는지를 살펴 보는것이 가장 합당 합니다.

또 기타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3:18-20).

헤롯 안티푸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의 하나이며 그의 동생 빌립은 북부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으며 그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부인이 많았으므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중의 하나에게 헤로디아 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있던 헤롯이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헤롯 안티푸스가 로마에 갔고 헤로디아를 결혼 하자고 유혹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헤롯의 형제는 버려두고 그와 결혼하여 갈리리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가 한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남편인 의붓삼촌을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푸스의 의붓 제수가 되며 또한 의붓조카였으나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의 아내가 조카 이며 제수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담대히 그의 비행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지도자에 반대하는 말을 한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의 성격대로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당신이 행한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3:21),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 보다 예수의 인간적인면을 더 많이 보여 줍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복음서 보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 많이 보여 줍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의 인성을 지적합니다. 누가가 예수의 인성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므로 또한 예수가 기도하고 있었던곳도 조심스럽게 참고로 지적합니다. 어떤일들이 일어났을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여러가지 경우를 들어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벌써 결정된 것들 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 보다 더 예리한 시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이 처럼 그는 예수의 본성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 하기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누가복음 에서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때 주님은 기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 합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실때 그는 기도 하고 있었으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22).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를 보게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하노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라고 알려진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들은 “연합 오순절과”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부지방에 많이 있고 특히 아리조나주에서는 “연합 오순절 교회” 또 어떤이들은 더 긴 이름인 “예수의 이름안에 있는 연합 순복음 교회”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사용 합니다. 그들의 교리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성령이시며 또한 성자이시라고 믿으며 오로지 한분 이신 예수, 즉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는것입니다. 특별히 이구절을 그들에게 말해주면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테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때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 하는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고 말씀 하셨을때 예수께서는 복화술 (주: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음성을 내어 음성이 밖에서 오는것 처럼 들리게 하는 화술) 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이 구절로 인해 그들 자신을 위한 함정을 팔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끔 한번씩 놀려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는 30 세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은 얼마동안 침례를 주었을 까요? 성경이 그것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3:23),

여기 있는 족보는 분명히 마리아의 족보이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요셉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서 내려와 다윗을 거치고 다윗에서 솔로몬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 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수로 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까지가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똑 같은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에는 솔로몬을 거쳐 내려 오기보다는 솔로몬의 형 나단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헬리의 사위인 요셉에 이릅니다.

왜 예수의 두 족보가 서로 다르니까? 만일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요셉의 족보를 기록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동정녀 마리아 에게 탄생 하셨다면 마리아의 족보는 이해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족보는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한 귀중한 증명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메시아를 세상에 오시게 하는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세우실때나 율법을 주실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언약에 그들의 민족을 타 민족으로 부터 잘 보전 하며 다른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라는 내용을 포함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터 다윗을 거쳐 메시아에 이르는 혈통을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자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 인 것과 다윗의 후손인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항상 왕위에 앉는자가 영영히 끊어 지지 아니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가리켜 말씀 하신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출처를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빌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을때 “우리들은 레위족속인고로 제사장으로 섬기겠노라”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다, 너희들의 족보를 보여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족보를 내어 놓을수 없었습니다. 그 족보들을 바빌론에서 잃어 버린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족속임을 증명하는 족보를 내어 놓을수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허용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족보를 가져 올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들이 레위 족속임을 증명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족보는 어느 가정에서 또 어떤 혈통에서 왔는지를 증명 하기 위한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장 기권해야 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 이니라” 고 말하면서 오는 어떤이 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능력이 없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거슬러 올라가면서 증거할만한 족보 기록이 없습니다.

왜 요셉의 족보가 필요 합니까? 차이점을 목격하셨다면 요셉의 족보에는 왕의 계승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 진것입니다. 왕의 혈통이 솔로몬에서 예수까지 내려왔으며 예수는 요셉의 양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 할수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거쳐 마리아의 아들로써 요셉의 입양된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거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합법적인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양 아들로써 왕권을 물려 받은것입니다.

예레미야 22 장에 기록된것처럼 유다 왕들의 말기에 여고니야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저주 하셨고 하나님이 여고니야에게 내리신 이 저주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레미야 22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고니야에서 부터 왕권은 끊어 졌고 그의 자손들중에 아무도 왕위에 앉지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후손이 왕위에 앉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족보를 읽으면 요셉이 여고니야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위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여고니야의 후손으로 요셉의 실제 아들이 아니라 양자 이었지만 다윗과 나단을 거친 마리아의 아들로써 다윗 가문의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장자로서 왕위를 취하여 왕위에 앉을 수 있었지만 그는 여고니야의 씨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족보를 넣어서 예수께서 요셉의 입양된 양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보좌에 앉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으나 우리가 이 이름들을 일일이 살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족보가 인류의 첫조상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족속에 관련 지었고 누가는 예수를 온 세상과 관련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와 친척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 혹은 이방인이라 밝힐 수는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아담으로 부터 왔으며 우리 모두가 그와 친척이 되며 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Chapter 4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1),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 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으로 부터 돌아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1),

유대 광야는 여리고 북쪽 15 마일 지점에서 부터 남쪽으로 사해 까지 뻗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언덕이라는 뒷편 까지 이르며 그곳은 대단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유대광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량은 일년에 1 인치 정도입니다.

파이크 (Pike) 주교가 역사적인 예수를 찾다가 죽은 곳도 이곳입니다. 그곳은 대단한 황무지이고 사람이 없는 적적한 곳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온도가 빈번히 화씨로 120 내지 125 도 까지 올라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4:2).

장기간 동안 금식해 본사람들은 알겠지만 5 일후에는 강한 식욕이 떠나고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삼일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말할수 있는것은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눈에 핏자국이 썬대이 (초코렛으로 만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종류) 와 딸기 케익이 눈에 아롱거리기 시작 합니다. 그러나 5 일만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기아로 인해 죽을때 까지 배고프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 40 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뎌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후에 배고픔이 한번 오면 음식을 먹는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금식을 중지 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40 일 금식후에 큰 만찬을 한다면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감당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14 일간 금식 했다면 14 일동안에 걸쳐 회복해야 합니다. 반컵의 주스와 반컵의 물로 섞어서 천천히 몸에 음식과 영양소를 다시 몸에 받아 들이면서 금식을 중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갑자기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을 해칩니다. 그로 인해 죽을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감당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금식을 갑작스럽게 중단함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가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때문입니다.

예수께서 40 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 하신고로 이제 배가 고했습니다. 그것은 주려죽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3),

헬라이어에서는 '만일' 이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가정법 으로 쓰여 졌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하는것 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므로" 라는 의미 입니다.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질문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고로" 라고 하는것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3).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 하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유혹은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치부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악용하는 유혹에 빠져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복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며 물질이 더 좋은것이며 가장 중요한것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제안을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4:4),

물질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니라 (4:4).

예수께서는 끝까지 영적인 삶이 물질적 삶보다 우수하다고 강조 하시고 또 선언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장이며 영적생활이 물질 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수한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오늘날의 세상이 물질적 삶이 더 우수하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인본주의가 서로 싸우는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 외친 메시지, 즉 영적인 삶이 가장 귀중한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졌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물질적 삶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더욱 심해지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선언입니다. 영적인 삶의 우수성이 물질의 영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 입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영적인것 보다 육체적인것의 우수성을 주장합니다. 영적인것을 취하여 물질적인것을 생산하라. 몹시 배 고프데니, 영적인 권능을 사용하여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그랬을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삶의 우수성이 물질의 영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 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4:5).

예수앞에 천하만국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가이사 가 로마의 왕좌에 앉아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존귀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인들이 엎드리며 맛있는 진미의 음식들을 바치는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앞에 많은 청중들이 있는것도 보았고 그가 보좌에서 사용하는 권력도 보았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4:6).

언제 그것을 사탄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때 사탄에게 넘어 갔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한 권리를 사탄에게 잃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 6:16). 그러나 사탄의 제안에 굴복했고 사탄의 제안을 순종 할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구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권력과 지배권과 제안에 따를때 지구의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구를 만드셨을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 하시고 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로 주셨던것입니다. 그때의 지구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도 오염되지 않은곳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탄에게 굴복하여 세상이 사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어 인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참 아름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는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도 예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의해서 공부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기를 위한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지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리기려는것입니다. 인간들이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역으로 돌리기시기를 원하시며 이 목적으로 이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구속하신것을 볼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 대적함으로 일어난 결과를 우리 사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것은 전적으로 잘못된것입니다. 그 재난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 하시는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의 전적인 반역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도 이해도 할수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스리며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보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가졌으므로 누구에게든지 줄수 있다” 라고 말했을때 예수께서는 반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실상 예수께서는 그것이 사실인것도 아셨고 그가 오신것은 그것을 사탄에게서부터 빼앗기 위한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값을 치루셔서 세상을 구속 하시기 위한것 입니다. 구속의 값은 피를 흘리는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구속 하시려고 십자가에 가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 지는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사탄이 제안 하는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벗어날수 있다는것 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규정하신 그길을 가야할 필요가 없다. 나랑 흥정하자. 십자가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네게 줄게. 단지 한가지 걸림돌, 사탄에게 절하는것 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것이며 모든것이 사탄의 권력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절함으로 인하여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권위에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마. 네가 보좌에 앉게 되고 또 다스릴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며 내게 절해야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 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6).

계시록 13 장에 있는 사실, 즉 짐승이 나오는 장면에서 사탄이 죄인에게 그의 권능과 보좌를 주리라 는것 을 보면 세상이 아직까지 사탄의 지배아래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것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사탄은 아직까지 그가 기뻐하는자들에게 통치하는 권력을 나눠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자에게 줄수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허용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놀라운 권능을 가졌으며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 줄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구의 부동산 권리증서를 가지고 오실것이며 천사가 이렇게 선언 할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계 11:15).

그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적 생각에는 그 일이 멀지않아 일어 나리라고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타락할만큼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한번 인류의 역사를 반드시 중재하셔야 할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볼때 이전에도 중재하신적이 있습니다. 바벨탑에도 중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여 자기들이 원하는것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그런 형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즉 이단종파의 능력을 통하여 권력에 놀라운 진보가 있을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할 그런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극히 강한 유혹을 예수앞에 놓았습니다. 지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죽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네가 죽지 않아도 돼. 내가 그걸 네게 줄게. 그냥 내게 엎드려 경배 하기만 하면돼” 라고 말합니다.

세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거기서 뛰어내리기를 제안 했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도 인용 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는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몇가지 중요한점을 빼어 버리는것엔 도사입니다. 기록 되었으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4:11).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높은 성전의 꼭대기 에서 뛰어 내림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뛰어내리라는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과연 네가 메시아인것을 진정 알리라. 그리고 그들이 서서 너의 놀라움을 경외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4:12).

한 이주전에 마가복음을 끝낼때 믿는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기록된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께서 말씀 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 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다른곳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에 적용 됩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고의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하지 말아야합니다.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인것을 증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군중들에게 장엄한 장면을 만든다든가 천사들이 저희의 손으로 그를 받들어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구절을 취하여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찢짜 신자임을 보여 주기위하여 독약을 마시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선교사 몇분을 압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말라리아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매우 갈증이 심해 무엇인가를 마셔야 했을때 유독한 늪에 있는물을 마셨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밖에 나가서 고의로 위기를 만드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 하는것 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4:13).

예수께서 돌아 오셨으나 마귀는 잠시 그를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4:14).

예수께서 4 장에서 부터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성령충만하여 돌아옵니다. 예수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그에게 권능을 주시는것 이었 습니다. 우리도 신도로서 마찬가지로 성령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 장 에서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 장 8 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도로서 예수께서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셨던 처럼 우리도 똑 같은 성령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성령 충만케 될수 있고 성령의 인도 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4:14-15).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특별히 이시기에 갈릴리 지역에 총독이 있었으며 인구가 10,000 명이 넘는 204 개의 도시가 그의 관할아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그곳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으로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인구는 3 백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3 백만명이 갈릴리 지방에 살았다 는 것은 물론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전체의 총 인구는 약 6 백만 이며 대부분은 텔-아비브 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갈릴리 지방의 인구는 약 50 만 이하 일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께서 사시던 당시에는 그곳에 3 백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세상에 내가 즐겨 살수있는곳이 있다면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연안일것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그곳을 즐깁니다. 그곳엔 더운 여름철도 있지만 호수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수상 스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실상 갈릴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 톤의 과일을 기르는것이 한 아이를 기르는것보다 쉽다고. 그 지역에서는 과일을 많이 생산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자랐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 갔습니다. 그는 30 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것이 그의 습관 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4:16).

이것은 그가 개발한 습관 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셧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4:17).

물론 모든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두루마리를 회당안에 있는 보관소에 간직 하며 그것을 꺼내가지고 와서 펴니다. 그들이 두루마리의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두루마리에서 특정한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회당에서 경배할때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매년 이 특정한 날에는 이런 특별한 성경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4:17-20),

사역자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는 중 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두루마리를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는 한 동료 일뿐입니다.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4:20).

그가 앉았을 때 그것은 그가 가르치기 시작하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가리칠 때 그는 항상 앉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엔 일어 섭니다. 그러나 읽고 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은 그가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61 장에 있는 이 특별한 구절을 찾았고 이사야서 61 장의 메시야에 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것이 메시야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 장에 돌아가 보면 그는 이사야서 61 장의 본문의 중간에서 중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야의 사역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야가 두 번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 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가 재림 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과 그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의 재림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읽은 부분은 그의 초림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그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가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라고 말하면서 책을 덮었다는 것은 지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재미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실제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개 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길을 곧게 하라.” 그들에게 부담은 주었으나 복음은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이 영광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까지 온 것입니다.

이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한참동안 갇혀 있은 후 그는 예수에 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헤롯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바꾸어 말하자면 “왜 그렇게 오래동안 지체 하십니까? 나는 이 감옥이 지긋지긋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많은 장님들과 불구자와 가난한자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는 저희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눈도 회복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이 이다’ 라고 직접 대답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자신이 증거하는 것 보다 “나의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메시야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것을 믿지 않는도다. 그렇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말로 인해 믿지 말고 내가 메시아의 일을 보여준것으로 인해 믿으라. 내가 행한것은 성경에 기록된대로 메시아가 할일, 즉 눈먼자가 보게되고 저는자가 걸으며 가난한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것을 보였노라. “ 이 모든일들이 증거요 이일들이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 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책을 덮어 그 말은자 에게 준다음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 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4:21).

그것은 전광 석화 같은 순간 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을 읽고난후 책을 덮었을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될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다음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 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하실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이여, 좋은 소식이 있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것을 깨닫는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상상 해 보십시오. “와, 그것이 바로 이거야. 그분이 바로 그로라.” 예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이 여기서 시작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 (4:22).

그들이 예수를 아는 고로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4:23).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감격스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행하십시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 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4:24-26).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은 철저히 국가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뿔감을 위하여 창조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가르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국가주의 의식을 가졌으며 그 생각은 심지어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가지 지적하기 시작 했을때 그들은 대단히 화를 내었습니다.

3 년 반의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흉년중에도 엘리야의 도움으로 연명하던 한 과부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렘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밖에 사는 과부로서 엘리야가 방문한 과부는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4:27).

오,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피를 끊게 하기에 충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돌보시며 다른 사람들은 상관 안하신다” 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4:21).

그들이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가서 밀쳐 내리 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4:30).

예수께서 실제로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4:31-32).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설교하려고 할때엔 “랍비 힐렐이 말씀 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부의 공무원 같아서 권위 있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떤것에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허가를 맞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 져야하며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당시에 누구든지 말할때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또는 “그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것을 들었노라. 너희가 이렇게 말한것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권위 있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것을 들어 보지 못했고 그가 권위 있게 말하는것에 놀랐습니다. 그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던 것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33-34).

귀신들도 그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 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4:35-36).

그 당시에 그들은 귀신을 쫓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지못할 의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가락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 내기 위하여 이러한 긴 의식을 행하며 하찮은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행사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고 귀신들에게 명하시매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랬을때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려,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4:37-38).

시몬은 결혼 했고 그의 장모도 있었습니다. 흥미 있는것은 사도들의 아내에 관한것은 전혀 언급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잠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잠잠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아내들에 관하여 성경이 잠잠한 것에서 우리는 아무런 추측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등 국민이었던가 등등의 추측은 완전히 잘못된것 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에 관해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성경이 잠잠할때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한 적이 몇번이며 성경의 잠잠한 부분에 대하여 책을 쓴적이 몇번입니까. 성경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잠잠 하기때문에 사람들이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것은 전부가 추리하는것이며 무엇이든지 그런 추측은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들어 아팠다는 사실 외에는 베드로가 확실히 결혼 했는지 알지못합니다. 이제 이것은 헬라어의 의학 용어 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따라서 그 여인의 상태를 진단한것을 헬라어의 의학용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 에게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음) 수종드니라 (4:39).

이것은 어머니가 통상 하는것처럼 먹을것을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좋은 어머니들이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는것을 말합니다.

해 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줄 앎이러라.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할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40-44).

인구가 10,000 명 이상되는 도시가 204 개나 거기에 있었으며 204 도시를 한바퀴 돌면서 갈릴리 일대를 거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5 장과 6 장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 하시며 아름다운 한주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압력을 덤으로 받고 복잡한 주차장에서 밀치고 받치고 정신을 잃게 되는 성탄 이라는 어려운 절기에 들어가는 이때 주님이 우리를 냉철하도록 지켜 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정신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세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로 동행하며 그의 사랑안에 거하여 어둔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Luke 5-6
Tape # C2530
By Chuck Smith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5 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인기가 점점 올라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밀치기 시작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들이 그를 둘러 싸기 때문에 여행 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5:1),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때 그것이 나에겐 항상 감격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것이 다른 어떤일보다 중요한것이 되어 그것을 들으려고 서로 밀어 댁니다. 그러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5:1).

그것은 디베랴 바다로 알려졌고 또한 갈릴리 바다 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말하면 우리의 생각엔 항상 많은 잔물의 집합이 눈에 선합니다만 게네사렛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하나의 호수에 불과 합니다. 그것은 잔물이 아니라 민물이고 마실수 있는물 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갈릴리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5:2-3).

예수께서는 그를 에워싼 군중들을 피하기 위하여 시몬의 배를 이용하였습니다.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뒤에 있는사람들을 볼수 없기때문에 밀리지 않고 가르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 지역에는 갈릴리로 내려오는 경사가 있기때문에 해안에서 조금만 띄우면 원형 극장 처럼 되어서 가르치기에도 도움이 되며 무리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5).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우려면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5:5).

시몬은 그의 명령에 공손한 태도로 일종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부입니다. 고기잡는법도 알고 언제 잡아야 하고 언제 잡지 말아야 하는것도 압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물고기는 호수의 더 깊은곳으로 옮겨 갑니다. 이 그물들은 깊은 물고기를 잡는것이 아니라 얇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들 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에 얇게 떠돌아 다니며 고기들이 배 근처를 돌아 다닐때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배를 중심으로 원형을 완전히 만들었을때 던졌던 그물을 끌어 올립니다. 그 그물은 깊은 물고기 잡는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시원 할때엔 얕은곳에서 물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저녁때가 고기 잡기에 좋은 시간 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 입니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돌연히 같은 지역에서 수고해 보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자신의 노력과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노력에서 나타나는 대조를 잘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짜낸 노력에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낭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고안해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재정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인간들이 세운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있는것을 확실히 봅니다.

우리와 같은 교단에서 만든 프로그램 꾸러미로 여러해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빠르고 편리하여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프로그램이 우리 대신 다 생각해서 처리해주는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할일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원들의 취임식만 하면 되는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년에 두사람만 임명하면 되었습니다. 봄에는 전도대회가 있는데 여름에 교인이 줄어들것을 방지 하기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든것이 다 준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각자가 한 페이지씩 맡아서 그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전화로 초대를 하는것입니다.

물론 전화해야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전화 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번호가 있는 고무풍선을 헬륨으로 채워 그것들이 어느곳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시의 상공에 띄웁니다. 그리고 번호들을 통에다 넣은 다음 제비를 뽑습니다. 헬륨에서 나온 번호가 제비를 뽑은 숫자와 맞으면 특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적힌 조그마한 쪽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숫자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을때 자신들의 숫자가 나와 특상이라도 받을까하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엔 물론 수송위원회도 구성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이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나가 그들을 픽업해서 교회로 데려옵니다. 이런일들이 계속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재주를 부립니다.

그렇게해서 이 특정한 교회는 “어마, 우리가 이 큰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네, 우리가 전적으로 그 프로그램 에 들어가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프로그램이 끝난지 육개월이 되어서 여러 목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지 육개월이 지났소. 당신네들이 평가할때 몇사람이나 교회의 영구적인 교인으로 추가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 85 세 되는 한노인이 있는데 그분을 픽업하기위해 25 마일을 가야합니다. 그는 듣지는 못하지만 보통때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사람들 주위에 있는걸 좋아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추가된 교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인을 늘리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수 천불씩 사용한 후의 결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봉사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봉사는 신이 납니다.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 하십니다.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반- 언쟁 조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장하신다면 하겠습니까) 하겠나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디다.

일이 잘 안되어 실망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으며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을때 즉시 “오, 그것도 해 봤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지시하에 시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지시하실때엔 차이가 납니다. 당신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당신의 봉사를 지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 하십시오.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5:6-7).

예수님의 명령을 단순히 순종함으로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성공이 왔습니다. 그 성공의 결과는 내게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때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정력과 노력을 다 쏟아 부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결과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잘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것도 있습니다. 그걸로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한 특권을 가집니다. 그것을 다른 여러곳에서도 실행할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 대한 세미나도 개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게하고 낚시에 먹이를 어떻게 놓는가를 배우게 하며 미끼를 더 매력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모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실때 당신의 성공 세미나를 개발하고 실제로 성취한것에 대하여 교만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무릎아래 엎드려 “주여, 나는 쓸모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와 같이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언제나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 사람은 교만해 질수가 없습니다. 주님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것은 항상 우리자신을 낮추게하는 경험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밋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5:8-11).

주님께서 저들이 종사했던 직업의 최대 수익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 그들에게 그 직업을 떠나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가득찬 고기로 말미암아 물에 잠기려는 작은 배들을 바닷가로 저어 나갔습니다. 모든 갈릴리 지방 어부들이 꿈꾸는 성공의 기점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 와 요한의 부르심에 대한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해변을 거닐때 그물을 끄는 어부들을 보시고 “오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고 하신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주님을 만났고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낯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불러 그들이 자기를 따르는 헌신을 마무리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5:12-13).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가지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한가지는 그들을 지시하여 많은 고기를 잡은것도 일종의 기적입니다. 불치병을 고친 기적도 있습니다. 옛적에는 문둥병이 질병중 가장 두려워 하고 싫어했던 질병중 하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그는 그 사회에서 배척받아 쫓겨 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과 접촉했다면 당신은 불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문둥병 환자를 만지 셧습니다.

다른 경우에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때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시는일로 어떤 규범에 억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들은 빈번히 병고치는것이 무슨 공식안에 들어 있는것처럼 그 공식을 찾아 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요 3:8).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방법이나 모형에 국한 시키지 않으십니다. 신학원에서 우리는 방법론의 과목을 택한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특정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역사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각개인 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방법과 이루어져야 할일을 조절하십니다. 나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뿐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그사람에게 손을 대시는것을 봅니다. 흥미있는 질문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 입니다. 우리가 기도할때 흔히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말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뜻이 하나님의 뜻을 능가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제가 원하는것이므로 당신의 뜻은 접어 두셔야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절대로 내뜻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목적, 즉 기도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주께서 그의 요청을 하신후에 그의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말씀 하신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것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을 하나님앞에 잔뜩 쌓아 놓은후에 이렇게 말하는것이 항상 지혜로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것을 행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때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만지셨으며 즉시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열 문둥병자의 경우에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디다. 그들이 갈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경우 그는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여러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나야 할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내겐 역사 하시지 않는구먼요” 하고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일을 여러분에게 관련을 지을때 여러분은 나의 경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추구하게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일을 하실때 어떤 틀에 맞추어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완전히 다른방법으로 역사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보인 반응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의 반응을 나타낼수도 있을것입니다.

간증 집회가 좋은점도 있지만 또 간증 집회에 항상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유사한것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간증집회의 강조점은 언제나 경험적이며 “이것이 내가 경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 내겐 그렇게 역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가지방법으로 다르게 역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을 따라 본을 받지못하게 하시려는것입니다.

레위기 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놀라운 한가지는 그 규례에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때 그가 사회에 환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할수 있는방법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일하실수 있는 공백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진실로 좋아합니다. 이것은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족에게로 돌아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불치병 입니다. 문둥병은 오늘날까지도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헨선병(Hanson's disease) 이라는 상태에서 머물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할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치병입니다. 그것이 그당시에 불치병인데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 하실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더 높은 법이 자연법을 초과하여 효과를 발휘하도록 여백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물론 제사장은 그 사람을 검사해서 흰 반점이 없는지 살펴보며 문둥병환처가 있었던곳에 새살이 나서 전체가 분홍색 인지를 살펴 봅니다. 그 사람을 칠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 그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검사할것이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두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비둘기 한마리는 죽여 피를 물과 함께 대야에 붓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비둘기는 이 대야에 있는 핏물에 잠겼다자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이 두번째 비둘기가 날아갈때 핏물이 날개에서 떨어지게되며 이것은 질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그 사람이 사회에 완전히 복귀되는것을 상징 합니다. 그 문둥병환자가 비둘기가 날아갈때 그가 사회에 완전히 복귀되리라는것을 깨달았을때 그가 느낀 감정을 상상할수 있겠습니까? 그는 싫어하고 고칠수 없는 질병때문에 소망없이 쫓겨났다는것을 늘 알고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례에 따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기적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에워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실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병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16 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5:16).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적했던것 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누가가 특별히 지적하는것입니다. 인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것이기에 때문에 누가는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을 다른 어떤복음에서 보다 더 많이 언급합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주 예수의 기도생활에 약간의 통찰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내가 할수 있는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셨다면 우리가 기도없이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기도를 삶의 절실한

부분으로 느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주 필요한 것이요 우리 삶에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하늘나라에서 궁극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것에 대하여 늘 토론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재난과 모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그들이 지키면서 관찰할 때 그들은 우리를 도우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시할 때 우리는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넘어집니다. 내가 믿기에 천사들은 분명히 “저 바보가 언제 부를려는가? 그가 도움을 청할때까지 얼마나 더 계속할 작정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알았다라면” 이라고 탄식 할 것 입니다. 약하게 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신비로움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5:17).

이제 예수께서 그를 적대시하는 무리들인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들었으므로 예루살렘에서 부터 갈릴리까지 먼길을 왔습니다. 그들의 온 목적은 실제로 그를 받아 드리기 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사이에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안위한 위치에서 굳어져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에게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올라와서 주의하여 그의 말을 들어본후 시험하여 그에게 반박하고 잘못을 지적하여 보여주고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일 것이라는 생각을 일축 시키려고 그곳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5:18-19).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안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모였으며 무리들이 둘러 있는데 갑자기 지붕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뜯어낸후에 한 사람을 노끈으로 달아내려 예수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고 그들은 그 친구를 도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를 침구에 운반해 왔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중단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예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5:20),

이 내려진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변에 믿는 친구들로 휩싸여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20).

지붕위에 있는 이 친구들을 상상해보세요. “아니요, 주님, 우리가 원하는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걷는것입니다.”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 하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때 그들이 한 소경을 보고 “주님, 누구의 죄로인해 저가 장님으로 태어 났습니까?” 라고 물은 것을 기억 하십니까? 그들은 부모의 죄까지 믿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원인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 사람은...” 그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때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리라.” 그리고 난다음에 그사람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저가 왜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를 그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저는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경으로 태어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셔야 하므로 그가 그사람을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로 인한것이 아니라는것 외에는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경된것이 그들의 죄가 원인이 아님을 확신 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빈번히 병을 죄와 관련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분리시킬수는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때 “당신이 나쁜짓을 한것이 틀림없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슬픈일 입니다.

우리는 수년전에 특산이란 곳에서 목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안에 있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저녁에 무슨 죄를 저질고 있었든간에 그것을 고백 하는것을 돕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한달이 넘도록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이 직접 죄와 관련이 있다는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분리 되지않았습니다. 만일 질병이 죄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오늘저녁에 여기에 올만한 기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 당신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잔인합니다.

나는 죠니 에릭슨과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상태에 관한 가장 어려운일 중 하나는 그녀를 치유할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녀에게 안수하고 나서 “자 이제 일어 서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당신이 넉넉한 믿음을 가지기만 했다면 당신의 휠-체어가 필요 없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건 야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것은 그녀에게 고통만 더 할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죄책감을 가집니다.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거라든가 아니면 네 상태를 변화시킬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몇 사람의 위대한 성인들은 대단히 심한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질병은 그들의 깊은 인격을 이루게 했고 그들의 행함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 부터 먼저 처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체의 고침을 받는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옥에 가는것보다 천국에 가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것을 먼저 돌아 보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그들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들을 격노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미끼를 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기대 하셨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5:21)*

그들이 가정한것은 옳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 하실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정을 그들에게 실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놓으신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참람한 말을 한다고 생각한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네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심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었던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 51:4). 이러므로,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시고자 하셨고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멧을 거두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5:22-23).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기가 쉬울것입니다. 만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 볼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할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죄가 진실로 용서 받았다는걸 무엇으로 증명 할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참으로 권위가 있는지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증명할수 없습니다. 그 말의 권위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얇은뱃이 에게 “일어나 걸으라” 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아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5:24-26).

예수께서 저들에게 그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히 당신이 할수있소?” 라고 반응하도록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어느지역에 얼마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세금을 측정한후 그것을 세리에게 경매에 부칩니다. 그러면 그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할당한 세금만 바치면 됩니다. 할당된 세금을 초월하여 거두었으면 남는것은 세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할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여러가지로 세금을 부과 합니다. 실상은 로마정권 아래 생존하기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곡물이나 과일에 10% 기름이나 포도주에 20% 의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나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우리 정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읽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정이 우리의 사정보다 더 심했던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살인자나 강도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나 강도와 별로 다를바 없었고 그들은 확실히 도둑들이었습니다. 실상 정직한 세리를 찾아보기는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행하는것으로 잘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워진 한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직한 세리 였으므로 그를 칭찬하기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 추측에는 로마제국에서 단 한사람의 세리만이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기념비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로마정부를 위해 일하기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리들이 회당에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세리를 살인자와 도둑들과 같은 서열에 놓아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세리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좃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5:27-29).

그는 모든 친구 세리들을 초청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세리들을 초청하여 함께 모이게했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가지게 될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일은 그의 동료들을 찾아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것이며 참으로 흥미 있는것입니다. 그에게는 세리들이 유일한 동료들입니다. 교제도 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들이 함께 모일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왜 세리와 죄인들로 더불어 잡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가 있는 근처에왔을때 그는 세리에게 대이지 않으려고 그의 옷깃을 꼭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것은 세리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리에게 대였기때문에 부정하므로 집에 가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하루 동안 회당에 갈수 없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먹을때 같은 빵을 만지므로 그것은 더 나쁘다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졌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것은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밝히는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30-32).

예수께서는 그들이 있는곳에 가서서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든자들과 영적으로 병든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빈번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독된 병원처럼

만들기 시작한다는것입니다. 우리가 소독된 환경을 만들기때문에 죄인들이 와서 대단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소독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기때문입니다.

영국 만체스터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곳에서 갈보리채플과 연결되어 목회하는 제임스라는 좋은 친구 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선술집에서 사역합니다. 그는 한주일에 서너번 선술집을 저녁에 찾아 갑니다. 술집에서 술취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일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는 훌륭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가 술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목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본을 받아 그들을 만날수 있는곳에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5:33-35).

그 당시에는 부부가 결혼하게되면 두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결혼전에 한주일과 결혼후에 한주일의 도합 두 주일간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모이기전 한 주일동안에 그들은 거창한 잔치를 한다음 부부가 결혼하여 결혼이 완성 되었습니다. 그후에 그들은 한 주동안 집을 개방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주동안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이 되며 그들의 특별한 친구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한주간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고통스러울것입니다. 아마도 그 기간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일을 쉴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오히려 열심히 일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한 주동안 진짜 잔치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결혼 했습니다. 그당시의 삶이 그러했듯이, **그 후에 일하고 배신 당하는것이었습니다. ??????**

그 주간에 불러서 축하 잔치를 같이한 특별한 친구들은 모두 혼인집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혼인집의 자녀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잔치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 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떠난후에 그들이 금식하게 되리라. 그러나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동안에 금식할자가 없나니 신랑이 함께있는것을 즐거워하러 함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5:36).

그 당시에는 옷이 줄어들지않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형겹으로 헌옷을 기워서 처음 그옷을 빨면 미리 처리하지않은 새 형겹이 줄어들니다. 물론, 많이빨았는 옷은 줄어들는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옷을 새 형겹으로 기운다면 옷을 빨자마자 새 천은 줄어들게 되며 더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 옷의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말라 그렇게하면 더 잘찢어질뿐이라” 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5: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스가 생깁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당장 발효하게되며 가스가 생깁니다. 물론 낡은 가죽부대는 오래 되었기때문에 딱딱합니다. 가죽부대가 딱딱함으로 인해 늘어날 여백을 주지 못함으로 가스가 발생하여 가죽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않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아직 부드럽고 유연성이있는 새 부대에 넣는것 입니다. 새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 비록 가스가 생기지만 가스가 생김에 따라 늘어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말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게 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5:38-39).

예수께서는 그가 반대하는 낡은 종교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무라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무미건조하게된 종교제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있습니다. 낡은 옷에 새옷조각을 붙이는것같이, 혹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것처럼 옛제도를 개혁하려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개발하는것입니다.

낡은 전통에 익어있는 사람들은 새로운것이 나타날때 그들은 항상 당황하고 화를냅니다. 그들은 “오, 옛것이 더 좋아” 라고 말합니다. 이런것을 자주 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은 당장 거절당하는 일은 빈번합니다. 사람들이 옛전통에 빠져 있어서 새로운것이 나타나면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낡은 부대는 터집니다.

칙 1:1 “융통성 있는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러지지 않을것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융통성이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에따라 점점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가려는경향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 “하나님, 그런면에서 늙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일에 나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볼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새로운일을 시작하시기를 몇번이나 원하셨으며 조직된 제도에서 벗어 나기를 몇번이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로운 부대를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낡은 제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빈번히 그들의눈으로 보는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일을 받아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조를 따르지 않기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본에 맞출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새 포도주를 위해 새 부대를 개발하십니다.

Chapter 6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어 먹으니 (6:1)

이제 주께서 안식일에 한 두어가지 경우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사람들인가를 알았고 그들은 예수의 잘못을 찾아서 그가 하는일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다음 예수께서 세리들 과 함께 잡수시는것을 정죄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죄하는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자네들은 낡은 부대에 속했어. 그래서 자네들에게 새 포도주를 줄려고 하지않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새 체계를 만들려 하는게 아닐세.” 그리고 누가는 안식일에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닥쳤던 두어가지 경험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일후에 두번째안식일에 (6:1a)

날짜를 표현한방법이 흥미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첫번째 유월절 이후 두번째 유월절에 일어난일입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6:1b)

작은 밀알을 옥수수 알처럼 말을 하지만 밀알은 더 작습니다. 그들은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6:1c).

오월말이면 밀알이 익어 마르게됩니다. 갈릴리 지방은 밀을 많이 생산하고 또 잘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어집니다. 겨울 밀이 잘자라며 이 밀이삭을 잘라 손에 비빈 다음 손을벌리고 혹 불면 겨는 다 날라가고 알맹이만 남게되며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걸 씹으면 껌이 되고 하루 종일 씹을수 도있고 삼킬수도 있으며 그것은 건강식입니다. 참으로 신선한 햇곡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절기쯤 이스라엘에 갈때 예수의 제자들이 한것처럼 밀밭을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후에 불어서 그것을 먹는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건강식이며 당신의 몸에 좋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것 입니다. 만일 배가 고프거든 밭에 가서 필요한 만큼 먹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낫을 가지고 이웃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필요한 만큼 싹껏 먹을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 손에 비비는것은 합법적인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수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며 짐도 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밀의 무게는 짐을 지고 가는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의 잘못을 책잡기 시작 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몇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6:2-4).

다윗은 사울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먹을것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여기 있는 진설병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진설병을 먹는것은 불법 이었습니다. 12 덩어리의 진설병은 12 지파를 상징 하는것으로 여호와 앞에 놓았던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12 지파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것이며 그것을 칠일간 두었다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 왔고 그는 시장했으며 그와 같이한 무리들도 시장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만한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때 다윗은 “좋습니다, 그러면 진설병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한후에 그는 진설병을 먹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은 합법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것은 법을 초과 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것,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을 지나갈때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윗이 한것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것은 법을 초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나는 안식일도 다스리느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으며)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6:5-6).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으며 오직 누가 만이 그것이 오른손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억 하십시오. 누가는 의사였음을. 그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문제의 자세한것에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의 오른손이 말랐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6:7-9)

만일 당신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것이 옳습니까? 언제 악을 행하는것이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생명을 멸하는것이 여태까지 합법적인때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저희는 분기 (기쁨이 아닌) 가 가득하여 (6"10-11a);

그들은 화가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6:11b).

예수께서 정말 그들을 화나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위치가 얼마나 우스꽝 스럽게 되었는지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너무 우스꽝 스러워 도저히 그 위치를 지킬수 없을때 할수 있는 유일한것은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는것입니다. 당신이 때로 맞았다면 싸우게 되어있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정신이 돌아 버린것이죠. 당신의 위치를 지켜야할 이유가 더 이상 없으므로 싸우는것입니다.

예수께서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을때 그는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것을 요구하신것을 주목 하십시오. 그 사람은 언쟁을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내손이 말랐기 때문에 뻗칠수 없습니다. 안 보이 십니까? 나는 이 손을 여태까지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과 언쟁하며 "선생님,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되는걸요"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것은 그가 불가능한것을 요구 하셨기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와 언쟁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께서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 하셨을때 그는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할수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할수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고 그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순종하기를 선택했을때 주께서는 당장 그에게 순종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서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불가능한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온전하게 될수 없습니다. 내 육신을 잘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강하라" 고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연약함속에 당당하면서 이 비참한 과정을 겪고 있는 제가 강해 질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꾸 합니다. 예수께서는 "승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승리를 원하는지 주님이 생각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는 않고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려 는 그 순간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주실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직 순종하려고 하기만하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6:12a),

누가는 다시 예수의 기도생활에 관해 통찰해봅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6:12b).

여기 기도실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남성들은 매일밤에 누가 함께 계시는줄 알죠? 주님 이십니다. 그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밤을 지새어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동무입니다. 그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이튿날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고 불리울 12 제자를 뽑기 위한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본이고 우리가 본 받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기도에 시간을 사용할때 그러한 결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있는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6:14-17).

이제 주께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남쪽의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북쪽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려라 (6:18-19).

흥미있는것은 물론 여기있는 이 선언은 의사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는것입니다. 능력이 예수로 부터 나갔다고 의사인 누가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흥미롭게하는것은 이 사건이 그가 밤을 지새며 기도하신 후에 일어 났으며 이러한 정도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나와 옷자락을 만졌습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6:20)

여기서부터 6 장의 끝까지는 축약된 산상수훈 입니다. 마태복음 5, 6, 7 장은 훨씬 더 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충분히 믿지 못할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여러가지 요점을 다른 곳에서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주장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6:20).

당신이 이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이땅에서 가난하지만 당신이 천국에 속했으니 축복을 받으신것입니다.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6:21-23).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그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욕하고 궁지에 몰릴때 그것을 기뻐하며 뛰었다는 사람을 나는 본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망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패배당하고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 이번주에 겪은 어려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거나 “내 상관은 정말 화가 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당신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찢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찢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6:23-28).

이제 예수께서 갑자기 여러가지의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나는 언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 합니까? 나로선 원수를 사랑할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싫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드려질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화나게 만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언쟁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명령들을 가지고 언쟁을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언쟁을 하는동안에는 언제나 내게 마른손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보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기 원합니다. 내가 보복을 시도할때 나는 위궤양으로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순종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할수없어요.” 만일 내가 자원하면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할일은 기꺼이 주님께 순종 하려는것입니다. 주님과 시비 하지말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할때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할수있는 역량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것입니다.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6:29-31).

많은 선생들이 이것을 부정형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대접받기를 원치않는것을 어떤사람에게도 행치말라.” 그것은 흔히 있는일 입니다.

할랄, 공자, 그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정형이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것 즉 당신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지말라.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할 좋은 법칙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부정형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치지않도록 그 사람을 치지 않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것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당신이 실수했을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히 이해하고 동정해 주기를 바랄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을때 당신도 그렇게 해주고 이해하고 동정해 주어야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대접 받기 원하는대로 그들을 대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부정형에서 긍정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금하는것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6:32-36).

다시 우리 스스로가 언쟁하고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쟁 하기보다는 차라리 순종하는것을 선택 합시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6:37-38).

주신 법을 들으세요. 주라: 그것은 원칙이요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연법 지키는것을 배웠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법칙도 배워야합니다. 이것은 영적법칙입니다. 그것은 잘 맞습니다. 당신이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것은 압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38).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되어주는 그대로 당신에게 되어 줄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이 주실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6:39-41).

예수께서 미소를 지우면서 이 말씀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장면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사람은 그의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 하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아주 훌륭한 일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사람들에 관해 말하는것이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합니다. 주님이 “너의 행실을 깨끗케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6:42-44).

나가서 선인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또는 짙레 (혹은 굴러 다니는 잡초) 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6:44).

모든것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6:45).

우리가 해야할 모든 일은 곁에 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안되어 그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듣는것은 열려있는 구정물 웅덩이 곁에 서 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것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난후에 예수께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6:46)

주님이란 명칭은 주인을 말하며 그것은 내가 종임을 암시합니다. 나는 종이며 그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 노예가 되는것이 무엇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소유할수 없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속물이 되는것입니다. 순종하는데 요구되는것은 시킨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묵묵히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미국사람들은 이것을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오 주님” 하고 부르기는 쉽습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것은 참으로 모순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순종에 대하여 고려해야할 여러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자가 되지말라” (약 1:22). 우리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이상적인것을 읽을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가 그와같이 변하라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는 그걸 할수 없어요. 오, 주님, 저는 그것을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반응은 “내가 명한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 라고 부르느냐? 내가 명한것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진실로 너의 주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자신을 점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때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경향이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것은 하고 하기 싫은것은 버립니다. “오, 이건 좋아. 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사람들 마다 해석을 달리 하는것 같애, 나의 해석은 달라.” 그러나 내가 주님 이란

호칭을 사용한다면 그의 계명에 주의 해야합니다. 적어도 기꺼이 순종해야합니다. 그 계명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순종 하는것을 택하십시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6:47-48).*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기초를 세우는것은 중요합니다. 아주 얇은 기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건물을 기초도 없이 세웁니다. 감정에 세우기도 하고 경험에 세우기도하고, 감격스러운 시절에 세우기도 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때 반석에 단단한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집은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질것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다 폭풍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문제들과 시련과 고난에서 면제되리라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디다. 모두에게 시험은 똑같이 옵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수 없는 어려운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현재의 모든 사정을 설명 하려고 노력합니다. 폭풍이 오며 폭풍이 맹렬히 두드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훌륭한 기초를 놓지 않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휩쓸려 갈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파고 예수 그리스도 께서 명령 하신것을 순종하는것 즉 행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겠는지를 주님과 시비하거나 핑계 대지말고 그 명령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으로 핑계대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그거 할수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기꺼이 순종 하려고 할 그순간에 순종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주실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 공부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돌아가 다시 사용할때 그것들이 화가 나고 우리를 감옥에 넣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여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 사람이 되며 원하시는것을 행할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그것을 포용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소서. 우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주님이 축복 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사랑과 성령과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이 그의 뜻과 계명을 행하며 나아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Luke 7-8
Tape # C2531
By Chuck Smith

누가복음 7 장을 펴세요. 이 시점에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생애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과 이적을 말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
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7:1-5).*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군데 백부장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항상 호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훌륭한 사람들 이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라에 살았던 고넬료를 기억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 하시기를 읊바에 그의 하인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와서 주님의 도를 좀더 완전히 배우도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그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부음을 받는 첫번째 사건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의 역사를 시작하실때 실제로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서 시작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번 언급했고 항상 우호적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도와 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는것은 내가 확신 하건데 그들이 신약성경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는 않지만 오늘날 까지도 가치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는날에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나는 유대인의 지역사회로부터 가치있는 사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그걸 전적으로 원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상을 줄때 미소 짓는걸보니 분명히 좋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이 칭호는 내 생각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주는것으로 이것이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인 백부장의 경우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 주었고 그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찾아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로마제국 에서 종들은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로마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주가 매년 그의 재산을 조사하여 생산적이고 유익이 되면 두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고 합니다. 가치가 없는것을 없애는 품목중에는 더 이상 일을 할수없는 노예도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예가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면 죽이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가진 재산의 일부이며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죽일찌라도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파괴한것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종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것이 정상적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인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는 그의 종을 몹시 사랑했고 그가 거의 죽어 가고 있을때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7:6-7).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께 하는 천거는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 이라는 것 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까이 오시는것을 발견했을때 그는 다른 친구를 보내어 말씀 드리기를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말을 다른 용어를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 오시는것은 예수님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 갔을때 그는 그렇게 한것에 대하여 사과 했습니다. 그는 읍바에 있는 친구를 몇명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것을 사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닫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그러나 그가 유대인에게 금지된것을 행하여 이방인의 집에 들어 갔으므로 그는 사과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께 “주께서 내집에 들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심지어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흥미로운것은 시돈 지역에서 한여인이 귀신들린 딸로 인해 예수께로 왔을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로도 대답하시지 않으신것을 기억 하실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그 여인에게 무얼좀 해보세요. 우리를 미치도록 귀찮게 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이스라엘을 위한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께 나아갈수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했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것은 더우기 감당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께서 꼭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오시는것을 제가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낮겠삽나이다. 저도 권위를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신분임을 이해하며)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7:8).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습니다. 저도 권위에 관해 잘 이해하며 권위에 굴복할뿐만 아니라 또한 저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가지신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으며 제 수하에 여러 사람이 있고 그들의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7:8-9).

유대인들중에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들에게선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지 못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매우 아팠던 (거의 죽었던)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이튿날 (7:1-11).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약 25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7:11-13).

이보다 더 가슴아픈 장면이 없을것입니다. 한 과부가 죽은 독자의 장례식에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디다. 그들은 시체를 바구니에 담아서 옮겨간 후에 정교하게 만든 석관에 넣습니다. 라틴어로 살코파구스 (Sarcophagus) 는 살을 먹는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사람들은 통상 시체를 살코파구스에 넣어 놓고 시체의 살이다 없어진후에 뼈를 매장합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는 아마도 광주리에 담겨져 매장지나 묘지나 살코파구스에 옮겨 질것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어머니는 슬픈 모습 의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지않고 애곡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헬라의의

동정한다는 말을 여기에서 사용한 불쌍히 여긴다(*compassion*)는 말보다 더 잘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번 예수에게 사용 되었던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느끼는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7:14-16).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 보셨다” 는 말은 일장에서 침례요한의 출생시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사가라의 입을 열었을때 그는 예언하기 시작할때 한 말과 같은것입니다. 일장에 있는 예언의 첫 몇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가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7:17).

유대지역은 남단까지 60-70 마일 됩니다. 진실로 죽었던 이 젊은이가 예수로 말마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과 온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7:17-20).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머리위로 내려오는것을 침례요한이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자를 네가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요한은 헤롯의 죄수로 당분간 지하 감옥에 감금 되어있습니다. 그는 야외의 사람이므로 갖혀있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말하자면 밀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가두어 두는것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침례요한도 예수의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당장 이룩하실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하지?” 그리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 입니까?” 라고 묻은 질문은 실제로 질문이 아니라, “빨리 일을 시작해서 진행시키십시오” 라는 일종의 충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의 왕국과 로마 제국을 뒤엎고 왕국을 당장에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요한은 다른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어떤경우가 되든지 예수의 반응이 아주 재미 있습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21-23).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행한일로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는 “내가 행한 그 일들이 나를 증거 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한 증거로서 그가 하신일을 지적 하셨습니다. “나의 행한일이 나를 증거하며 내게 대한 증거가 되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의 권세와 그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그가 행하신일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은 그의 신분과 그의 권세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에서 예언 되었던것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입니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릴까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나라 의 시기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앓은뱅이가 사슴과 같이 뛰며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병어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가난한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는 요한이 성경을 알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것을 말할때 요한이 그것을 알정도로 성경을 잘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것을 말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7:24)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요단강 지역에는 이러한 갈대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볼수 있는 정경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람에 나는 갈대를 보려고 요단강에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7:25a)

다시말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후에 예수께서 풍자적으로 말씀 하십니다.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7:25b).

그들은 왕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7:26-28).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중 제일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자 중에 침례 요한 보다 큰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발언입니다.

이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있는 여러분이 가진 특권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구약시대의 섭리에서의 가장높은 위치보다 더 우수 합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침례 요한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자가 구약의 섭리의 가장 높은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가졌으며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아무런 율법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세금을 받는 사람들) 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 (7:29).

그들은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니라 (7:29-30).

사람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했을때 예수께서 그 순간에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이 사건을 그가 후에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노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 하였느뇨?” 라고 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수 없노라” 라고 말했으며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사용 하셨습니다. 여기에 요한에 대한 의견이 갈라진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 부터 배척 당했지만 백성들은 널리 받아들였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7:31-35).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자신을 만족시킬수 없는
위치에 있다. 요한은 와서 금욕생활을 하며 살았을때 너희는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했고 나는
와서 세리들과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먹는다고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 (만찬)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칭찬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이 여인이
그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7:40-47).

시몬은 무례한 주인 이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호의 베푸는것을 대단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청할때 샌달을 문앞에 두면 당장 그집의 종이 세수대야에 물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식사하러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기기위해 종을
예비해둡니다. 물론 그 샌달은 튀인 것입니다. 그들이 흠길을 걸을때에 흠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집에 초청되어 그 집에 들어 갈때 (그집의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키스로 맞아들이는것이 풍습 이었습
니다. 통상 키스는 양쪽 볼에 합니다. 그것이 통례이고 실제로 오늘날 까지도 그렇게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풍습이며 그문화권에서는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것입니다.
또 한가지 통례적으로 행해진것은 기름을 바르는것 이었습니다.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은 그날 저녁에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기쁨의 상징이 었습 니다. 그후에 먼저 설탕없는 터키
커피와 같은 커피를 한잔 주는데 그것은 맛이 씁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 당신이 겪었던 모든

나쁜경험을 씻어 버린다는것입니다. 두번째 받는 컵은 대단히 단 맛입니다. 그것의 상징은 모든 쓰라린 경험은 씻어 버리고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대접을 제대로 하지못한 주인 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호의를 하나도 베풀지 않았 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도 씻어 주지 않았고 그의 머리에 기름도 발라 주지 않았습니 다. 그의 집에 들어 가실때 키스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의 발을 눈물로 씻었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계속해서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의 발에 기름을 발랐습니 다. 그리고 여기에 거만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의 시몬이 앉아있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으리라” 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몬은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을것입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므로 그 여인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으로 내게 손 대지 못하게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에게 손을 댈수 있는것은 참으로 기쁜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쁠지라도 손을 내 밀어 주님을 만질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가 만질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 빛진 사람이 있는 주인에 관한 예화를 들려 주셨습 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다른 한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사람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면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자 라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런후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다. 이 여자는 그의 죄가 많으나 용서 받았으므로 나를 더 사랑 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 하셨으며 분명히 믿기에 이 선언이 시몬으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었을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7:48).

이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기대 하셨습니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7:48-49).

오, 이것 참 재미 있네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관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한걸음 앞서게 했으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섭리에 들어갔습니 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7:50).

죄의 용서를 받는것은 항상 믿음의 결과입니다.

Chapter 8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8:1-2).

그 여인은 막달라 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마리아 라는 사람이 여러명이 있으며 그 여인은 막달 마리아 혹은 막달라인 마리아로 밝힙니다. 예수께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라는 이름은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고 어린 소년들에게 많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녀의 고향이 막달라 이기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것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해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8:2-3).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이 여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필요한것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 희생한 이 여인들에게 하늘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있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들은 바도 없고 그들에 관하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며 하늘나라에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는것도 재미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내 아내같이 그들의 머리와 눈의 색깔과 그들의 입은옷에 대하여 내가 기억할수있는것보다 더 자세 하게 이야기해 줄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여러가지 사실을 기록한것이 있으나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복음서에 없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것이고 그 내용을 잘 맞추어 줄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 하고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해안에서 에베소로 부터 온 장로들에게 말할때 그는 이것이 아마도 그들을 보는 마지막 기회일것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노라” 그는 그의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할때 너희들에게 보여 주었고 또한 가르쳤노라” 고 말했습니다.

강의로 배울수 있는것도 많지만 강의로 배울수 없는것도 많으며 어떤것은 관찰로 배워야 합니다. 한 개인의 생활은 그가 전파하는것을 보여 줍니다. 많은 경우에 한 개인이 전파하는것과 그의 생활이 화합하지 않으므로 그가 전파한것을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께서는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멧세지를 (삶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야했던 중심이 되는 메시지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나라와 하늘나라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이를 찾고 영적인 의미와 비밀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형제여, 하나님이 네게 하늘나라와 하나님나라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가?” 라고 말하는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마태는 통상 하늘나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나라 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관주를 찾아보면 두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했음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것이 세상에 올때에는 통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 산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 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 하실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어떤것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신 아버지에게 완전히 복종할때의 삶이 어떠한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깊은 영적 비밀을 끄집어 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것 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어린 아이라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간단해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 갈수 없습니다. 허무 맹랑한 신비나 영적인것으로 만드는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어려운 비밀이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 계시된것 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느끼고 이해할수 있는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 가려면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섬기고 싶어” 라고 말하는것 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삶의 왕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 하실것 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메시야가 오실때 그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건설하시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것임을 기억 하십시오. 심지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 14:16) 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때가 이 때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가 이 때입니까?”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이유는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방 신문에서 지난달에 성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통계를 보고, 이 어린 아이들이 당한 일들을 읽을때 내 가슴은 심히 아프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염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었던것입니다. “주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것이 얼마나 더 계속 되어야 합니까? 주여,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의 왕국을 빨리 건설하시는것이 나의 기도 입니다. 제 생각으론 인류가 이 상태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인류가 오래동안 살아 남지 못할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곧 건설하시는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자들을 바라볼때 그들이 살면서 자라가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일 부도덕한 사람이 내 손자들중 하나를 건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를 보석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이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기쁜 소식 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게 될것이며 하나님이다스리실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영원토록 갖게 될것입니다. 사막에도 장미처럼 만발하게 될것이며 시내가 흐르게 될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눈먼자는 눈이 열려 보게 될것이요, 저는자는 걷게 되어 사슴과 같이 뿔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예수께서 병든자들을 치료 하실적에 보여준 것들 입니다. 그가 무리들에게 먹을것을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고 살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 슥게 될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하였고 또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 하셨을때 천사들은 그사건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천사는 이러한 말을 사용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탄생 하셨으니 그가 오셨고 베들레헴에 계시느니라. 그는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싸인 아기를 보리라.”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그들은 하늘 나라의 조건들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가 말한대로 이 아기가 가져온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보기 시작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그의 사랑으로 채우실때 평강도 함께 채워 주십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8:4-8).

예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교회에 주신 메시지에서도 각교회 에게 반복 하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찌어다.”

하나님이 말씀 하시려는것을 우리가 들을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할 말씀을 들을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것 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제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을 귀도 주세요.”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전혀 배울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내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고 받아드리도록 하시는 성령을 떠나서는 영적인 진리를 전혀 배울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신령한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할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들을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8:9-11).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의 흙에 떨어지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네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보여 주십니다.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8:12).

당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니다. 그러나 당장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로챘습니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던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8:13a)

그들은 굉장한 감격스러운 경험을 합니니다.

뿌리가 없어 잠간 밌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완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8:13-14).

그들의 삶에서 오는 진짜 열매가 없습니니다. 그들이 듣고 받지만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한 결실이 없습니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8:15).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살피고 점점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흠에 떨어 졌습니니까? 네가지 종류로 구분된것: 가, 나, 다, 라 중 어느것에 여러분이 속한다고
느끼십니니까? 잠시동안 솔직하게 마음을 살피보는것도 좋으리라고 생각 합니니다. 내가 온전히
결실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 기운을 막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어떤 흠에 떨어졌는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내해야 결실 할수있습니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8:16-18).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것을 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니다. 내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십니니다.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입니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놓은 작은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인도 하시지 않을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 즉 하나님을 위한 거대한 일에 뛰어듭니다. 거기가 그들이 원하는 출발점 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학교를 원하지도 않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시간도, 유아부에서 도와줄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계급에 따라서 승진시킵니다. 작은일에서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작은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왕국의 일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후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8:19-21).*

앞에 나온 예화에서 행하는것을 강조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형제의 관계를 가졌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 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8:22-25).*

재미있는것은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있을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꾸짖어신
것입니다. 재미 있는건 아무리 보아도 배가 가라앉을것 같이 보인다는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22 절에 있는 말씀, “호수 저편으로 건너 가자” 라고 하셨을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의 말씀을 가졌을때 배가 갈아 앓을수 가 없습니다. “들을 귀
있는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해서 듣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에 빠질까
두려워했을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8:26).

가다라 도시는 최근 지난 2 년안에 발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다라 시가지 를
발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꾼들이 골란하이트로 들어가는 신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니다.
신도로를 만들때에 이 폐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을 중단하고
고고학자들을 불러 들였으며 그들은 오래된 가다라 시가지의 모습을 발견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수 백 야드 옮겼고 현재 가다라 시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미 있게도 가다라
시에서 약 2 마일 떨어진곳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으며 바다로 들어가는 가파른 벼랑이
있는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예수께서 배로 내리셨던곳으로 오늘날도 확인될수 있으며

그곳은 옛도시 가다라의 폐허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지역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오셨던 곳입니다.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8:27).

돌로된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8:28-31).

헬라어로 깊다는 말은 아부쑈 (abusso) 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신약의 다른 곳에는 무저갱으로 번역 되어 있습니다.

죽은 악인과 불순종한 천사들과 영들이 거하는 장소를 언급한 곳이 성경에 네 군데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이 감금되어 심판날 까지 기다리는 곳이 있으며 타타라스 (Tartaras) 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날 까지 타타라스의 쇠 고랑에 묶여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지에는 성경에서 하데스 (Hades) 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로는 음부 (Sheol)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흔히 음부라고 번역되었고 많은 경우에 지옥으로 번역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는 그것이 두 곳으로 갈라져 있었으며 누가복음 16 장에 이르게 되면 하데스 라고 알려진 지구의 중심인 이곳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 12:39-40).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는 지옥, 음부, 또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이 부분에 까지 내려 가셨습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 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 하실 때 포로 되어 있던 포로들을 인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 장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 하며” 라고 한 예언을 성취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부활 때에 포로된 자들을 인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승천 했습니다. 그러나 음부는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었으며 양쪽에서 왕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곧 누가복음 16 을 배울 것 입니다. 16 장에 갈 때 까지 참으시면 거기서 좀더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 지구의 표면에서 음부로 내려가는 갭도가 있습니다. 이 갭도를 성경에서 무저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번역 하면 바닥이 없는 갭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갭도는 악령들이 감금되어 거처하는 곳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 갭도 즉 무저갱 에서 올라 올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1,000 년 동안 사단이 묶여 있을때 그는 적그리스도가 나온 똑 같은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계시록에서 이 땅에 대 환난과 심판이 있을 동안 무저갱의 열쇠를 한 천사에게 줍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때 계시록에서 그림을 그리듯 설명한 이 짐승들이 나와서 지구 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 환난이 지속 되는 동안 이 귀신의 무리들이 놓여져서 사람들을 공격 합니다. 이러한 공상 영화를 만드는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 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올 이 짐승들에 관해 자세히 읽어보면 이 귀신들은 실제로 유령들이며 귀신 자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할것 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결과는 지구상의 인구의 1/3 이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들이 6 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만하는 능력을 가졌 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 말과 같은 짐승들에게 죽일수 있는 능력을 주기 시작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지구의 인구의 1/3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하시며 그들을 불못 (게헤나) 에 던져 넣습니다. 지옥 (게헤나) 는 밖에 있는 어두운곳 이라고 묘사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나 멀리까지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서 120 억광년 떨어진 은하계를 발견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 나가면 당신의 측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모르겠 습니다. 그러나 10 억년의 오차는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하여 가장 먼 은하계를 지나고 더 계속 하여 은하계의 빛이 반짝이지 않는곳 까지 계속해서 나가면 그 밖에 게헤나 (불못) 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게헤나가 흑암의 구멍 (Black hole) 일수도 있습니다. 모든것을 흡수하며 거기엔 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피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어두운 바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곳은 예수께서 이 땅에 돌아 오실때 적 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던져 넣을 곳 입니다. 1,000 년 후에 사단은 이 무저갱에서 다시 놓이게 됩니다. 왕국시대에 예수께서 1,000 년 동안 통치 하실때 사단과 귀신들이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 후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주목 하세요. 이번에 저들을 무저갱에 보내라고 명하지 마시기를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귀신들은 그들을 무저갱에 보내는 때가 닥아 오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더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 다. “우리를 괴롭게 마옵소서.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않으셨습니 다. 그러나 사단이 묶일때 그들도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놓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그의 통치에 대하여 반항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지옥(게헤나) 에 던져지며 그 후에 모든 사람이 대소간에 하나님의 백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기었으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음이라. 그러나 이것은 둘째 사망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악인에게 내릴 심판 입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하며 빛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을 바깥 어두운곳에 던져 넣습니다.

오래곤에 있는 동굴에서 불을 완전히 켜줍니다. 그때 안내원이 말하는대로 완전한 어둠을 경험 했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움직임이라도 느끼는가 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 그러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억누르는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을 켰을때 나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어둠이 금방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억에 선명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관해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며 벌레도 죽지 않느니라.” 계시록에서 지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네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것입니다. 흠으로 된 장막이 무너질때 우리는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을 갖게될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 즉 흠으로 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사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 영으로 있지 않고 손으로 지은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 할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장막에서 떠나는것을 선택할것입니다.

어느날 척 스미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거든 그 잘못된 보도를 믿지 마십시오. 척 스미스가 낡은 장막에서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 한 것입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것 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26).

그러나 그들은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8:32)

그것은 불법 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약이나 아편을 기르는것과 똑 같습니다. 이 귀신들은 군대처럼 많았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8:32-33).*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8:34-35).*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고랑에 채여있지도 않고 벌거벗지도 또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는 옷을 입고 옹은 정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8:35-37).

그것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구원보다 돼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에겐 돼지의 손실이 한 사람의 건강 보다 더 큰 관심거리 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호수 건너편, 즉 가버나움으로)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8:38-40).

호수 건너편에서는 “제발 이곳에서 떠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것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 두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8:41-46).

재미있는건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미는데 군중 중에 오직 한사람만 그를 만졌다는것입니다. 그 여인의 만지는것은 무리들이 밀면서 모여드는것과는 달랐습니다. 군중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사역하시는것을 보면 참 재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군중으로 함께모여 밀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실로 주님을 만지고 또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만짐을 받습니까?

여기에 두가지 대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건을 읽기 12년 전에 이 여인은 쇠약해지는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출혈이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로 치료를 받았으나 돈은 다 낭비 되었고 그 여인의

건강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인이 출혈하는것은 의례적인면에서 불결하고 회당이나 예배하는곳에 들어 갈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12년간 고생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출혈할때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할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여지도 없이 이 결과로 이 여인은 빈혈증도 있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절망과 캄캄한 가운데 살았는데 점점 더 악화 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12년전에 야이로의 집에는 딸이 탄생 했습니다. 말할 여지도 없이 작은 딸은 기쁨과 행복과 빛과 웃음과 아름다움을 집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12년 동안 이 작은 딸이 인격이 형성 되면서 자라는것과 이 귀염둥이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것 을 바라보며 기뻐 했습니다. 한 집에는 어두움과 실망의 12년 이었고 또 다른 한집에서는 웃음과 아름다움의 12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 두 경우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보다 사정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단 한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그를 만지는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빛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그 처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그의 귀여운 딸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모셔 오는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때, 소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긴박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멈추었을때, 내 짐작으로는 예수께서 사소한 일로 멈추시는것으로 인해 야이로는 약간 화가 났을것 입니다. “내게 손을댄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실때 우리들도 그와 함께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짐작으로 야이로가 “주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 딸이 죽어 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급한것을 이해 하지 못하시는군요. 왜 우리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졌다고 사소한 일로 멈추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일을 지속 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반대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자가 누구냐?’ 가 무슨 말씀 입니까?”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자가 있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간줄 내가 아노라” 고 대답 하셨습니다. 그랬을때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년이 야이로에게는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2년 전에 나는 사회와 가족에게서 배척 당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내가 만지는 그 순간 내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꼈고 또한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 하신후에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8:48).
 예수께서 말씀 하실때 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밋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 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느므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8:49-54).

헬라어로 이 단어는 *나의 어린 아이* 라는 뜻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12 세 소녀는 아름답음이 분명 합니다. 예쁘지 않은 12 세 소녀를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 입니까?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나의 어린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은 대단히 가까움을 나타내는 헬라 말입니다.

그 영이 (다시) 돌아와 (8:55),

보시다시피, 죽을 때 우리의 영은 몸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이 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몸속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영이지 몸이 아닙니다. 몸은 내가 당분간 거주하는 장막일 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며 이 지구상의 모든 조건에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내 영입니다. 어느날 내 영이 이 몸에서 이사를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소녀의 영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이 나갔을 때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영이 몸을 떠나 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 영이 그 소녀의 몸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8:55-56).

예수의 사역에 조금 눈을 뜨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의 기사를 쓴 누가는 의사이며 그는 예수를 사람들에게로 이끄는 여러가지 병고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헬라어의 의학 용어들을 사용했으며 예수께서 고치신 것을 여기에 묘사한 것과 같은 질병에 관한 기록들과 이 용어들이 헬라 고전 에서도 발견 됩니다.

이 다음 번에는 9 장과 10 장을 공부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축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Luke 9-10
Tape # C2532
By Chuck Smith

누가복음 9 장을 펴십시오.

여기에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자를 고치도록 12 제자들을 보내는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때와 70 인을 보냈던 때를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 장을 시작할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2 제자를 갈릴리 전역에 보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갈수있는 먼곳까지 여행하려면 그들이 빛처럼 여행해야 합니다. 그 뜻은 그들이 빨리 여행하게 될것을 말하며 이 기간에 가능한 먼곳 까지 나아가는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들을 함께 모은 다음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후 그는 그들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병든자를 고치도록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9:1-9).

그 소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날 재판을 받기위해 서실때 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낼때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전대나 성경이나 빵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무엇이든지 주는것을 먹으며 사람들로 부터 받으라고 분부 하셨습니다. “일꾼이 그의 삯을 받는것이 합당하다” 고 그가 말씀 하셨습니다.

빛처럼 여행한다는것은 그들이 해야할 여행을 빨리 할수 있고 멀리 여행 할수있는것을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하늘 나라를 전파 하는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일에 따르는 부수적인 임무는 병자를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병자를 낫게하는것이 아니고 또한 병을 고치는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것은 임무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전 인적으로 연관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필요한 것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제가 교회의 임무가 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의 임무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것, 그것이 임무 입니다. 우리는 닥아올 영광 스러운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필요를 무시 할수 없습니다. 지역 사회안에 있는 교회의 사회사업은 우리의 임무에 부수적인것이며 그것이 결코 교회의 주 임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메시지를 사회 사업과 바꾸어서 사회복음이 되었으며 그들은 어느 하나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고 두벌 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은 대단히 부요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dunamis* (두나미스) 즉 에너지 또는 활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그들의 사역에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한 말이 떠돌았으며 그 말이 헤롯에게 까지 전해 졌습니다. 그는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보기 원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9:10).

제자들이 그들의 여행에서 돌아 왔습니다. 그들이 피곤했으므로 호수 건너편에 가서 쉬면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으리라고 주께서 생각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자들의 여행이 어떠하였는지 보고도 받고 모든 것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 벳세이다 마을에서 가까운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9:11).

벳사이다는 가버나움에서 5 마일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곳이며 그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 가버나움을 떠나 그쪽을 향해 나아 갑니다. 시야가 밝기 때문에 배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 어느 곳에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벳사이다를 향해 가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북쪽 해안을 거쳐서 뛰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네들 어딜 가나?”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제자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 했으나 큰 무리가 그들을 영접 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하고도 오 천명이었습니다. 무리 전부가 약 15,000 명쯤 되리라고 추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멀리 가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려 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9:11)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왕국을 공부 했습니다. 결석한 분들은 테잎을 구입 하셔서 듣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중심 메시지 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될 왕국이 있다는 것이며 예수께서 이것을 선포 하셨습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의 나라 입니다.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의 나라 입니다. 그리고 각개인이 하나님을 그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을 굴복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전부 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하였고 그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 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9:11-12).

이 근처에는 맥도날드 햄버그 집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삽나이대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 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9:13-17).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공부할때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 했습니다. 내 생각엔 언급했던것보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의 북쪽 끝에 있는 벳세이다 에서 40 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는 방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벳세이다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신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다음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며 오늘날 그 지역을 벤야스 (Banyas) 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혈몬 산 기슭에 있으며 바위에서 거대한 샘물이 솟아나와 요단 강이 시작 되는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벤야스에 가서 혈몬산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벤야스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것을 보는것은 재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동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상단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그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갈릴리 주변의 군중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 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보다 예수의 기도 생활을 아주 주의깊게 지적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 났을때 예수께서 기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적한곳이 누가복음에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들을 보고 하는데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의 인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조점이 예수의 인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 중의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요하게 생각 하셨던것과 강요해야할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한 사람이신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을 조심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9:18);

재미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울 배반적인것 같이 들립니다. 혼자 (따로) 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주 개인적인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교제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때로는 군중속에서도 기도에서 따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것이 힘을 얻게 하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정에 쫓겨서 그는 따로 기도 했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18)

인기 있는 견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9:19).

이러한 이야기들을 헤롯이 들은것입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거나 그가 엘리야 였다고 들었거나 아니면 선지자중의 한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9:20-21).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의심 할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이시점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은 왕국을 건설하여 세계 열방을 넘어 뜨리는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죽음으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있는것도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다는 뜻을 완전히 이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 자신도 그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하여 알리지 말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명이 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권을세워 로마의 정권을 뒤집거나 세계를 굴복케 함으로써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그의 왕국은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 이루어 질것임도 그는 아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 할수도 없었고 이해 할려고도 하지않았으며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실때 까지 이해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파괴 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나가서 “오,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 라고 말한다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멸망 시킬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를 말하는것은 시기 상조 이며 부활후에 이 분이 메시아 였다는것을 선포 할수 있습니다. 이젠 그들이 그의 죽음에서 성취된 성경 말씀을 지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시기가 아니니라. 너희 자신들도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9:22),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 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오오,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통치 하실텐데 제가 주님의 오른 편에 앉게 됩니까? 저는 주님의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식을 전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9:22).

비록 그들이 이해 할수도 없고 감당할수 없을찌라도 주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상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오, 주님, 말도 안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주님을 책망 했습니다. 그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까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너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23-26).

이젠 주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진리를 더 많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 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멸시받고 거절당하며 죽음을 당할것이나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그때 왕국이 이루어지며 그때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만일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즉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것이니라.” 이것들이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 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것은 이기주의 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삶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 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주고 싶고 또 동료를 도와 주고 싶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할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것은 우리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것도 포함 됩니다.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시옵소서.”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 지이다.” 그것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 하는것입니다.

세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것입니다. 그것들이 제자가되는 필수조건 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제자가 되기위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네 자신의 목적지를 정하려고 하고, 네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또 네 자신의 욕망을 충족 시키려 한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것이요. 만일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너의 삶에 대한 모든것을 발견 하리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때 참된 삶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그리스도안에서 잃는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할때 삶의 참뜻과 목적을 진실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에 두셨습니까? 당신이 나가서 모든 욕망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욕망을 좇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수있는 모든 열락을 찾기위해 열락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신것입니까? 그럴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살아 있지만 실제로 죽은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열락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를 추구하는자는 그의 생명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할때 당신은 대단히 만족스럽고 흡족한 삶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내 야망은 부자가 되는것이고 내 소원은 내가 갖고 싶은것을 다 가지는거야” 라고 말할수 있겠지요. 여보시요, 잠깐만, 만일 그것을 성취했고 온 천하를 얻었으나 당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면 무슨 유익 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26)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입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 뜻을 완전히 깨달을때까지 당분간 그것을 비밀로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보좌를 이 지상에 당장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이 있게 되며 그후에 봉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26).

그러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부끄러워 하지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면 주님도 당신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실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9:27).

이제 그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9:28).

그 산에 올라간 목적은 기도하려는것 이었다고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에 관한 이런 아름다운 통찰력을 보여 줍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9:29).

“광채가 난다 (glistening)” 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고전 영어 단어이며 헬라어로는 빛이난다 또는 섬광으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의 옷이 섬광 처럼 비쳤습니다. 섬광처럼 빛난것은 빛이 그 옷 자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중에 헬라어로 “변형 (metamorphosis)”

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변형은 몸의 전체적 변화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중에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 말씀 하셨을때 그들이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 장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 장에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를 그림 같이 아름다운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은 그의 얼굴이 해가 밝게 비취는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옷은 섬광이 비취는것 처럼 빛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9:30-31).

별세한다는 말은 떠나가는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떠남은 예루살렘에 성취하실 영광 중에 돌아 오실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야, 모세를 만나보렴, 이 사람이 베드로 일세” 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친구들을 알아 볼수 있을까요? 거기서 서로를 알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천국에 간후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바보 같이 되지 않도록 되기를 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안다면 거기서도 서로를 알아 볼수 있으리라고 확신 합니다. “오, 나는 성경 말씀을 원합니다.” 좋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0, 12). 내가 나를 아는것 처럼 당신을 알아 볼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무라도 서로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DNA 를 심거나 무엇이든지 내 양심에 집어 넣으셔서 당장에 자동적으로 모두를 알아보게 하실것입니다. 내가 “오,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다윗이 저기에 있네” 라고 말할것이며 당신도 마찬가지로 알아보실것입니다.

아무도 모세나 엘리야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직관적인 지식이 있기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수있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 있었다는것입니다. 또 재미 있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으며 제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 볼수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것입니다.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9:32).

예수께서 기도하실때 베드로는 잠을 잔것 같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 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가파르고 한참 올라가야하는 혈문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피곤했겠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기도 하시고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음성을 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깬것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 하시지?” 그리고 그들이 바라 보았을때 주님이 영광스런 모양으로 변화되신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섬광처럼

빛나고 거기에 율법을 준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9:33),

며칠전에 예수께서 그의 죽으실것을 그들에게 말했던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버린바 되리라.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있는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죠. 여기에 초막 세개를 짓겠나이다. 이곳을 떠나지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지 마소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게 좋겠나이다. 여기에 초막 세개를 지읍시다. 만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님, 여기 머물러 있는것이 좋겠나이다.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9:33).

다른 복음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거든 입을 다무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잠잠한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짐작으로는 베드로의 생각이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되게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건의 현장을 표시하기위해 초막을 지은것입니다. 성지에 가는것을 실망 시키는것 중의 하나는 성경의 사건들의 현상이라고 생각 되는곳곳마다 모두 교회를 지어 놓았다는것입니다. 위엄을 줄만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신교회 (Church of Nativity) 에 들어 가는것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놀라운것입니다. 그것이 매번의 방문을 망칩니다. 당신이 들어가 모든 번쩍이는 쇠 불이와 탐들과 손을 내미는 제사장들을 볼것인데 어쩐던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짐작으론 베드로가 그 모든 풍습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여, 바로 여기에 초막을 지어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합시다. 실제로 그들중의 세 사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 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9:34-35).

이제 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 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를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대변한 사람이었으며 선지자를 대표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들었으나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 1:1-2).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9:36).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때 그들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 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9:37-44).

이 말을 귀에 담아둡시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고난 받는것을 받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니다.

“이 말을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 우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9:45-46).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십자가와 버림받음과 그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수 있는 위대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9:47-48).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종이 되기를 배우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9:49).

당파와 종파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9:50).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하지말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은 “아니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거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51),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 오셔야 했으며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남쪽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상 취하는 노선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올단 계곡을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오십니다.

주님의 승천하실 기약이 차때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 하셨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9:52).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실 곳을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여지도 없이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 산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마리아인들은 희생제물로 양을 그리스 산에서 드려서 유월절을 지키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지 약 700명 정도의 사마리아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바보 같은 전통을 따릅니다. 아직도 사마리아인들 끼리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의 멸종 되었습니다. 오늘날 단지 200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림 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지켰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원한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전혀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9:54),

이제 왜 예수께서 요한과 야곱을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는지 알겠습니다.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9:54).

물론 이 두사람은 변화산상에 있었고 엘리야를 보았으며 선지자가 행한 일로 인해 다시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님, 왜 저들을 없애 버리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한 두어가지 맛을 좀 보여 주세요. 주님을 쌀쌀하게 대하는 저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너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9:55-56).

여기서 예수는 다시 한번 그가 오신 목적을 알립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셨는가? 그가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여러 곳에서 그가 오신 목적을 선언 했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중의 하나는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온것은 죄인을 정죄하려함도 아니요 멸하려하는것도 아니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탄절에 그가 오신 이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른 촛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9:56-57).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 하시는것은 “이 친구들아,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아라” 는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앞에 올때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은후 “오 주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잠간만 기다려, 비용을 먼저 계산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때 주님은 “비용을 계산해보라” 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9:58).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비용이 드는것을 기억하라.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는가? 기꺼이 값을 치루겠는가?” 그것을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값을 측정해보고 결정하라. 값을 계산하여 고려해 보기전에 출발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 하시니 (9:59)

첫째 사람은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에게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나를 따르라” 고 주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9:59)

여기에 **나로 먼저 (Me first)** 라는 말이 여기 있는걸 보면 그가 예수를 따를수없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로 먼저** 라는 사람은 예수를 따를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나로 먼저”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를 따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로 먼저** 허락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허락할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 해야하며 예수가 먼저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9:60).

당신은 “와와, 예수께서 냉정하시고 감정도 없으시구먼. 이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내 아버를 장사케 하소서” 라는 말은 지연시키는것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잠시동안 집에 있겠으며 아버지가 별세하거든 내가 오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그의 아버지가 별세하여 묻을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사람이 죽은후 2 시간 이내에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라고 말할때 실제로 그 사람은

“언젠가 내가 먼저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고 또 언젠가 내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나로 먼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9:61).

오, 정신 차리고 교훈 좀 배워! 그럴수는 없어. 내가 주님을 따를때 ‘나로 먼저’ 는 있을수 없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9:61-62).

주님을 따르려면 헌신 즉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값을 치뤄야 하며 그것이 가족 관계가 될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Chapter 10

이제 10 장에서 9 장 12 절과 대조되는 70 인의 파송에 관한것을 읽습니다.

이 후에(10:1)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주께서 달리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지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10:1).

그들은 선발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지나가실 여러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 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값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10:2-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값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10:8-9).

그들은 주님보다 앞서 가야할 사자들로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일과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하라 (10:10-11).

하늘나라 가까이 왔는데도 하늘 나라에 들어간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슬픈일입니다. 헤롯 아그립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도게 할뻔하였도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그들 앞에서 먼지를 떨면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즉 닥아오는 심판날) 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0:12).

빛을 반대하는 죄는 사람이 범할수 있는 가장 큰죄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을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 하실것입니다.

소돔이 이 도시 보다 견디기 쉬울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하늘 나라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보다 오히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것입니다. 소돔은 그만큼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10:13)

이 두 동네는 예수께서 사역 하셨던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0:13).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들이 차례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이 받은 심판이 너희가 받는 심판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참으로 흥미 있는것은 고라신과 벳사이다는 두 도시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공공연한 비난에서 예수께서는 “화 있을 진저, 가버나움아” 라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몇년간 벳사이다의 유적을 발견 했습니다. 벳사이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도시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다, 그 후에 심판이 벳세이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10:15-16)

이제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가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10:16).

주께서 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 을 미워한다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대표하는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주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당신에게 배출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미워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내신 그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분과 함께하는것입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10:17)

주께서 저들을 미리 보내셨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참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10:17).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10:18-19).

당신의 마음에 그것을 간직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신은 원수의 능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두움의 주관자 얼굴을 찌푸리나 우리는 그를 두려워 떨지 않으며 주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는 넘어지네.” 그 이름, 모든 말씀위의 말씀, 그이름은 능력있는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나 교회가 종종 어두움의 세력앞에 떨고 있는것을 봅니다. 우리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제압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10:19).

바울이 파선 후에 해안에 밀려올려졌을때를 기억하시겠죠. 거기에 불을 피운후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있는지라 원주민들이 말하되 “아아,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신이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곧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을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 앉아서 불을 쬐면서 이야기 하고 있는걸본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이 사람은 신임에 틀림없다. 아무것도 그를 해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것이 끝날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닥치지 않을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내 삶에 목적을 두셨고 그 목적이 완성될때 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존 하실것입니다. 이제 나는 밖에 나가서 부모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100 마일로 달리면서 말하기를 “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 내겐 아무일도 일어 나지 않을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 될때 까진 아무것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뇌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이 완성될때까지는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을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대 환난중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하는 날이 끝났을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죽일수 있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임기가 찰때 까지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의 간증과 증거가 끝날때 까지 나는 파괴 할수 없는 존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때 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전하실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증거가 끝나는 순간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나를 집으로 데려 가실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의 증거가 끝나는 그 때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오래동안 여기에 남겨 두시는 이유는 그 목적들을 끝마치게 하심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 될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것입니다. 반드시 이 근처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근처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 갈 뿐입니다. 아시는대로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복음을 전파 해야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그의 지시에 따라 그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위하여 하라는 일들을 준비 하시기 위해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끝날때 나는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해 할수 없노라.

오, 재미 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요한과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 당했습니다. 그들중 어떤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 악독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일들은 그들의 증거가 다 끝난후에야 일어난것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반대하며 예수께서 말씀 하셨던 사람중의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것을 헤롯이 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밤 주의 한 천사가 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깨우며 말하기를 “베드로야, 신발을 신고 여기를 벗어나자”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앞문이 자동적으로 열릴때 천사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난후 문은 닫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오자 천사는 떠나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밖에 나왔군, 아아.” 그리고는 교회가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불쌍한 베드로를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더니 젊은 소녀가 문에 와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나 베드로야”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너무나 흥분해서 문도 열어 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오 하나님이 불쌍한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문앞에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네가 유령을 본게 틀림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석방 시킨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끝장 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하나님 증거가 끝나는 날이 왔습니니다. 사람들이 그를 처형하러 왔을때 그는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려는줄 압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십자가에 처형 시키지 말고 십자가에 끼꾸로 처형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끼꾸로 달려 처형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의 증거가 끝날때 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 하십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선 당신의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10:20);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것으로 기뻐하지말고 현상을 보고 기뻐 하지말며 당신이 보는 현상으로 인해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10:20).

만일 무슨일로 인해 기뻐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사실로 기뻐 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것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10:21),

그것은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기뻐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해본적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가슴에 운행하실때 성령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경험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10:21).

예수께서 이 단순한 사람들을 쳐다 보십니다. 주께서 그들이 말할때 그들의 감격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 주님, 너무나 훌륭했어요. 오,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 주님이 보셨어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 그것 참 잘되었군, 그러나 이러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은 하늘 나라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후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오, 그것 참 훌륭하군, 이 단순한 사람들을 좀 보렴,”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또한 관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단순한 사람이라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나를 단순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복잡한 사람이 싫습니다.

우리교회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번은 내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 그저께 ‘안녕 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무슨 참뜻이 있습니까?” 내가 안녕 하세요 라고 하면 안녕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뜻도 없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없어요. 나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거나 복잡한것을 말하거나 진짜 뜻을 숨기는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뜻한것을 말하고 내가 말한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애매 모호한것을 말해서 이것을 말하고 진짜로는 저것을 뜻할 정도로 똑똑하지가 못합니다. 당신은 내 의미를 몰라. 그것을 분별할때까지 연구해서 내가 말한것의 숨은 의미를 찾으려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분이 아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것은 비극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성경을 영적인 의미로 풀면 그 본뜻을 잃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을 그가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뜻하신것을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을수 있으니 신뢰하십시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 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후에 주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10:22):

그것은 대단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10:22).

예수께서 아버지께 대한 진리를 계시한 사람외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누구신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면 감사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10:23):

당신이 보는것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같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것이 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10:24).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이 가진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진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 그들의 모든것을 줍니다.

“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되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10:25-37).

당신의 이웃이 누구 입니까?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십시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갑자기 외부 사람을 이야기의 영웅으로 만드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누가 그를 도와 주었습니까?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의 영웅이 됩니다. 그들이 인종적인 차별을 심하게 하는 사람을 영웅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드리라하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10:38),

그것은 참 재미있는 문구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여러번 사용합니다. 새 장면을 소개할때 마다 그는 통상 “이 때에 (it came to pass)” 라는 문구를 사용 하였는데 그걸 발견 하셨나요? 그것은 누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문구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10:38-39).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동네 이름을 밝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매의 이름도 더 이상 마리아와 마르다 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의 여 동생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인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것을 준비 하느라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 큰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다니시는걸 기억하실줄 압니다. 여기에 적어도 70 명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두 명씩 동리마다 주님보다 더 앞서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는것을 상상좀 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40-42).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발아래 앉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일에 애씁니다. 일하는데 바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앞에 앉아 배우는것을 잊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일에 너무 빠져서 예수의 발앞에 앉아 예배할 시간 조차도 없습니다.

다음에 11 장과 12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축복하실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인 아주머니와 찰리 아저씨에게 무얼 해드릴까바빠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의 발앞에 앉아 예배하고 배움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안에서 그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되기 쉬울 때입니다.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선한 마리아가 되는것을 배울때까지 선한 마르다가 될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되도록 시간을 보내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 번주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며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uke 11
Tape # C2533
By Chuck Smith

Tonight, chapter 11 i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gain, as Luke is pointing out the human side of Jesus, though He was God, He became man. He is the God-man. He is divine, and yet, He is human. The perfect balance. And whereas John points out the divinity of Christ in his gospel, which we will be entering into next, Luke points out the humanity of Jesus. And because this is the special emphasis of Luke, he does record more than any of the other gospel writers concerning the prayer life of Jesus Christ. And so Luke mentions many cases where Jesus was praying. And again, beginning the eleventh chapter, Luke tells us:

And it came to pass, that, as he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ceased, one of his disciples said unto him, Lord, teach us to pray, as John also taught his disciples (11:1).

(오늘 저녁엔 누가복음 11 장입니다).

11 장에서 누가는 예수의 인성 쪽을 지적하면서 그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이시며 또한 인간 이셨습니다. 균형이 잘 맞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요한복음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적하는 반면에 누가는 예수의 인성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복음서의 저자들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에 관하여 더 많이 기록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곳을 언급 했습니다. 그리고 11 장의 시작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1:1).

Prayer is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but learned best through practice. I have observed that those men who are engaged in the all-night ministry of prayer here at Calvary Chapel, have really learned to pray. As I am in a group of men, and we are praying, as one of them leads out in prayer, I can always tell the men who are engaged in that all-night ministry of prayer, it shows in their prayers. It is reflected. They've really learned how to pray. Of course, if you spend a few nights in prayer, and you really learn, you've got a lot of chance to practice. But it really shows; it's really a skill that can be developed through practice.

기도는 배울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것 입니다. 여기 갈보리채플에서 철야기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들은 진실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남자들 그룹에서 함께 기도할때 한사람이 인도하게 되는데 나는 그때 철야기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들의 기도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것을 참으로 배운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당신이 기도 하느라 몇날밤을 보내면 기도하는것을 참으로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실습하는 기회를 만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실습을 통해 발전시킬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 disciples, one of them said, "Lord, just teach us to pray."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learn. We need to learn how to pray more effectively. And there is much to be learned on the subject of prayer.

Now Jesus taught by an example, giving to them a model prayer. Not one that was to be memorized and recited verbatim. But in the model there is the basic structure for all prayer.

제자들 중 한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만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기도 하는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주제에 관해 배워야 할것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범기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본을 보여 주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외어두었던것을 암송하셨던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범기도에 모든 기도를 위한 기본구조가 있습니다.

So Jesus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11:2).

Prayer always begins with relationship. If there is not an established relationship, there is no basis for prayer. The Father's ear is always open to the children's cry. And if you have that relationship with God where you can say, "Father," then you've established that relationship that opens prayer for you, effective prayer for you. But if you do not have that relationship, then prayer is meaningless. There is only one prayer that God want's to hear from you if you are not His child, and that's the prayer,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And that establishes then relationship, and opens this glorious opportunity of prayer for each one of you. But prayer begins with relationshi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11:2),

기도는 언제나 관계로 시작합니다. 만일 이루어진 관계가 없다면 기도할 기초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귀는 항상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 십니다. 만일 “아버지” 라고 부를수 있는 하나님과 의 관계를 가졌다면 당신을 위한 기도, 더구나 효과적인 기도를 시작 할수있는 관계를 이룩한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없다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기도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각자를 위한 영광스러운 기도의 기회가 열립니다. 기도는 관계로 시작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and that reverence of God. "Hallowed be thy name," or reverend by thy name.

The name of God is a name that in the Hebrew was an active verb, which meant, the becoming one. How it was pronounced is something that we are not certain of. There are those who say, "Jehovah." There are those who say, "Yahweh." All we have are the consonants, Y h v h. The left out the vowels, so that we do not know what was the actual pronunciation, but most scholars conclude that it was Yahweh. But it is the Hebrew word *the becoming on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와 하나님의 경외 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은 그 이름으로 경외 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능동형 동사로서 “되시는 분 (*the becoming one*)”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호와” 라고 발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이는 “야왜”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자음, Y H V H, 뿐입니다. 모음 글자는 없애 버렸기 때문에 실제 발음이 어떠한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결론을 내리고 히브리어의 뜻을 “되시는 분 (*the becoming one*)” 입니다.

The name of God is significant, because in it God expresses what He wants to be to you. He wants to become to you whatever your need may be. So the Jehovah, or Yahweh, was used in compound forms. You had Yahweh Tesitkonu, the Lord has become our righteousness. Yahweh Raffa, the Lord our healer. Yahweh Jira, the Lord our provider. And all of these compound forms of the name of Yahweh by which God expresses His nature, and that which He wants to be to you. In prayer it is helpful if you understand that God desires to become to you whatever your particular need might be. If you are praying for healing, then He becomes the Yahweh Raffa, the Lord our healer. He becomes what you need. And whatever might be the need that will be expressed in the prayer, is exactly what God wants to become to you. The One who will provide that need in your life.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이름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것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 "야웨" 는 복합형으로 사용 됩니다. 당신이 "여호와 신크누" 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여와 랍과" 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복합형으로 나타난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당신에게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때 당신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것을 알면 기도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만일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랍과 곧 병을 고치는 분이 되실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당신이 기도에서 표현하는 필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이 원하는것이 되실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것을 공급해 주실것입니다.

"Hallowed be thy name." And let me say that as far as I am concerned, the only name that is reverend is the name of the Lord, Yahweh. I do not like the title of Reverend Charles Smith. Whenever I get mail to Rev. Charles Smith, I know that they don't know me. Because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reverend about the name Charles at all. And some write, the Reverend Charles Smith, which is suppose to be a little more impressive, and I like it that much less.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go all out, and write the Most Reverend Charles Smith. Just call me Chuck, please. "Hallowed be thy name." The reverence due to the name of God.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목사 찰스 스미스 (Reverend Charles Smith)” 라는 칭호가 싫습니다. 내게 우편물이 왔을때 그러한 칭호를 쓴것을 보면 그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인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스미스 라는 이름에 거룩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걸음 더 나가서 “가장 거룩한 목사 찰스 스미스 (the Most Reverend Charles Smith)” 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은 훨씬 더 싫어합니다. 제발, 그냥 척 (Chuck) 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Now the purpose of prayer is not to get your will done. The purpose of prayer is to accomplish God's will. So prayer moves in a cycle. It begins with God. His purposes, His desires, which He makes known to our hearts, which we utter as our prayer back to God. Which then God fulfills. And so prayer moves in a cycle, but the cycle begins with God, and the purposes of God. It is tragic that there are many people today who look upon prayer as an instrument for the accomplishing of their will upon the earth. "Now, God, this is what I want. And I demand, God, that You do this." And they hold the scripture up to God, and make their demands.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이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그의 목적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되는것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들의 뜻을 이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께 들고 그들의 청구를 합니다.

Prayer is never intended, was never intended to be an instrument by which men's will could be accomplished upon the earth. And the primary thrust of prayer is always the will and the purpose of God. And so it is significant that the first petition in the prayer is, “Thy kingdom come.” God's will, God's purposes. That's what prayer is about.

기도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이땅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추진하는 바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번째 구하는것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로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도 입니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on earth (11:2).

And so the purpose of our prayer should be to see the will of God being done here upon the earth. You say, "But didn't Jesus give us some pretty broad promises in prayer? Didn't Jesus say, ‘And whatsoever things you desire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ou shall have them’? Didn't Jesus say, ‘And if ye shall ask the Father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in the Son’? Didn't He say, ‘Ask, and you shall receive’?" Yes, He did. But in each one of these cases, who was He talking to? Was He talking to the multitudes? Or was He talking to His disciples? And if you will read the scriptures carefully, you'll find that in each of these cases He was addressing His disciples. And what constitutes discipleship?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2).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 지는것을 보는것 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주 광범위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예수께서 약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 하리라. 그리하여 아들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고도 말씀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것이요’ 라고 하셨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 하셨나요? 군중에게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까? 성경을 조심해서 읽어 보면 이 경우들의 각 사건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신것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 합니까?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Jesus said,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So whatsoever thing you desire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Who is He talking to? The disciples, who have denied themselves, and have taken up their cross to follow Him. Therefore, their prayers will be reflective of the life of self-denial, and the purposes of God being wrought. It would be the thrust of the prayer of that person who has denied himself, and has taken up his cross to follow Jesus.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때 무엇이든지 원하는것은 받은줄로 믿으라.”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 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부인 하는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삶의 반영 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힘있는 기도가 되는것입니다.

Prayer was never intended to be an instrument for the accomplishing of man's will upon the earth, but the instrument for the accomplishing of God's will upon the earth. For you see, the earth is in rebellion against God. The earth is under the power of Satan. His will is being done upon the earth. Satan is sitting upon the throne, ruling over the earth, the world's system.

기도가 사람들의 뜻을 이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는것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땅에 성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모든 제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Now it is God's desire to bring the earth back under His government, under His kingdom, and His reign. And so God gets men upon the earth who align with Him, and He establishes through them a beachhead here on the planet earth. And then He uses them as instruments to enlarge that beachhead, to take back the world for God. We're in a battle. And the purpose of the battle is the control of the earth. And we who have come in submission unto God, then exercise prayer, that power that God has given to us, in order that we might expand the beachhead that God has upon this planet. And bring His love and grace, and His power, and His kingdom into other lives of those around us. And that's why God has you here. And if you are using your time for any other purposes, you're just wasting your time as far as God is concerned. He has a 01

purpose and a plan for you being here, and that is the expanding of His kingdom upon the earth.

이 땅을 하나님의 정부와 그의 왕국과 그의 통치하에 다시 가져오는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위에 있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통해 상륙거점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사용하여 거점을 확대하여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지구를 돌려 받는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고 있으며 전쟁의 목적은 지구를 장악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상륙거점을 확장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런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과 그의 나라가 임하시게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간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을 볼때 당신은 시간을 낭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땅에 있게 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But there are many evangelists today that want to change this prayer to, "My kingdom come, my will be done on this earth, even as it is in heaven." But that's not what Jesus prayed. And that's not what we're to pray. There is so much selfishness in our prayers. So many prayers for personal gain and personal possessions, and those very things that could be extremely detrimental to our walk with the Lord.

그러나 오늘날 이 기도를 "내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것 같이 내 뜻이 이루어 지이다" 로 바꾼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많은 기도가 개인적인 유익과 소유를 위한 것이며 주님과 의 동행에 지극히해로운것 들을 구하는 기도들 입니다.

Having established first things first, then He moves on the personal petitions. And there is nothing wrong with personal petitions, as long as they are in the proper place.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11:3).

첫번째 것들을 먼저 이룬후에 개인적인 개인적 청원기도로 옮깁니다. 개인적인 청원기도가 순서에 따라 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3).

Interesting, isn't it? "Lord, give me enough bread for the 1983 that is coming up." No, God gives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That we might live a life of constant trust in Him. As thy day is, so shall thy strength be. So often God does not give us more than just enough for today. And you shouldn't be concerned or worried if you don't have enough for tomorrow. For the Lord said you shouldn't really be worrying about

tomorrow. Sufficient unto the day is the evil thereof.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God took care of us today, and the Father will take care of us tomorrow, and the next day, and each day that comes. And we don't have to worry.

재미 있겠습니까? "주님, 2007 년이 가까이 오는데 한해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것 보다 더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일 필요한것이 충분히 없다고 걱정하거나 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씩 닥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Forgive us our sins (11:4);

Oh, what an important prayer.

for we also forgive every one that is indebted to us (11:4).

Forgive us, Lord. And Jesus teaches that we will be forgiven as we forgive others.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11:4);

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11:4)

주여 우리를 용서 하옵소서. 그리고 난후 예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때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There is much to be said by Jesus on the subject of forgiveness. Sufficed tonight that we just say it is one of the signs of true conversion, and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your mental health that you have a forgiving spirit. There are a lot of people today who are in institutions, who don't have to be there. But there is a bitterness, an unforgiving spirit that has tormented them, and has driven them to that point of being beside themselves. It is so important that you forgive. Now, we have asked God to forgive us, it's important that we be forgiven,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we forgive.

용서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충분히 말했지만 용서는 참된 변화의 한 가지 표시 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것은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속에 원한,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그들을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용서 해주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것은 우리가 용서해주는것입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11:4).

And so the model that He established for prayer: relationship; that purpose of prayer, the accomplishing of God's kingdom and His will upon the earth; and then our own personal needs.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11:4).

그래서 주께서 기도를 위한 모범을 만드셨습니다: 관계와 기도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는것과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것,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것입니다.

Now continuing on the subject of prayer:

Jesus said unto them, Which of you shall have a friend, and shall go unto him at midnight, and say unto him, Friend, loan me three loaves of bread; for a friend of mine is on his journey and he has come to my house, and I don't have anything to set before him? And he from within shall answer and say, Don't trouble me: the door is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 not rise and give to you (11:5-7).

기도의 주제를 계속 살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떡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11:5-7).

Now, it is helpful to understand a little bit about the culture of the Middle East, where hospitality is considered one of the highest virtues, and an essential. Whenever you have guests come, you are obligated as the host to set out food before them. And, however, they all lived in one little room, the whole family. And when they would go to bed at night, they would actually, just mats that they would roll out on the floor, and the whole family would sleep close together for warmth. There be a little fire in one portion of the room, and often the animals would in the room too. The chickens, and the lambs, or whatever, they would be in the one little room sleeping with them at night. And here you be all huddled together with your family, and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Now, once the door is closed, it was really considered impolite to knock on a closed door. When you closed the door that meant, "don't disturb." When you woke up in the morning, you'd open the door, and you leave the door open all day long. And the people just come and go all day long, get coffee, or tea, or whatever. But when at night closed the door, that was a signal, don't disturb. And so you get ready to go to bed, you close the door, and that was it. You huddle close with your family.

중동의 문화에 관하여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곳에서 호의는 가장 큰 미덕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손님이 집에 오면 주인으로서 소년들 앞에 음식을 채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한 방에 삽니다. 밤에 그들이 잘때에는 실제로 바닥에 매트 (mat) 를 깔고 온 가족이 따뜻하도록 함께 누워 잡니다. 방 한구석에 화덕이 있고 빈번히 짐승들도 방에 있습니다. 닭이나 양이나 무엇이 든지 그것들은 한 작은 방에 자게 합니다. 여기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집단으로 어울려 자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닫힌 문을 두들기는것은 정말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을 문이 닫혔다는것은 "방해 하지 마세요" 의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하루 종일 문을 열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면서 커피나 차도 마시고 무엇이든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문을 닫았을때 그것이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잘 준비를 하고 문을 닫으면 끝이 난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누워 잡니다.

Now, if you get up in that kind of circumstance, the whole family wakes up. Everybody is disturbed. The animals start squawking, and it's just a real mess inside. So Jesus paints a scene, midnight, the family is all asleep. The animals are all asleep. Here is some guy knocking on the door. Your neighbor, your friend says, "I need to borrow some bread, three loaves of bread. I have some company coming, I don't have anything to give to them." And, of course, he was in a bad way, because if you have company coming, and you don't have anything to lay before them, that was disgraceful too. So the guy inside the house says, "Go away, don't trouble me."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일어나면 온 가족을 깨우게 됩니다. 모두가 수면 방해를 받습니다. 동물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것이 방 안에는 혼란 스럽게 됩니다. 예수께서 장면을 한 밤중에 가족이 모두 자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동물도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당신의 이웃에 사는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빵을 좀 빌려야 겠네, 세 덩이만 주게. 내게 손님이 왔는데 그들에게 내 놓을것이 없어" 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손님이 온다는데 아무것도 대접할것이 없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가 말하기를 "제발 좀 가줘,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라고 합니다.

Now He said:

I say unto you, Though he will not rise and give him, because he is his friend (11:8),

Even though you're my friend, hey, that's no friend now, go away, friend.

but because of his importunity (11:8)

Now that word in the Greek is because of his *continued, shameless knocking*. Hey, he is not going to go away until he gets the bread, waking everybody up. You know that you've had it, he is not going to go away, he continues his shameless knocking at the door. So because of his continued, shameless knocking, you get up, and you go to get him his bread. Something you wouldn't do just because he was a friend, but something you do because the guy just won't go away. His continued, shameless knocking. He will arise and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Get out of here, take it."

이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11:8),

비록 자네가 나의 친구라 할찌라도 지금은 아니야, 친구여, 제발 가줘.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11:8)

강청함 (importunity) 이 헬라말로는 계속적이며 부끄러움 없는 문 두들김(continued, shameless knocking) 이란 뜻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깨워서라도 빵을 얻기전에는 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는 빵을 얻을때 까지 첩피하게 느끼는것 없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의 끊임 없는 부끄러움없는 문을 두들김이 그 집 주인을 일어나게해서 빵을 가지러 갈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라고 해서 해 줄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친구가 가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친구의 끊임 없이 첩피한것도 없이 두들기는것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가 요구 하는 만큼 넉넉하게 줄것입니다. “자, 가져 가거라.”

Now Jesus is giving us an illustration of prayer.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Jesus often illustrated with contrast. So that the man knocking at the door is a type of a man praying. Asking for a need of a friend. And this man is persistent. He continues to knock on the door until he gets his desired response. Now, does that mean that we have to continue to pray until we break God down, until He gets so sick of hearing us that He finally gives in and gives us what we want? No, again we have a contrast. If a man, a friend, will do something because of persistency,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other words, he is using a bad illustration as far as the prayer was concerned. Here is a man who is being moved because of importunity, the persistency of the one knocking, but with God you don't have to be persistent. Your Father knows.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실례를 들려 주십니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중요한것은 실례를 대조법을 사용하여 말씀 하신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기는 사람은 기도 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한것을 친구에게 구하며 그는 부단히 구합니다. 그는 그가 기대하는 반응을 받을때 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때 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에 진력이 나서 결국 우리가 원하신것을 주실때 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은 대조법을 쓰십니다. 친구가 부단히 구할때 사람도 그것을 들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들어 주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기도에 관한 좋지 않은 실례를 사용 하셨습니다. 부단한 기도로 끊임 없이 두드리는 사람으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단히 기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We get another contrast down here. Again,

If a son asked bread of any of you that is a father, will he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ed for a fish, will he for a fish give him a serpent? Or if he asked for an egg, will he offer him a scorpion? And 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Father? (11:-13)

You see, it's contrasting. If you earthly fathers know how to give good gifts, how much more? So the contrast is intended, not a parallel with God in the illustration.

여기에 또 다른 한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11-13).

대조 되는것을 보십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도 좋은것을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것을 주시 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여줄때 평행법이 아니라 대조법을 사용하신것 입니다.

And so Jesus said:

I say unto you, Ask, and it shall be given you; seek, and you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For everyone that asks receives; and he that seeks finds; and to him that knocks it shall be opened (11:9-10).

Now again on the subject of prayer, Jesus is saying: ask, seek, knock.

James tells us that we have not, because we ask not. And that is so often true. People come and they pour out their tale of woe. "I don't know what I am going to do. Oh, I just don't know what I am going to do." "Well, have you prayed?" "No." "Well,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11:9-10).

다시 기도의 주제에 관하여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일러 줍니다. 그리고 빈번히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만 쏟아 놓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요.” “기도 하지 않았으니 응답이 없죠.”

Now it is also possible according to James, to ask, but ask amiss because my desire is to fulfill my will. It's prayer according to my will. I am trying to do something to fulfill my own desires. You ask amiss that you might consume it upon your own desires. So prayer is asking, it is seeking, it is knocking, and the promise is, that if you ask, you will receive.

야고보에 의하면 그것을 구하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뜻에 의한 기도이며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하는것입니다. 당신의 정욕을따라 쓰려고 잘못 구하는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것이고 찾는것이며 두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우리가 구할때 받는다는것입니다.

Now you may not always receive what you asked for. Sometimes God has something better. And so there are many times that I have asked God for something, and He didn't give me what I asked for, but He gave me something so much better. And many times His answers of no were much better than His answers of yes would have been, as I learned later. And though I moaned and complained because of the no answer, there always came that day when I said, "Oh, thank you, God, you're so smart, and I am so glad that You didn't answer that prayer that I asked You for awhile back. Oh, thank you, Father." I realize the mess that I could have gotten into had God answered that prayer. Well, He did answer it, but He answered it, "No."

기도하면언제나 응답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무엇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한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한것 보다 훨씬 더 좋은것을 주십니다.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안된다”는 응답이 “된다” 는 응답보다 훨씬 더 낫다는것을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된다” 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불평했지만 항상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제가 지난날에 기도한것 응답 해주시지 않아서 참 기쁩니다,오, 감사해요, 주님” 이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모든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을것임을 압니다.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대답은 “안돼” 라고 하셨습니다.

If you ask you will receive; if you seek you will find; if you knock it shall be opened (11:10).

And then again, another illustration. Earthly fathers, your son is coming to you, and he is asking, "Dad, can I have some bread?" And the dad hands him a stone, and says, "Chew on that, son." "Daddy, I'd like a tuna sandwich." And he gives him snake. "Daddy, can I have an egg?" And you offer him a scorpion. Jesus said, "No, you don't do that. You earthly fathers, you wouldn't want to do that to your own children."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10).

다시 다른 실례를 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들이 와서 “아빠, 빵 좀 먹을까요?” 라고 구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면서 “아들아, 그거나 씹어 먹으라” 라고 하거나, “아빠, 나 참치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들에게 뱀을 주거나, “아빠, 계란 하나 먹어도 되요?” 라고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니라, 너희도 글렀게 하지 않느니라. 땅에 있는 아버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Now if you,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em that ask him? (11:13)

I am sick and tired of the Boogieman stories concerning God. Of someone who was seeking that God might fill them with the Holy Spirit, and then became possessed by some demon. What is that declaring?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Jesus said was the case. It's saying that our heavenly Father is evil. If someone was asking for bread, and He gave them a stone. They were asking for fish, and He gave them a serpent. Not so, that is a blasphemous concept of God. The Bible says that God delights to give good gifts to His children.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13).

나는 하나님에 관한 부기맨의 이야기에 진저리가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무엇을 주장 하는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 하시는것과 정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악하다고 말하는것 입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며 그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것 주시기를 즐겨하신다고 말합니다.

I've heard people say, "Oh, you better be careful how you open yourself to God. You just be careful n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Again, Boogieman stories. And they are blasphemous, because they condemn the very nature of our righteous, holy Father.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오, 당신을 하나님에게 개방할때 조심 해야합니다. 조심해야 되요. 무슨일이 일어날찌 모르니깐요.” 그것도 부기맨의 이야기 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Let me say this: I am not afraid one iota of anything that God has for me, or God wants for me. I want to always be totally be open to God. And my only fear is that I might not be open to something that God is wanting to do in my life. I am not the least bit afraid of anything that God may have for me, or want for me. I am not concerned that God is going to make some kind of fool out of me. I am perfectly capable of doing that for myself. What I am fearful is that I might have a closed door somewhere to God, and that He cannot do for me what He is wanting to do for me, because of my limited faith, or my preset positional ideas that have limited that work that God is desiring to accomplish in my life. I want to be totally open; I want everything that God has for me. I need everything that God has for me. And I don't want to have any closed doors when I come to God. Because I know that my Father loves me so much, and His desire for me is for the very best for me, because that's the way He loves me. And thus, I am not afraid at all of any work that God is seeking to accomplish in my life.

내가 이것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것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어떤것에 대하여도 나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 하는 유일한 한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룩하기를 원하시는것에 나 자신을 개방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것이나 원하시는 어떤것에 대하여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바보로 만들까바 걱정하자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하는것은 나의 제한된 믿음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룩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수 없도록 내 마음의 어느부분에 문을 닫을까 하는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때 마음의 어느문도 닫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사랑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것 주시기를 원하시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어떠한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Now as Jesus was casting out a demon (11:14),

The demon had taken over the motor functions of this particular person's speaking apparatus, and caused the person to be dumb.

예수께서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 내시니 (11:14),

귀신은 어떤 사람의 말하는 기관의 기능을 점령하여 그 사람을 병어리로 만듭니다.

I am in total disagreement with people who see demons in every malfunction of the human body. There are people that have gone overboard on this demon bit. And it's dangerous. There are demons, I recognize that. They are powerful, I recognize that. They are able to possess a human body and to distort the motor functions, I recognize that. But every malfunctioning motor function of the body does not indicate demon possession. And that is a very sad and tragic concept that has hurt a lot of wonderful people. In this particular case, the person's speaking ability was hampered by the demon.

사람의 몸의 모든 기능 이상이 있는곳에서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동의 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에 관해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것은 내가 인정 합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점령하여 운동 기능을 뒤흔들어 놓는다는것도 인정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의 모든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긴것이 귀신들린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단히 슬프고도 비극적인 개념 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을 귀신이 방해 했습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when the devil was gone out, that the dumb spake; and the people wondered. But some of them said, He cast out devils through Beelzebub the chief of the devils. And others, tempting him, sought from him a sign from heaven. But he, knowing their thoughts, said unto them (11:14-17),

Knowing that they were suspecting that maybe He was doing this by the power of the devil, He showed the inconsistency of the idea. He said,

Every kingdom that's divided against itself is brought to desolation;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falls. And if Satan also be divided against himself, how shall his kingdom stand? because you say that I cast out devils through Beelzebub. And if I by Beelzebub cast out devils,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they shall be your judges (11:17-19).

예수께서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 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병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1:14-17).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 이런일을 행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고 무리들이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맞지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딸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11:17-19).

Now, they did have exorcism rights, according to Josephus, that were handed down from Solomon. They say that Solomon in all of his wisdom did devise certain drugs and all and incantations for the exercising of demons. And there were those in those days according to Josephus who, using these ancient rights of Solomon, were able to exercise demons. And Jesus was probably referring to these widely practiced and totally accepted exorcism rights of which Josephus spoke.

And He said, "If I am casting out demons by Beelzebub, then who are your sons casting them out by? They'll be your judges."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축귀 행사를 했으며 그것은 솔로몬으로 부터 내려온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지혜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쓰는 약들과 주문(呪文)을 고안해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조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의 고대방법을 사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마도 이 널리 사용했고 전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던 조세푸스가 말하는 축귀법을 가리키고 있는듯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But if I with the finger of God am casting out devils, no doub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11:20).

He is just asking them to use their reasoning powers. Jesus is reasonable, and He asks you to be reasonable. They are making a ridiculous accusation: He is casting out devils by the power of the devil. Jesus said, "Hey, that's ridiculous. If that's going on, then Satan's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It's going to fall. You better be rejoicing in what I am doing. But that's not the case. If I am casting out devils, I am doing it by the power of God, then you better realiz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mong you."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1:20).

주께서 그들의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를 요구 하십니다. 예수는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한 당신도 합리적이기를 요구 하십니다. 그들은 우스꽝스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이봐, 그건 웃기는 소리야. 만일 그렇게 되면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갈리는것이고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로 기뻐할찌니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줄을 깨닫는게 좋을것이니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And when a strong man armed keeps his palace, his goods are in peace:
But when a stronger then he shall come upon him, and overcome him, he takes
from him all his armor wherein he trusted, and divides his spoils (11:22).*

Now, here we have a very important lesson concerning prayer. The strong man in this case is Satan. He is armed, he is keeping his palace, his domain. But thank God we can come against the domain of Satan in the name of One who is stronger than Sata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e, through the power and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Jesus Christ, can spoil the stronghold that Satan has in people's lives.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11:21-22).*

기도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는 무장을 하고 그의 집 즉 그의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것은 사단 보다 더 강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영역에도 대항하며 들어올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로 사단이 사람들의 삶속에 구축한 요새를 무너뜨릴수 있습니다.

I am amazed at the control that Satan is able to exercise over people. I have seen people's lives who are so bound by the power of Satan, that they do not possess good common sense. They're irrational in regards to spiritual things. And there are those that when you listen to them talk, you observe their habits, you see the power of Satan manifested in such a strong way, we oftentimes just sort of back away, and say, "Man, there is no help for that person; they are really gone."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지배력에 놀랐습니다. 나는 사단의 세력에 너무나 얽매여 상식도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하여 비합리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야기 하는것을 들어보고 그들의 습관을 관찰해 보면 사단의 권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나서 “야, 저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도에 지나쳐서 회복할 길이 없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But that is because we are so overawed at the power of Satan to take hold of a person's life, that we fail to realize that there is One that is stronger than Satan. The Bible says,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I John 4:4). And God has left us here in order that we might exercise that authority and power of the name of Jesus, by destroying the work of Satan in the lives of those people around us. By binding Satan's power in the authority in the name of Jesus, setting them free from that terrible hold that Satan has upon them. And giving them the opportunity, without that cohesive force and power of Satan, perverting their reasoning processes, let them make a reasoning decision concerning their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한 개인의 삶을 점령하는 사단의 능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함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4).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를 파괴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능력을 묶음으로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들을 해방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정을 그르치는 사단의 능력과 끌어 당기는 힘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야합니다.

"And so when one that is stronger comes, he overcomes him, and takes from him his armor." Satan's armor has been stripped. We have authority and power over hi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e need to exercise that authority and power.

Then Jesus said,

He that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11:23);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사단의 무장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 대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11:23);

There is no neutral ground. "What do you think of Christ?" "Well, I don't know, I think He is a good man. He was a pretty good philosopher." "Are you for Him?" "No, I am neutral." "No, you're not." Jesus said, "If you're not with Me, you're against Me. If you're not gathering, you're scattering."

중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 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편 입니까?” “아니요, 나는 중용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중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고 하셨습니다.

Two types of people: the builders, and the destroyers. Those who gather, those who scatter. If you're not gathering, you're scattering. You can't be neutral concerning Jesus Christ. He was a radical, you can't be neutral concerning a radical. You've got to have an opinion. You've got to form a decision. And not to be for Him is to be against Him.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우는 사람들과 무너 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모으는 사람들과 흩어 버리는 사람들 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으는 자가 아니면 헤치는 자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용이 될수 없습니다. 그는 급진파 였습니다, 급진파에게 중용이 될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를 위하지 않으면 그를 반대하는것 입니다.

Now, Jesus having cast out this demon, teaches a little bit concerning demons. And He said,

When an unclean spirit is gone out of a man, he walks through dry places, seeking rest (11:24);

So there is the intimation that demons, when they are not inhabiting a body, are restless. They seek to find a body to inhabit. And so when an unclean spirit is driven out of a body, through the authority in the power of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ander through the wilderness areas restless, seeking rest, seeking a body to inhabit.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내신것이 귀신에 관해 조금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11:24);

귀신들이 육체에 거하지 않을때 쉼곳이 없으므로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이 거할수 있는 육체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러운 영이 몸에서 쫓겨날때 그들은 쉼곳 없는 광야를 헤매면서 쉼곳과 살수 있는몸을 찾아다닙니다.

and finding none, he said, I will return to the house from whence I came out (11:24).

Now, evidently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which open the doors for demons to enter in to a person's body. There are other conditions which prohibit a demon from entering into a person's body. Jesus teaches that they looked for a body to inhabit. Evidently there are things that can restrict their entrance into a body. And I believe that that which can restrict, and does restrict, is the will of man. I do not believe that a demon can enter into a person against that person's will. Whether the person be born again or not. I do not believe that they can violate the free will of man, as far as taking possession of a body. But people are often getting involved in the occult, into those areas of spiritism, where they are opening themselves to the entrance of demon entities.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11:24).*

귀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 확실한 조건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것을 막는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살 수있는 몸을 찾는다고 가르칩니다. 귀신이 몸에 들어가는것을 제한할수 있는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기엔 그것을 제한 할수있고 또 제한하는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거스릴수는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중생 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들이 몸을 점령하는것에 관하여는 귀신들이 사람의 의지를 침범할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빈번히 사교 (詐欺) 나 강신술 (Spiritism) 에 개입함으로 귀신들이 들어오도록 자신들을 개방합니다.

And by dabbling in the occult, by playing around with Ouija boards, or any of these things that have an occultish aspect to them, you are opening the doors for these demons, as you are seeking them to somehow mystically guide your destiny with the movement of the marker or with some other type of manifestation. And I believe that when you start getting into these areas, that you are beginning to open the door for demons to come, and begin to advise you, begin to direct you, they can inspire people in writing interesting detective stories. They can bring you fame, and the spirit writing, and all of these things are doors by which you can open yourself to being possessed by a demon entity. And so, I cannot warn you too much against the dangers of dabbling with those areas of spiritism, contacts with spirits and all, because it is in those areas where you can open the door that demons can come in. But I do not believe that they can come into a person against that person's will.

호기심으로 사교에 개입하거나, 워치보드 게임을 하거나, 사교(詐敎)의 성향을 가진것들에 개입 함으로 이러한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지를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보기를 추구할때 일어납니다. 내가 믿기에는 당신이 이러한 분야에 들어가기 시작할때 당신은 귀신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당신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고 지도 하기 시작하며 재미있는 탐정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당신에게 명성을 얻게할수 있고 또 영적인 글도 쓰게 할수 있으며 이 모든것들이 당신 자신이 귀신들에 의하여 점령 되도록 허용하는 문들입니다. 강신술의 영역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귀신을 접촉하는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너무 강조할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당신이 문을 열어주는 영역에 들어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의지에 대항하여 들어 올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As God honors the free will of man, I think He forces Satan to honor the free will of man. So Satan comes in by guise. He leads you into the areas of dabbling into the occult, where gradually become open to these things.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도록 강요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해서 들어 옵니다. 사단은 당신에게 사교에 빠지도록 호기심을 일으키는것으로 이도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러한것들에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Several years ago in the little chapel, we had a young man come into the office, and he sat down, and he was obviously troubled. And he introduced himself to me. And he said, "My name is Dave Hunt." And he gave me a Time Magazine that I had read, a Time Magazine that dealt with organized crime and dealt with Lucky Luciano.

수년전에 작은 채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앉았는데 분명히 그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데이빗 헌트입니다." 그는 타임 잡지를 나에게 주었고 나는 그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타임 잡지는 조직된 범죄단과 럭키 루치아노 (Lucky Luciano) 를 다루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And in this particular Time Magazine, it had one of these little insert articles and the picture of this young man Dave Hunt, and said, "The mystery man, the Associate of Lucky Luciano." And this young man told me his story of how when he was growing up, he had an intense fascination for power. And when he was nineteen years old, he determined that he was going to possess power at any cost. And he said as he looked at society, he realized that one of the strongest powers in society was the Mafia. Stronger than our judicial system, because it had bought off the judicial system.

그리고 특별히 이 타임지에 삽입된 여러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면에 조그마한 기사가 있고 이 젊은 청년 데이빗 헌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신비의 사나이는 럭키 루치아노의 협조자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그가 자랄때 권력에 강렬한 매력을 느꼈던 그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가 19 세 되었을때 그는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권력을 소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사회를 둘러 보았을때 그 사회에서 가장 강한 권력중의 하나가 마피아 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조계 보다 더 권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조계도 매수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It had bought off the government leaders. And so, he theorized that Lucky Luciano at that time wa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And because his ambition was for power, he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get next to Lucky Luciano and learn the secrets of power. Which somehow he was able to get in and become the associate, the constant companion of Lucky Luciano. And it was written up in Time Magazine. This mystery kid, young man, where he came from, nobody knew. But he was constantly with Lucky Luciano, the protégé of Lucky Luciano. And he said he enjoyed the power and all of the money, and the power that he had through these associations. The control over people, over circumstances.

마피아가 정부의 지도자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럭키 루치아노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에 대한 그의 야망 때문에 럭키 루치아노 곁에 가서 권력의 비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는 럭키 루치아노의 당에 들어가 그와 항상 동반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타임 잡지에 이 신비한 젊은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럭키 루치아노와 계속해서 동반했고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럭키 루치아노의 밑에 들어간것을 통하여사람들가 환경을 지배할수 있는 권력과 모든 돈을 즐겼습니다.

But he said then he began to study the reign of Hitler. And he realized that Hitler was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world. And he learned that Hitler was being guided by men who were involved in what was known as the White Magic Fathers. Men who were into the occult. Men who were in contact with demons. And so, he decided to go down to Peru where at the fall of the Fifth Reich many of these men, the masters of the white magic who were guiding Hitler fled to Peru at the end of the war.

그러나 그는 후에 히틀러의 지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중의 하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히틀러가 천사의 마술사 (White Magic Fathers) 로 알려진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았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오 제국의 멸망시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곳, 즉 히틀러를 인도했던 천사마술조직의 선생들이 도망한 곳인 페루에 내려 가기로 결심 했습니다.

And he decided to go down and to look them up, and to learn from them the secrets of power. And so he went to Peru, and he got hold of these white masters. And he began to sit at their feet and learn the white magic. Began to dabble into this area of spiritism. And he said he was in his hotel room, and he was going through these incantations and all, when suddenly this presence came into the room. He said he was very aware of it, this spirit. And he said this spirit began to enter into his body, and he said, "Somehow I realized that if this thing enters into me, I no longer have power, I'll become its slave, I'll be under its power, and control."

그는 가서 그들을 찾아서 능력의 비밀을 그들에게서 배우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루에 갔고 이 천사의 마술사 선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발아래 앉아 천사의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강신술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문(呪文)을 한차례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귀신이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것이 영이라는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영이 그의 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어쨌든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는것을 알았고 내게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구나. 나는 그의 능력 아래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And he said, "I became extremely frightened." And he said, "Though I had only been to Sunday school a few times when I was a kid, I began to cry out, 'Jesus, Jesus help me, Jesus.'" Because he said, "I knew that if this thing took over I'd be lost." And he said, "I immediately packed my bags, I got a cab to the airport," and he said, "I waited at the airport for the next plane out of Peru." And he said, "I checked in, got back to Texas, I checked into a motel." And he said, "I was so shook, I didn't call anybody. I didn't let anybody know where I was."

그리고 그는 "나는 깜짝 놀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어릴때 주일학교에는 몇번 안 갔지만 나는 부르짖기 시작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도와 주세요, 예수님.'" 그가 말하기를 "만일 이것이 나를 점령해 버리면 나는 구원 받지 못한다" 는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장 짐을 꾸려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나가는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짐을 부치고 텍사스에 도착하여 어떤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정말 떨려서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He said, "I was just so shook over this experience." And he said, "As I was sitting there in the motel, just thoroughly confused," he said, "the phone rang." And the fellow on the phone called him by his name, and gave him a cryptic message. And he recognized that these white masters spoke in these cryptic messages, and so he was figuring out the message. And he just about had the message all figured out, but there was one part that

the fellow gave to him that he couldn't remember, and he knew that if he could remember that, that he could put the whole message together.

그는 “나는 이 경험으로 너무나 떨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후 “내가 모텔에 앉아 있을때 정말 어리둥절 한것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암호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천사마술사들은 암호로 말한다는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지의 뜻을 알아 내려고했습니다. 암호의 의미를 거의 다 알아냈지만 상대방이 준 메시지의 일부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뜻을 다 맞추겠으나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And so he was just sitting there, thinking, “Oh, if I only knew that one part, if I only knew that one part of the message,” and the phone rang again. And the fellow said, "The part of the message that you can't remember is this:" And he said, "Wait a minute, who are you?" He said, "Hey man, I don't know what's going on, but you guys are weird." He said, "What do you mean, who are you?" He said, "I am a guard over here in Fort Hood," he said, "I am on duty here, and some old man came by and gave me a hundred bucks to call you and give you this message.

그는 거기에 앉아서 “오, 그 부분만 알았던들, 메시지의 한 부분만 알았다면”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전화를 건자가 말하기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거야”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여보요,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거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그는 “나는 여기 포트 후드 (Fort Hood) 에 있는 경비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여기서 직무중에 있는데 어떤 늙은 사람이 오더니 \$100 을 주면서 당신에게 전화 하라고해서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거요” 라고 했습니다.

Gave me the number to call, told me your name, and gave me this message to give to you." He said, "What did he look like?" And he described the white father that he was under in Peru. And he said, "He came back a few minutes ago and gave me another hundred bucks to call you back and say that this is the part of the message that you can't remember."

“그는 전화번호와 당신의 이름과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던가요?” 라고 묻자 그가 페루에 있을때 그를 담당했던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위는 “몇분 전에 그가 다시와서 또 \$100 을 주면서 당신에게 전화하여 이것이 당신이 기억할수 없었던 메시지 부분이라고 말해주라고 하였습니다.”

And this kid, as he sat in my office, was shaking, visibly shaking. He said, "They follow me everywhere I go; I can't get away from them." He said, "They wont let me go." He said, "I became too involved." And he said, "They are right here, they are right here right now, they know what's going on." And I said, "Yes, Dave, I know that," but I

said, "they'll never follow you out of here." An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we took authority and power over those forces of darkness, these fathers of the white magic, and their spirit forces. Because a stronger than Satan dwells in us, and He has destroyed the armor wherein he trusted. And we were able to spoil thes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we were able to set this young man free. Not because I have any great spiritual power. I am just a child of God like you, but I know the scriptures. I know my position. I know where I stand. I know the authority that I have in the name of Jesus.

이 청년은 내 사무실에 앉아있을때 눈에 보일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옵니다. 그들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개입 되었나 봅니다. 저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저들은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데이빗, 나도 그걸알아. 그러나 여기서 나가면 너를 결코 쫓아 오지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 즉 천사의 마술사나 그들의 영적인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속에 사단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분이 내안에 거하심으로 사단을 믿음으로 오는 무기들을 다 파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세나 권세들을 약탈할수 있으며 우리는 이 젊은이를 해방할수 있었습니다. 내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압니다. 내 위치도 압니다. 내가 서 있는곳도 압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진 권세를 압니다.

I got a letter from Dave awhile back. He is now an evangelist, preaching the gospel. And, of course, he shared that he has not been troubled since that day.

Spirit forces are real. They are not to be messed around with. It is possible for you to open the door by dabbling in the areas of the occult. And there will come a time when, like with Dave, they will seek to take over your very body.

그 후에 데이빗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전도자 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적 세력은 실제로 있는것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장난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교의 여역에 이끌려 들어가도록 문을 열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데이빗처럼 귀신들이 당신의 몸을 점령하는 때가 올것입니다.

Now Jesus said, "They wander through these dry places, looking for a place to rest, a body to inhabit. And if they find none, they say, 'Well, I go back to the house from whence I was driven.'"

And when he comes, he finds it all swept and garnished. And then he goes out, and he takes seven other spirits that are more wicked than himself; and they enter in, and they d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11:25-26).

예수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집으로돌아가리라’ 하고 말한다” 고 하셨습니다.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11:25-26).

Now Jesus here is giving a very solemn warning concerning those people who have been set free from the power of Satan. You don't let a vacuum exist. You've got to replace. There is more than just driving Satan out, there has to be the moving in of the Spirit of God to take residence within. And just to go around delivering people can be the most harmful thing you can do for a person. People oftentimes come to me, and say, "Oh, pray the prayer of deliverance." And I say, "I pray the prayer of entrance. The entering of the power of Jesus Christ into your life. When He enters the darkness has to go. Light and darkness cannot coexist."

여기에 예수께서 사단의 권력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대치해야 합니다. 사단을 쫓아 내는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 가셔서 거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해방해 주는것이 당신이 그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해로운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번히 내게 찾아와서 “오, 해방하는 기도 좀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들어가도록 말입니다. 주님이 어두움에 들어 가실때 어두움은 물러 가야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And so, rather than just praying for deliverance for someone, that the powers of darkness be loosed and send forth, I would rather pray that the power of God come in. The other is forgone conclusion when that happens. But there is real danger for a person just coming to God just for the help that they might get. Coming just for healing, rather than the Healer. Just for deliverance, rather than the Deliverer. Because you can end up in worse shape than you ever were if you don't substitute or replace that power within your life, that empty area.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두움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구조해 달라고 기도하는것 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두움의 세력으로 부터 해방되는것은 앞에서 말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도움을 얻기위해 나온 사람에게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고치는 분을 원하는게 아니라 병고침 만을 위해서 옵니다. 구조자 보다는 구조만 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속에 있는 그 권세를 대치시키지 않고 텅비게하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as he spake these things, a certain woman of the company lifted up her voice, and said unto him, Blessed is the womb that bare thee, and the breast which you have sucked (11:27).

Here is one of the first attempts to worship Mary. And what did Jesus do with her?

He said, Yes, rather, blessed are they that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11:28).

Now, she is attempting to worship His mother. "Blessed is the womb that bare you, and the breast from which you nursed." "Yes, but rather, blessed are they that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11:27).

여기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려는 첫시도를 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11:28).

이제 이 여인은 주의 모친을 숭배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 그렇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And so when the people were gathered thick together, he began to say, This is an evil generation: and they seek a sign (11:29);

You remember back in verse 16, others tempting Him sought from Him a sign from heaven.

and there shall no sign be given it, but the sign of Jonah the prophet. For as Jonah was a sign to the Ninevites, so sha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 (11:29-30).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11:29);

16 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했던것을 기억 하실줄로 압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11:29b-30).

How was Jonah a sign to the Ninevites? He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and he survived. He came out alive.

So Jesus said He would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So, the same kind of a sign of Jonah will be to this generation, as Jesus rises from the dead.

Now the queen of the south shall rise up in judge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she came from the utmost part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behold, a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The men of Nineveh shall rise up in judge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shall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behold, a greater than Jonah is here (11:31-32).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적이었습니까? 그가 삼일 낮과 밤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삼일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그것이 이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11:31-32).

This verse totally discounts the idea of reincarnation. For the men of Nineveh will rise in the day of judgement with this generation. You see, if reincarnation was a process by which men were gradually evolving into perfection, then in the day of judgement they wouldn't be the men of Nineveh. They would have been in their developed state along the line of reincarnation. But here, the men of Nineveh will be arising with this generation in the day of judgement, precludes the idea of reincarnation.

이 구절은 윤회 사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날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일 사람이 윤회라는 과정을 거쳐 완전하게 진화되어 간다면 심판날에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윤회의 과정에서 발전된 어떤 상태에 있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세대와 함께 일어설것 이라고 말하며 윤회설을 배제 합니다.

Well, might the men of Nineveh speak out in the day of judgement against that generation, because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who was angry, who hated them, and who had one monotonous message? No hope in the message of Jonah, no grace in the message of Jonah, no love in the message of Jonah, just a message from a hateful prophet saying, "Forty days and comes destruction." And yet, they repented.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미워하는 요나의 단조로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 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가득찬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는 소망이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메시지로서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 하였습니다.

Now here was Jesus bringing the love of God, preaching the grace of God, extending to men the mercy of God, and they did not repent. Oh, I tell you the men of Nineveh will have a good case against this generation.

No man, when he has lighted a candle, puts it in a secret place, nor under a bushel, but on a candlestick, that they which come in may see the light.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therefore when thine eye is single, thy whole body is also full of light; but if thy eye is evil, then thy body is full of darkness (11:33-34).

이제 여기서 예수는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The entrance into men, the eye gate. And again, that which you are planting into your mind through the eyes.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 If you sow to the flesh, of the flesh you're going to reap corruption" (Galatians 6:7-8). If your eye is single towards God, then your body is full of light, but your eye is evil, looking at evil things, and your body is full of darkness.

Take heed therefore, that the light that is in thee (11:35)

사람의 몸의 출입구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에 씨를 뿌리는것은 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 (갈 6:6-7). 만일 당신의 눈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당신의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만일 당신의 눈에 악이 차서 악한것을 바라보면 당신의 몸은 어두움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11:35).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so take heed that the light that is in thee,

be not darkness. For if thy whole body therefore be full of light, having no part dark, the whole shall be full of light, as when the bright shining of a candle does give light. And as he spake, a certain Pharisee besought him to dine with him: and he went in, and sat down to meat. And when the Pharisees saw it, they marveled that he did not wash his hands before dinner (11:35–38).

몸의 빛은 눈입니다. 그래서 당신속에 있는것이 빛인가 주의하여 보십시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11:35-38).

Now this is referring to the ceremonial washing of hands, which they had an elaborate ceremonial washing of hands. Which Jesus said, "Oh, good enough." But they had to have one log of water, and you'd hold your hands outstretched in front of you in an upright position, and they would pour the water over your hands, as you rub your fingers and your hands together. And you had to be careful that the water didn't run down your arm, but dripped straight down, because if it runs down your arm, then your arm would be unclean, because the water that was cleansing your hands was coming down.

이것은 의식에 따라 손을 씻는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성들여 손을 씻는것입니다. 예수께서 "오,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한그릇을 가지고 팔을 쭉 펴서 손을 위를향하여 모읍니다. 그러면 하인이 물을 부을때 손과 손가락을 문지룹니다. 물이 팔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물이 팔로 흘러 내리면 손을 씻은 물이 흘러 내려 당신의 팔이 불결해지기때문입니다.

The uncleanness from your hands was coming down your arms. So they had a way of holding your hands out here, and pouring the water. And then they would take, and you hold your hands down and pour another log of water over it, with your hands in a downward position, letting the water drop off. And they would do this several times during a meal. Jesus didn't fuss with that kind of a nonsense. And so this Pharisee was just sort of shocked that He didn't go through this little ceremony of washing.

손에서 불결한것이 당신 팔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내민 다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손을 아래로 향하게한다음 아래로 향한 손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리도록합니다. 그들은 식사중에 이렇게 여러번 손을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격식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지않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And so the Lord said to him, Now you Pharisees make the outside of the cup and the platter clean; but the inward part is full of ravening and wickedness. You fools, did not he, who made that which is without, also make that which is within? But rather give alms of such things as you have; and, behold, all things are clean unto you (11:39-41).

One of their little customs. If you just give alms of that which you have, everything is great.

But woe unto you, Pharisees! for you tithe mint and rue and all manner of herbs, and pass over the more important things of judgement and the love of God (11:42):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11:39-41).

이것이 그들의 관습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너희의 가진것으로 구제하면 모든것이 훌륭하니라.

화 있을찢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11:42).

Now, it wasn't really required in the law that you pay tithes of your spice gardens. But these guys did. And, of course, you wanted them to know what your little spices are like. You've got your rosemary, and your cumin, and various spices. Well, they all had their spice gardens, and they would shake out the little seeds, poppy seeds. And nine for me, one for God; nine for me, and one for God. And they were so careful, give God the tenth of His seeds. Very meticulous, give God His due. And yet, they were omitting completely the important things of judgement, of love and all. Exacting in the small matters, which really didn't count. And completely skipping over the important matters.

향품 정원의 십일조를 내라고 법이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냈습니다.
#####

Then Jesus said, (interestingly enough, talking about tithing,) Jesus said,

this you ought to have done (11:42),

Jesus confirmed that they ought to have done that. But He said,

you shouldn't leave the other undone. Woe unto you, Pharisees! for you love the uppermo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greetings in the markets. Woe unto you, scribes,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are as graves which appear not, and men walk over them and are not aware of them (11:42-44).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미 있는건 그가 십일조에 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여야 할찌니라 (11:42),

예수께서 그것도 행하여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하시기를,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화 있을찢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찢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11:42-44).

Now, one of the purposes of whitewashing the graves in those days was to keep people from walking over them. Because if you walked over a grave, you were considered then to be unclean, and for seven days you couldn't go into the synagogue. You had to go through a right of cleansing, because you touched a grave.

그 당시에 무덤을 회를 칠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밟지않게 하기위함 이었습니다.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불결하게되어 칠일동안 회당에 들어가지못합니다. 무덤에 몸이 닿았으므로 결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But Jesus said, "You are like graves that don't appear. You are defiling men, and they don't even know it. Your influence on men is that of defiling men." There are those people whose very influence is an defiling influence, but the bad part is that men don't even know in their contact with them that they are being defiled by it.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도다. 너희는 사람들을 더럽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들을 더럽히는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더럽히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부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것입니다.

Then answered one of the lawyers, and said unto him, Master, in saying that you're reproaching us too. And Jesus said (11:45-46),

I haven't started on you yet.

Woe unto you also, ye lawyers! (11:46)

Now, He was not talking about the common practice of attorneys today, but these men who were lawyers as far as the Mosaic Law, and the interpreting of the Mosaic Law to the people.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1:45-46),

아직 네게는 시작도 하지 않았어.

화 있을찢저 또 너희 율법사여 (11:46)

주께서 오늘날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는것을 말씀 하시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의 법률사들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Woe unto you also lawyers!"

for you load men down with heavy burdens that are grievous to be borne, and yet yourselves will not touch one of the burdens with your little fingers (11:46).

"You are laying heavy trips on men." And boy, when you read how they interpreted the law of Moses, you read what a heavy trip they laid on men.

"화 있을찢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11:46).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도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것을 볼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Thou shalt not bear any burden on the Sabbath day." What constitutes bearing a burden? Do you have false teeth? That's bearing a burden. You can't wear your false teeth on the Sabbath day. Do you have a wooden eye, glass eye? You're bearing a

burden. You've got to take it out on the Sabbath day. Do you have a wooden leg? Bearing a burden. Pull it off on the Sabbath day. And yet, they had silly rules. You can only walk two-thirds of a mile, 1000 yards. But if you ran a rope from your house unto the end of the block, then that extended your house to the end of the block, and you could walk 1000 yards from there. And if the day before you would set your lunch a half mile away, then that constituted the border of your house, and you could walk to where your lunch was, and then you had 1000 yards from there to go.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짐도 지지말지니라.” 짐을 진다는것이 무엇입니까? 틀이를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엔 틀이도 끼우지 못합니다. 나무로 만든 눈이나 유리 눈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짐을 지고 있는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빼놓아야 합니다. 목발을 하고 계십니까? 짐을 지고 있는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것을 떼어 놓아야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엔 단지 2/3 마일 즉 1,000 야드 이내로만 걸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줄을 당신의 집에서부터 불락의 끝까지 친다면 당신의 집을 불락끝까지 연장시켰으므로 격서부터 1,000 야드를 걸을수 있습니다. 만일 그 전날점심을 1/2 마일 떨어진곳에 두었다면 그것이 당신 집의 경계가 되며 점심이 있는곳까지 걸어 갈수 있고 격서 부터 1,000 야드를 더 갈수 있습니다.

And if you carried things under your arm, you could carry whatever you wanted. You couldn't hold it with your hand. Or if you would carry with the upper part of your hand, loop the thing over the upper part of your hand, then you could carry it. Or you could carry it under your arm. Because that didn't constitute bearing a burden. Now you could not tie a square knot, or a sailor's knot, but the woman could knot their girdles. So if you wanted to put a bucket of water down into the well, you couldn't tie a square knot, or a regular type of a sailor's knot on it, but the woman could tie their girdle to it and let the bucket down, and pull the water up.

만일 물건을 당신의 팔아래 넣어서 가져가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갈수 있습니다. 혹은 만일 손의 윗부분으로 무엇을 옮기거나 손의 윗부분으로 물건에 고리를 끼면 그것을 옮길수 있습니다. 아니면 팔아래에 넣어 옮길수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지는것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각으로 짜매는것이나 선원이 짜매는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이 | ㅏ 들은 그들의 허리띠를 맬수 있습니다. 만일 물바켈을 썸에 집어넣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사각으로 매거나 선원의 끈매는것 같이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허리끈을 맬수 있으며 바켈을 내려 물을 길러 올릴수 있습니다.

Now God, when He said, "Thou shalt not bear any burden on the Sabbath day," didn't have any of this junky stuff in His mind. But just let a bunch of lawyers get hold of something, and they can make something complicated out of the most simple case.

하나님이 “안식일에 짐을지지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때 그분의 마음에 이러한 쓸데 없는것들을 생각하신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율법사들은 어떤것들은 가장 단순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것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I want to sell you my pen. I take a dollar for it. Very simple transaction, isn't it? Take it to a lawyer. Let him draw up an agreement. You can see what a complicated issue they can make out of the pen. You know, when I sell it to you, then there is no recourse, you can't sue me in case you should happen to fall on this pen, would jab into you and all. And you know, I've got to protect myself in this sale, because you never know what might happen to this pen, once it becomes in your possession. And you can always come back on me, because I sold it to you.

내가 펜을 팔기 위해서 \$1.00 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율법사에게 가져가 보십시오. 그는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펜 하나로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수 있는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내가 펜을 팔았을때 상환청구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펜위에 넘어져서 찢렸다면 나를 소송할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팔때 이 펜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때 이 펜에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펜을 당신에게 팔았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나를 찾아올수 있습니다.

And these fellows were great at complicating issues. And so Jesus gets on their case, for complicating the issues. And then He said,

Woe unto you! for you build the sepulchres of the prophets, and your fathers killed them (11:47).

You build sepulchres for them, but your fathers killed them.

Truly you bear witness that you allow the deeds of your fathers (11:48):

그리고 이 들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복잡하게 만든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찢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11:47).

너희 아버지들은 저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묘를 쌓는도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11:48).

You agree to the deeds of your fathers.

*for they indeed killed them, and you build their sepulchres. Therefore also
said the wisdom of Go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and some of them
they shall slay and persecute (11:48-49):*

In other words, if a prophet comes to you, you will kill him, but yet you build
sepulchres for those prophets that your fathers killed.

너희는 너희 아버들의 행실을 옳다하는도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11:48-49).

바꾸어 말하자면, 만일 한 선지가 너희에게 온다면, 너희는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으리라.

*That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which was shed from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may be required from this generation; from the blood of Abel [who
was killed by his brother Cain] unto the blood of Zacharias (11:50-51),*

Which was one of the last of the prophets to be killed in the Old Testament
period.

*which perished between the altar and the temple: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be required of this generation (11:51).*

Why? Because they are going to kill soon the One of whom the prophets
promised.

*Woe unto you, lawyers! for you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you enter not in yourselves, and them that were entering in you've hindered
(11:52).*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 (자기의 형
가인이 죽이자) 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11:50-51).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화 있을찢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11:52).

I think that this is very appropriate, for many of these professors in our theological seminaries today who cast doubt on the word of God, who, as Jesus said,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Claiming that they alone really understand the scriptures. Only they really know which scriptures are inspired, and those which are not inspired. And they will not enter into the kingdom themselves. But the problem is, they would hinder people who would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they try to stand in the way of people who would enter into the kingdom.

내 생각엔 이 말씀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가는 교수들에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만 참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자기네들만 어느성경부분이 영감을 받은것이고 어느 부분이 영감을 받지 않았는지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자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 들어 가려는 사람들 까지 방해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churches that have taken an active opposition against any evangelistic efforts. Churches that are opposed and find fault with any endeavors of evangelism. They will not enter in themselves, but they would also go one step further, and hinder those who would enter in.

And as he said these things unto them, 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really bate him,] they urged him vehemently, and they sought to provoke him to speak many things: Laying wait for him, and seeking to catch something out of his mouth, that they might accuse him (11:53-54).

Let's go chapter 12 and 13 next week, and maybe fourteen. Try it, read it, it won't hurt you. And so be it.

복음전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교회들은 전도의 노력에 잘못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들어가게 방해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11:53-54).

다음 주에는 12 장과 13 장 을 공부하며 14 장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공부하십시오. 손해 될것 없습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bless you as you fight the crowds to return the merchandise that you can't use. You'll find that it is more easy to buy than to return. But may the Lord strengthen you and keep His hand upon your life, fill you with His love and His Spirit, draw you into an ever-deepening relationship with Him that you might be enriched in all things in Christ Jesus walking in His love after the Spirit.

주님이 함께 하시며, 쓸수 없는 물건들을 반환하는 군중들과 싸울때 하나님께서 축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사는것이 반환하는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을 따라 그의 사랑안에서 행할때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모든것에 부요하게 되며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실것입니다.

Luke 12-13
Tape # C2534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in our Bibles to Luke's gospel, chapter 12.

We are dealing with the final month in the ministry of Jesus. He has returned to Jerusalem. He will soon be leaving Jerusalem to go down to the area of the Jordan River beyond Jericho. Where He will sort of absent Himself from the authorities, until such a time as He comes back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and makes His triumphant entry on the Sunday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So just where, here in Luke's account, does Jesus leave Jerusalem, is not declared by Luke. John tells us about this little time that He spent down at the Jordan River. It was while He was there at the Jordan River that He got the message from Mary and Martha concerning the death of Lazareth, which perpetrated His return. And then, of course, soon after that His triumphant entry, His trial, and crucifixion. Probably chapter 12, no doubt, still happened while He was in Jerusalem. And around chapter 13, as He is there in a synagogue, it could be that He has moved from the precinct of Jerusalem at that point.

누가복음 12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께서 곧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가시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벗어날수 있는곳이며 유월절 명절을 위하여 돌아와 주일날 입성을 할때까지 그곳에 계실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디다. 요한은 주께서 요단강 근처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설명합니다. 요단강 근처에 가신지 얼마 안되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돌아 오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멧세지를 받았습디다. 물론 그후에 곧 그의 입성이 있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이 따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12 장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때 있었던 일이었던 같습니다. 13 장에는 그가 회당에 있었습디다. 그 때엔 아마 주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셨던것 같습니다.

So in the mean time, when they were gathered together an innumerable multitude of people (12:1),

They beginning to really press upon Him, and thronged Him. So bad were the crowds,

that they were stumping on one another, he began to say unto his disciples first of all,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12:1).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12:1).

군중들은 주님을 실제로 밀면서 에어 찢습니다. 무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로 났힐만큼 되었던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2:1).

Now leaven was that yeast, actually, that they used in the baking of their bread. And it caused the bread dough to rise by the process of fermentation. And so actually, it was a rotting of the leaven or of the yeast that causes it as it rots to release these little bubbles of air, which puff the bread up. And all you need is just a little bit of leaven within the lump of dough, and that little leaven will exercise its influence upon the whole lump of dough. The whole lump will be putrefied or fermented by just a little piece of leaven. So they had what they call their starters, like the sourdough. Where they put just a little bit of it into the new dough, and they always save a part of it to put in the batch that they would make tomorrow. And just a little leaven was all they needed to leaven the whole lump.

누룩은 실제로 빵을 구울때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그것이 발효과정을 거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누룩이나 효소의 썩는것이며 그것이 썩을때에 이 작은 공기의 거품을 내어보내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반죽에 아주 작은 누룩이면 충분하며 이 작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누룩이 떡반죽 전체를 썩게하거나 발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 물질 (Starter) 이라고도 합니다. 조금의 누룩을 새로운 떡반죽에 넣고 일부분은 내일 사용 하기 위해 보관합니다. 온 덩어리를 부풀리기 위하여 작은 누룩이면 족합니다.

Paul warns about the leaven in the church. A little leaven leaventh the whole lump, therefore purge out the leaven. Jesus is here warning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He said is hypocrisy. It's amazing how hypocrisy can spread, just a little bit of it. It has that effect of rotting and spreading.

For there is nothing covered [Jesus said], that shall not be revealed; neither hid, that shall not be known. Therefore, whatsoever ye have spoken in darkness shall be heard in the light; and that which you have spoken in the ear in closets shall be proclaimed upon on the housetops (12:2-3).

사도 바울은 교회안에 있는 누룩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떡반죽에 퍼지게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 즉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계 하십니다. 외식이 지극히 작은것이지만 퍼져가는걸 보면 놀랍습니다. 그것은 부패하게 하며 계속 번져갑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12:2-3).*

Now I don't know that I appreciate that. There are some things that I have said in confidence that I really don't want published abroad. But the Lord is really just telling us basically to keep yourself open and straight, don't be hypocritical.

내가 그걸 좋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말한것은 정말 밖에 발표하기를 원치 않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모든것을 바르게 하며 외식하는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Somewhere a story was spread that we had received some tape recordings of some private evangelist in Israel. We had taken a tour over there. Of course, in Israel a lot of things are bugged. Your hotel rooms are, you never know. But somehow these evangelists got word that we received from our friends over there, who are involved in the Israeli government, that we had received from them some tapes that were made of some of the stories they were telling, and things that they were saying about the people that were on their tours. And they were quite upset, because according to the story that came to them, we were going to use these tapes to expose them. Very interesting, I don't have any tapes. I never had any tapes. I am not interested in any tapes of private conversations.

어디에선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개인전도자의 테이프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 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관광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여러가지가 비위를 거스립니다. 호텔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전도자들은 그곳에 사는 정부의 공무원인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여행하면서 한이야기를 담은 테이프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은 우리가 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그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는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일은, 내손엔 아무런 테이프도 없습니다. 테이프를 본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대화를 담은 테이프에 흥미도 없습니다.

But this thing of being one thing to a person's face, "Oh, you precious little darlings." And then when you get alone say, "Did you see them? Can you believe that?" That 's what Jesus said, this business of hypocrisy. How tragic that this is one of those evils that seems to permeate the religious systems of men.

그러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 보배로운 작은 아기들." 그리고 혼자 있을때 "저들 봤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외식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종교제도에 침투하는 죄악중의 하나 입니다.

Years and years and years ago, before many of you were born, when radio was still in it's infant stages, there was an announcer on a children's program that use to read the comic

strips to the children. And oh, he was so gushing and all in his talking to the children, and so personable on his show. Well, it so happened that he thought that they had caught off his mic and they didn't. And he began to express his true feelings concerning kids. And that was the end of his career.

오래 전에 라디오의 초창기에 아이들에게 만화를 읽어주는 어리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아, 그사람이 어리애들에게 말할때 너무나 감정을 잘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의 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끝는줄 알았는데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에 관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Beware of hypocrisy.

"That which is spoken in secret," Jesus said, "will be shouted from the housetops."

I say unto you my friends, Don't be afraid of those who can kill your body, and after that they have no more that they can do. I will forewarn you whom you shall fear: Fear him, which after he had killed hath power to cast into hell; yea, I say unto you, Fear him.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farthings (12:4-6),

Now two farthings equals about a penny, so sparrows aren't worth much.

an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12:6)

외식에 주의하라.

“비밀리에 말한것이 지붕위에서 외쳐서 알게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앓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 시는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12:4-6).

Though they are so insignificant, yet your Father God is concerne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God is very interested in you.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farthings, none are forgotten before God.

But even [He said]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numbered. Fear not therefore: for 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12:7).

And so He is comforting now the disciples with the fact that the Father knows our needs. The Father is concerned with us. The Father keeps interesting statistics about you. He is concerned with even insignificant things of your life.

그것들이 지극히 보잘것 없는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들 중 하나도 잊어 버린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다섯이 두 페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2:7).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말 의미없는것에 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Also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confess me before men, him shall the Son of man also confess before the angels of God: But he that denies me before men shall be denied before the angels of God. And whosoever shall speak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it shall be forgiven him: but unto him that blasphemeth against the Holy Spirit it shall not be forgiven (12:8-10).

Now these are things that we have studied in other gospels of the sayings of Jesus. Luke is just sort of grouping together. And Jesus probably is just grouping together a series of thoughts and principles that He has previously amplified upon. And so on another occasion Jesus amplified this subject of the sin against the Holy Spirit and the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And in other places He amplified on the confessing Him and denying Him.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2:8-10).

이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을 우리가 공부했던것입니다. 누가는 같은것들을 함께 모아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가 먼저 강조했던 사상이나 원칙들의 시리즈를 함께 그룹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성령을 훼방하는죄에 관한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주님을 고백하는것과 주님을 부인하는것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 하셨습니다.

Now when they bring you into the synagogues, and unto the magistrates, and the authorities, take no thought how or what thing you are going to answer, or what

you're going to say: for the Holy Spirit shall teach you in the same hour what you ought to say (12:11-12).

And so this divine inspiration of the Spirit in the moment of peril.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2:11-12).

이것은 위기에 있을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것입니다.

One of the company said unto him, Master, speak to my brother, that he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And Jesus said 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 or a divider over you? (12:13-14)

But he used the occasion to warn now against covetousness.

He said unto them, Take heed, and beware of covetousness: for a man's life consisteth not in the abundance of things he possesses (12:15).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2:13-14).

주께서 때로는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2:15).

This is an opposite of the popular conception of the world around you. As far as the world around you is concerned, a man's life does consist in the abundance of things that he possesses, and thus, men are trying to amass more things to themselves. But Jesus is declaring that you've got to be careful of covetousness. Because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things he possesses. What then does a man's life consist of? It consists of relationships, which are more important than possessions. For what should it profit a man, if he should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more important and more valuable than all of the possessions you could possibly amass to yourself.

이것은 우리주변에있는 세상의 인기와는 정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주변에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데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선언 하십니다. 왜냐하면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 집니까? 그것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언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신을 위하여 쌓을수있는 전 소유물 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It is tragic that many people, in order to amass to themselves vast possessions, many men who have been caught up with this covetousness, because of their greed and covetousness, their drive to amass a fortune, they have alienated themselves from any meaningful relationships. How many families have been broken because the husband was so driven by that desire to get ahead, to amass for himself vast possessions, that he neglected his relationships at home. How many men have driven themselves until they had a heart attack. It's a very common ailment among executives, men who drive themselves until they destroy their health. And covetousness is something that just can't be satisfied. It will continue to drive you harder, harder, harder, until it destroys those things that are important. Those things of which life does consist, life's consistent relationships, primarily your relationship with God, which then affects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covetousness can destroy these things. So beware of covetousness.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거대한 소유를 쌓기위하여 욕심에 사로 잡혀 있는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부를 쌓으려는 그들의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모든 가치있는 그들의 관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욕심에 끌려 많은 소유를 축적하려고 가족관계를 무시함으로써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해칠때까지 몰고 가는것이 중역들에게 흔히있는 고질병 입니다. 탐심은 만족 시킬수 없는것 입니다. 그것은 모든 중요한것들이 파괴 될때까지 당신을 계속해서 점점 더 열심히하라고 끌고 갑니다. 삶은 여러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것은 당신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탐심은 이러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니 조심 하십시오.

And then to illustrate it, He gave them a parable.

He said,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brought forth plentifully: And he thought within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because I have no room to bestow my fruits? And he said, I know what I'll do: I will pull down my barns, and build greater; and there I will bestow all my fruits and goods.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ve got it made] you've got a lot of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unto him, Thou fool, this night thy soul shall be required of thee (12:16-20):

그런후 주께서 그것을 설명하기위해 예화를 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취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2:16-20).

Interesting, the man's opinion of himself, and God's opinion of him. His opinion of himself was: I've got it made. God's opinion of him was: thou fool. Now notice this: this man was still in the dream state, not the fulfilled state. He had not yet built the bigger barns; these were only plans. "As soon as I have the bigger barns, as soon as I fill them, then I will be able to say: alright you've got it made, kick back, eat, drink, and be merry. Take it easy; you've got it made." He never did arrive at that point.

재미있는것은 그에 대한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견해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그의 의견은: 내가 모든걸 성취했다. 하나님의 그에대한 견해: 어리석은자. 이것을 주목 하십시오: 이 사람은 아직 혼자 꿈꾸고 있는 상태이지 성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그의 더 큰 곡간을 짓지 않았습니 다. 이것들은 그의 계획일 뿐입니다. "큰 곡간을 짓는대로 곡간을 채우면 내가 이렇게 말할수 있으리라: 다 성취했어. 다리 뺀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제 성취했으니 편안히 지내자." 그는 그렇게 성취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I would dare say that when, if he had not died that night, and he had continued to live, and he went ahead and tore down his barns and build the bigger barns and filled them, that he still would not have been satisfied. And at that point could not have said, "Well, you've got it made, kick back." Very few people ever arrive at that point in life. Where they can say, "Well, I have enough." There is a proverb about those things that are never full. And one of these is that desire, never full, never satisfied.

내가 감히 말할수 있는것은 그가 그날밤에 죽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서 그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가득 채웠을 지라도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을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아, 이제 내가 성취했으니, 편히 쉬어라" 고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 내가 충분히 가졌어" 라고 말할 그러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족 시키지못할 몇가지에 대한 잠언이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우리의 욕심 이며 그것은 절대로 만족 시킬수 없습니다.

The question then, of course, is propounded by the Lord: "To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so who is going to be able to enjoy all of the goods that you have amassed?"

whose shall these things be, which you have provided? So is he [the parable now is of that man] who lays up treasures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12:20-21).

This is whom the parable is addressed to. Those people who have been so careful to lay up treasures for themselves, but are not rich towards Go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has suffered as a result or consequence.

물론, 그런 후에 주님이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아 놓은것을 누가 즐기겠느냐?”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2:20-21).

이 비유는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고통스러운것입니다.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say unto you, [don't be covetous]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ou are going to eat; for your body, what you are going to put on (12:22).

That is, take no anxious thought, or better translated, don't be worried about what you are going to eat, or what you're going to wear. For life doesn't consist in things.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12:22).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달을 부리지 말아라고 번역하는것이 염려하지 말라 보다 더 나은 번역이 될것입니다. 생명이 물질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Life is more than meat, the body is more the clothes.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 houses or barns; and God feeds them: how much more are you better than the fowls? And which of you [by worrying] taking anxious thought can add to his stature one cubit? (12:23-25)

Now if you happen to have a pituitary gland that hasn't functioned at full capacity, and you happen to be short, and you're so concerned because you can't reach the top shelf in the cupboard, which of you by facing this kind of a problem, sitting down and just being so worried, and so concerned, about, “I am so short, oh, wish I weren't so short.” And which of you by giving a lot of anxious thought of this can add eighteen inches to your height? That's what Jesus is saying. You can't even add one inch to your height, much less eighteen.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12:23-25)

만일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뇌화수체를 가져서 키가 작아 찬장의 제일 높은 칸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당신들 중 누가 이런 문제를 당면하여 앉아서 염려만 하며 “나는 키가 너무 작아, 키가 그렇게 짧지 않다면” 하고 걱정합니다. 당신들 중 누가 이에 대하여 염려하므로 당신의

키를 18" 더 늘일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의 키에 18" 는 커녕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길이조차도 더할수 없습니다.

Now if you're not able to do the simple things, then why are you worried about the rest? Consider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don't toil, nor do they spin (12:26-27);

And, of course, the idea is the woman at the spindle, making the yarn, and making the cloth and all. Using the spindle to make the threads to make to cloth, and the whole thing.

But look at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don't toil, they don't work, they fingers aren't toiling, and working at the spindle.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 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12:26-27).

물론, 뜨게질 하는실을 만드는 축에서 일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는것입니다. 축을 사용하여 옷과 모든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며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합니다.

yet, Solomon in all of his glory [with all of his wealth, with all of his grandeur] wasn't dressed as beautifully as one of these. Now if God so dresses the grass, which today in the field, and tomorrow is burned;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e of little faith? (12:27-28)

And so really in this whole area, Jesus is talking about life, and He is talking about the Father's concern and care for His children. Sparrows are almost worthless little animals in the sight of man. You can buy five of them for a penny from the little boys in the streets. Yet, there is not a sparrow that falls to the ground, but your Father doesn't take note of it. Your Father takes account of these little animals. Now if your Father takes account of these little animals, how much more does He take account of you? He knows the number of hairs on your head. And so you don't have to worry. You're going to have problems, but don't sit down and dream up your little speeches what you are going to say.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to say. The Father is going to take care of you in every situation. And beware of this thing of covetousnes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material things.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12:27-28).

예수께서는 실제로 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관심을 말씀 하십니다. 참새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동물입니다. 동전 일전으로 참새 다섯마리를 거리의 소년에게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작은 동물도 돌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동물들도 돌아 보시거든 하물며 당신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머리의 수도 세신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염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닥쳐 올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까하고 앉아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할말을 주실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보아 주실것입니다. 탐심을 주의 하십시오. 물질에 대하여 염려 하지 마십시오.

Now here is the answer to the whole thing, in verse 29, or going on from there.

And seek not what you are going to eat, or what you are going to drink, or be of a worried mind. For all of these things do the nations of the world seek after: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have need of these things (12:29-30).

I like that: your Father knows all about you. And He knows you have to eat. He knows that you got to wear clothes. He knows all about the issues in your life. Your Father knows all about these things.

29 절이나 뒤에 따르는 절에 있는 모든것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12:29-30).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 관하여 모든것을 아십니다. 먹는것과 입을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아시며 당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것에 대하여 다 아십니다.

So rather [than seeking these things as the primary issues of life]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all of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Don't fear, little flock; for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12:31-3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se things. You just seek the kingdom of God, because it's the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오직(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이것들을 찾기보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12:31-32).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So sell what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provide yourselves bags which wax not old, a treasure in the heavens that fails not, where no thief can approach, neither can moth corrupt. But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And let your loins be girded about, and your lights burning (12:33-35);

This business of loins girded about is a phrase that was particular to their culture, for the men wore long robes. And to work in a long robe is cumbersome. To run is cumbersome. And so when a man was ready to go to work, he would pull his robe up and tie a sash around it. Making it knee length, or above the knee length, rather than down to his ankles. And this facilitated his ability to work or to run.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12:33-35).

허리띠를 띠는것은 긴 겉옷을 입는 그들의 문화에 특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 겉 옷을 입고 일하는것은 아주 귀찮은 것입니다. 달리는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갈 준비가 다 되었을때 그의 겉옷을 걷어 올린후에 띠를 둘러서 맵니다. 그것은 발목보다는 높이 무릎이나 그보다 좀더 높게 맵니다. 이렇게 하면 일할수도 있고 땔수도 있습니다.

So Jesus is saying, "Prepare yourself for service, for work, gird up your loins. And let your lights be burning."

And ye yourselves like unto men that wait for their lord (12:36),

Now here Jesus is giving to us a concept of life, which should be the concept of life of every child of God. A person's concept of life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his attitude and his actions. People express their concepts of life with various figures of speech. Life is a journey. Life is a race. Life is a war. Life is a party. A man expresses his concept of life. Jesus said your concept of life should be, "Life is like a servant waiting for his lord." That 's what your life should be. Like a servant who is waiting for his lord, for his lord may appear unannounced at any time. Therefore, you should be living your life with the anticipation of our Lord coming at any moment. And if you do live your life with this expectation, it will markedly alter your actions and your attitudes. Especially towards the worldly things, of which Jesus is just been speaking.

그래서 예수께서 “봉사나 일할 준비를하라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라” 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12:36).

이제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개념이 되어야 할 삶의 개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개념을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또한 인생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파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의 개념을 표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개념이 반드시 “인생은 자기의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 라는 말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타날 그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올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What is my attitude towards material things? What if the Lord comes tonight, then what value are all of these material things going to be to me? If my Master comes for me tonight, all of these things that I've been worried about, all of these things that I've been giving so much time to, what value will they be to me at that point?

물질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물질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염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이 모든것들이 그 시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Now the way to maintain my proper attitude towards the material world is to be as a servant who is waiting for his Lord. If I am living with that concept of life, then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 improper attitude towards material things. I have the proper attitude, because I am not going to be caught up in the material things. Because I realize that they are not important. My relationship with God is all important. And I am like a servant who is waiting for his Lord. And when my Lord appears, I want to be ready for Him, and able to open the door immediately.

물질 세계를 향한 나의 적합한 태도는 그의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이 되는것 입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인생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물질에 대한 부적합한 태도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물질에 사로 잡혀있지 않으면 나는 바른 태도를 가진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중요한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타나실때 나는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당장 문을 열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so that when the lord knocks, they may open to him immediately (12:36).

Jesus said that's the way you should be. Not a lot of unfinished business when the Lord comes. “Oh wait, oh I wasn't ready, Lord. Oh, you caught me by surprise. Would you mind waiting for a few hours, while I get things cleaned up here?”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12:36).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때 끝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오 주님,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가 모든것 깨끗이 정리할동안 몇 시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요?”

Now our Lord is coming at any moment. Every other concept of life has its goal in view. And you can pretty well ascertain when it will be achieved. Life is a race. If you are running a race, you know where the goal is. You know how many laps you have finish before you come to that finish line. Life is an education, you know how many more units you need to graduate. But I don't know when the Lord is going to come. I don't know what is the climax. The climax can take place at any moment. It can take place before I get home tonight. It can take place before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when He comes there will be two sleeping in the bed. It could be that I be asleep in bed when the Lord comes knocking, and I want to be ready to just go immediately.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다른 개념도 견해에 따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될때 더 확실해질수 있을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당신이 경주를 할때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인생은 교육입니다. 몇학점을 더 해야 졸업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른지 나는 모릅니다. 무엇이 클라이막스인지 모릅니다. 클라이막스가 어느 순간에나 일어날수 있습니다. 오늘밤 내가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기전에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두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중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때 침대에서 자고있는 사람이 내 자신일수도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당장 뛰어 나갈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Good thing to just clean the slate before you go to sleep at night. Take care of it. “Lord, I commit myself to you.” He may come before morning. And that's the way the Lord wants you to live, because it creates a greater urgency to everything I do. Because this may be my last opportunity to do it. My last opportunity to share the love of Jesus Christ. My last opportunity to serve the Lord. My last opportunity to lay up treasures in heaven. And so your concept of life is as a servant waiting for his Lord. It has a lot to do with my life, as far as purity is concerned.

밤에 자러 가기전에 해야할일을 다하는것은 좋은것입니다. 할일을 다 처리 하십시오. “주님, 모든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아침이 되기전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모든일에 대단한 긴급성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 일을 행할수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길 마지막 기회 일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나의 마지막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 대한 개념은 주님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은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정결하게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For we are now the sons of God, but it doesn't yet appear what we are going to be: but we know, when He appears, [at any moment, at any time] we are going to be like Him; for we will see Him as He is” (I John 3:2).

And he who lives by this concept, he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even as He is pure. It is a purifying influence living this concept of life. I want to make sure that I am pure. I want to make sure that I am right. I want to make sure that I am ready to meet my Lord at any moment. So that when He comes, you may open immediately.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이 개념대로 사는 사람, 즉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삶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깨끗케 하는 영향을 줍니다. 내 자신이 깨끗한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옳음을 확인 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오실때 당장 문을 열수 있습니다.

And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 when the lord comes he will find watching: verily I say unto you, that he shall gird himself, and make them to sit down to meat, and will come forth and serve them (12:37).

Now that's the thing that just absolutely is hard for me to really conceive. The Lord's reward for His faithful servants who are girded, waiting for their Lord. Ready to open, watching for Him to come. What's He going to do? He is going to gird Himself and serve them. The glorious marriage feast of the lamb. The Lord is going to be there and say, "I am going to be here to serve you." Oh, my.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12:37).

바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 힘든것입니다. 주님은 띠를 띠고 그들의 주인에게 수종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문을 열 준비가 되어있고 그들의 주인이 올때를 지켜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 자신이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양의 혼인잔치 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여기 있노라” 고 말할것입니다. 와와!

Now if he shall come in the second watch, or come in the third watch (12:38),

And these are watches during the night, you don't know what watch He is going to come, the second, or the third, but the thing is, be ready. So that whatever time the Lord may come, you will be ready.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12:38),

이경이나 삼경은 밤중입니다. 주인이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준비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and if he finds them girded [waiting for the Lord], blessed are those servants. And this know, that if the goodman of the house had known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have watched, and he would have not allowed his house to be broken in through. So therefore be ready also: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when you think not (12:38-40).

Now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the Lord is coming in the next hour? Honestly, I don't think any of us believe He is coming in the next hour; we probably wouldn't be sitting here. There is a little bit of unfinished business I'd like to take care of, you know. A few calls I want to make. Watch out. The very fact that you don't think He is coming in the next hour makes it a good candidate.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in an hour when you think not.

주인이 ...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12:38-40).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주님이 한 시간 이내에 오시리라고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주님이 한 시간 안에 오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끝내야 할일이 끝장이 나지 않았어. 전화도 몇군데 해야하고. 조심 하십시오. 다음 한 시간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생각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십니다.

Then Peter said unto him, Lord, is this parable for us, or is it for everybody? And the Lord said, Who is that faithful and wise steward, whom his lord will make ruler over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portion of meat in due season? (12:41-42)

Who is that faithful servant that the Lord is going to make a ruler in His household in the kingdom of God?

Blessed is that servant, whom the lord when he comes shall find him so doing (12:43).

So doing what? Watching for the Lord. As a servant, girded, waiting for his Lord.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12:41-42)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드실 신실한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도다 (12:43).

무엇을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지 지키는것입니다. 종으로서 허리를 동이고 그의 주인을 기다리는것입니다.

Of a truth I say unto you, that he will make him the ruler over all that he has
(12:44).

Jesus said, "And in that day I will say unto them on the right hand, 'Come, ye blessed of the Father, inherit the kingdom that was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Matthew 25:34).

As John is describing Jesus in the first chapter of Revelation 1, he said, "Unto Him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who has made us on to our God a kingdom of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Him, upon the earth." He said, "I will make him the ruler over all that I have."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12:44).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 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고 하셨습니다 (마 25:34).

요한계시록 오장에서 요한은 예수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 하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함께 다스리리라." 그가 말씀 하시기를 "내가 가진 모든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But here is a warning:

If that servant says in his heart, [Oh,] My lord is going to delay his coming
(12:45);

"The Lord isn't going to come until after the revelation of the antichrist. He is going to delay His coming until the tribulation period, or until after the tribulation period. Or He is going to delay His coming until Russia moves, or whatever." Hey, the Lord can come at any moment, and He wants you to be ready for Him to come at any moment.

Now there is always a danger of saying the Lord is delaying His coming. That is a dangerous and pernicious doctrine and thought. Because the effect of it is so often slothfulness. The Lord is delaying His coming; let's have a big party.

그러나 여기에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12:5);

“주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 까지 오시지 않을거야. 주님이 오시는것을 대 환난 때까지 아니면 대 환난 이후에 오실거야. 아니면 러시아가 이동할때까지 지체 하실거야...” 이것좀 보세요, 주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것은 어느 순간에도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체된다고 말하는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위험할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교리와 생각입니다. 그것은 빈번히 케으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것이 지체되니 큰 잔치나 합시다 라고 할것입니다.

and he begins to beat the menservants and the maidens, and he begins to drink, and be drunken; The lord of that servant will come in a day when he is not looking for him, at an hour when he is not ready, and he will cut him in two, and will appoint him his portion with the unbelievers. And that servant, which knew the lord's will, and prepared not himself, neither did according to his will, will be beaten with many stripes. But he that knew not, and did commit things worthy of stripes, shall be beaten with few stripes. [And here is the key:] For unto whom much is given, of him shall be much required; and to whom men have committed much, of them they will ask the more (12:45-48).

God holds you responsible for your knowledge. Knowledge creates responsibility before God. And having the knowledge that you have, brings you into a greater responsibility before God. God holds you responsible.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12:45-48).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앞에서 책임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지식을 가졌다는것을 알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Now there are oftentimes questions asked concerning that poor man in the jungles of New Guinea who has never heard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ho is killed in a battle with other men, and he is eaten by them, what happens to him? Is he lost forever because he didn't believe in Jesus Christ? How could he believe in Jesus Christ when he never had a chance to hear? Is it fair that God would punish him with eternal punishment when he had never had a chance to hear? Jesus answers that for us he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심□ □□합□□? □□□ □□□ 예수께서 □□□ □□□□ □□ □□□□□.

Showing that all punishment is not going to be the same. Those who have heard have a greater responsibility, and thus, a more severe degree of punishment. Whereas those who did not hear, yet did things worthy of stripes, because they did not know, a lesser degree of punishment. They will be punished for the knowledge that they have. So you better quit worrying about that poor little man in New Guinea, and start worrying about yourself. Because you have heard, you do know, you are responsible for what you know. And having received the greater knowledge, if you do not act in accordance to that knowledge, then there shall come the greater degree of punishment.

모든 형벌이 같지 않다는것을 보여 줍니다. 말씀을 들은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으며 더 중한 벌을 받게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 못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가벼운 벌을 받게되어 매를 맞게 될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니 뉴기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들어서 알기 때문에 당신이 아는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을 받고도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I know there is a lot of issues in this you would like me to address myself to tonight, but I am not going to.

Jesus said:

I am come to send fire on the earth; and what will I, if it already is kindled? But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with; and how I might straitened until it is accomplished!
(12:49-50)

He is talking about the fire of hell that was really burning against Him in the hearts of the people. It's already kindled this fire, the fire of judgement. And He has a baptism, that baptism of death.

이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있을줄 알지만 지금은 이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12:49-50).*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타고있는 그를 반대하는 지옥의 불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불은 벌써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의 침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hen the mother of James and John said, "Lord, I'd like a favor. Let my one son sit on one side, and the other on the other side of You when You are sitting there in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Jesus said, "Are they able to be baptized of the same baptism?" "Oh, yes, Lord," the boys said, "you bet you. We can." Jesus said, "Well, that may be, but to grant that request is the Father's prerogative." Talking about His death, His baptism. "And I am straitened until it's accomplish, I am set towards it."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여,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영광중에 앉으실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구했을때 예수께서 “내가 받는 침례를 그들이 받을수 있느냐?” 라고 하셨을때 그 아들들은 “예, 주님, 할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침례는 받으려니와 너희의 요구를 허락하는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느니라.” 주께서 그의 침례를 말씀 하실때 그는 그의 죽음을 말씀 하신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때까지 나는 그것에 전념하노라. 내게는 목표가 정해졌노라” 고 주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Do you suppose that I've come to give peace on earth? I tell you, No; a division
(12:51):*

The Gospel of Jesus Christ divides men. Those who are saved, and those who are lost. Those who believe, and those who do not believe. Those who have a hope in eternal life, those who have no hope of eternal life. The Gospel of Christ is a divider of men. Families are divided by it.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12:5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 갈라집니다.

And so from now on there will be five in one house divided, three against two, two against three. The father divided against his son, the son against his father; the mother against the daughter, the daughter against the mother; the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12:52-53).

This division that the Gospel created, and especially so in the Jewish home, where so often to receive Jesus Christ wrought a complete ostracizing from the rest of the family. What a division their faith in Jesus Christ did create in an orthodox Jewish home. Where many times they would have a funeral for that child and considered them dead, because they dare to believe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chosen one of God. The division.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12:52-53).*

복음으로 인한 분쟁은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심합니다. 번번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가족들로 부터 완전히 배척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대단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감히 예수를 선택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Now He is talking to His disciples up to this point, now He turns to the crowd.

And he said to the people, When you see a cloud rise out of the west, immediately you say, Oh there is going to be a shower; and so it is. And when you see the south wind blow, you say, Oh, it's going to be a hot day today; and it comes to pass (12:54-55).

Over there, of course, from the west would be coming from the Mediterranean Sea. So like here, when you got the clouds coming in from the ocean, you say, "Oh, oh, we are going to have a shower." You get the Santa Ana winds blowing, you say, "Oh, oh, it's going to be a hot one today." So over there, much the same.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말씀 하신 후에 무리들을 향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12:54-55).*

서쪽의 지중해로 부터 구름이 생겨날때 말하기를, "오, 소낙비가 오겠군" 하고 말합니다. 산타아나 바람이 불면, "오, 오늘 많이 더워 지겠군"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입니다.

And Jesus said,

You hypocrites, you can discern the face of the sky and of the earth; but how is it that you can't discern this time? (12:56)

In other words, you are able to tell by the signs in the heavens what kind of a day it's going to be, rainy, or hot. Why is it that you haven't been able to read the signs that God has placed for the time of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He rebuked them, because they had not known the time of His coming. They should have.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12:56).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징조를보고 날씨가 비가 올지 아니면 더울지를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의 오실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읽을수 없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의 오실때를 알지 못하기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것이기때문입니다.

Now I feel that the same is true for us today. The Lord has given ample evidence by prophesy, telling in advance the things that would exist at the time of the return of Jesus Christ. Having given us the signs of these things, He said, "Now when you see these things begin to come to pass,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 for your redemption draweth nigh" (Luke 21:28).

나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느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말씀하신 예언으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징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눅 21:28).

And yet, there are people who are able to make predictions of the stock market, or able to make weather predictions, or they can predict and forecast many things, but they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we are in the last days. And in the end of time. And the same kind of spiritual blindness over the return of Christ. And even many ministers will sort of mock the idea of the immanency of the return of Jesus Christ. How sad that people are just as ignorant of His second coming as they were His first.

아직도 증권시장이나 일기예보나 여러가지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을 깨닫지 못한것 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He said,

Yes, and why even of yourselves judge ye not what is right? (12:57)

Why can't you yourself make a good judgment?

Now He said,

When you go with your adversary to the magistrate (12:58),

You've got problems; you are being involved in a suit.

as you are in the way, give diligence that you may delivered from him (12:58);

Seek an out of court settlement is what the Lord is saying.

lest he hale you to the judge, and the judge deliver you to the officer, who cast you into prison. I tell you, you won't get out, until you paid the very last mite [which is one eighth of a cent] (12:58-59).

주님께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12:57).

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12:58);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12:58);

주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법정에 가기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호리 (일전이) 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58-59).

Chapter 13

Now there were present at that season (13:1)

And, of course, now Luke may have gone on in a period of time. We don't know how much time elapsed between verse 59 of chapter 12, and 13:1. It could be that this synagogue is somewhere down near Jericho.

There were present at that season some that told him of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ngled with their sacrifices (13: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13:1)

물론 누가는 어느 기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본것 같습니다. 12 장 59 절과 13 장 1 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회당은 여리고 근처 어느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13:1).

Now the Galileans were often hotheaded. They were always chaffing under the Roman rule, and most of the revolts against the Roman government came in the area of Galilee. So they are relating to Jesus how that there were some Galileans who were probably involved in a ruckus against Rome, and Herod sent his soldiers, and when the soldiers came, they were in the act of offering sacrifices to God. And the soldiers killed them right there, and their blood was mingled with the blood of the sacrifices. And, of course, to the Jew that was a very heinous thing.

갈릴리인들은 빈번히 성질이 급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그들은 항상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로마 정부에 대한 반항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소란을 피우는일에 참여했던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했음을 예수와 관련 시키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의 군사들을 보냈으며 그 군사들이 왔을때 저들은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저들을 거기서 죽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극악한 짓이었습니다.

And so they had just informed Jesus about this.

And Jesus answering said unto them, Do you suppose that these Galileans were sinners greater than all of the rest of the Galileans (13:2),

Do you suppose that they are the worst sinners in Galilee?

because they suffered such things? (13:2)

Do you think that this is an act of God's judgment because they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rest?

그래서 그들은 이일에 관하여 예수께 알렸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13:2),

당신들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그들이 다른 모든사람들 보다 악한 죄인이었기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Now it is so often that we make that mistake of when something happens to a person that is a very sad or tragic event, so many times people look on it as judgement. "Oh, ho, they are getting what they deserve, aren't they. I wonder what they did to deserve that terrible thing." And Jesus is putting down this concept. "Hey, do you think because this happened to them, they were worst sinners than the rest of the people in Galilee?" He said,

I tell you, No way: and, unless you repent, you are also going to perish. Now the eighteen people, upon whom the tower of Siloam fell, and killed them, do you think that that happened because they were sinners who were living there in Jerusalem? (13:3-4)

어떤 사람에게 대단히 슬픈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오호,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것을 받는구먼, 그렇지 않은가? 그런 흉악한일을 당하도록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구먼." 예수께서는 이러한 관념을 막으려고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갈릴리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13:3-4).

Now the pool of Siloam is down in an area that you have to go down many steps to get down to the pool of Siloam. And there are buildings around the pool of Siloam now, walls and all, and they were probably building a tower. And the people used to go to the pool of Siloam. It was a crowded place because that was the main water supply for Jerusalem. And the women would do their washing there in the pool. And it's no doubt always crowded with people. And this tower that they were building there at the pool of Siloam fell, and eighteen people were crushed to death.

실로암 못은 거기에 내려가려면 수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엔 실로암 못 주변에 여러 건물들과 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탑을 짓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곤 했습니다. 그 연못이 예루살렘의 근원이 되는 수원지 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은 연못에서 빨래를 했을것

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니다. 실로암 에 사람들이 세웠던 탑이 무너져 18 명이 죽었습니다.

And so Jesus calls attentions to this tragedy. He said, "Do you think that that happened because they were the worst sinners in Jerusalem?"

No, I tell you: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And then He spoke a parable to them; A certain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came and sought fruit from it, and he found none. And he said to the dresser of his vineyard, Three years I've been waiting for this tree to produce fruit, and I have found none: cut it down; [why should it take energy or nutrients out of the soil?] Why cumbereth it the ground? But the gardener answered and said, Lord, let it go for one more year, and I'll dig about it, and fertilize it. And if it bears fruit, good: and if not, after that we'll cut it down (13:5-9).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극에 주의를 기우리게 하셨습니다.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3:5-9).

The fig tree is used in a symbolic sense of the nation Israel. The Lord desiring to receive fruit, and not receiving it. Coming for fruit, and not finding it. And the one more opportunity that is given to them to bare fruit. If they don't, then it will be cut down. Tragically they did not, and the nation was cut off.

And as he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on the sabbath. There was a woman which had a spirit of infirmity for eighteen years, and was bowed together, and could not lift herself up (13:10-11).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실을 원하시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결실을 보려고 오셨으나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결실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결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으며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3:10-11).

Now I have seen people over there in the orient, in the Middle East, who are bent over from their waist, the upper torso goes down, and they usually hold their head out, but they are bent double from their stomach. The upper torso down, and their head is sort of by their feet, looking up, just bent over. And it's a very grotesque sight to see. Here was a woman who had this grotesque appearance, being bent double. She was in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when Jesus was there. According to the account, her condition was caused as the result of demonic activity, a spirit of infirmity.

나는 동방 즉 중동에서 허리의 윗부분에서 부터 꾸부러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통상 그들은 머리는 위로 쳐들었지만 그들의 배꼽에서 부터 이중으로 꾸부러졌습니다. 몸통의 윗부분은 아래로 향하고 그들의 머리는 그들의 다리에 의하여 위를 쳐다보도록 꾸부러졌습니다. 그것은 쳐다보기에 아주 괴상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괴상 망칙한 모습의 여인이 꾸부러진채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계실때 그 여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 육체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And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to him, and he said unto her, Woman, you are loosed from your infirmity. And he laid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was made straight, and glorified God (13:12-13).

Imagine what that must have done in the synagogue that day. With this woman, who after eighteen years in this bent over condition, was able to stand up straight, and started praising God, and glorifying God.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 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3:12-13).

그날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18년간 이러한 상태로 꾸부러져 있던 이 여인이 똑 바로 설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Now the ruler of the synagogue responded with indignation, because Jesus had healed her on the sabbath day (13:14),

And not to Jesus, he didn't have that much courage, but to the people.

he said, There are six days in which men ought to work: in them therefore come and be healed, but not on the sabbath day (13:14).

So sort of rebuking the people, saying, "Look, you've got six days to be healed, don't come on the Sabbath day."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13:14),

그가 예수께 화를 낼 용기가 없어 사람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13:14).

말하자면 사람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여보게, 병을 고칠수 있는 엿새가 있으니 안식일엔 하지말아야 될것 아닌가.”

And the Lord answered him, and said, Hypocrite, do you not on the sabbath day loose your ox or your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him away to watering trough? (13:15)

One thing about the Jews was they were always very humane. A high value upon life, human and animal. This humane aspect to the date is one of the great qualities of the Jewish people. Some of the greatest hospitals, open to everybody, their value that they place upon life. And so because of that, their law would allow them to untie the donkeys, or their ox, and lead it to water, even though it was the Sabbath day, and that was work. Because of the humanness of it or the kindness of it to animals, they were allowed to do that in the law. And so Jesus said, “Which of you, if you have an ox or a donkey, don't you loose it, don't you untie it on the Sabbath day to give it water?”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3:15).

유대인들에 관한 한가지는 그들은 항상 대단히 자비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까지 이 자비심이 있는 이 측면은 유대인들의 아주 훌륭한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큰 병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들은 생명에 가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나 소를 끌러서 물을 먹이는것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이고 또 동물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중에 누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And ought not this woman, being a daughter of Abraham, who Satan has bound, for lo, these eighteen years, be loosed on the sabbath day? (13:16)

All I have done is untie a woman that Satan had bound up for eighteen years. So what if it is the Sabbath day? You loose your donkey to give him water.

And when he said these things, all of his adversaries were ashamed [rightfully so]: and all of the people rejoiced in the glorious things that were done by him. And he said, Unto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13:17-18)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때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3:16)

단지 내가 행한것은 18 년간 사단에게 매였던 여인을 풀어준것 뿐이니라.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나귀를 풀어 물을 마시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13:17-18).

Now here He has just had this run-in with the religious leaders. The religious systems of man, who had taken the revelation of God, the law the ordinances, the statutes, and they had made such a system out of it that it was hard for a simple man to come to God with this complex system that men had made. And so really, as Jesus said, "You won't enter the kingdom yourself, and you actually hinder those who would like to come into the kingdom."

여기에 주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맡은 사람들의 종교제도는너무나 복잡해서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뿐만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It's tragic when religion becomes a hindrance to man's coming to God rather than an assistance to man's coming to God. But that's the capacity of man. He is able to take a simple thing and make it extremely complex by setting up his own hierarchy in it, and his systems of authority and power.

종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간단한것을 취하여 권위와 권력을 사용할수있는 자신의 계급 제도를 도입하여 그것을 지극히 복잡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And Jesus said just come up against the authority who would hold back the work of God on these people because of some tradition that they had developed, a concept of man that had become popular among them. And thus, they would hold back the people from God's work in their lives.

백성들에게 그들이 개발한 전통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관념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지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해서 그들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것을 방해합니다.

And so Jesus said, "What shall I liken the kingdom of God to?"

what can I give to resemble it? It'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cast into his garden; and it grew, and waxed into a great tree (13:18-19);

Wait a minute, something is wrong. A mustard seed is a herb. It belonged in the herb gardens. A mustard seed never became a great tree. There is something abnormal about this. There is an abnormal growth here.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13:18-19);

잠깐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겨자는 풀입니다. 그것은 채소 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가 결코 큰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 정상적인것이 있고 그것은 비 정상적으로 자란것입니다.

and it grew, and waxed into a great tree; and the fowls of the air lodged in the branches of it (13:19).

In college I had a professor who told us not to try to preach from the parables until we had been pastoring for at least thirty years. He said, “It will take you that long to understand the parables.”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13:19).

내가 대학교 다닐때 한 교수는 우리가 적어도 30 년간 목회할때까지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말 했습니다. 그는 “비유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What do college professors know? I started preaching from the parables immediately. I wish I could retract many of these sermons that I have preached from the parables. It's amazing how they have changed in the last thirty years.

대학교 교수가 뭘안다고? 나는 당장 비유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유에서 설교한것을 돌이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난 35 년 동안에 얼마나 바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This parable, and the following parable of the leaven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until it leavens the whole lump, have had two widely divergent interpretations. There are some, mainly liberal theologians, who use these parables to show how the kingdom of God will start very small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so very small. Yet, it grew into a great tree and the

fowls of the air came and lodged in its branches. And so they teach that, though the kingdom of God will start with a very small beginning, the twelve disciples, yet it will grow, and grow, and expand, until it encumbers the whole world. And all kinds of nations and people will be able to lodge in its branches. And they say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a person believes, they all find shelter and lodging in this great tree. It's able to accommodate a wide variety of beliefs and systems. And again, the same idea with a little bit of leaven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until the whole of it is leavened.

이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가루 서말속에 넣어 부풀게한 누룩의 비유에는 두가지의 다양한 해설이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서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것을 보여주기위해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단지 열두제자를 사용하셔서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또자라서 온세상을 다 점령할때까지 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갖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 가지에 머무를수 있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든지 실제로 상관이 없으며 이 큰 나무에 피난처를 찾아 머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다양한 종교와 제도를 포용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작은 누룩 하나가 가루 서말이 부풀때까지 그속에 숨어있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Is again a symbol of how just the Gospel will begin in just a little part of the world, but will gradually expand until the whole world has been brought to Christ.

다시 그것은 어떻게 복음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온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될때까지 진보적으로 확장될것의 상징 이라는것입니다.

These theologians back in 1935 and '36 were proclaiming every day, and in every way, the world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That was before Hitler began his movement into Austria. After Hitler's rise, somehow you didn't hear that phrase anymore. Because we saw that horrible holocaust of World War II. But unfortunately, things haven't improved much since World War II. The world is perhaps in the worst shape it has ever been in. And far from the church being a healthy influence, bringing the kingdom of God. And, of course, that's what was going to happen according to this philosopher. The church is going to bring the kingdom of God to the world. And one of these days the church will take over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and we'll have a theocratic government, and will be able to rule, and we'll bring the glorious kingdom age. And we'll bring peace, and the men will beat their swords in the plowshares. And the church is going to bring to pass, the glorious kingdom age.

1935-1936 년도에 이러한 신학자들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세상은 점점 더 살기좋게 되어 간다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로 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일어난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없으나 그런말은 더 이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차대전의 혹독한 대학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차대전후에

조금도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건전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철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멀지않아 교회가 세상의 모든 정부를 차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부를 세울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다스릴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나라의 시대가 올것입니다. 그런후에 평화가 올것이며 그들의 무기는 쟁기를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나라의 시대를 갖게될것입니다.

Now there are still groups that do believe this. The Mormon church, for instance, has set itself up to take over the government as soon as it collapses. And they believe that the collapse must come, and they will then step in in the shambles. And they will establish a righteous government. And we will all become Mormons. And we will have peace upon the earth.

아직까지도 이것을 믿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몰몬교회는 정부가 무너지는 순간 떠맡으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며 수라장이 될때 그들이 받을 들여놓고 의롭고 공평한 정부를 세우겠다는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몰몬교도가 되며 이 지상에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But unfortunately, the Jehovah witnesses are planning much the same. So it looks like when the system falls into shambles that we are going to have a first class war as to who will be setting up the theocratic government. Whether it be the Mormons or the Jehovah witnesses. I am of the opinion that it will not be the accomplishment of men or of the church, but will, and can only be, accomplished by the return of Jesus Christ Himself. And I don't think that it is going to happen prior to His return. In fact, I think everyday, and in every way, the world is getting worse, and worse, and worse. And that's pretty much in keeping with what Jesus said would happen. "For evil days," He said, "shall wax worse, and worse."

불행히도 여호와의 증인도 거의 비슷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무너지고 수라장이 될때 누가 신정정치를 설립하려는지를 결정하기위해 일급 전쟁이 벌어질것입니다. 그것은 몰몬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를 결정하기 위한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사람이나 교회에 의해 신정이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엔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날마다 모든면에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일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악이 점점 성행하는날이 오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Thus, the second interpretation to these parables. Guess which one I believe? Number one, the mustard seed growing into a tree is abnormal growth. It isn't natural growth; it's

abnormal growth. Now there is what is known as expositional constancy, and that is, you use a figure of speech in a parabolic form, and that figure of speech remains the same in all parables. So in all of your parables the fowls or the birds are never used in a good sense, but in an evil sense. When the seed fell by the wayside, the birds of the air came and devoured it, that it could not take root. And what did Jesus say the birds of the air were? Satan comes in and snatches it away. So what Jesus is saying, is that, though the church may experience an abnormal growth, it will become the lodging place of many evil systems. And as I look at church history, that is what I see is indeed the fact.

이 비유에 두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것이 어느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로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것은 비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게 아니라 비 정상적으로 자라는것입니다. 성경해석학적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형태에서 상징적으로 쓰여진것은 모든 비유에서 똑 같은 상징으로 남아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비유에서 까마귀나 새는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될수없고 악한 뜻으로만 사용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못한 씨앗을 삼켜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공중의 새들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은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경험을 할지라도 많은 악한제도가 머무는곳이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때 그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When Constantine, for political reasons, gave the edict of toleration and supposedly embraced Christianity and joined a church to the state, that was the darkest hour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For in joining the church to the state, he introduced into the church a multitude of pagan practices, of which the church has never been able to fully free itself.

To the church of Sardis, the protestant reformation, Jesus said, "I have somewhat against you, I have not found your works complete before God."

정치적인 이유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용납하고 받아드리도록하여 교회가 국가에 연결되었을때 그것은 교회역사상 최악의 암흑기 였습니다. 교회를 국가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는 이교도들이 지키는 많은 것들을 교회에 소개시켰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해방될수없게 되었습니다.

사태교회, 즉 종교개혁에 대하여 예수께서 “너를 책망할것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The Protestant reformation came as a protest against the evil practices that had arisen within the Catholic church, especially the selling of indulgences. For the pope was desirous to build a great cathedral in Rome, St. Peters. And the money wasn't coming in fast enough to build this glorious monument that he was desiring to put up as a symbol for Christianity. And so someone in the council came up with a bright idea. "Everybody likes to sin, why don't we sell them forgiveness for sins." And they can buy an indulgence before they ever indulged.

종교개혁은 카톨릭교회안에서 일어난 악행, 특별히 면죄부를 파는일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황으로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가 짓고 싶었던 영광스러운 건물을 짓는데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이 명철한 생각을 한것입니다. “모든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죄의 용서를 파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폭 빠지기전에 면죄부를 살수 있습니다.”

So as they're indulging, the thing is covered, because they've already bought their forgiveness. “So you want a little escapade on the side. You want to go out and get drunk? Fine, go down and buy your drunk indulgence. You want to have an affair? Go down and get an adultery indulgence.” And they started selling the indulgences to the people. And this so incensed Martin Luther that he took his ninety-five thesis, his objections to the practices that had developed within the church, and he tacked them on the door, and he protested. And thus, the name Protestant. Beginning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그들이 죄악에 빠질지라도 그들이 면죄부를 샀기때문에 죄를 용서 받은것입니다. “탈선행위를 하고 나가서 술마시기 싶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내려가서 술을 사서 마십시오. 정사를 원하십니까? 내려가서 간음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를 격노케하여 그가 교회안에서 개발한 악을 반대하는 95 조항을 채택하여 그것을 문에 붙여놓고 항의했습니다. 이래서 개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A dark black history, birds in the branches, fowls. Leaven, as we mentioned earlier, when Jesus said,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creates a fermenting process, rottenness. The three measures of meal, going back into the Old Testament when the angel of the Lord visited Abraham, he ordered Sarah to prepare something for him, and she took three measures of meal, and made some bread for them. And at that point they became symbolic of fellowship with God. So that under the law, when they had made the burned offering sacrifice, which was the sacrifice of consecration of a person's life to God, they followed it with the meal offering, which was made of three measures of meal, three-tenths of an ephah of fine flour, the three measures of meal. And they would offer this as a sacrifice, which symbolized the offering of my works to God, bringing me into fellowship with Him.

그것이 교회의 암흑기의 역사이며 가지에 깃든 새들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 말씀 하셨을때 누룩은 발효과정 즉 부패과정을 말한것입니다. 가루 세말을 생각 해봅시다. 구약에 돌아가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때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사라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라는 가루 서말을 취하여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교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율법아래서 사람들이 개인의 삶의 성결을 위한 제물, 즉 번제를 드릴때 번제에 이어 소제를 드리며 그것은

가루 서말 즉 고운 가루의 한 에바의 십분의 일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희생으로 드리며 그것은 내가 일한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것입니다.

Now in the offering of the sacrifices, they were never to use any leaven. So that the leaven inserted into the three measures of meal is an evil thing. But yet, that evil will permeate until it has an effect upon the whole lump. And unfortunately, this has been again the experience of the church. And as we look at the condition of the church today, we see that it is far from what Jesus said it should be. There is leaven and it has affected the whole church, and the witness of the church is sadly hindered by the leaven within it.

희생의 제물을 드릴때 누룩을 사용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루 서말속에 누룩을 집어 넣는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침투하여 반죽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다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볼때 예수께서 원하셨던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누룩이 있으며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안에 있는 누룩으로 인해 슬프게도 교회의 증거는 방해를 받게됩니다.

Now Jesus went through the cities and villages, teaching, and journeying towards Jerusalem (13:22).

So He is now on His way back toward Jerusalem.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13:22).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Then one said to him, Lord, are there only a few that are going to be saved? And he said unto them, Strive [the word in Greek is agoniso, strive] to enter in at the strait gate: for many, I say unto you, will seek to enter in, and shall not be able to. When once the master of the house is risen up, and has shut the door, and you begin to stand without, and knock at the door, saying, Lord, Lord, open unto us; he will answer and say unto, I don't not know you from whence you are: Then shall ye begin to say, Oh, but we have eaten and drunk in thy presence [we've taken communion], you have taught in our streets. But he shall say, I tell you, I don't know from whence you are; depart from me, all ye workers of iniquity. And there sha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n ye shall see Abraham, and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and you yourselves thrust out. And they shall come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and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and shall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And, behold, there are last which shall be first, and there are first which shall be last. The same

day there came certain of the Pharisees, saying unto him, You better get out of here; because Herod is going to kill you. And Jesus said to them, You go tell that vixen, Behold, I'm casting out devils, and I'm cur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third day I will be perfected (13:23-32).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13:23-32).

This is the only person of which Jesus really spoke in such a derogatory manner. Herod had gone over the limit. Jesus had absolutely nothing to say to him, except the message he sent, "You go tell that fox I'm going to do my work," that vixen, female fox.

실로 이 사람이 예수께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태도로 말씀하셨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보내신 메시지의 외에는 그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일을 하려한다고 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암 여우를 말합니다.

When Jesus appeared before Pilate, Pilate sent Him to Herod, and Herod was glad because he had heard about Jesus and he was curious. He wanted to see Jesus work some miracle. And when Jesus came to Herod, Herod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and Jesus didn't say a word. He had no answers. He didn't say a word to Herod. It is sad when a man's condition is so bad that the Lord has no word for him at all. Jesus refused to speak to him, had no word for him, that is how far he had gone down. What a sad condition to be in. "You tell him that the third day I shall be perfected." "Herod is going to kill." He says, "I'm going to be there."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를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간하여 들었고 궁금했었기 때문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몇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에게 오셨을 때 헤롯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 말씀도 아니 하셨습니다. 대답할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헤롯에게 한 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상태에 있을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는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가 너무 악하게 되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절 했고 그에게 하실 말씀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태입니까! “내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그에게 전하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제자가 말했을때 주께서 “내가 그곳에 가겠노라” 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Nevertheless I must walk today, and tomorrow, and the day following (13:33):

Now remember he was journeying towards Jerusalem. He said,

it isn't proper that a prophet should perish out of Jerusalem (13:33).

And then He cried,

O Jerusalem, Jerusalem, which killest the prophets, and you stoned them that were sent unto thee;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thy children together, as a hen doth gather her brood under her wings, and you would not! Behold, your house is left unto you desolate: and verily I say unto you, You will not see me, until the time come when you shall say, Blessed is he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3:34-35).

□□□ □□□ □□□ □□□ □□ □ □□ □□ □□□ (13:33).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것을 기억 하십시오.

□□□□ □□□□ □□□□ □□ □□ □□□□ (13:33).

그런 다음 그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도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34-35).

Now they did not see Him publicly until His triumphant entry, and what were they crying at His triumphant entry?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You see, He had just been warned about, “Herod is about to kill you. You better be careful. Herod is about to kill you.” “So, you go tell him I’ve got my work to do. I’ll be there. I’ve got journey today and tomorrow, third day I’ll arrive. It’s not proper that a prophet should perish outside of Jerusalem.” But then His lament, “O Jerusalem, Jerusalem, thou that killest the prophets and stoned them that have been sent to you; how often I would have gathered you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brood under her wings, but you would not!”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자로서 입성하실 때까지 그를 공중들 속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실때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이 있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심 하세요. 헤롯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방금 그는 경고를 받았습니니다. “그에게 가서 전하라. 내게 할일이 있어 거기에 가야하리라. 오늘과 내일은 내 갈길을 가야하리니 삼일에 그곳에 도착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것은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의 슬펐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일이 몇 번이나?”

Now when He made His triumphant entry, as we will get in the nineteenth chapter here of Luke’s gospel, again, as He is looking at Jerusalem, He again laments and cries over Jerusalem, “If you had only known,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things which belonged to your peace! But they are hid from your eyes” (Luke 19:42). They’re crying,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우리가 누가복음 19 장에서 다시 보겠지만 예수께서 입성하셨을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퍼 우십니다 “□□ □□□ □□□ □□ □□ □□□□ □□ □□□□□□ □□ □□□ □□□□□” (19:42). 사람들이 외치며 “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하더라.

So I feel that Jesus is perhaps referring to the fact that He will not be seen in Jerusalem until the day of His triumphant entry. It is possible that He is referring to His second coming. But it is true that at the triumphant entry they were crying,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ut it is also true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so bad in Jerusalem prior to the return of Jesus Christ, when the antichrist comes to the rebuilt temple and declares that he is god and demands to be worshipped as god and begins to persecute the Jews with a greater persecution than they have ever known before, then they will be crying, “O,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They’ll be praying for the Messiah, and Jesus will come.

주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날까지 그가 보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성하실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친것도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시기전에 모든사정이 나쁘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재건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요구할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심한 핍박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며 그들은 “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가 복되도다” 라고 외칠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할것이며 예수께서 오실것입니다.”

So which of two, or perhaps it refers to both, but Jesus is making reference here, “And they will not see Him until they pr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Next week, chapters 14 and 15.

둘중에 어느것, 또는 두가를 다 가리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 있는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들이 기도할때까지 주님을 보지못할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되도다’ 라고.”

다음에 14 장과 15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Now may the Lord bless you and be with you and cause you to hide His Word away in your heart. Meditate upon it, go over and review it, and then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Adopt that concept of life that Jesus spoke of that you might be as a servant just waiting for his Lord.

May God be with you and bless you, give you a good week, help you as you begin this new year, that you might walk with Him in an ever deepening fellowship. In Jesus' name.

주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하는자가 되지말고 행하는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인을 섬기는 종의 개념을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셔서 좋은 한주간이 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며 주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uke 14-15
Tape # C2535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in our Bibles now to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hapter 14.

The fourteenth chapter involves an invitation for Jesus to come to a supper on the Sabbath day and of the things that transpired at that supper, and the subsequent exchange between Jesus and the people as Jesus talked to them concerning etiquette and concerning the demands of the kingdom.

성경의 누가복음 14 장을 펴보십시오.

14 장은 안식일에 만찬에 예수를 초청한 것과 만찬에서 일어난 일들과 예수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주고 받은 대화와 예의 및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사람들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So it came to pass, as he went into the house of one of the chief Pharisees to eat bread on the sabbath day, that they watched him (14:1).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Jesus accepted the invitation. He knew that they were out to get Him. It seems to me that Jesus was always open to an invitation to eat, going so far as inviting Himself to Zacchaeus' house. "Come on down Zacchaeus. I want to come over to your house and eat." And finally in Revelation, standing at the door and knocking, waiting for anyone to open so that He can come in and eat. "And if you will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I will eat supper with you." As we this morning were talking about the significance of eating in that culture, becoming one, how Jesus desires to be one with us.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14:1).

예수께서 초청을 받아드리신 것이 재미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께서는 식사 초대엔 항상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자청하셨을 정도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기를 원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사회와 문명권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Now the Sabbath meal was different from other meals in that all of the food had to be prepared before the Sabbath. You weren't to kindle any fire. If you were to have anything that was hot it had to be hot before the Sabbath. And somehow there had to be ways to maintain it being hot. Now in those days they had definite rules of those things that you could not do to keep food hot and things you could do to keep food hot, but there was a kosher way of keeping your food hot even that they even had developed for the Sabbath day.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다른 때의 음식과는 다르며 그것을 안식일전에 준비해 놓은것 입니다. 불도 붙이면 안됩니다. 무슨 음식이 더워야하면 안식일 이전에 데워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뜨겁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엔 음식을 뜨겁게 할수 없는 방법과 뜨겁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구분하는 법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일찌라도 그들이 개발한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는 깨끗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Today they plug in before the Sabbath begins. Their hotplates and their water for their coffee (they use instant coffee on the Sabbath day) all have to plug it in. They can't fill the pot once the Sabbath is come. But once it is plugged in, you can pour it out of the pot into your cup and make your instant coffee. That doesn't constitute work. Just don't pour any water into the pot to heat it on the Sabbath day. You have got to have that going before the Sabbath day. And you can't turn the switches on. You just have to have it plugged in and going before the Sabbath day comes. So they still have some interesting little rules for the Sabbath day.

안식일이 시작되기전에 오늘 전기를 켜줍니다. 그들의 철판과 커피를마시기위해 물 (안식일에는 즉석커피를 사용 합니다) 이랑 모든것을 전기로 쪄아 놓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냄비에 물을 부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한번 켜놓으면 물주전자에서 물을 당신의 컵에 부어 커피를 만들수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물을 데우기 위하여 물 주전자에 물을 붓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야하며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도 틀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되기전에 전기를 켜아서 그냥 버려둡니다.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관한 재미있는 몇가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go out to eat, you cannot pay with cash, but you can pay with credit cards on the Sabbath day. To pay with cash would violate the Sabbath, but to pay with a credit card, they have this unfortunate concept that so many people have about credit cards and that is you are really not paying. That is a dangerous thing.

외식을 하려면 현금으로는 값을 치룰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크레딧 카드로는 값을 치룰수 있습니다. 현금을 내는것은 안식일을 범하는것이지만 크레딧 카드로는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크레딧 카드를 쓰면 실제로 값을 치루지 않는다는 그릇된 개념을 가집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So the Sabbath day meal was different. And they were watching Jesus. Now it seems that they were watching Him because there was a setup.

And, behold, there was a certain man before him which had the dropsy. And Jesus answering spake the words to the lawyers (14:2-3)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를 지켜 보는듯합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14:2-3).

Answering what? It doesn't say they asked Him any question, but realizing, no doubt, that this whole thing was a set up. He was invited to eat on the Sabbath day to break bread with them, and here right before Him they have set this man with this disease of dropsy.

And so Jesus answering them, realizing that it was a setup,

spake to the lawyers and the Pharisees, and he said,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day? And they held their peace (14:3-4).

They didn't answer Him.

무엇을 대답할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든것을 조작해 놓았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그들의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앞에 고창병든 한 남자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함정을 놓았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14:3-4).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nd so he took, and healed him, and let him go; And he answered them, saying, Which of you shall have an ass or an ox that has fallen into a pit, and will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on the sabbath day? And they could not answer him again to these things (14:4-6).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14:4-6).

Now, under the law they did have a provision that if your donkey or ox would fall into a pit on the Sabbath day, you could pull it out. They did have many open wells, so it was not uncommon for a donkey or an ox to fall into a pit. So Jesus brought up their own law to them, and they could not answer Him.

So then He dealt with them concerning etiquette.

율법에 만일 나귀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낼수있도록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우물이 많았으므로 나귀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는것은 자주 있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과 예의에 관한것을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put forth a parable to those which were bidden to the feast, when he marked how they chose out the chief rooms (14:7);

Usually they had at these feasts a table with three pillows around it. They were called tricliniums. And they would usually sit the people three at a table, and the middle pillow would be the place of honor at that table. And say you were going to invite nine guests. You would have three tables set up in this triclinium, and at each of the tables you would have the center pillow for your guest of honor. And of course, they would sit and sort of recline, and that is why they are called tricliniums. They would recline on these pillows and eat in sort of a reclining position.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14:7);

통상 이러한 잔치를할때 상을 놓고 그 주변에 베개를 세개쯤 놓아둡니다. 그것을 삼방에 놓게된 안락의자가 붙은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세사람이 식탁에 앉으며 중간 베개는 그 상에서 상좌가 되는것입니다. 아홉 사람을 초대하려면 이러한 상이 세개가 있어야하며 각 상의 중간 좌석은 주빈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앉지만 비스듬히 눕게되며 그래서 삼방 안락의자가 붙은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베개들은 기울일수 있으며 기울어진 자세로 식사합니다.

So, Jesus was watching how they were jockeying for the best positions, for the places of honor, for the places of note, for this business of trying to get into the place of prominence. So He said,

When thou art bidden of any man to a wedding, don't sit down in the highest room; lest a more honorable man than you has been bidden to the feast; And those that bade thee and him come and say to you, Give this man your place; and you with shame will have to go to the lowest room (14:8-9).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움직여 가장 좋은 자리 즉 상좌를 차지하는지를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으뜸가는 자리 즉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14:8-9).

It is an embarrassing situation. You sat at the head table, but you don't belong there. So they come up and say they are sorry, but they don't have any place for you at that table, so you better take a table in the back. And everybody sees you leave the head table and head for the table in the back.

But when you are bidden, go and sit down in the lowest room; and when he that bade thee comes, he may say unto thee, Friend, come on up higher: then you will have honor in the presence of those that sit at meat with thee. For whosoever exalteth himself shall be abased; and he that humbleth himself shall be exalted (14:10-11).

그것은 난처한 처지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아닌 상좌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에게 와서 미안하지만 그 상에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 뒷좌석에 가라고 한다면 상좌를 떠나서 뒷좌석으로 가는 당신을 모두가 쳐다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10-11).

I think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greatness is humility. Some of the greatest people have been very humble people.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humbling things is to have God use your life. For you know it is not you and you know you are not worthy. But if you seek to exalt yourself, the law of the Lord, you will be abased. But he that will humble himself, the Lord will lift him up.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추도록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쓸만한 인물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신은 낮아지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Then said he also to him that invited him, When you make a dinner or a supper (14:12),

Now he is turning on the host.

When you make a dinner or a supper, don't call your friends, and your brothers, and your family, or your rich neighbors; in order that they might bid you again, and recompense you for the invitation. But when you make a feast, call the poor, the maimed, the lame, the blind: And you will be blessed; for they cannot recompense thee: but you will be recompensed at the resurrection of the just (14:12-14).

These are interesting rules of the kingdom.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14:12),
이제 그는 주인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4:12-14).

And when one of them that sat at meat with him heard these things, he said unto him, Blessed is he that sha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14:15).

I think that someone at the table got the flash of light as Jesus began to talk about how in the kingdom there is going to be an equality. There won't be the exalting of one man above another. There won't be important people and unimportant people, but w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And we will all share together in the glory and in the honor in the kingdom. And this man got a flash of light in the kingdom and he said,

Blessed is the man that sha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14: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4:15).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동등하게 될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실때 상에 앉았던 자에게 깨달음이 온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사람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다 함께 나눌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14:15).

And then Jesus gave a parable unto them. You see, all of these have to do with being invited to dinner, going to dinner, because they are sitting at this dinner, or at this Sabbath dinner with the Pharisee.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만찬에 초대받는것과 관련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만찬에 초대 받아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만찬석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Then he said unto him, There was a certain man which made a great supper, and he invited many: And sent his servant at supper time to say to those that were invited, Come; for dinner is ready. And they all with one consent began to make excuse. The first said, I have bought a piece of ground, and I better go see it: I pray thee you will have me excused. An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prove them: And I pray thee you'll have me excused. And another said, I have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So that servant came, and showed his lord these things.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being angry said to his servant,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here the poor, the maimed, the halt, and the blind (14:16-21).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14:16-21).

These are the ones that Jesus told the fellow he should have invited anyhow.

And the servant said, Lord, it is done as you have commanded, and still we've got more room. And the lord said to the servant,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them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For I say unto you, That none of those men which were bidden shall taste of my supper (14:22-24).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종에게 초청하라고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4:22-24).

In this parable I believe that the one who has made the invitation and inviting to the supper is really none other than God. And the reference is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these are some of the excuses that people give for not coming to Jesus Christ.

The first man's excuse was sort of a commercial excuse: "I bought a house and I need to go take a look at it." Pray tell, what kind of a fool buys a house without looking at it? He was busy in commerce.

이 비유에서 만찬에 초대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이 잔치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자신의 변명입니다.

첫째 사람의 변명은 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그집에 가서 잘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바보가 조사도 하지않고 집을 삽니까? 말씀 해보세요. 그는 상업으로 바쁩니다.

The second man is busy in his labors.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kingdom. "I bought five yoke and I need to prove them." Again, what man would buy five yoke of oxen without first testing them? Which of you would buy a car without driving it around the block?

Then the third said that he had just married a wife and couldn't come. Why didn't he bring his wife?

둘째 사람은 그의 노동으로 바쁩니다. 노동이 천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소 다섯마리를 샀는데 시험해보아야해." 또 소 다섯마리를 시험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시험 운전도 안해보고 차를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셋째 사람은 갓 결혼했으므로 올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You notice that they all began to make an excuse. A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excuses and reasons. Sometimes you can make an excuse when you don't have any real reason for it. But I would warn you as Benjamin Franklin said, "The man who is good at making excuses is seldom good for anything else."

보시다시피 모두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명과 변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뚜렷한 이유가 없을때 변명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어 경고합니다,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외에 잘하는것이 별로없다" 고.

They began to make excuses for different reasons, so the lord said to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bring in the poor, the maimed and the halt. Remember to Jesus, He fulfilled the prophecy to the poor,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And still there was room, so he was to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them to come in, and the gospel was being preached compelling men to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그들은 다른 이유를 들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큰길로 가서 가난한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자를 데려 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를 기억 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었으므로 주인이 종에게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오도록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Now at this point he probably left the supper, for we read,

And there went great multitudes with him: and he turned, and said unto them
(14:25),

Having left the house, the people were outside waiting for Him. At this point great multitudes of people were attracted to Him and were following Him and listening to Him. And He is on His way towards Jerusalem, but they think He is on His way towards Jerusalem in order to overthrow the Roman government and to establish and set up His kingdom. And that is why they are being attracted. That is why the multitude is coming. They think that the kingdom is going to come now immediately, and James and John are saying, "Lord, can I sit on the right and left hand?" and all of this jockeying for position was going on. But they don't understand. He is not going to Jerusalem to overthrow the Roman government. He is going to Jerusalem to be put on a cross.

이 때쯤 주인이 만찬에 참석하려고 떠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갈때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4:25)

그가 집을 나갔을때 사람들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린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가 당장 설립되리라고 생각했으며 야고보와 요한도 "주여, 우리가 주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시는것입니다.

You cannot follow Christ just because it is a popular movement. There is a shallowness and a danger to popular spiritual movements. The Jesus Movement was sadly weakened by the endeavors to commercialize the thing and to popularize the thing. And the Jesus Movement parades and banners were fade aspects.

단순히 인기있는 운동이라고해서 그리스도를 따를수는 없습니다. 인기있는 영성 운동은 천박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운동은 슬프게도 그것을 상품화하고 인기있는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약화되었습니다. 예수운동의 행렬과 기치를 올리는것은 시들어가는 모습 이었습니다.

In following Christ, you just don't get on the bandwagon. It is just not joining because everybody is doing it, or it is the in thing to do. This was at that time the in thing. Multitudes were following Him. And because there is a danger in this, He turns to the multitudes and He becomes extremely severe in His words. He is really more severe than I would like Him to be, for He said,

If any man come to me, and hate not his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ethren, and sisters, yea, and his own life also, he cannot be my disciple (14:26).

그리스도를 따를때 그냥 시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한다고해서 그냥 따라하거나 그것이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해서 연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할일일테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 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돌이키셔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엄하신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14:26).

I am not going to be popular, being acclaimed as king. I am going to be crucified. There is a real cost if you are going to come after Me. You better count the cost. You better measure it.

Now, don't misunderstand Jesus and think that I have got to hate my father, and my mother, because that is just the opposite of what the gospel teaches.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And if say I love God and hate my brother, I am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me. How can I love God who I haven't seen and hate my brother who I have seen? Then what does Jesus mean, unless you hate your father, mother, brothers and so forth? That is in the language a comparative.

내가 왕으로 되어 인기가 높아지려는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에 죽으려는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치뤄야할 댓가가 있다.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재어보는 것이 좋을것이다.

예수를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미워해야한다는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가르치는것과 정 반대가 되기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내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보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비교격 언어로 쓴것입니다.

Your love for Jesus Christ must be supreme. It must be greater than your love for your family, your home or yourself, because it may cost you all of these things to follow Jesus Christ. And for many of those people it did cost all those things. Following Christ did cost some of them their families, their family relationships. For they were ostracized by their families when they made their commitment to Jesus Christ. And the same is true today. Many people have found it quite costly to follow Jesus Christ. It cost them their family relationships. But Jesus said if you are not willing to give up these family relationships, you can't really be My disciple. You have got to love Me more than you love any other relationship that you have. Your love for Me must be supreme and every other love must be subservient to your love for Me.

예수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은 최고의 것이어야합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가정이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 보다 더 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모든것 전부를 희생하는 댓가를 치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는 가족이나 가족관계의 어느 정도 희생이 따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였을때 가족들이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기 때문 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위해 많은 댓가를 치뤄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관계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관계를 포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자는 나의 제자가 될수없다.” 네가 가진 어떤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한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최고가 되어야하며 다른것에 대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에 종속되어야한다.

Then He went on to say,

And whosoever doth not bear his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14:27).

I am not going to be crowned as king of the world. I am going to bear a cross. I am going to be crucified, and if you are not willing to take up your cross you can't really be My disciple. If you really want to follow Me and be My disciple, it can involve a cross and you better consider that.

그리고나서 주께서 길을 가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4:27).

내가 세상의 왕이 되려는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치않으면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될수없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며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십자가를 포함해서 잘 고려해야 할것이다.

Jesus is deliberately laying out the terms for discipleship and they are not soft, easy, comfortable terms. They are harsh. They are severe. And it is important that you count the cost, the cost of discipleship.

Then Jesus gives a couple of parables in which there is that emphasis of counting the cost.

예수께서 신중히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부드럽고 쉬우며 안위한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혹하고 엄중한것들입니다.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댓가를 계산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희생의 값을 계산하는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예화를 들려 주셨습니다.

For which of you, intends to build a tower (14:28),

This is probably one of those towers that they built out in the middle of their vineyards, which are so common even to the present day in that country.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전대 (14:28),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포도원 한가운데 세운 망대 중의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은 예사로 있는 것입니다.

The people generally lived in the cities, but they had their farms in the countries. During the spring, summer, and fall seasons they would move out of the cities and into these towers that were built out in the middle of their orchards, or vineyards. These towers had the living quarters in the first level, but then you can go up into the upper level, and from the tower you can look over and watch the vineyard to make sure that no one is coming in and ripping you off. They were just towers for the protection for the vineyards. So He is probably referring to one of these vineyard towers.

대 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장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 그들은 도시를 떠나 과수원이나 포도원의 중앙에 망대를 지워 거기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망대들은 아랫층은 생활하는곳이며 윗층에 올라가 거기서 도둑이 들어와 농작물을 훔쳐 가지 못하도록 감시할수 있는곳입니다. 그것들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것일뿐 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것은 이 포도원의 망대를 가리키는것 같습니다.

Which man of you, who intends to build a tower, doesn't sit down first, and counts the cost, whether he have sufficient to finish it? Lest haply, after he hath laid the foundation, and is not able to finish it, all those that see it begin to mock him, saying, This man began to build, and wasn't able to finish (14:28-30).

Count the cost. It is important. Don't just jump in. He is not really seeking to create a popular movement. He is seeking to thin the crowds of those that were following. Count the cost.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14:28-30).

비용을 계산하라.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뛰어들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인기있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찾고 계십니다. 비용을 계산 하십시오.

What king, going to make war against another king, doesn't sit down first, and consult whether he be able with ten thousand to meet him that comes against him with twenty thousand? Or else, while the other is still a great way off, he sends an ambassadors, and desireth conditions of peace. So likewise, whosoever he be of you that forsaketh not all that he has, he cannot be my disciple (14:31-33).

또 어느 임금의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4:31-33).

Now, you count the cost. Unless you are willing to forsake everything you can't be My disciple. Unless you are willing to take up your cross, you can't be My disciple. Unless you love Me supremely, you cannot be My disciple. The terms of discipleship are harsh. They are severe. And it is wrong when people tell you just accept Jesus and you are not going to have any more problems. Listen, many times when you accept Jesus your problems are just beginning. It is not easy. It is not going to be easy. The Lord doesn't say it is going to be easy. He said it is going to be tough and you better sit down first and count the cost. You better not get started in it if you can't finish it, or are not willing to finish it. You need to make an accounting here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you are really willing to pay the price to go all the way through,

because unless you are willing to forsake everything, really, you can't be My disciple. These are heavy, hard words.

비용을 계산 하십시오. 모든것을 버리기를 싫어한다면 내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면 내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나를 최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제자가 되는 조건은 엄격합니다. 그것은 가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쉬워지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어려워질테니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낼수 없거나 끝내지 않으려면 시작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계산해야하며 그후에 끝내기까지 가는 비용을 치를지 아니 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모든것을 기꺼이 버리지 아니하면 그의 제자가 될수 없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중하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Then He said,

Salt is good: but if the salt have lost its tang, who will use it for seasoning? It is neither fit for the land, nor for the dunghill; but men will cast it out. He that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14:34-35).

In those days salt was used for three basic things. Salt was used, number one, as a preservative when they would butcher. They would roast the meat right away and the meat that they didn't roast they would salt because they didn't have refrigeration. Salt has an antiseptic type of an effect. It kills the bacteria on the surface of the meat and preserves the meat.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시니라
(14:34-35).*

그 당시에 소금은 세가지 기본적인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푸줏간에서 방부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고기를 당장 굽거나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의 시설이 없었으므로 소금을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고기의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며 고기를 상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Salt was used as a seasoning to flavor the food, like we use salt today—add a little zing to the food, to the taste. Foods without salt are flat. Just a little salt really makes a difference. Every once in a while when we were kids, Mom would forget to put the salt in. Potatoes without salt, mashed potatoes are flat. It is amazing what a little salt will do for mashed potatoes. We are the salt. Salt is good. But if it has lost its savor it is not good.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을 활력소로 맛을 더내려고 첨가하는것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치면

아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릴때 때로는 엄마가 소금치는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소금이 없는 감자, 짓이긴 감자는 맛이 없습니다. 짓 이긴 감자에 약간의 소금을 치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talked about salt in an earlier part of His ministry. He sai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Matthew 5:13). Again, talking about if the salt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would it be salted, therefore it is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the foot of man. Salt is good if it is tangy. If it isn't, it is worthless.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초창기 사역에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 5:13) 고 하셨습니다. 다시 소금이 맛을 잃어면 어디에 쓰리요? 아무 쓸데 없어 밖에버리워 사람에게 밟힐뿐이나라. 소금의 맛이 짭이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The third purpose for salt was to put it on the path to kill the vegetation so that they would keep the paths clear from vegetation by just putting salt on it. The salt would destroy the vegetation. It was a weed killer.

소금을 쓰는 셋째 목적은 소금을 길에 뿌려 풀을 죽이고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것입니다. 소금은 채소를 죽입니다. 그것은 잡초를 죽이는것입니다.

You as a child of God should have a preserving effect in the society in which you live. Our rotten society testifies against the church. It bears witness against the church. But you should have sort of a zingy effect where ever you go. You should add zest and flavor because of your walk with Jesus Christ.

Salt has another capacity of making people thirsty. And you should be creating a thirst i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야합니다. 우리가 사는 부패한 사회는 교회를 반대하는 증언을 합니다. 사회는 교회를 반대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맛을내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므로 맛과 향기를 더해야합니다.

소금에는 또한 사람들이 목마르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목마르게 할수 있어야합니다.

Chapter 15

Then drew near to him all the publicans and sinners to hear him. And the Pharisees and scribes murmured, saying,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15:1-2).

Notice the four groups that had gathered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of all, the publicans and sinners. Publicans were tax collectors, the outcast of that society, one of the most hated persons in the community. They were considered by the Jews to be traitors and quislings. And they were always classified with sinners.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1-2).

네 그룹이 모여서 두 부류로 갈라진것에 유의 하십시오. 첫째로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로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며 그 지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역자나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So the publicans and the sinners had gathered to hear Jesus. It is amazing that many of the publicans were attracted to Jesus. Matthew was a publican called to be a disciple. He left his receipt of customs and followed Jesus. Zacchaeus was a publican. And after his encounter with Jesus, he said, "Behold, I will take half of my goods (they were always wealthy people) and give it to the poor. And if I have taken fragrantly from any man, I will restore to him twofold." Jesus said,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The publicans were attracted to Jesus as were the sinners, because He had a message of hope for them. They gathered to hear. But the others,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they gathered to find fault. They were looking for things by which they might accuse Jesus. They were waiting for a slipup. They were waiting for some mistake so that they could pounce upon it and accuse Him. So they began to say, murmuring,

He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15:2).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예수에게 끌린것이 놀랍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세 받는것을 떠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그들은 항상 부유했습니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죄인들이 예수에게 끌린것같이 세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한 소망의 멧세지를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약점을 찾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송사할만것을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잘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며 송사할만한 과오를 범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2).

They thought they were saying something horrible in condemning Him, but in reality, they were proclaiming a glorious gospel. Jesus receives sinners and you can become one with Him.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정죄하면서 그들이 아주 나쁜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 들였으며 당신도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John wrote,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 unto you, that you might have fellowship with u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He receives sinners and He eats with them. He becomes one with them. He dips in the same sop with them. He eats the same bread with them. He is identifying with them. Yes, He does. Thank God He does, and because He does there is hope for every one of us.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고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죄인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음식도 그들과 함께 짚어 잡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떡을 잡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같은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께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 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So, there were those that were hearing Him, desiring to hear Him. And there were those who were seeking to find fault with Him, looking for something to condemn.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찾아 내어 그를 정죄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Now, what should have been if they were truly righteous men,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What should be their attitudes when sinners were responding to the gospel? What should be the reaction if we see sinners saved? I oftentimes hear people criticize Billy Graham and his campaigns. You see hundreds of people flowing forward to accept Jesus Christ, and they say, "Yes, but a lot of them don't stick." They are sour apples, rather than saying, "Bless God! Look at that. Praise the Lord," and rejoicing that all of these people are accepting the Lord. Instead, they are looking for something to find fault in. They say, "He preaches a cheap gospel."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어떠했을까? 죄인들이 복음에 반응을 보일때 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죄인이 구원 받는것을 볼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할까? 나는 종종 빌리 그라함과 그의 집회를 비평하는 말을 듣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백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물밀듯 나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붙어있지않는걸요” 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세, 저것 좀봐, 하나님께 찬양하세”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려 나오는것을 기뻐하는 대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값싼 복음을 전한다” 고 합니다.

When the hippies were coming to Jesus by the hundreds, as I was going across the country, I would have pastors come up to me and say, “I saw pictures of your baptisms at Corona Del Mar, but when are they going to cut their hair?” Rather than saying, “I saw the pictures, and my, a thousand young people being baptized, how glorious. Bless God; that is glorious. That’s thrilling!” They have to pick on something and they can’t really rejoice that the Lord receives sinners. But instead, they are sour apples over it. Jealous or whatever.

내가 미국을 횡단하는동안 수 백명의 히피들이 예수께로 나왔을때 많은 목사들이 나에게 와서 “코로나 델마에서 당신이 침례식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머리를 자르려는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식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굉장 하더군요. 일천명의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고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참으로 영광 스럽습니다.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당연할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무언가 꼬집어 내야하고 주님이 죄인을 받으시는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입술이 씩씩하고 시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And so Jesus spoke this parable unto them (15:3),

Unto who? Unto the Pharisees and scribes, because of their sour apple remark.

He said,

What man of you, you have a hundred sheep, and you lose one of them, will you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wilderness, and go after that which is lost, until you find it? And when you have found it, laid it upon your shoulders, rejoicing.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and he says un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that was lost (15:4-6).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15:3)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평을 했기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15:4-6).

So when you find the lost sheep there is the rejoicing. There is the rejoicing in the neighborhood. “Rejoice, I have found the lost sheep.”

And then Jesus said unto you,

I say unto you, that likewise joy shall be in heaven over one sinner that repents, more than ninety-nine just persons, who don't need to repent (15:7).

너희가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리라. 이웃사람들도 기뻐하리니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7).

So while the guys down here are saying, “When are they going to cut their hair?” The angels are up having a whoopee time rejoicing that the lost has been found. Joy in heaven.

Either what woman has ten pieces of silver, and she lose one piece, does not light a candle, and sweep the house, and seek diligently till she find it? And when she had found it, she called her friends and her neighbors together,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piece which was lost. Likewise, I say unto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that repents (15:8-10).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저들이 언제 이발할건가요?” 라고 말하는 반면에 하늘에서는 잃은 자를 찾은것으로 인해 기뻐할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5:8-10).

Again, the natural response to finding that which is lost is rejoicing. The Lord said that there is joy in heaven over just one sinner who repents.

And he said, A certain man had two sons: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portion of goods that falleth to me. And so he divided unto them his living (15:11-12).

다시 말하지만, 잃은것을 찾으면 그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은 즐거워 하는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로 인해 기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5:11-12).

Now, under the law when there were two sons, the older son received two thirds of the inheritance and the younger son received one third of the inheritance. That was just the law. And many times if a father wanted to retire, he would divide the inheritance to the sons before his death. It would automatically belong to the son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But this boy had the audacity to come his dad and say, "Dad, I would like my inheritance now." So the father divided the inheritance.

두 아들이 있을때 율법을 따라 장자는 유산의 삼분의 이를 받고 둘째는 유산의 삼분의 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은퇴하려고 한다면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고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뻔뻔스럽게도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And not many days af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together, and took his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wasted his substance with riotous living. 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there arose a mighty famine in that land; and he began to be in want. And he went and joined himself to a citizen of that country; and he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swine (15:13-15).

This was a job forbidden to the Jew. "Cursed is the man that feeds the swine."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5:13-15).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일입니다. "돼지를 먹이는자는 저주를 받을찌어다."

And he would fain have filled his belly with the husks that the swine did eat: and no man would give to him. And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hired servants of my father's have enough bread that they could spare, and yet I'm dying of hunger!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will say un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thee, and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but make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And he arose, and he came 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yet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 son said un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thy sight, and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thy son.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Bring forth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m [the family signet ring], and put shoes on his feet (15:16-22):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15:16-22):

Shoes on the feet were significant, because the slaves were never given shoes, only the family members, the son. Slaves were never given shoes by their masters. That is why in that old Negro spiritual that came out of the slave days, “You gotta shoes, I gotta shoes, all God’s children got shoes. When we get to heaven gonna put on our shoes.” I am not going to be a slave any more. I am a son. I am a child of God. And that hymn looked forward to that day when they would have shoes. They would be acclaimed the sons of God in that heavenly kingdom. That was just one thing about slavery, you never gave your slave a pair of shoes.

신발을 신었다는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거나 가족만 신발을 신을뿐 종들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절대로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시대에 흑인 영가가 나왔습니다, “신발을 가져야돼, 내겐 신발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이 있어야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발을 신을거야.” 나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거야. 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신발을 갖게될 그날을 고대하는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것을 환호 갈채할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에 관한 단 한가지일 뿐입니다. 종에게는 신발 한켄레를 주지 않습니다.

So the son said, “Hey, I am not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just a servant.” The dad didn’t even let him finish the speech. He said, “Put the shoes on him.”

And bring hither the fatt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let’s be merry: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be merry. Now his elder son was in the field: and as he came and drew nigh to the house, he heard the music and saw the dancing. And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said what’s going on. And he said unto him, your brother has come home;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ned calf, because he has received him safe and sound. And he was angry, and would not go in: therefore his father came out, and entreated him. And he answering said to his father, Lo, these many years I have served thee, and I didn't transgress at any time your commandment; and yet you never gave me a kid, that I might have a party with my friends: But as soon as this your son was come, which has devoured your living with prostitutes, you have killed for him the fattened calf (15:23-30).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신발을 신겨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15:23-30).*

Now, here is the, really, the real point of the parable. Though it may teach many things, the parable was intended against the Pharisees. All three actually did, but He is building up. In each of the parables, there is something lost that is found and the result of finding that which was lost was rejoicing, happiness. Jesus receives sinners. That shouldn't be said in a derogatory sense. That should be said in a rejoicing sense. Jesus receives sinners! There is hope, friend. Rejoice! Jesus receives sinners. And yet, they were not saying it with that inflection, but they were saying it in a derogatory sense. “He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So as the natural reaction to finding something that is lost should be rejoicing, the Pharisees are angry. They are condemning. They are sitting back and judging. So the story was given.

비유의 실제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가지를 가르칠수 있으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반박하려고 시도한것입니다. 실제로 세 비유가 다 그러했으나 주께서는 좋은것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에서 잃어 버린것이 있고 잃어 버린것을 찾은 결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친구들이여,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 하십시오. 예수께서 죄인들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서 하는말이 아니라 경멸하는뜻으로 “그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것을 찾는데 대한 당연한 반응은 즐거워 하는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들은 앉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In the third story, Jesus adds the older brother and his attitude towards the rejoicing, because the father receives sinners. And here he is out there sulking, angry and upset. He is not going to join in. “You ha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for me.” And his sulking attitude,

because the father received the sinner. “He went out and spent everything he had on prostitutes. He is a sinner. Yet, you have a big party because he comes home.” This was the same attitude that the Pharisees were expressing.

세번째 이야기에 예수께서 형과 기뻐일에 대한 그의 태도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은 뿌루통했고 화가나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 가지도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한번도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뿌루통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창기에 다 쓰버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돌아왔다고 대 잔치를 배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태도와 똑 같은 것입니다.

To me it is interesting that the father said,

Son, you are ever with me, and all that I have is yours (15:31).

You see, the younger son had taken his inheritance, so that everything that was left belonged to the older son. “All that I have is yours.”

It was necessary that we should have this party,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again; and was lost, and is found (15:32).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15:31).

아시다시피 젊은 아들은 그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모든 것이 큰 아들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Because the Lord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the lost is found. Jesus said, “I ha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주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으므로 잃은 자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So we so often hear marvelous sermons preached from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but rarely do we ever hear a message that really gives the true meaning of the parable, or the real reason for the parable. The reason wasn't just to show the father receiving with joy a son that was lost, but the parable was used to show the Pharisees how wrong was their condemnation of Him when they said, “He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They should have been rejoicing over it, rather than griping over it.

탕자의 비유로 부터 정말 놀라운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참 뜻이나 비유의 참된 이유를 말해 주는 설교는 드물게 듣습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기쁘게 받아 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며 사람들이 “그가 죄인을 받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고

말할때 그들이 주님을 정죄하는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위해 비유는 쓰여 졌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물고 뜯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것이 마땅합니다.

May God help us that we will not have a pharisaical attitude towards the work of God in receiving sinners, because maybe He is receiving them at some other church in the county rather than here. It doesn't matter where He receives them. Let us rejoice that He is receiving them. Let us pray that God will send a great spiritual awakening throughout the county in every church. Let us not be so shortsighted and narrow-minded that we are only praying for God's blessing upon Calvary Chapel, because God knows we can't house them all. But let us begin to really pray that God will revive His church throughout this entire county and that sinners would be brought to Christ, that the Lord might receive sinners anywhere and everywhere, that there might be revival in the Baptist church and the Methodist church, the Lutheran church and the Presbyterian church. Let us just pray that God might just be able to receive sinners in all of these churches, that there would be a real move of God's Spirit throughout the whole area.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보다 시골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주가 죄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받으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주께서 죄인을 받으시는것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도록 기도 합시다. 갈보리채플에만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근시안적이고 좁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다 수용할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며 주께서 어디에 있는 죄인이든지 받으시도록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와 루터란 교회와 장로교회와 어떤 교회든지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죄인들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전역에 걸쳐 진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If we hear of revival somewhere, let us not go and try to find the faults that may exist in their doctrines or positions. "Well, Lord, they didn't follow us so we told them not to do it." Jesus said, "You should not have done that. If they are out there doing it in My name, they can't very well be against us. Don't stop them." God deliver us from narrow sectarianism, from an attitude of the Pharisee, but to the same heart of Jesus. Let us rejoice that the Lord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어디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 가서 그들의 교리나 위치에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하지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할걸. 그들이 밖에서 내이름으로 행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것이 아닌 중단시키지 말아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당파적 견해와 바리새인적 태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죄인들을 받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는것을 기뻐합시다.

Shall we pra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have received us. We've had that glorious joy of eating with You, sitting down, Lord, and partaking of Thee, the Bread of Life. Lord, we pray that today our hearts will be united with Yours, our visions will be united with Yours, and that we, Lord, might come to that place of rejoicing in Thy work wherever it is being done, by whomever it is being done. Lord, keep us from that narrowness that would seek to restrict Your work only in our midst, that would seek to restrict Your blessings only to our fellowship, and may we seek to pray for Your blessings upon all who call upon Your name in tru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생명의 떡을 떼는데 참여하도록 하셔서 같이 떡떼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졌습니다. 주님, 기도 하옵기는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시각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이 어디서 이루어 지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든지 기뻐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게 제한하고 당신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만 있도록 제한하는 좁은 맘 가지지않게 막아 주시며 진저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ext week chapters 16 and 17. Next week in chapter 16, tremendously interesting discussion by Jesus on the subject of Hades. That place that is in the center of the earth. So we will be looking at the subject of Hades next Sunday evening and what Jesus has to say about it in contrast to what the Jehovah Witnesses have to say about it. Then you'll have to determine whether you want to believe Jesus or the Jehovah Witnesses. I've already made my mind up.

다음주에는 16, 17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6 장 에는 음부에 관한 예수의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음부라는 제목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을 믿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결정했습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now and go before you this week and bless you with His blessings and His love. May He keep His hand upon you and may He guide you in each of the decisions that you'll have to make, that you might be led of the Lord in all things. May the good hand of our Lord be upon you. In Jesus' name.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주에 주님이 당신보다 앞장서서 가시며 그의 축복과 사랑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얹으셔서 지키시고 당신의 모든 결정에서 인도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Luke 16-17
Tape # C2536
By Chuck Smith

Jesus speaks on two unpleasant subjects, to a lot of people. Not unpleasant to me, but to a lot of people. Talks about hell. That's not unpleasant to me, not worried about it at all.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가지를 말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나에게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에겐 그것이 불쾌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Now Jesus is at a supper with the Pharisees; it's on the Sabbath day. And this particular section that we are now in is still in that supper that Jesus was invited to, beginning the fourteenth chapter, where the Pharisees invited Him to the house, set Him up with fellow with dropsy, and so this whole interchange of thought and all is going on there. At times He is addressing the Pharisees, at times He is addressing His disciples. And at this point, beginning of the sixteenth chapter, He is now addressing His disciples.

지금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특별한 부분은 14 장에서 시작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만찬이 아직 계속 되는것입니다. 거기에 고창병이든자를 세워놓고 여러가지 생각들을 주고 받습니다. 어떤때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 장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And so he said also unto his disciples,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which had a steward; and the same was accused unto him that he wasted his goods. And he called them, and said unto him, How is it that I hear this of thee? giving account of thy stewardship; for you may no longer be steward. Then the steward said within himself, What shall I do? for my lord is taking away from me the stewardship: and I cannot dig; and I ashamed to beg. I know what I'll do, so that, when I am put out of the stewardship, they will receive me into their houses. So he called every one of his lord's debtors unto him, and said un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lord? And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oil. And he said unto him, Take thy bill, sit down quickly and write fifty.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And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And he said un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eighty. Now the lord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because he had done wisely: for the children of this world or in their generation wiser than the children of light. And I say unto you, Make to yourselves friends by th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that, when ye fail, they may receive you into everlasting habitations (16:1-9).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낚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뇨?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뇨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6:1-9).

So Jesus here gives a parable, it's to His disciples, and it's a parable of stewardship.

Now, the thing to notice, first of all, about his steward was that everything he possessed belonged to his master. And in his waste he was actually wasting his master's goods. In the application of this, of course, God has made us stewards and everything that we have really belongs to God. Bible says,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lness thereof." It all belongs to Him. Now God allows me that privilege and opportunity of overseeing that which belongs to Him. But God also holds me responsible as to what I do with it when it is under my care. So, 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everything we have is our Lord's. But I am responsible to Him.

여기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것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것은 청지기가 소유한 모든것이 그의 주인에게 속한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상 자기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에 있는 모든것이 그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것들을 감독할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손아귀에 있을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책임을 받았습니다.

There is another parable of the steward, and in the other parable the lord went away to a far country and left his goods in the hands of his servants. And one he gave five

talents, to another four, to another one. But the same ideas, the lord came and they had to give an accounting of what they had done with what was the lord's. When you see yourself as a servant of Jesus Christ, then it naturally follows that as His bond slave everything you possess actually belongs to Him. I own nothing of my own; it all is the Lord's. And this particular steward was accused of wasting his goods. And so he was called to give an account. The Bible tells us that one day every one of us are going to stand before the Lord to give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while we were in these bodies, whether good or evil.

청지계에 관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주인이 와서 주인이 준것으로 그들이 행한 결과를 회계보고 해야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긴다면 그의 종으로서 소유한 모든것이 실제로 그분에게 속한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내가 소유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특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언제 일른지는 알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게되며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할때 행한 잘한것과 잘못된것을 보고해야합니다.

II Corinthians, chapter 5, Paul said that we wi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We are also told that we are going to be judged according to our works and many of the works will be burned by fire, but those that remained we will be rewarded for. So we will all one day give an account to the Lord of our stewardship, how I managed the Lord's properties. How I managed the Lord's resources that He placed at my disposal. I have that responsibility, then, of proper management whenever God places anything in my power. And so he was called to give an account.

고린도후서 5 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많은것들이 불에 탈것이나 불에 타지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청지기 생활 즉 주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할것 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모든 자원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에 대한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아래 두신 모든것은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회계 보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Now this particular steward knew that he was in trouble. When the audit was made, the accounting was to be made, he knew that he was guilty of wasting his master's goods. He knew that he was going to lose his job. And so he was concerned because he felt that he was just too frail to dig ditches and he was ashamed to beg. And then he hit

upon an idea, very dishonest. In which he began to call in his master's debtors. And he began summarily to discount their obligations to his master. Now the master, in this case, was probably a landlord. And so often the landlord in renting out his property would take instead of rent some of the produce from the land. It was very common for the people to pay their rent in wheat that had been produced on the land. Or in the oil that have been produced on the land or in some of the products of the land itself. And this was a very common thing. And so the first one, he brought him in, and he said, "How much do you have to pay?" And he says, "Well, I pay a hundred measures of oil," and he says, "Here, take down, write fifty." And to the one who owed...p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he said, "Write eighty."

이 청지기는 자기가 곤경에 빠져있음을 알았습니다. 회계가 이루어졌고 그후에 감사가 있을것이고 그 후에 그가 주인의 물질을 낭비한 죄가 드러날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직할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러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그에게 아주 정직하지 않은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자들을 불러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것을 즉석에서 깎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인은 아마 땅의 주인이었던것 같습니다. 빈번히 땅 주인이 그의 땅을 빌려준 댓가로 그 땅에서 난 농작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난 밀로 땅을 빌린세를 내는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생산한 기름이나 또 다른 농작물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번째 불러들인 사람에게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지불해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백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오십이라고 쓰라" 고 청지기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밀 백석을 빚진자에게 "팔십이라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Now, what he was seeking to do is to make these people obligated to him. So that when he was fired from his job, he would be able to come back to them and sponge off of them for a while because of the favors that he had granted to them in discounting their bills. As he was the steward managing his owner's affairs, he was setting himself up using this position of authority. Using this opportunity that he had to set himself up for the future. Which he knew was going to be very grim once he was fired, because he wasn't a ditch digger and he was ashamed to beg.

그가 하려고 하는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빚진것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그가 실직 될때 그가 그들의 빚진것을 깎아주는 호의를 베풀었음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분간 그들에게 붙어 살려는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일을 돌보는 청지기였을때 그 위치의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을 위해 주선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가 일단 해고되면 그의 처지가 암담해질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을 파는 사람도 거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Up to this point, we can follow the story rather clearly. But at the next scripture, when the lord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that's where the problem arises. Why would he commend the unjust steward? Why would the lord commend him? Now I can understand if the lord said, "Cast that unjust steward out. Put him in the debtors' prison until his obligations have all been taken care of." But the lord commended him. For what? Not for his actions, not for his honesty, but for his wisdom. The wisdom of using his present position to set himself up for that uncertain future that he knew was coming for him. That's what the lord was commending.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 하시는 다음 성경 말씀은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부분입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 하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면 차라리 이해할수 있겠습니다, "저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 내어라. 그가 저질러 놓은 모든 빚을 갚을때 까지 빚쟁이들을 감옥에 집어 넣어두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칭찬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행실이나 정직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가 현재의 위치를 사용하여 그가 아는 닥아올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점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Now as we go to the proverbs, Solomon said, "Go to the ant, thou slugger, to you lazy bum. Learn of his ways and be wise" (Proverbs 6:6). Again, he said, "There are four things upon the earth that are exceedingly small, but exceedingly wise. And among these four things the ant, is but a feeble folk. Know that was a conies is a feeble folk. The ant lays up its meat in the summer" (Proverbs 30:25-26). The wisdom of the ant laying up its food supplies during the summer. The ant somehow knows that the weather isn't always going to be this nice. Somehow there's recorded information in that little brain of the ant, that the winter is coming it's gonna to get cold, it's gonna get rainy, and he won't be able to get out and forage for food. Therefore, it is necessary while it is still summer, while he can get out, to get out and to gather together all of the food that he'll need to survive during the winter season. In other words, take advantage of the present situation to prepare yourself for what you know is coming in the future.

이제 잠언으로 가서 솔로몬의 말을 살펴 봅시다. "개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 6:6). 또 그는 말했습니다, "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 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잠 30:24-26). 개미가 먹을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개미는 일기를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일기가 항상 좋지는 않을것을 압니다. 여하간 개미의 작은 두뇌에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비가 오며 먹을것을 찾아 나갈수 없다고 기록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 동안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모으기 위하여 밖에 나갈수있는 여름 철에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앞으로 닥아올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십시오.

Now, this is the wisdom that was manifested by this steward. And that's why he was commended. Because he took advantage of his present situation to help set himself up for what he knew was coming in the future. That is always very wise, but it isn't wisdom that we always follow. We know that one day we are going to die. We know that when we die we can take nothing with us. We know that any treasure that we lay up in heaven we have to lay up now. We've got to take advantage of our opportunities now to lay up heavenly treasure.

이것이 이 청지기에게서 나타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 하신것입니다. 그가 현재의 형편을 이용하여 그가 아는 닥아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닥쳐올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수 없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지금 쌓아야 한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 보화를 쌓기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해야합니다.

We know that we came into the world naked we're going out of the world naked.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it is certain we are going to take nothing out. So if I'm going to set my self up in the heavenly kingdom, I must do it now and I must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that I have now in order set myself up for the heavenly kingdom. And this is exactly what Jesus is saying.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Make use of this filthy luker. This money that God places at your disposal, make use of it in such a way that you will be reaping eternal benefits from it. Invest it in the things of the kingdom in such a way that when you failed, when you come to the end of the road, you might be received into the everlasting habitations.

우리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않는것도 확실합니다. 만일 내가 하늘나라에 나 자신을 위해 준비 한다면 그것을 지금 해야하며 그 준비를 하기위해 현재 내가 가진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이 추하게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이 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리하도록 주신것이니 그것으로 부터 영원한 이익을 거둘수 있도록 잘 활용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시되 인생의 끝장이 올때 영원히 거할곳에서 받을수 있도록 하십시오.

God, I am certain, keeps a very interesting set of books. Paul the apostle, when he was writing to the Philippians, thanked them for the gift that they sent to him. He said, "Not that I particularly needed it, but I desire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Philippians 4:17). Thank you for what you sent to me. I wasn't particularly in need, but I'm grateful for it because the fruit of my labor. Those people that I won to Christ will abound to your account because of the fact that you supported my ministry there. So money is a tremendous outlet of spiritual power if we use it right.

내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한 세트의 책을 보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때 그들이 그에게 보내준 선물로 인해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 4:17). 너희가 보내 준것에 대하여 감사하노라. 내가 특별히 필요한것도 아니지만 나의 애쓰것이 열매를 맺은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들로 그곳에 있는 나의 사역을 돕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좌에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바로 사용할때 영적 능력의 놀라운 출구가 됩니다.

Money can be a blessing; it can be curse. It all depends on how a person uses it. It can be the closest thing to omnipotence that man possesses but so often creates impotence. Jesus is warning here against that impotence that money often creates with a person.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so that when you fail they might receive you under the everlasting kingdoms.

돈이 축복도 될수 있지만 저주도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인간으로서 소유할수 있는 만능에 가장 가까운것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번히 무능하게 만드는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돈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을 활용하여 망할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를 받아 드릴수 있도록 하라.

There is, to me, one interesting aspect of arriving in heaven. Something that you don't hear of much, but I expect to meet a lot of people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Who, though I have never seen them, I am responsible for their being there in the heavenly kingdom. Maybe some native from Africa when he gets to heaven will say, “Now how is it that I heard the gospel?” and God will go through the books and say, “Well, actually, that missionary that was out there was supported by Chuck Smith. So when he arrives that's the one you one to look for.” And so this fellow come up to me and say, “Hey, I want to thank you, brother. Oh I so appreciate what you did.” “Well, who are you?” “Oh man, I was a Ubangky. But you brought me the gospel.” “What do you mean I brought you the gospel? I've never been in Africa.” “Oh, well, I checked the records up here and you where the one that was supporting that missionary over there that brought me to Jesus Christ.”

하늘나라에 다다르면 내게 재미있는 한 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에는 전혀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나는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혹시 어떤 아프리카 본토인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책을 훑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은 척 스미스가 후원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전한것이지. 자네가 찾는 사람이 저기 오는 구먼”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와서 하는 말이 “오, 형제, 감사해요, 당신이 하신것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누구요?” “오, 내 이름은 우방키입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무슨말인가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내가 기록을 조사해보니 당신이 후원한 선교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How can they believe unless they hear, how they can hear except there be a preacher? How they can preach except they'd b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that carry the gospel of peace." But that part of being sent, and that's where we can come in.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So that when you fail they might receive you into the everlasting kingdoms.

저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바, "저희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물질을 보내는곳에서 사람들이 들어 올수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실패할때 당신을 영원한 나라로 받아 주실것입니다.

And now the Lord goes on in verse 10 to make the application of the parable, as He relates it now to your place in the kingdom of God, when you come in to the kingdom of God.

If you have been faithful in least, [in these little things that God has placed at your disposal,] then you will also be faithful in much [in those great things of His kingdom]: but if you have been unjust in the least then you'll be unjust in the greater things (16:10).

Man if you're embezzling dollars now, you'll be seeking to embezzle more later, you see. If you're unjust in the little things, if you have a bigger opportunity you're gonna be that much more unjust.

10 절에서 주님은 그 비유를 응용 하도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당신의 자리와 관련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것) 에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 나라에서 큰것) 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6:10).

지금 당신이 돈을 횡령하면 후에는 더 많은 돈을 횡령하려고 할것입니다. 만일 작은일에 불의하면 더 불의하게될수있는 더 큰 기회가 올것입니다.

If therefore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mammon, then who is going to commit to your trust the true riches? (16:11)

Now this unrighteous mammon is not true riches. Moth and rust can corrupt it. The banks can fail. There's just many ways that this unrighteous mammon can suddenly disappear. It's not true riches. The true riches are the things in the kingdom of God.

They're the eternal riches. Yet, if you've not been faithful in this unrighteous mammon, then who is gonna commit to your trust the true riches?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6:11)

이 불의의 재물은 진짜로 부유한것이 아닙니다. 좀과 동록이 해칠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여러 길로 갑자기 사라질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재물이 아닙니다. 진짜 재물은 하늘 나라에 있는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재물입니다. 당신이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짜 재물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까?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in which is another man's (16:12),

You see, I'm a steward; whatever I have belongs to God. It's not mine. And if I'm not faithful in taking care of what belongs to God,

then who is going to give that which is my own?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hol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16:12-13).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6:12)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것의 청지기입니다. 그건 내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것을 관리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6:12-13).

You can't serve them both. Divide in loyalty, it just won't work. You cannot have God as your god and money as your god at the same time.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Now the Pharisees, who were lovers of money (16:14),

They were covetous, they loved the money.

They heard all of these things that he was saying to his disciples: and they began to deride him (16:14).

두 가지를 다 섬길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 집니다. 그래서 일이 안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똑 같은 신으로 섬길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6:14),

그들은 투기하는사람들이며 돈을 사랑합니다.

And so He turned on them. Now He's talking to the Pharisees,

And he said unto them, You are they which justify yourselves before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16:15):

There are so many times when a person comes up and tries to justify before me something that they have done. I say, "Hey, man, it's cool; doesn't make any difference. I'm not the one who is going to be your judge. You don't have to justify your case before me; I'm not your judge. God is the one. He knows your heart. He knows what the motive was." And the Pharisees were those who love to justify themselves before men, but God knows their hearts.

그리고는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16:15):

한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나에게 와서 그가 행한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애씁니다, "여보게, 그거 참 훌륭해; 그건 상관 없어. 나는 당신의 심판관이 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경우를 내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당신의 심판관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 이시며 당신의 속 마음을 아시고 또한 동기가 무엇인지도 아신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for that which is highly esteemed among men (16:15),

Talking of the Pharisees who were highly esteemed by men, He says,

is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16:15).

Men may highly esteem you, but as far as God is concerned you're an abomination.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until John: and since that time the kingdom of God is preached, and every man presseth into it (16:16).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16:15)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15).

사람들이 당신을 높일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은 혐오의 대상 일 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6:16).

So up until the time of John you were under the law you were under the prophets. Now the kingdom of God, John came preaching what? The kingdom of God. Saying,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And Jesus preached of the kingdom of God, and so, since the coming of John, the kingdom of God has been preached. And every man must press into it. The word *press* is an intense word in the Greek. It is *agonizo*, must agonize into it.

요한의 시대까지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 아래 있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전파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요한이 온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침입하다, 또는 재촉해서 들어가다 (Press)" 라는 헬라 단어는 집중적인 뜻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고니조 (*Agonizo*) 라는 단어로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than one tittle of the law to fail
(16:17).

Now, He said, you know, the law was until John. Now the kingdom of God is being preached, but heaven and earth will pass but not one little part of the law is going to fail.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16:17).

주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으려니와 율법의 일점 일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Now evidently there was a running battle between the Pharisees and Jesus over the issue of divorce. For there was a school of thought followed, following Rabbi Hillel, which was the popular school of thought, who interpreted the law of divorce. If a man finds an uncleanness in his wife, let him give her a writing of bill of divorcement. He interpreted that uncleanness to, if she put too much salt in his soup, grounds for divorce, salty soup again. And so they had liberalized the law of divorce. A man can put away his wife for just about any cause in which he just was displeased with her. It was almost as bad as it is today. Look how we liberalized, you know, you don't need any excuse now, just go to court and say we're incompatible.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혼의 과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랍비 힐렐의 사상을 따르는 학파가 있었고 그들의 해석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서 불결한 것을 발견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쓰서 아내에게 주게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만일 아내가 소금을 국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짠 국이 되어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하여 이혼법을 자유주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이혼 조건이 됩니다. 그 법이 오늘날의

이혼법 과 비슷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주의로 흘렀는지. 이젠 변명할것도 없이 법정에 가서 안 맞아서 같이 못살겠다고만 하면 이혼이 됩니다.

So it was much that way in the day of Christ by the liberal interpreting of the law by the rabbis who followed the school of Hillel. And so Jesus, taking a more literal view of that law, and no doubt it was a running battle with Him, so He says, "Hey, not one little tittle of the law is going to fail, you know,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than one of this little marks in the Hebrew to fail." And then He sticks the knife in, this particular issue that they were asking Him about and, no doubt, arguing with Him about, He said,

Whosoever puts away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and whosoever marries her that is put away from her husband commits adultery (16:18).

그리스도의 시대에 힐렐학파를 따르는 랍비의 자유주의적인 율법 해석에 의한 방법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좀더 문자적인 관점을 취하셨으므로 말할것도 없이 그들과의 싸움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라, 천지는 없어질 쯤라도 율법은 일점 일획도 폐하지 않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 특별한 제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을때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6:18).

I mean, He lays it out straight, hard, and just nails them. And then He goes right on and He said,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which was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fared sumptuously every day: and there was a certain beggar name Lazarus, which was laid at his gate, full of sores, desiring to be fed with the crumbs which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moreover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16:19-21).

내 말은, 주께서 직통으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16:19-21).

So we have a very vast contrast of lifestyles. A rich man fairing sumptuously everyday, and there at his gate a poor beggar covered with sores, begging and seeking to eat the crumbs t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and dogs coming and licking his sores. Some have said that this is a parable. Jesus didn't say it was a parable. I do not think it was a parable. For in all of the parables never was a person named. In this story the person is named, Lazarus, the poor man. The rich man isn't named. Someone called him Divvies, but we don't know that.

여기에 생활양식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하지만 대문밖에 있는 거지는 헨데로 덮여있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것으로 배불리려하매 개들이 와서 그 헨데를 훔더라. 어떤이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이 비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것이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지어 부르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eggar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 into Abraham's boso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16:22);

Notice it didn't say the poor man was buried. In those days when the poor people died, they just throw them into the Valley of Tophet, into Gehenna. Into the valley just outside of Mount Zion, Valley of Hinnom, where they put the refuse from this city. And there was constant fires burning there in the Valley of Hinnom, and they would just cremate the bodies, throw them in the fires in the trash heap. They wouldn't bury the poor people. So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boso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and in hell, Hades.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16:22);

가난한 사람이 장사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시체를 토벳 계곡 즉 게헨나에 던져 버립니다. 시온산의 바깥에 나가면 힌놈의 골짜기로 들어가며 이곳은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힌놈의 골짜기에는 계속해서 불이 타며 쓰레기 더미에 시체를 던져 화장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 즉 지옥에 갔습니다.

He lifted up his eyes, being in torment, and seeing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in his bosom. He cried and sai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send Lazarus,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s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tormented in this flame. But Abraham said, Son, remember that you in your lifetime received the good things, and likewise Lazarus the evil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and you are tormented. And beside all this, between us and you there is a great gulf that is fixed: so that they which would pass over from here to you cannot; neither can they pass to us, that would come from there. Then he said, I pray thee therefore, father, that you would send him to my father's house: for I have five brothers; that he may testify to them, lest they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16:23-28).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16:23-28)

Now Jesus is teaching here concerning Hades, which is translated for the most part in the New Testament *hell*. A place tha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earth. When they asked Jesus for a sign, He said, "A wicked and an adulteres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sha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So Jesus located it in the heart of the earth, because we are told that Jesus descended into hell when He died. But God had given Him the promise, "Th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ell, neither will you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and Peter said God fulfilled the promise and He did not leave His soul in hell, neither did He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but this same Jesus hath God raised from the dead. And Peter, in Acts chapter two, bear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 his message to the throne.

이제 예수께서는 음부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신약의 대부분이 음부를 지옥이라 번역 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을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구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실때 지옥에 내려 가신다는것을 들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찌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사도 행전 2 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Later, Paul the apostle tells us in Ephesians 4, "He who has ascended into heaven is the same One who first of all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and when He ascende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Peter tells us that He went down and preached to those souls that were in prison, who in one time were disobedient. So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Jesus here, prior to the death and burial of Jesus Christ and subsequent resurrection, Hades or hell, a place in the center of the earth, was divided into two compartments. In one compartment Abraham had charge of comforting those who came into that particular compartment, as the poor man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bosom. What a fitting person to be comforting

them. The father of those who believe. What was he comforting them with? The promise of God to send the Messiah to deliver them.

그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주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려고 내려 가셨으며 그 영들은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여기에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지구의 중심부인 음부 또는 지옥은 두 방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방에는 아브라함이 그 특별한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로할 책임을 맡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 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In Hebrews chapter 11, as it talks about the faith of Abraham, it said these all died in faith. Abraham and Enoch and all of the rest of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but seeing it afar off they embraced it, they held to it, and they claimed that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here; they were looking for a city which have foundation who's maker and builder is God.

히브리서 11 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녹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 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잡았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나그네며 순례자라고 말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세우신 그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So Abraham was saying, "Hey, look, God is true to His word. He'll keep His promise. You're not gonna have to stay here forever or not, just don't worry about it. Just, you know, Lord is gonna do it. The Messiah is gonna come; He's gonna deliver us out of this place." And one day into hell there came a burst of glory as Jesus came in and said, "Hey, I did it. It's finished; the price has been paid. You've been redeemed from your sinful state." And He broke the bars of hell, and when He ascende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영원히 머물든지 말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주님은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어느날 주께서 음부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영광이 비쳤고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도다. 값을 다 치렀어. 너희들은 너희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빗장을 부수고 그가 승천 하실 때 갇혔던 포로를 인도하셨습니다.

Part of the prophecy of Jesus Christ in Isaiah 61 is He would open the prison doors and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bound. That's exactly what He did. An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That's why Matthew's gospel records that afte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any of the bodies of the

saints where seen walking around the streets of Jerusalem. "Hey, what's Moses doing walking over there?" You know. "David, oh." Then Jesus ascended and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as He ascended into heaven. So that the one compartment of hell at that point was emptied.

이사야 61 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일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 주리라 는것입니다. 그가 하신것이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그가 포로된 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후에 또 죽었던 성도들의 부활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거니는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여보게, 모세가 저기 걸어 가면서 뭘하고 있지?" " 오, 다윗 좀 보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 하실때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음부의 한 방은 텅 비었습니다.

Now the other compartment in hell will also one day be emptied. It, as is described here by Jesus and who would know better than He, was a place where the rich man was in torment. He asked that Lazarus be sent to dip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his tongue. He was tormented in the flame. One day at the end of the thousand-year reign of Christ, death and Hades will give up the dead which are in them, and they will stand before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of God, Revelation chapter 20. And whosoever's names are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ill be cast into Gehenna, this is the second death.

이제 음부의 다른 방도 텅 비는 날이 올것입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예수께서 여기에 설명 하신대로 그 방은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끝에 물을 찍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간의 다스림이 끝나는 어느날 사망과 음부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죽은자들을 내어 주매 계시록 20 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설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자들은 불못 (게헨나) 에 던지워 지게 될것이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So hell...someone says, "Well, hell isn't eternal." That's true; it will disgorge itself of its inhabitants at the end of the thousand-year reign of Christ. It is Gehenna, which Jesus described as being a place of outer darkness, where there is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re there worm dieth not, neither is the fire quenched. And in Revelation concerning Gehenna it says,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ascends from the ages throughout the ages" (Revelation 14:11). Now you interpret that however you want, but don't ask me to modify it. Because God says if any man takes away from the words of this book, that is modifies them, his name will be taken out of the Book of Life. You do with it what you want. I'm not gonna to modify it; I'm just gonna leave it be. Let the Word of God speak and let it be. You say, "Oh, that's horrible." I agree. That's why I have no intention of going there.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옥은 영원한것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1,000 년간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날때 그 안에 있는 모든것을 쏟아 낼것입니다. 그것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울며 이를 가는곳으로 묘사된 게헤나 (Gehenna) 입니다.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곳입니다. 게헤나 (Gehenna) 에 관하여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11). 그것을 해석하고 싶은대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을 변경시키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는 변경시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원하는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버려 둡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것죠, “오, 그것 참 나쁘네.” 나도 동의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Common fallacy is often expressed in the question, “How can a God of love consign a man to eternal punishment, send a man to hell?” The question is a fallacy because, first of all, the God of love that we serve has never sent one man to hell nor will he ever send one man to hell. In fact, the God of love that we serve has done everything short of violating man's free will to keep him out of hell. The God of love that we serve sent His Son to die on the cross so men wouldn't have to go to hell. Jesus came to seek and to save those which are lost and God has done everything short of violating man's free moral agency. So man, by his own choice, goes to hell. Never sent there by God. So rather than saying, “How can a God of love send a man to hell?” just say, “How can a man be so stupid as to chose to go to hell when God has made all of the provisions to keep him from it?” Because that's what the truth actually is.

통상적인 그릇된 생각을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고통을 받게 지옥에 보낼수 있어요?” 그 질문은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적도 없고 결코 보내지도 아니할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잃은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든것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여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수 있는가?” 라고 말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어찌 인간이 지옥에 가는것을 선택할만큼 미련할꼬?” 라고 말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진리입니다.

Now, couple of more things that we notice about Hades: there's no transferr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 Those that are on this side, if they want cannot come over there, Abraham said to him. Neither can those that are over there come over here. The boundaries are set; there's no transferring back and forth. There is consciousness. There is remembrance. “Son, remember you in your lifetime lived in luxury. You had the good thing, Lazarus the evil.” Remember, he could remember, he remembered his brothers. “If

he can't come and comfort me a bit, please send him back to my house, my five brothers I don't want them to come to this place.”

음부에 관하여 주목해야할 두어가지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옮길수 없습니다. 이 편에 있으며 저 편으로 갈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이 편에서 저편에 갈수도 없고 저편에서 이편으로 올수도 없다. 경계가 세워져 있으며 오고 가는것이 없습니다. 의식도 있고 기억도 합니다. “애야, 너는 살았을때 호화롭게 산것을 기억하라. 너는 좋은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기억하라는 말은 그가 기억할수 있단말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기억 했습니다. “그가 올수도 없고 조금도 나를 위로해줄수 없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Abraham said, They have the law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He said, No: they don't listen to that but they will listen if someone comes back from the dead. Abraham said, If they won't listen to that, they won't listen even if someone comes back from the dead (16:29-31).

Now to me it is very interesting. Jesus is talking, remember, to the Pharisees, and there was a man named Lazarus who lived in the city of Bethany. And he was very sick. And his sisters sent an urgent message to Jesus who was at the Jordan River and it said, “Come quickly. The one you love is sick.” And Jesus remained at the Jordan River with his disciples for two days, and then He said, “Come, let us journey to visit Lazarus.” And as they were journeying they were talking about Lazarus' illness, and Jesus said, “Well, he's sleeping.” And the disciples said, “Oh, that's a good sign, if he can sleep he's probably getting better.” And Jesus said, “No, you don't understand me, he's dead.” And so they said, “Well, let's go, you know, so we can die with him.”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6:29-31).

그게 내게는 참 흥미있습니다. 기억 하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 하신다는것을.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병들었고 그의 누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께 긴급한 메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속히 오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난후 “가자, 나사로를 방문하러 가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행중에 나사로의 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사로가 잔다”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 그것 잘되었군요. 그가 자면 나아 지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그가 죽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 가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가자” 고 말했습니다.

Well, as He was coming into tow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finally arriving at the village. She ran out and said, "Lord, if You'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n't have died. Where were you? What took you so long? Why weren't you around when we needed you?" Jesus said, "Martha, your brother is going to live again." "Oh yes, Lord, I know the last day the great resurrection." Jesus said, "No, Martha,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he that believeth o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he live and believeth in Me, he will never die. Don't you believe this Martha?" Heavy, isn't it? Pretty radical.

주께서 동리로 들어 오실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디에 계셨나이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실때 왜 함께 계시지 아니 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오,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주께서 "아니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엄중한 말씀 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말씀 입니다.

But you see what He did, as He always does, divides men into two categories, those who believe and those who don't. I mean, He makes a radical claim and then He divides you. He says, "Psst..." sets the knife right down and you're in one side or the other; you either believe or don't. You either have hope of eternal life or you have no hope of life. She said,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promised Messiah of God." And so then they came to the house where they were all weeping, and Mary said, "Lord, if You'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 have not had died."

그러나 주께서 하신것을 보십시오. 항상 주께서 하시는것 처럼 사람들을 두 부류 즉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눕니다. 내가 하는 말은 주께서 놀라운 주장을 하신 후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주께서 "쉬..." 하신후 칼을 내려 놓고 이 쪽이나? 아니면, 저 쪽이나? 믿느냐? 혹은 안 믿느냐? 를 갈라 놓습니다. 당신이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졌거나 아니면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은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하신 아들임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사람들이 울고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마리아가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Jesus said, "Where did you bury him?" "Come, we'll show you the place," and they got to the place the tomb and Jesus said, "Roll the stone back." And they said, "Oh Lord, can't do that; he's smells by now. He's been in there for four days, the body is decaying." He said, "Roll the stone back." And then He cried, "Lazarus, come forth." He didn't just say, "Come forth," or the whole graveyard would have emptied. You've got to be careful

when you got that kind of power. And Lazarus came hopping out. All bound in his grave clothes. And Jesus said, "Loose him and let him go." And they went back home and they prepared a dinner and Jesus was sitting at dinner. And the Pharisees said, "We better kill him." Maybe they were some of this rich man's brothers.

예수께서 물으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오소서, 보여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은 무덤이 있는곳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들이 대답하되 "오, 주여,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장사한지 벌써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나이다."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고 하신후 그는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그냥 "나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모든 무덤들이 텅 비었을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꺽충꺽충 뛰어 나오는데 온 몸이 수건에 싸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만찬 준비를하고 예수께서 만찬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없애자" 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죽은 부자의 형제들 이었는지도 모릅니다.

Abraham was right. They will not believe even if they see one who has come back from the dead. Lazarus came back from the dead. It did not make believers out of the Pharisees. Oh, there were many who, when they saw him, believed. But if you are predisposed to unbelief, all of the proof in the world isn't going to change you. You see, believing in Jesus is a matter of choice. And if you've chosen not to believe, I don't care how much proof or evidence is offered to you, you've chosen not to believe and you won't believe.

아브라함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보아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믿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믿는 삶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믿지 않기로 기울어져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증명으로도 당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소용 없고 당신이 믿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면 믿지 않을것입니다.

Believing is matter of choice, I choose to believe in Jesus Christ. I choose to believe that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by believing in Him I expect never to die. "Oh, oh," you say, "I knew you were weird." Never to die from a scriptural definition. I'm gonna to move out of this old tent into a beautiful new house that the Lord has been preparing for me. He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And I'm going to prepare on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one for you, I'm going to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ohn 14:2-3).

믿는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미기로 선택하였으며 그를 믿음으로 절대로 죽지않을것을 기대합니다. "오,오 당신이 이상한 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결코

죽지않습니다. 나는 이 낡은 장막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 집으로 이사할뿐 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

“For we know when this earthly tent, our body, is dissolved, but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 i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move out, not to be an unem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a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know that as long as we are at home and living in these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I would rather be absent from this body and to be present with the Lord” (II Corinthians 5:1-8). So some day if you read in the paper, “Chuck Smith died,” don't believe it. Poor reporting. If they're gonna to be accurate they're gonna to have to write, “Chuck Smith moved out of an old worn-out holy tent into a beautiful new mansion.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후 5:1-8). 어느날 신문에 “ 척 스미스가 죽었다” 는 기사를 읽거든 그것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들이 맞게 보도하려면 바르게 쓰야 되는데 “ 척 스미스가 낡은 장막을 떠나 아름다운 새 맨션으로 이사했습니다” 라고 쓰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것이요 손으로 지은것이 아니며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을것입니다.

So here Jesus is telling them a little bit about what's going on. And this is interesting to me as Abraham responds, if they will not believe, if they chose not to believe the law and the prophets, they have predisposition themselves not to believe, they won't believe even if they see a miracle of someone coming back from the dead. They'll say, “Oh well, he must have swoon, he really wasn't dead, and isn't it fortunate that he revived.”

여기에 예수께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들이 믿지 않기로 기울어져 있기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것입니다. 그들은 “오, 그 사람이 기절했었던것이 분명해, 진짜로 죽었던것이 아니야. 다행히도 회복된것이지” 라고 말할것입니다.

Chapter 17

Now He turns again to His disciples.

Then said he unto his disciples, It is impossible but that offenses will come
(17:1):

You cannot help if you're living in this world, you're going to have offenses come your way.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who will seek to put stumbling stones in your path. And that's what the word *offense* here; it's a stone of stumbling, a scandalon. It's impossible to live your life without having these things happen. These offenses, as people challenge your faith, as people ridicule you for your walk with Jesus Christ, it's gonna happen.

이제 주께서 다시 그의 제자들을 향하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17:1):

당신이 세상에 사는동안에는 실족케하는 일이 생기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통로에 거침돌을 놓으려고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실족케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게하는 돌입니다. 헬라어로 스캔달론 (scandalon) 입니다. 이러한일이 없이 사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신앙에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것을 사람들이 조롱할때 이러한 실족케 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but woe unto him, through whom they come! (17:1)

You can't live your life unscathed. You can't live your life without having stumbling stones placed in your path, but woe to the person who put the stumbling stone there.

It was better for him that a millstone were hanged about his neck, and he was cast into the sea, than he should offend one of these little ones (17:2).

It is a very serious thing to tamper with someone's faith in Jesus Christ. To seek to put a stumbling stone or a block in their faith of Jesus Christ.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7:1)

흠 없는 삶을 살수는 없습니다. 거침들로 인해 실족치 않을수는 없지만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뻔대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17:2).

어떤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한 수단으로 간섭하는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 거침 돌을 놓거나 막으려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Jesus said much the same thing at another occasion in which He took a little child and was using a child for an example. And those that would try to rob a child of that pure, simplistic faith in Jesus. Quite often these scholarly theologians accuse me of preaching a simplistic gospel. Thank God for the charge, I hope it's true. I hope that I'll always preach a simplistic gospel. Because to me, the problem is that man has tried to make it so complex when God has made the believing in Jesus so simple that even a child can believe and be saved. And Jesus said unless you become as a little child you won't be able to come in to the kingdom of Heaven. That's pretty simplistic and I hope to keep it that way.

예수께서 다른 경우에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으며 그때 주님이 어린 아이를 취하여 어린 아이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빈번히 이 학구적인 신학자들이 단순한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송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 를 믿는것이 너무나 간단하여 심지어 어린 아이 까지라도 믿어서 구원 받을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아주 간단하며 그렇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I love the spunk that Jesus has. He's gonna take one of these big ole millstones, and I've seen them the size of the pulpit here, tie it around the guy's neck and toss him in the Sea of Galilee. Better for him if that had happened to him than he should offend one of the little ones.

So take heed to yourselves (17:3):

나는 예수께서 가지신 용기를 좋아합니다. 주께서 큰 연자 멧돌을 취하시려합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강대상 만큼이나 큰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목에 걸어 갈릴리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 중의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멧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진우는것이 나으리라.

Be careful that you're not a stumbling stone. Be careful that you don't stumble your brother. Take heed to yourself if your brother trespass against thee. Rebuke him. There is a place for rebuke. Romaine has his place in the body. And for you who are listening on tape, Romaine is not my wife. We had some people come to Calvary a while back looking

for my wife; they thought her name was Romaine, because of the reference that I have made to Romaine from time to time. Just keep the record clear.

If your brother trespass against you, rebuke him (17:3);

거침 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당신의 형제를 실족 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형제가 당신에게 범죄하거든 당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를 책망하십시오. 책망해야할때가 있습니다. 로메인은 교회에서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이프나 음성으로 듣는분들이여, 로메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오래 전에 우리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제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들은 제 아내의 이름이 로메인 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로메인을 자주 말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입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we should reprove, that we should rebuke.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So your brother trespass against you, rebuke him, and say, "Hey, that isn't right, you shouldn't have done that." "Oh, I'm sorry. Forgive me?" "Yes, I forgive you." Should be just like that.

if he repents, forgive him (17:3).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과실을 저질렀거든 그를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보게,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했어" 라고 말하십시오. "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거든 "그래, 용서한다" 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Now it doesn't say anything if he doesn't repent, does it? Do you have to forgive him if he doesn't repent? I don't think so. You say, "Oop, oh wait a minute." Oh, let me ask you a question. Does God forgive a man without repentance? I don't know of a single instance where God forgave a person without repentance. In fact, Jesus said unless you repent you're gonna perish. So repentance is necessary for forgiveness. It's an absolute necessary qualification for forgiveness. If I'm to be forgiven, I must repent. God will not forgive you if you don't repent, therefore, God does not require that you forgive outside of repentance. But if they do repent, then you...it's...the ball is in your park and you've got to forgive.

그가 회개한다는 표현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어마, 잠깐만 기다려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주는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 다음은 당신의 책임이고 용서해 주어야합니다.

And even if he trespasses against you seven times in the same day, and seven times in the same day he turns to you again, and says, I repent; thou shalt forgive him (17:4).

Thank you, Lord, I needed that. That's so hard, isn't it? You would be prone to think that the person wasn't sincere. Just taking advantage of you. If seven times he does some rotten deed and then quickly says, "Oh, I repent, I repent," and yet, if he repents seven times the same day, I'm to forgive him. I can't do that unless the Lord helps me. And the apostles, no doubt, felt the same thing, because when Jesus said this, they said, "Oh,"

Lord, increase our faith (17:5).

Help me, Lord. Can't handle that one.

And so the Lord said, If you had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17:6),

만일 하루 일곱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17:4).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곱번 못된 짓을 하고 재빠르게 "오, 회개 합니다, 회개 합니다" 라고 한다면, 더구나 같은 날 일곱번 회개하면, 나는 그것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사도들도 똑 같은 심정이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17:5).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건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17:6),

Now I think that we oftentimes make a mistake in this, thinking of faith in quantity and we think oh a mustard seed is so tiny, just a little tiny tiny bit of faith. And we think of it in quantity or in size. But He didn't say if you had as much faith as the size of a grain of mustard seed, did He? He isn't referring to size at all, if you had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I didn't know mustard seeds had faith. But if you had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you might say to this sycamine tree (17:6),

Or mulberry tree, whatever it might have been.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빈번히 오해를 하는데,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하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으며 믿음도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양이나 크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 알 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면 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전혀 크기에 관계치 않으시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에 믿음이 있는줄은 몰랐네 라고 말할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17:6),

뽕 나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Be thou plucked up by the root, and be thou planted in the sea; and it would obey you (17:6).

Now, whenever I read something like that, I wonder, "Lord, how much faith do I have?" But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Now in another place He said, "If your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you can say to yon mountain be thou removed into the sea and it would happen."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17:6).

그러한것을 읽을 때마다 나는 궁금해서 "주여, 내게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곳에 보면 주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Let me suggest to you that a mustard seed is quite small. And when it is planted in the ground and covered with dirt and there germinates. As that mustard plant begins to grow from the little seed, it begins to move, in a sense, especially to its size the mountains of dirt above it that it might break forth and grow up into a mustard bush. So faith as a grain of mustard seed. There is that life principle there that can move mountains. Another place the disciples said, "Lord, increase our faith," and perhaps He's just showing them how little they really do have, and if this be a standard then I must take my place with them. I do wish that the Lord would increase my faith.

겨자씨는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고 흙으로 덮으면 싹이 납니다. 그 겨자는 그 작은 씨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산 특히 그것 올라서 자라기위해 땅의 일부를 움직여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겨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인것입니다. 거기에 산을 움직이는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했더니 주께서 그들이 얼마나 적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이라면 나는 그들의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주께서 내게도 믿음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ow this business of faith, though, becomes a very tough issue, because so many times we find ourselves trying to generate faith. Have you ever been in the position of trying to generate faith? You know, you go trying to get the turbines turning and get things rolling. But you can't generate faith. Now a lot of times we are made to feel very guilty..."Well, brother,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Surely you wouldn't be in the mess that you're in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You wouldn't be as sick as you are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Now, if at any time a person needs comfort and help is when they're sick and they're weak and they're down. And it's no help to tell a person, "Well,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you wouldn't be in this condition, brother." That's no help at all. You're as bad as those guys who came to comfort Job. You're kicking a guy when he's down.

이 믿음이라는 과제는 아주 어려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만들어 내려고 힘쓰는적이 있습니까? 한번 엔진을 틀면 계속 돌아가야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지은것 같이 느낄때가 많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이 현재 처해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을게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겁니다."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때는 병들고 연약하고 절망중에 있을때입니다. "형제여, 만일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것을" 이라고 말하는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것은 도움도 안될뿐더러 오히려 위로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나 다름이 없이 나쁩니다. 그것은 실마한 사람을 발길로 차는것과 똑 같습니다.

I cannot generate faith; I cannot produce faith. Faith is a gift of God. It is listed in I Corinthians chapter 12 as one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Now it is glorious when God plants that faith in your heart, but if He doesn't I don't know what you can do about it. So I think it's proper with the disciples just say, "Lord, increase my faith."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고린도전서 12 장에 성령의 은사중의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실때 그것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주신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제게 믿음을 더 하소서" 라고 할것입니다.

Now the Lord is talking to them about what it is to be a servant. You're the servant of the Lord. He's called these disciples to be a servant. And He's talking to them a little about what a servant...what it entails being a servant. Let's leave it there.

But which of you, who has a servant plowing or feeding your cattle, will say to him by and by, when he's come in from the field, Go and sit down and eat your dinner? But will you not rather say unto him, Prepare my supper, gird yourself, and serve me, until I have eaten and drunken; and afterward you can eat and drink?

Now does he thank that servant because he did those things which were commanded him? (17:7-9)

이제 주님께서 섬기는자가 되는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제자들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무엇이며 종이 되는데 필요한것을 말씀 하십니다. 그것은 거기에 남겨 둡시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 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17:7-9).

And Jesus said, "No way."

I trow not. So likewise ye, when ye shall have done all those things which are commanded you, say, We are unprofitable servants: we haven't done any more than what was our duty to do (17:9-10).

My attitude after I come in from serving the Lord, and the Lord gives me another task to do, and I'm so tired I feel oh I can't move. But I go to the hospital, I make the call, I pray for them and encourage them. And I'm about fall asleep driving home. Catch myself a couple of times almost running off the road. And I'm trudging upstairs to bed and, "Oh, Lord, You ought to really lay a heavy one on me now. Look how good I am, look what I've done for You. Surely, Lord, You ought to bless me now. I'm so good." Lord says, "No, no." Say, I'm an unprofitable servant. I've only done that which was my duty to do. I'm a servant. What is my duty? To obey my master. Not to be looking for glory, not to be looking for thanks, not to be looking for pats on the back.

예수께서 "절대로 안돼" 라고 하셨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찌니라 (17:9-10).

주님을 수종드는 일을 끝내고 들어 온후에 주께서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 하실때 나의 태도는 너무 지쳐서 도저히 더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가서 전화걸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운전해 올때엔 쓰러져 잘정도입니다. 한 두어 번은 차가 탈주할뻔 했습니다. 이층으로 터벅터벅 걸어 침대에 가서 "오, 주님, 내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우시네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꾼인가 또 당신을 위해 한 일을 보세요. 참으로, 주님, 이제 축복해 주셔야지요. 나는 훌륭한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무엇이 나의 의무입니까? 내 주를 순종하는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들으려 하는것도 아니요 내 등을 두들기며 칭찬하는것을 들으려는것도 아닙니다.

They tell me that I'm a difficult one to work for. Because I don't pat people on the back. Now I know that's difficult in marriage, and God help me, I'm trying. I know it is a failing of mine, because my wife isn't my servant. She's my wife. And it is a great failing of mine not to give her more recognition for those good traits, those beautiful traits that she has. I just, you know, expect it and, but I don't give her recognition and don't say, "Oh, sweetheart, that was the most delicious dinner. You seasoned that roast just perfectly, oh that was good." I just don't say those things. I wish I could, I wish I did, but I don't. But if she burns the carrots, I say, "Oh you burned the carrots, huh?" No one makes it so stupid that we can't learn, but yet, as a position of a servant I shouldn't really be looking for these little perks. I've only done what is my duty to do.

사람들은 내 밑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등을 두들기면서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어려운것을 압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빕니다. 그 부분이 나의 실패하는 부분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나의 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나의 큰 실패는 내 아내에게 큰 장점이 있는것을 알아주지 못한것입니다. 그에게 아주 아름다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걸 기대하지만 아는채도 아니하고 말도 "오, 여보, 그거 정말 맛있는 저녁이요. 간을 완벽하게 잘했어. 그것 정말 훌륭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들을 안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합니다. 그러나 당근을 태워 쓸때엔 오, 당근을 태웠네"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배울수 없을 정도로 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이러한 작은 칭찬을 받으려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Now it came to pass, as he was on his way to Jerusalem, that he passed through the midst of Samaria and Galilee. And as he entered into a certain village, there met him ten men that were lepers, which stood a far off (17:11-12):

Which, of course, was the law of the land. If you were a leper you had to cry, "Unclean," and could not allow anyone to approach you.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7:11-12).

물론, 그것은 그 땅의 법이었습니다. 만일 문둥이라면 "불결합니다" 라고 소리 질러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합니다.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s (17:13),

They cried, they yelled.

they said,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And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your way and show yourselves unto the priests. And it came to pass,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17:13-14).

Again, I like this because it shows us the variety with which Jesus worked His works among men. He was never in a pattern. He didn't do things by set patterns because He didn't want us to get set into rituals or into patterns. He wanted us to just be free to the working of God in different ways. In another case a leper came and said, "Lord,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And Jesus touched him and said, "I will. Be thou clean.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immediately his leprosy left him.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7:13),

그들은 부르짖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7:13-14).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방법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해진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우리가 의식이나 모형에 따라 행하는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경우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Now here they stood afar off. It doesn't say anything about Jesus touching them. They just cried out and Jesus called back and said,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Now this was the necessary thing when a...this is the law of the leper and the day of his cleansing, Leviticus 13. He is to go to the priest and he's to show himself to the priest to examine him. If he finds no new skin blotches and so forth, he puts him in the house and he sits there for seven days. Comes back again before the priest, and he looks over him again, and there's no new eruptions or blotches then the man is proclaimed cleaned by the priest. And he goes out and gets a couple of doves and he brings one in. The priest kills the dove, pours the blood in water basin, he takes the other dove and dips it in this bloody water and turns it free. And the bloody water dove flies away with the blood sprinkling down and the guy is cleansed of his leprosy and he's able to go back into the community. So that was the first step back to restoration,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그들이 멀리 서 있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으로 만지시는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렀고 예수께서 뒤를 돌아 보시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둥병 환자들에 관한 법으로 깨끗함을 얻는날에 행하여야할것으로 레위기 13 장에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 검사하게 해야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그에게서 새로운 부스럼이나 종기를 발견할수 없으면 그 사람을 집안에서 칠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받고 새로 생긴 부스럼이나 발진이 없으면 제사장이 그는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가서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져와서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잡아 물 그릇에 피를 흘려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마리의 비둘기는 그것을 피에 찍어 날려 보냅니다. 피 흘린 물을 적신 비둘기는 피를 뿌리면서 날아가면 그 사람은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얻었고 사회에 복귀할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하는 첫 단계이며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것입니다.

So by faith, as they started towards the priest. Now doesn't say they were cleansed immediately, but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They started out in faith towards the priest, and as they were going, some guy said, "Look, wow, it's gone, unreal."

And one of them, returned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he turned back, and with a loud voice he glorified God. And he fell down on his face at Jesus' feet, giving him thanks: and he was a Samaritan (17:15-16).

Now the Jews had no dealings with a Samaritan nor the Samaritans with the Jews. But misery had made common brothers of these men. But it's significant that out of the ten only one gave thanks.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당장 깨끗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을때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가기 시작하여 가는중에 한사람이 "보라, 와!, 사라졌어, 믿어 지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15-16).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상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이 사람들을 공동된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열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And Jesus said unto him, Were there not ten who were cleansed? where are the nine? (17:17)

This indicates that the Lord is looking for thanks when He has worked in a person's life. He's looking for that response, and He misses it when He is...when it is not there. Weren't there ten that were cleansed? Where are the nine? And He said unto him,

There are not found that returned to give glory to God, save this stranger. And he said to him, Arise,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17:18-19).

He received more than just the healing of his leprosy. He received salvation.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7:17).

이것은 주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서 일 하실때 감사를 표현하는것을 기대하신다는것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 하십니다. 반응이 없을때 주께서는 서운하게 여기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께서 그에 말씀하시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7:18-19).

그는 문둥병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And when he was demanded of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should come (17:20),

He's heading now towards Jerusalem. When's the kingdom of God gonna come? When He gets to Jerusalem? You gonna do it?

and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observation (17:20):

The word there in the Greek is a word that means with outward manifestation or an outward show. You're not gonna see an outward display of the kingdom at this time.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17:20),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 일까요? 주님,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17:20):

헬라어로 그 단어는 외향으로 나타나는것 또는 겉에서 보이는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외향적으로 볼수 없느니라.

Neither shall they say, Lo here! Or, lo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entos you, among you] (17:21).

“Within you” is a poor translation here. It's really,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It would be wrong to say that the kingdom of God was in the Pharisees.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life of every man who has submitted to the King, or to God as King. But with Jesus, there the kingdom of God was among them. He was a demonstration of a man submitted to the authority of God.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entos) 있느니라 (17:21).

“너희 안에” 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모든 믿는사람들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And he said unto his disciples, The days will come, when you sha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the Son of man, and you will not see it. And they shall say unto you, Look it's here; look it's there: now don't go after them, or follow them. For as the lightning, that lighteneth out of the one part of the heaven, shines to another part under the heaven; so shall the Son of man be in his day (17:22-24).

Oh, the kingdom of God is coming, it's over here, let's go over and see the kingdom, it came secretly. No, it's gonna be like lightning, everybody is gonna see it when it happens.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 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17:22-24).

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가소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리에 임하였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번개가 치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때 모두가 보게 됩니다.

But before He comes in this glory,

He first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is generation. And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shall it also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For they were eating, they were drinking, they married wives, they were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into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Likewise also as it was in the days of Lot; they did eat, they drank, they bought, they sold, they planted, they built; but the same day that Lot went out of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17:25-29).

그러나 그가 영광중에 오시기 전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찌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17:25-29).

What is Jesus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when it comes, it'll be as in the days of Noah. It will be in the days of Lot. People will be going on with business as usual,

eating, drinking, marrying wives, buying, selling, planting, building; business as usual. Now, verse 29 I feel is significant, "But the same day that Lot went out of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I do not believe that God's judgment will come upon the earth until the church is taken out. I do not believe that the church is going to face the wrath of God, the Great Judgment period mentioned in the Bible, or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But I believe that Lot is a classic sign of God's ability to deliver the righteous while reserving the ungodly for the day of judgment as Peter tells us in his second epistle.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것입니다. 그 때는 룻의 때와 같이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업을 할것이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을 통상 하는대로 할것입니다. 29 절은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시기 전에 심판이 임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 동안에 있을 대 환란기간 즉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룻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것 처럼 심판의 날을 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예비하시는 동안 의로운 자를 구원 하실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규범적인 표시입니다.

Even thus shall it be in a day that the Son of man is revealed. In that day, he which shall be upon the housetop, and his stuff in the house, let him not come down to take it away: and he that is in the field, let him likewise not return back. For remember Lot's wife (17:30-32).

Who, of course, in turning back turned to a pillar of salt. Get out of there, escape.

Whosoever shall seek to save his life shall lose it; whosoever shall lose his life shall preserve it. I tell you, in that night there'll be two in one bed; the one will be taken, the other will be left. Two shall be grinding together; the one shall be taken, the other left. Two shall be in the field; one shall be taken, the other left. And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Where, Lord? And he said unto them, Wheresoever the body is, there will the eagles be gathered together (17:33-37).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처를 생각하라 (17:30-32).

누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나가서 피 하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7:33-37).

Now this last portion is difficult of interpretation. And there are two basic interpretations. There are those who interpret this as the person who is taken is the one in, who is in trouble, because he is taken to the judgment. One is taken, where Lord? Wherever the body is there will the eagles be gathered together. And so they say they are taken to be put into the great battle of Armageddon where the birds are going to come and feast upon the body of the people.

이 마지막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러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주검이 있는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새들이 와서 사람의 시체로 잔치를 하는 아마게돈 대 전쟁에 가도록 데려감을 당한다고 합니다.

One interpretation. The other interpretation is that this actually is a reference to the rapture of the church. Taken up to escape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So you can see that the two interpretations are exactly opposite. For in the second interpretation the one who is taken is blessed, because he won't have to be in the Great Tribulation. The problem with the first interpretation is eagles are not a bird of prey, that is, upon the human bodies. They do prey upon livestock, live animals.

그것이 한가지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들려 올라가 대 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이 두 해석이 정 반대가 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해석에서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 환란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해석의 문제점은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는 맹금(사람을 잡아 먹는 새)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먹이는 살아 있는 가축이나 산 짐승들입니다.

But they are not as the vultures who eat human flesh. They do not eat the carcasses of people. So to interpret the aetos, which is eagles, as vultures is wrong, but yet, those who make the first interpretation are always translating aetos, as vultures. But that is not a true translation of the Greek aetos, which is eagles. There is another word for the vultures that feed upon the flesh of men at the great battle of Armageddon. What is being referred to wherever the body is there will the eagles be gathered together.

그러나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는 콘도르 같은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인 "에오토 (Aeto)" 를 사람의 시체를 먹는 새로 해석하는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에오토 (Aeto)" 를 콘도르 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에오토 (Aeto)" 의 참된 해석이 아니며, 그것은 독수리 입니다. 아마게돈의 대 전쟁에서

사람의 시체를 먹일 콘도르 종류의새에 대한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주검이 있는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는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There are those who see that as the body of Jesus Christ, wherever the body of Christ is there will the eagles, His victorious saints, be gathered together. And so you have two interpretations. You have a choice between the two. They are diametrically opposed. Both can't be right, and when you get into a place like that I just find that it's probably best to file it away and say, "Well, I'll just wait for further information."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곳에는 어디나 독수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중에하나를 선택할수있습니다. 두 해석은 서로 정 반대가 됩니다. 두개가 다 맞을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놓일때 그것을 파일에 철하고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때 까지 기다리자" 라고 합니다.

Shall we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a lamp unto our feet, a light into our path to guide us as we walk with Thee. And Lord, we pray that we might walk in the light of Thy truth, the path illumined by Your Holy Spirit. Thank You, Lord, for Your truth that has set us free. Bless now, Lord, and may we grow in grace and in our knowledge of You. And Lord, we would with Your disciples pray, increase our faith. Work in our lives, Lord. In Jesus' name. Amen.

기도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동행할때 우리를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주님,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하는 당신의 진리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요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한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bless you. We praise the Lord for His goodness to us. The opportunity of just growing in our walk and in our fellowship. And may you be enriched this week as the love of Christ works in your life and works through your life. And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ll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주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생활에서 또 생활을 통하여 역사할때 주 안에서 행함과 그 분과의 교제에서 자라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Luke 18
Tape # C2537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tonight to Luke, chapter 18.

Luke tells us that Jesus now

spoke a parable to them to this end (18:1),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parable was to encourage people to pray and not to faint.

누가복음 18 장을 펴 봅시다.

누가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18:1),

바꾸어 말하면,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이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것입니다.

that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18:1);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so often when people come, almost fainting over the dilemma that they are facing, that they are just breathless, at the end of the road. They're desperate; they're almost beside themselves as they begin to pour out. They're just so full, they pour out all of the woes and the problems and the difficulties and all. And that release valve is popped, and it just comes out all over the place. And then you say to them, when they finally come to some kind of equilibrium, you say, "Well now, have you prayed about it?" "No, no, but we've got to do something. We can't pray." And yet, that's exactly what the Lord is saying, "We ought to pray and not to faint." You know, I have found that the Lord doesn't give needless warnings.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18:1);

재미 있는 사실은 빈번히 사람들이 그들의 직면한 문제로 거의 낙망하여 숨을 쉬지 못할 막바지에 다다른 후에야 찾아옵니다. 그들은 절망 상태에 있으며 그것을 쏟아 놓기 시작 할 때엔 거의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민과 문제들과 어려움과 모든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쏟아 놓습니다. 그 노출하는 발브가 열렸고 그것이 온 사방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이 평안을 찾았을때 물어 봅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기도 할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쓸데 없는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Now many times when He warns I think that they are needless. I think, "Lord, You don't need to talk to me about that. I've got that one wired, Lord. No problems there." And yet, it is in that area where the Lord has given me warning that I ultimately end up in trouble. Because I didn't listen; I didn't think I needed the warning. As I read through the scriptures, I find that those things that the Lord warned the kings about where the very things that ultimately they got in trouble for. God knows. He knows what lies down the road. And He doesn't warn us needlessly, nor does He exhort us needlessly. And in this parable, to the end that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that is the area where so many people have problems. They're always fainting and not praying, just turning it around.

주께서 경고 하실 때 나는 그 경고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주님,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내게 경고하셨던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경고 하셨던 바로 그점에서 왕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쓸데 없이 경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낙망하고 돌아서면서도 기도 하지 않습니다.

Now, in the parable, do not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of it in parallelisms because Jesus, first of all, speaks of a wicked judge. The Roman judges, or those that were appointed by the Roman government, were notoriously crooked. In fact, there's a Greek phrase that means "the judge of honor." But by just a slight change, the phrase is "the robber judge." And so it was very common. And in the classical Greek you can read often this switching of the phrase; and rather than saying "the honorable judge," they'd say "the robber judge." Because they were so notoriously wicked. They said you could buy them with a pound of beef. They were just wicked men. And they used their position. And so Jesus is talking about this kind of a judge.

이 비유에서 보면, 먼저 예수께서 악한 재판관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사법으로 생각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들은 악명이 높을 정도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헬라 속담에 “명예로운 재판관”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바꾸어 “도둑 재판관” 이란 말도 있고 그것이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 헬라 고전 문학에서 “영예로운 재판관” 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그것을 바꾸어 “도둑 재판관” 이라고 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명이 높을 정도로 대단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고기 한근에 그들을

매수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악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위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종류의 재판관에 대하여 말씀 하십니다.

And He said,

There was in a city a judge, which feared not God, neither regarded man: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and she came unto him, saying, Avenge me of mine adversary. And he would not for a while: but afterward he said within himself, Though I fear not God, nor regard man (18:2-4);

It shows what kind of a person he was.

Yet because this widow troubles me, will avenge her, lest by her continual coming she wears me out (18:5).

She wearies me.

And the Lord said, Hear what the unjust judge said (18:6).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18:2-4);

이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 줍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18:5).

그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18:6).

And then He gives His lesson in prayer. Now, I said be careful that you don't get into parallelisms with this parable and think that this unjust judge represents God. That is not the case. Jesus often taught in parallels with sharp contrasts, and this is one of those parables not of parallelism, but of sharp contrast. For surely He would not put God in the light of an unconcerned, unjust, judge, unfeeling. That's the exact opposite of what He teaches us of the Father, who loves, who cares, and who is concerned. So this parable is one of contrast.

그후에 주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던것 처럼 이 비유로 병행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빈번히 완전히 대조되는것을 병행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들 중의 하나는 병행론에 맞지 않고 오히려 대조를 이룹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불의하며 인정이 없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놓으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아버지는 정반대입니다. 사랑 하시고 돌보시며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 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대조형의 하나입니다.

The contrast is this: if a wicked man, hard, who neither regards neither God nor man, if he can be persuaded just because of the persistency of this little widow, in sharp contrast,

Shall not God avenge his own elect, which cry unto him day and night, though he bear long with them? I tell you that he will avenge them speedily (18:7-8).

대조는 이러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하고 굳은 사람이 이 보잘것 없는 과부의 간청으로 설득될수 있다면 그것은 현저히 대조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7-8).

Now Jesus isn't really then teaching that you've got to persist in prayer and continue and continue and continue until you get your answer. He is saying that God will avenge speedily those who call unto Him. So, don't in your mind draw the parallel, "This God is like this judge, and I've got to just keep pestering Him until I get what I want." If your cause is right, if your cause is just, I believe that God is only waiting for you to open the door through prayer so that He can do what He's been wanting to do the whole time. You see, I'm convinced, from the scriptures, that God knows what I really need long before I ever know it. God knows what I'm going to be needing six months from now. God knows what I'm going to be needing five years from now.

실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응답을 얻을때까지 계속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 하시는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속히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병행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은 재판관 같으니까 내가 바라는것을 얻을때까지 괴롭혀야한다" 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기는 당신의 이유가 옳고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것을 하실수 있도록 당신이 기도를 통하여 문을 열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필요한것을 내가 알기전에 벌써 알고 계신다는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육개월후에 내게 있어야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년후에 필요할것 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Prayer is not really informing God of my needs. Jesus said, "Your Father knows what you have need of before you ever ask Him." Yet, so often we think of prayer, we are informing God now of what my need is. "God, let me tell You what I need here. And I'm going to cue you in, Lord, so You can understand what I really need." And I'm using prayer as a means to inform God. How ridiculous! God doesn't need that I should inform Him of anything, for He knows everything. God loves me. He is my heavenly Father. His chief concern is my eternal good. Notice, eternal good, not my temporary good.

기도는 내게 필요한것을 하나님에게 알리는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기도를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것 다 아실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입니까! 하나님은 모든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 드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 된 관심은 내게 영원히 좋은것입니다. 영원히 좋은것이 당장엔 좋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Now, there are some things that I may feel would be temporarily beneficial to me, but God knows that eternally they'd be damning to me. And so, I try to inform God of my temporal need, and all the while He knows my eternal need. Now, if I could by persistence, just by dogged persistence, by bugging God through prayer, break God down so He'll say, "Oh, answer that nut! I'm getting tired of him calling!" then I could be bringing into my life all kinds of hurtful harmful things. And God loves me too much to be dissuaded from His perfect will for my life by responding to my prayers when they are not in accordance with His eternal plan.

당장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그것들이 영원히 저주가 될른지 조차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필요한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을 위해 필요한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만일 나의 완강한 고집으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오, 그 바보같은 놈, 응답해주어! 그 친구가 불러 대는것이 지겨워!"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생활에 온갖 아픔과 해로운 일들이 벌어질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일치되지 않는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 하시므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중단되지 않도록 처리하십니다.

I want to share something with you. I don't want God to switch His plan as the result of my continued requests. I want God's perfect will for my life, and prayer is not really intended to get my will done on earth. Prayer is intended to get God's will done on earth, and so true prayer begins with the purpose of God, the plan of God, the will of God. And He makes that known to my heart, and I express it to Him in prayer. And by my expression in prayer, what I am actually doing is opening the door and giving God the opportunity to do what He's been wanting to do, what He's desiring to do, but will not do against my will. You see, God has given to you this business of free will, the power of choice. God will not violate that choice. Therefore, prayer opens the door for God to do those things that He desires to do in my life.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속적인 요구의 결과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알려주시며 나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뜻을 거역하여 행하시지는 않을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 드리는것입니다.

In the fifteenth chapter of John, that glorious chapt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ver and Christ, Jesus said, "You've not chosen Me, but I've chosen you and ordained that you should be My disciples. That you should bring forth fruit," cause that's that fruit-bearing chapter, "I'm the vine; you're the branches;"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That, whatsoever you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may," notice, He "may," not He "shall," "He may give it to you." You see, it opens the door that God may do now what He's desiring to do. Your prayer has opened that door for God to act freely without violating your will. So,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wisest prayer any of us can ever offer to God is, "Lord, just work out Your complete perfect will in my life. Have Your way, Lord, in my life. Do for me what You want to do."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요한복음 15 장에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제자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는 말씀 때문에 과일 맺는 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러 함이 나라,” 주목할것은 하나님이 꼭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문을 여는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의지를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행하실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내 생활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것을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I think that many times our prayers can be limiting God. We limit Him in our prayers. They're putting the boundaries and the restrictions on God. Like the children of Israel who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so we so often do that in our prayers. "Oh, Lord, I need a hundred dollars! I need it desperately, Lord. You know the bills are overdue, and I need a hundred dollars. God, please send a hundred dollars." Why don't you just say, "Lord, please send what you know I need"? Why limit Him to a hundred dollars? He may be wanting to give you a thousand. So there are sometimes when I think that being very specific is not so good.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때가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사람들이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에게 제한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했던것 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오, 주님, \$500 이 필요합니다! 주님, 꼭 있어야 됩니다. 고지서들도 지불 시기가 지나가서 \$500 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00 만 보내주세요.” 왜 “주님, 아시는대로 제게 필요한것을 보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500 로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1,000 을 주시려고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 좋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For years I prayed for a church of 250 people. I thought that was the ideal size, and oh, how I dreamed of pastoring a church of 250 people. I prayed for that number for years, limiting God. God had other things in mind. I didn't know what He had in mind. Oh, that we would understand how much the Father loves us.

오랫동안 250 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 이상적인 규모 였습니다. 그리고 250 명 되는교회에서 목회하는것이 얼마나 간절한 꿈이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만한 수의 교회를 위하여 수 년동안 기도했습니다. 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합니다.

Oh, that we would trust His wisdom in His dealing in our lives. Oh, that we could come to that place of total commitment of ourselves to Him, "Lord, You do what You want for Me. Lord, I rest in You." I'm not making any demands on God. I'm not trying to command God. I'm not trying to sit on the throne and be sovereign myself. I'm not trying to get my will done on this earth. That's not why I'm here, and that's not the purpose of prayer. It's to work in harmony with God,

to get His program accomplished on this earth. It's to link together with God and join with Him in His great program of reaching this world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오, 우리의 삶에서 일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데까지 올수있게 될것입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무엇이나 하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 스스로 통치하려하지 않습니다. 이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여기 있는것이 아니며 그것이 기도의 목적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조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하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것입니다.

“God, Your will be done! Your purposes be accomplished. Use me as ever You see fit as Your instrument, Lord, to do Your work. Here I am, I'm available to You and whatever You want, Lord, for my life. Whatever You want to do in me, whatever You want to do through me, Lord, I'm available. Here I am. Your will be done.” Commitment!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목적이 달성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일을 위하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필요한곳에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내 삶을 위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필요하실때 사용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Now, I don't always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I am going through. I don't always understand my trials. There are times when I cry out of my distress. And yet, there is always that understood relationship that I have with God; that even though I don't understand, Lord, Your particular working in my life at this moment, You just keep on working. Like my wife says, if I scream and yell and holler, "Don't let me have another bite of chocolate." And that's pretty much, "Lord, if I scream and yell and holler, 'Don't do anything contrary to Your will,' I don't care how much I scream, how much I holler, Lord, Your will be done in my life. That's supreme, that's paramount."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을 항상 알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통으로 부르짖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가 안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것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내 삶에 특별히 역사하시는것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말하듯, 내가 소리 지르고 고향 질러되면 “초콜렛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마치, “주님, 내가 소리 지르고 고향치드라도, ‘당신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소리치고 고통을 치든 상관 마시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상입니다.”

So, Jesus is not saying that God is like this unjust judge. He's saying He's totally unlike the unjust judge. But He's illustrating by contrast. If a man who is so hardened, so callous, so crooked, that he has no regard for God or man, if he can be persuaded by the persistency of the little widow, shall not God avenge His children speedily? “Yes,” He said, “I say He will.”

But then Jesus asked an interesting question. He said,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18:8)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조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할만큼 한 강박하고 무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보잘것 없는 과부에 의해 설득될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후에 예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8)

We are told in Matthew's gospel, chapter 24, one of the signs of the end of the age would be the iniquity in the earth abounding, causing the love of many to wax cold. That goes along with this question. I believe that we are living in the hardest period of history to live a consistent consecrated Christian life. I don't believe that ever in history has there been more temptation placed so freely before men.

마태복음 24 장에서 세상 마지막의 징조중의 하나는 세상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질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에는 우리는 일관적인 성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 앞에 오늘날 처럼 많은 유혹이 너무나 자유 스럽게 놓여진 일은 역사상 없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Through the media, through the movies, through television, through magazines, we have been overexposed to sexual enticements. That area has been stimulated and aroused. And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deteriorating of the moral standards, a broad acceptance of relationships in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And I do not believe that ever in the history of man has there been such

a broad exposure and a more difficult time to really live a truly committed life to Jesus Christ. And because the iniquity in the world is abounding, the love of many is waxing cold. And the question then that Jesus asked becomes very significant, "When I return, or when the Son of man comes, sha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True, genuine faith and trust in His Word.

언론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통하여 우리들은 성적인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극이 많고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덕 기준이 쇠퇴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관계성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것처럼 폭넓은 노출이 있는적이 없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웠던 때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은 아주 의미있는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되고 진정한 신앙과 그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And he spake this parable unto certain of those which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teous, and looked down on others (18:9):

These are those people, and you've met them, that are so critical of everyone else. They are like Job said to his comforters, "Surely you are the people and wisdom is going to die with you." People who are self-righteous, they feel no need of any help in that area. And they are critical, condemning and look down on everybody else. It's interesting that Luke begins to explain to us the direction that the parables are taking. So, this parable is to those who trust in themselves, that they are righteous and despised others.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8:9):

이러한사람들은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옅이 그의 위로자들에게 말한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너희의 지혜가 죽을때 죽는자들 이로우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판적이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재미있는것은 누가는 비유가 지향하는 방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겨냥한것입니다.

And there were two men who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the one was a Pharisee, and the other was a hated publican (18:10).

The word *publican* became synonymous with *sinner*, of the rankest sort, the tax collector, the crookedest man in town.

So the Pharisees stood and prayed thus with himself, God, I thank thee that I am not as other men are,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as that publican over there. For I fast twice every week, I give tithes of everything that I possess. And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would not so much as lift his eyes to heaven, but he smote on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Jesus said,] I tell you, this man, [that is, the publican,] went down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one that exalteth himself shall be abased; and he that humbleth himself shall be exalted (18:11-14).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8:10).

세리란 말은 죄인과 동의어로서 대단히 부패한 사람이며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8:11-14).

I find it very difficult not to assume this pharisaic attitude when I look at our church. I am very prone to say, "Lord, I thank You that our church isn't as other churches." We don't beg and dun the people for money. And just tell how wonderful we are. Because, really, in my heart I thank God that we're not like a lot of other churches. I mean, that's just plain honest. And I think we are better....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때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교회들과 같지 않은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거나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많은 교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솔찍히 말하는것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So, I have a problem with this parable. Yet, I realize my own need of God's mercy. It's not my righteousness, it's not by the works of righteousness that I have done. I don't ever come to God and say, "Now, Lord, look at what I've been doing for You. Look at the hours that I've put in this week. Look at the sacrifices

that I have made." Jesus talked to us about that last week, didn't He? When the servant comes in, the master doesn't say, "Sit down and eat." He says, "Go fix me my meal, and then after I've eaten, you can eat. After you've done all these things, just say I'm an unprofitable servant." So I never try to tell the Lord what I have done, nor come to the Lord on the basis of my commitment or what I have done, because that is a trap.

그래서 이 비유로 내게 있는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일을 좀 보세요. 제가 이번주에 보낸 시간을 좀 보세요. 제가 희생한것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지난 주에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들어왔을때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 라고 하지 않고 "내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난 후에 먹을찌니라. 이 모든일을 한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찌니라." 그래서 주님께 내가 무얼 했는가를 절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내 헌신을 기반으로 하거나 내가 행한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함정이기때문입니다.

It may bring me confidence at sometimes to come to God. But then most of the time, I feel no sense going to God; I haven't done anything, or what I've done is negative. So I always come to God on the basis of His grace and His mercy towards me. Whenever I come to God it is always seeking His mercy. You see, justice is getting what you deserve. I never come to God and say, "Justice, God! I want justice!" I'm afraid I might get it. I come and I say, "Mercy, Lord! Mercy! God, be merciful!"

그것이 하나님께 나올때 때로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나갈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행한것은 부정적인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의 은혜와 자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때마다 자비를 구합니다. 공의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할것을 받게합니다. 나는 하나님앞에 와서 절대로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저는 공의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건데 내가 처벌을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와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합니다.

For mercy is not getting what I deserve. But then I say, "Oh, God, grace!" Because that's getting what I don't deserve. So you see the fin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Justice is getting what you deserve. Mercy is not getting what's coming to you. And grace is getting what's not coming to you...God just giving to you on the basis of His love and grace towards you. You don't deserve it, but He'll do it anyhow.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And then, "Everyone that exalts himself shall be abased, but he that humbles himself shall be exalted."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오, 하나님, 은혜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지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정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에게 닥아오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며 은혜는 우리에게 닥아오지 않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하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다음에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And so they brought unto him also infants (18:15),

We brought little Jeffrey Draper tonight.

They brought unto him also infants, that he would touch them: but when his disciples saw it, they rebuked them. But Jesus called them unto him, and he said, Allow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shall in no wise enter in (18:15-17).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18:15),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어린 제프리 드레이퍼 (Jeffrey Draper) 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15-17).

I love to observe children. There is a beauty, there's something almost sacred and divine surrounding that little child. There's just such a purity. Sitting today at the table with some of my grandchildren, listening to them talk about the Lord, listening to them offer their prayers to God for the food and for every other item that they could think of while they're praying for the food. In fact, one even forgot the food. But their beauty and the simplicity of their opening up their hearts to God; it's just glorious. I love children. And there seems to be within a child a very keen sense of discernment.

나는 어린 아이들 관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 근처에는 아름답고 거의 거룩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순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손자들과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주님께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할 동안 생각 나는 것을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음식에 관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은 영광

스럽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속에 대단히 예민한 분별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If I see a person that children shy away from and won't go to, I become suspicious of that person. The same with a dog. If I see a person that a dog sort of..., I get suspicious. They seem to have a good sense of judgment. And Jesus said, "Unless you receive the kingdom as a little child, you're not going to enter therein." But Jesus was always interested in the children.

만일 어린아이들이 피하며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을 보게되면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개가 그 사람을 피하면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판단력을 가진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 갈수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Mark tells us that when the disciples were keeping the people away from Him, bringing their children to Him, and when Jesus saw what they were doing, He was angry. He was upset. He rebuked His disciples; He was really upset with them. "Let those little children come to Me; don't forbid them." And He took them into His arms and He blessed them.

마가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에게 데려왔을때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책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것을 용납하고 금하지말라.”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들을 축복 하셨습니다.

Now there was a certain ruler and they asked him, saying, Good Mast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And Jesus said un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there is none good, except one, and that is, God.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kill,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he said, All of these have I kept from my youth up. And when Jesus heard these things, he said unto him, Yet you lack one thing: sell all that you have, distribute un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come and follow me. And when he heard this, he was very sorrowful: for he was very rich. And when Jesus saw how that he was very sorrowful, he said,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needle's ey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And they that heard it said, Who then

can be saved? And he said, The things which are impossible with men are possible with God (18:18-27).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8:18-27).

Now, again, let's not misunderstand Jesus. For when this young ruler came and kneeled at Him and said, "Good Mast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this age abiding life?" He's talking about a quality of life, not the quantity. A quality that he observed in Jesus. There's something eternal about the way this Man lived. His life crossed the dimensions of time; they stretched into the eternal. "What must I do that I might have this age abiding, this quality of life that You possess?" And Jesus said, "Why did you call Me good? None is good, except One, and that is God."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오해하지 맙시다. 이 젊은 관원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질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에 무언가 영원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간의 차원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뻗어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당신이 소유한 영원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삶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Now, do 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Jesus is saying, "I am not God." For I think a careful observation and you'll discover He's saying just the opposite. You see, He is saying one of two things: He is saying, "I am no good," or He is saying, "I am God." So the question, "Why do you call Me good?" is to arouse and elevate the conscious level of this fellow's mind. "Look, you've called Me good. Why did you call Me good? You're looking for age abiding life. Now you call Me good. Why is it that you call Me good? You see, there is only One that is good and that is God.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면 그가 말씀하신바는 정 반대임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것은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가 “나는 선하지 않다” 라거나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는 질문이 이 사람의 양심을 일깨어 그 수준을 높이려는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알다시피 선한분은 오직 한분이며 하나님만 선한 분일쎄.

Why did you call Me good? Because what you see in Me, this quality that you are attracted to, this quality that you have discerned is that I am God." You remember when Peter said,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said, "Blessed art thou, Simon Bar-Jonah!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unto you, but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as much He is saying unto this young fellow, "Look, you've had a divine revelation. Why did you call Me good? There's only One good and that is God." "That's right! Could You...?" So, He's trying to draw out now. "Hey, you're coming along, getting warm, warmer, warmer..." Pulling him in, letting him really expand this awareness.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매력을 느끼는 특성을 네가 내속에서 보고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임을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한것을 기억하시겠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한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께서 젊은 이에게 이 만큼 말씀하십니다, “보게, 자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네. 왜 자네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는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분외에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여보게, 자네는 잘 따라오네, 좀더 뜨겁게, 좀더,...” 그를 끌어들이고 그의 깨달음을 확장 시키려 했습니다.

Then Jesus flashes across him the six commandments in the second table of stone. Those commandments that deal with man's relationship with his fellow man, which constitutes righteousness. And as Jesus flashed across him the second table of the law, "Thou shalt not kill, commit adultery, bear false witness, honor thy father and mother, don't steal," he said, "I have kept all of these from my youth up." Mark tells us that he asked the question, "What lack I yet?" And Jesus, when He heard these things, said unto him, "You lack one thing. Go and sell all that you have and distribute to the poor. You'll have treasure in heaven."

그러고 난후 예수께서 두번째 돌판에 새겨진 여섯째 계명을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두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은 의를 이루기위한것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다룰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마가는 그가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직 내게 부족한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Now again, don't misread this. Is Jesus saying that his lack was poverty? No, because we could all get in easily then. Go back. "Why do you call Me good? There's only One good, that is God." Now Jesus said, "Go," and let's leave out what He said at that point, just "Go." And then He said, "Come, follow Me." Now the essential word of Christ to this young man is, "Come, follow Me." You see, your problem is, God is not at the center of your life.

다시 말하지만,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의 부족한것이 가난 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하기 쉽습니다. 다시 돌아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가 말했던것 “가라” 는 말만 빠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를 좇으라” 고 하셨습니다. 이 젊은 이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필수적인 말씀은 “와서 나를 따르라” 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것입니다.

You have another focal point upon which your life is revolving. In his case, it was money, his riches. His life was revolving around his riches. His riches were at the center of his life. And Jesus touched the thing that was at the heart of his life, and He said, "You've got the wrong God. Follow Me. Get rid of that false god. Follow Me. If you want to be perfect, get rid of those idols, get rid of those things that are standing in the way, those things that are keeping you from total commitment. Follow Me, put Me at the center of your life."

끊임없이 변하는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경우 에는 그의 돈, 즉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재산을 중심으로해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그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틀린 하나님을 가졌다. 나를 따르라. 옳지 않은 신을 없애 버려라. 나를 따르라. 만일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거든 그 우상들을 버려라. 앞 길에 서 있는것들을 버려라. 그것들이 나를 따르려는 전폭적인 너의 말길을 막고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네 삶의 중심 (보좌) 에 모셔라.”

And so the Word of Christ would be the same to you tonight. It would be "Go," and then He would put His finger in your life at that which is hindering you from completely following Him. Maybe it'd be selling that little sports car. Or getting rid of this, getting rid of that.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가라” 는것이고 그후에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것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조그마한 스포츠 카를 파는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나 저것을 없애는것 일 수도 있습니다.

To some, it might even be dropping out of your educational pursuits. If that's become the center of your life and the chief focal point and your life is revolving around that, that's the thing He's putting His finger on and saying, "Look, you'll never find it there; you'll only find it when you follow Me. It's not that these others that cannot be added and become a part of your life, but they should not and cannot be the center part of your life. I've got to be at the center of your life. Come, follow Me."

어떤이에게는 학업을 추구하는것을 중단하는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생활의 중심이되고 초점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께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보라, 네가 그것을 거기에서 찾을수 없어; 그것은 네가 나를 따라올때에만 발견할수 있어. 그것은 이러한 것들이 생활에 더 첨가되어 생애의 부분이 되는것이 아니야. 내가 네 삶의 중심에 있어야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

The young man went away sad. Now it is wrong to assume that he was lost. I don't know if we'll meet him in heaven or not. It may be that he was sad at the thought of what he had to do next. It could be that he went to his accountant and said, "Hey, get rid of everything, distribute it to the poor. I'll see ya later. I've got to follow a Man that I met today. Nothing else counts, but following Him." Or it could be that he went away sad, thinking, "The price is too great. Can't do it. I wish I had it, but I can't pay that price."

그 젊은 이는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못했다고 여기는것은 틀렸습
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를 만날지 못만날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가 그 다음에
해야할일을 생각하여 근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의 회계사를 찾아가서 “여보게,
모든것을 처리하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나중에 보세. 나는 오늘 만났던
그 사람을 따라가야하네. 그를 따르는것 밖엔 중요한것이 없어.” 혹은 그가 근심하여
갔으며 생각하기를 ‘뎃가가 너무커. 나는 그렇겐 못해. 내가 그걸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러한 값을 치룰수는 없어.”

And he had reason, then, to be sad. Jesus then said,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ugh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Riches can be such a powerful god in a person's life; they can get such a strong hold upon a person. They can possess you so quickly. The people said, "Lord, who then can be saved?" Of course, He talked about the camel going through the eye of an needle. And Jesus said, "With man, it is impossible." Luke said He said, "All things which are impossible with men are possible with God."

그리고 그 당시엔 그에게 근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개인의 생활에서 대단히 유력한 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굳게 잡을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당신을 신속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되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수 있겠나이까?” 물론, 주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없다.” 주께서 말씀하신것을 누가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수 있느니라.”

Now, I get upset today when we travel to Israel and the guides will tell you about the subgate that they call the "eye of the needle." This is a concocted story as are so many of the stories that the guides tell. They're interesting. You know, they are paid to know and so they'll tell you something, even if they don't know. Because they're expected to know. And I have looked at some of the various sites and I've had four or five explanations given to me of what caused it and all by the four or five different guides that we've had over a period of time.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면 안내자가 작은 문에 대하여 말할때 그것을 “바늘의 귀” 라고 불러서 나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안내자가 들려주는 꾸며낸 많은 이야기들 중의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모를찌라도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알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동안 사오명의 다른 안내자들로부터 너댓가지의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So they're not really that authoritative. There's just an awful lot of guesswork still in archaeology as to periods and times and datings and so forth. There's just an awful lot of guesswork of what that really was, and what that was intended for. And they'll tell you, "Oh, that was to do this or that." And you know, as I said, they've got to have some answer. Like the guide who was showing the minister through the cathedral in Milan, St. Ambrose Cathedral there.

그들은 정말 권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까지 고고학에는 연대나 날자를 결정하는데 많은 짐작을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것이였는지를 알려고 많은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 그것은 이것이나 저것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것 처럼 그들이 대답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안내자가 밀란에 있는 성 암브로스 성당을 을 통하여 목사를 보여주는것과 같습니다.

And he showed him this case and the skull in the case, and he was assuring the people that that was Peter's skull, that somehow it had been rescued when he was crucified and preserved and highly revered. One of the fellows spoke up and said, "Hey, we were down in the area of Rome the other day and in another cathedral and they showed us a skull. And they said that was Peter's

skull." He said, "It was smaller than this one," when he says, "Oh, yes, but that was when Peter was a boy." So, they'll have an explanation for you.

그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해골을 그 사람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은 베드로의 해골이라고 확신 시켰습니다. 여하간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을때 그것을 구출해서 잘 보존되어 승배를받는다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 전날 우리가 로마의 어떤 지역에 있는 성당에 갔을때 그들이 한 해골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베드로의 해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것보다 작았습니다." 그가 말할때 "오, 예,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소년이였을때 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말해줄 설명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So, they point to a small little cut in the bottom of the gate, and they'll say, "That's the needle's eye." And it is small enough, that to get through the gate, to get through this little hole, there's like a cat, things that they have in the house where the cat can come through and all. It's like that. You get down and you can squeeze and crawl through the thing. You'd never get a camel through one of those things. But they say, "Oh, there was a subgate. And at night when they close the main gate of the city, if a guy arrives at the city late, the only way he can get in...they won't open the main gate at night...so the only way you can get in is to take all of the baggage off the camel and you get him down on his haunches and you push the thing through. And with a lot of effort and a lot of work and a lot of strain, you can push him through the needle gate, or the "eye of the needle" gate. Wrong!

그래서 성문의 바닥에 찢라낸 작은 부분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바늘 귀 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수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집안이 들락날락 할수있는 것과 같은것입니다. 당신도 엎드려 쪼구려서 엎드려 지나갈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멍으로 낙타를 결코 지나가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 작은 성문이 있습니다. 성의 대문을 닫을때 어떤 사람이 밤 늦게 성에 도착하면 그들이 성에 들어 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밤에는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짐을 낙타에서 내리고 앉힌 다음 등을 밀어 들어가게 하는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일과 많은 긴장으로 낙타를 바늘문 혹은 바늘귀를 통하여 밀어 넣을수있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Jesus said, "With man it's impossible."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would like to believe a lot of struggle, a lot of effort, a lot of guts and drive and determination, you can save yourself. Wrong! You can't save yourself. I don't care how much pushing and pulling and effort you make, you can't save yourself. With man, it is impossible. You can't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on your own works.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thank God,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투쟁과 많은 노력과 많은 용기와 의욕과 결심으로 자신을 구원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기고 밀고 노력을 하든지 상관 없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수있습니다.

Now Peter said, Lo, Lord, we have left all and followed thee (18:28).

We gave up our houses and homes and all.

And he said unto them, Verily, I say unto you, There is no man that has left house, or parents, or brothers, or wife, or children, for the kingdom of God's sake (18: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18:28).

우리가 집과 가정과 모든것을 버렸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18:28-29),

Now notice that: "for the kingdom of God's sake,"

Who shall not receive manifold more in this present time, and in the world to come life everlasting (18:30).

The qualifying phrase is "the kingdom of God's sake."

Then he took unto him the twelve, and he said unto them, Behold, we're going to Jerusalem, and all of the things that are written by the prophets concerning the Son of man shall be accomplished (18:31).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8:30).

수식어를 붙인 문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 입니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18:31)

Now they are on the final leg of their trip to Jerusalem. They're down at the Jordan River and they are now going to go on up to Jerusalem to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re the scriptures are to be fulfilled. Not the scriptures of the establishing of the kingdom as the disciples thought. Not the scriptures of sitting on the throne of David, but those scriptures that related to His being

delivered to the Gentiles, to be mocked, spitefully entreated, and spit upon (18:32):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여행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하류를 지나 성경말씀이 이루어질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한다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18:32):

Jeremiah speaks of this mockery and the spitting, the plucking of His beard.

They shall scourge him (18:33),

Isaiah tells us that in chapter 53,

and put him to death (18:33);

Isaiah 53 and Daniel 9.

and the third day he shall rise again. And they understood none of these things: this saying was hid from them, neither knew they the things which were spoken (18:33–34).

예레미야는 그가 당할 조롱과 침 뱉음과 수염을 뽑는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18:33),

이사야가 53 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일 것이니 (18:33);

이사야 53 장과 다니엘서 9 장이 말해 줍니다.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18:33-34).

They were blind to it. "Okay, fellows, we've got to go up to Jerusalem, that all of the scriptures concerning Me might be fulfilled." "Alright, let's get on with the kingdom!" And He then tells them what He's referring to. "I've got to be delivered to the Gentiles, I have to be mocked, spitefully entreated. I'm going to be spit upon. I'm going to be rejected, I'm going to be scourged, I'm going to be slain. But the third day I'll rise again." "Let's go to Jerusalem, set up the kingdom."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나에 관한 모든 성경이 응하리라.” “좋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자!” 그 후에 주께서 그를 가리키는 것들을 말씀하시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 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국을 세우자” 라고 말했습니다.

So anxious were they. I am somehow encouraged by this though. These men that Jesus chose to be nearest to Him, these men that Jesus chose to establish the church were not spiritual giants. They were not perfect men. They did not have keen spiritual insight. They were people just like you and me. God uses ordinary people. God uses you if you'll just let Him. And so here they were, they really didn't understand what He was talking about. In fact, they were just miles apart in their thinking.

그들은 몹시 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택한 사람들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한 이 사람들은 영적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당신을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말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시기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상 그들의 생각은 수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18:35),

Now remember, He is on His way to Jerusalem. He's coming first to Jericho, about eighteen to twenty miles from Jerusalem.

It came to pass, as he was come near to Jericho, a certain blind man sat by the way side begging (18:35):

때가 이르매 (18:25),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먼저 예리고에 오셨습니다. 예리고는 예루살렘에서 18-20 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18:35):

Now this obviously is not the one in Mark's gospel, Bartimaeus, or the one in Matthew's gospel, or the two. One, the account gives two blind men, one tells of Bartimaeus. And this is a different account however. For in this case, Jesus is entering Jericho and the other two blind men He met when He was leaving Jericho.

So as He was on His way to Jericho, "a certain blind man was sitting by the wayside begging."

이것은 분명히 마가복음에 없는것으로, 바디메오,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 혹은 두사람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두 소경이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는 주께서 여리고를 떠나실때 두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리고로 가실때 "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And hearing the multitude pass by, he asked what it meant (18:36).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He couldn't see.

And they told him,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18:37).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나고 물은대 (18:36)

“ 무슨 일이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는 볼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18:37)

Now he had heard of Jesus. I think that everyone who has some kind of a physical disability is attune to possible cures. Unfortunately, because of this deep desire to be cured, in the present day they often become victims of evil charlatans who promise them cures. And it's amazing how a person who is desperate will hope for anything.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willing to take advantage of that hope and give to them a false hope. But somehow he had heard of Jesus of Nazareth; the name registered.

그가 예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누구든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치료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행히도 이 낮고자하는 간절한 마음때문에 오늘날 빈번히 이 치유를 약속하는 악한 사기꾼들의 희생자가 됩니다. 놀라운것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에든지 희망을 걸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에 모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거짓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여하간 그 소경은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들었고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And so he began to cry aloud, saying, Jesus (18:38),

And used the Messianic title,

th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Then those that went before [those that were around him] rebuked him, that he should hold his peace: but he cried so much the more (18:38-39),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18:38)

그리고 메시야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18:38-39),

Using now just the Messianic titl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And Jesus stood, and commanded him to be brought unto him: and when he was come near, he asked him, What do you want that I should do for you? And he said, Lord, that I may receive my sight. And Jesus said unto him, Receive thy sight: thy faith hath saved thee. And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him, glorifying God: and all of the people, when they saw it, gave praise to God (18:39-43).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18:39-43).

Notice that. Jesus said,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 will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f people are constantly coming up and praising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person and "you're so marvelous, and you're so this and that..." then you better take a quick self examination and find out how you're letting your light shine--evidently in the wrong way, because it's attracting attention to you. It's bringing praises to you.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when they see your good works, they will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Jesus was somehow doing it that way. So when they saw this blind man able to see,

following Jesus in the path, they glorified God. They praised God. They gave praise unto God.

그것을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 와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며 “당신은 너무 놀랍고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하거든 급히 당신 자신을 점검해보고 당신이 어떻게 빛을 발하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칭찬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볼수있게 되었을때, 길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것입니다.

Luke 19
Tape # C2538
By Chuck Smith

Now Jesus has entered into Jericho (19:1).

And as He is passing through the city,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which was the chief among the publicans (19:2),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19:1).

주께서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19:2).

The city of Jericho was an oasis. It was a resort town; it was the Palm Springs, except even more lush. The winters can get quite cold in Jerusalem. They get even an occasional snow. But down in Jericho in the wintertime the weather is just really perfect. The days are usually clear. You get less than two inches of rain during the year. And yet, because it is about 1100 feet below sea level, there are all kinds of springs and little streams down there in Jericho because of your depth.

여리고 성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은 유흥지였고 푸른 풀이 더 많은 것 외에는 팜 스프링과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예루살렘도 몹시 춥습니다.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도 여리고는 기후가 너무나 좋습니다. 낮에는 통상 맑습니다. 일년내 강수량은 2 인치 이하입니다. 그러나 바다 보다 1100 피트 낮은 지대에 있으므로 여러가지 샘들과 개울들이 깊이 빠진 여리고로 흘러 내립니다.

And there's just these artesian wells or springs and all of this fresh water. And with the warm temperatures which are usually in the wintertime into the eighties during the daytime, it just makes for lush growing and a year-round growing season. And there's just great citrus and all types of fruits that are grown there in the area around Jericho. So it became a retreat for the wealthy people. They would all have their winter houses down in Jericho. And Jericho was filled with publicans, that is the tax collectors, because they were the wealthy people, and Pharisees.

그곳에 지하로 깊이 관 우물들과 흘러 나오는 샘들이 있으며 다 신선한 물입니다. 따뜻한 온도로 겨울에도 낮에는 80 도 가량 되며 푸른 풀이 자라도록하며 일년 내 자라는 계절입니다. 여리고 지방에서 훌륭한 감귤 종류의 온갖 과일이 재배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부유한 사람들의 휴양지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여리고에 겨울 산장을

가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많은 세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And so, "Jesus was passing through Jericho. An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and he was the chief of the publicans, the tax collectors,"

and he was rich. And he sought to see Jesus who he was (19:2-3);

Now, the blind man, when they said, "It's Jesus of Nazareth," he knew who He was. This man didn't know who He was, but he was curious. There was a tremendous crowd of people moving along. "Who in the world are they thronging after? Who is He?"

and he could not see, because he was so small (19:3).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19:2-3);

사람들이 “예수 시라” 고 말할때 그 소경은 그가 누구인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줄 몰랐지만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단히 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 가는건가? 그가 누구 일까?”

A short little fellow,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and he dared not to venture into the crowd because people knew who he was and they hated him. He was public enemy number one, he was the chief of the tax collectors. And to go in and try and work his way through the crowd to see Jesus, he had been beaten to death. He would have been elbowed, gouged, pinched, and they would have really gotten him if he dared get into the crowd. He knew better than getting into a crowd of people.

이 작은 사람은 군중때문에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군중속에 들어가는 모험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중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군중을 지나 예수를 보러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면 아마 맞아서 죽었을것입니다. 사람들이 팔로치고 눈을 뽑고 꼬집었을 것이며 그가 감히 군중 속에 들어 갔더라면 그를 정말 죽였을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o he saw that Jesus was going down the street.

He ran ahead of him,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and waited for Jesus to pass under (19:4).

Just so he could see this Man. He didn't know who He was, but he just wanted to see Him. And to his amazement,

*As Jesus came to the tree, he looked up, and he saw him, and he said,
Come down, Zacchaeus, hurry up; because today I must abide at your house
(19:5).*

그래서 예수께서 거리로 내려 가시는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19:4).*

그가 이 분을 볼수 있었습시다. 그는 이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시다. 그러나 그는 이분을 보고 싶었습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19:5).*

It's interesting that even though Zacchaeus did not know Jesus, Jesus knew Zacchaeus and called him by his name. John tells us that "Jesus did not need that any man should testify Him of man, because He knew man and He knew what was in man." He knew what was in the heart of this man. Now, there are many ways that Jesus could have gone to Jerusalem without going through Jericho. I think that He went through Jericho just because He knew there was this man there whose heart was yearning for God. I think He made a detour in order that He might meet Zacchaeus.

재미있는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시다. 요한은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것을 이미 다 아셨습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실수 있는 여러길이 있었습시다. 나는 주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둘러가셨다고 생각합니다.

*And so Zacchaeus made haste,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19:6).*

Probably because he knew that it would upset the Pharisees. Now at this point the door is closed on us. We are not taken into the feast. We are not brought into the conversation. But here, Jesus abiding at the house of Zacchaeus, began to talk to him, no doubt, about the kingdom of God. No doubt about life and the real values of life, probed his heart, his soul. Outside, where we must stand with the crowd, we hear only the murmuring of the Pharisees against Jesus for going into the house of a sinner. For they

*murmured against him, saying, He had gone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was a sinner (19:7).*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19:6).

아마 주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만들것임을 아셨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문이 닫졌습니다. 우리는 잔치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떠보았을것이 분명합니다. 밖에서 우리는 군중들과 함께 서있고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중얼거리는 바리새인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들이

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19:7).

Outside there was that mulling around of the crowd as they waited for Jesus to come back out. They probably heard an occasional roar of laughter come from within the house. You say, "Oh, you believe that Jesus laughed?" You bet I do! I think that He had a keen sense of humor. I do not picture Him as always very sober. I think it was a very tragic period of the church when somberness became equated with spirituality and it was a sign of unspirituality to smile.

밖에는 예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집안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웃는 웃음소리를 가끔 들었을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예수께서 웃으셨다고 믿니?" 물론, 믿지. 나는 주께서 유머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근엄하기만 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믿습니다. 근엄한것은 영적이고 미소를 짓는것은 영적이 아니라는 교회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So the ministers took on such a...well, they wore the black suits. And they took on that quality of tone in their voice and that very somber, serious, sober, "Go-o-od mor-n-ing." And you think, "Oh, what a spiritual man!" So sober, so serious. I think of Jesus as a regular fellow. I can see Him just laughing with the disciples, slapping them on the shoulder...and just a man's man. But yet, there were those periods of silence where they didn't hear the laughter outside, those times when Jesus was probing, talking, dealing with Zacchaeus.

그래서 그것을 받아드린 목사들이 까만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도 음성을 근엄하고 진지하고 침울하게 조절 했습니다. "아...ㄴ...녕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오, 참으로 신령한 분이네!" 라고 합니다. 너무나 근엄하고 너무나 진지합니다. 나는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제자들 과 웃고 등을 치기도하고 그는 남자중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조사해보고 말해보면서 그를 다룰때 밖에서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침묵도 있었을것 입니다.

Now the doors are opening again and Zacchaeus is standing there before the Lord. He was a short little fellow, probably looking up at Him.

Lord, a half of my riches I'm going to give to the poor; and if I've taken anything from a man falsely, I'm going to restore to him fourfold. And Jesus answering him, said,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inasmuch as he is become a son of Abraham (19:8-9).

이제 문이 다시 열리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으므로 주를 위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9:8-9).

Now, there are two ways to look at that. The translation in our King James is: "This day is salvation come to this house, forasmuch as he also is a son of Abraham." And there could be a fine bit of satire and humor in that. Anytime you hear a Jew say, "I'm going to give away half of my riches," you know that salvation has come to his house. You know, one of these type of Jews that Zacchaeus was. But the other is probably the correct. "...inasmuch as he has become..." And either translation can be accepted. "...a son of Abraham." Paul tells us that it wasn't the physical descendants of Abraham that would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spiritual descendants.

그것을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흠정역의 번역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우스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유대인이 "오늘날 내 재산의 반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것을 들으면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것도 아마 옳을것 입니다. "... 그가...이였으므로 ." 두 가지 번역을 다 받아 드릴수 있습니다. "... 아브라함 의 자손."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가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것이 아니요 영적인 자녀가 받을 지니라고 말했습니다.

For Abraham was not the father of the physical seed, but of the spiritual seed of those who would believe as their father Abraham; who believed God, became the father of the spiritual seed, those who would believe and trust in God. And so we are children of Abraham through faith, Paul teaches us. So Jesus could be using that spiritual application now through the faith that is in this man. He is become, indeed, a son of Abraham; that is, a spiritual descendant. There were Jews who said to Jesus, "We are of

our father Abraham." Jesus said, "If you were of your father Abraham, then you would have known Me, because Abraham testified of Me and he saw Me." And they said, "You're not fifty years old. When did Abraham see You?"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씨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적인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영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아버가 아브라함 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터이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고 또 나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언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And He said, "Before Abraham was, I Am." Then Jesus said, "But you're of the father, the devil, not the sons of Abraham." "We have Abraham for our father." And He said, "Don't say that. Don't you realize that God can raise up rocks as children of Abraham, if He wanted?" It's the spiritual seed, those who believe. Abraham was the father, so we have become children of Abraham through our faith, and heirs, then, of the promises of God that were given to Abraham. They are ours because we are the spiritual sons of Abraham, the man who believed God. And we are his first sons. Now, you can't carry that too far, as some people tragically do, and say, "Well, the church is Israel." No, the church is not Israel. And God is yet going to deal with the nation of Israel, as He has promised.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런후에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우리 아버는 아브라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줄로 생각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믿는 자들 곧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였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영적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맏 아들들입니다. 그것을 너무 확장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그렇게 하며 말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더 다루실것입니다.

But Jesus then said to the crowd, those who were murmuring,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19:10).

Find fault! You were murmuring because I was a guest of a sinner. But that's who I came to seek. That's who I came to save.

And as they heard these things, he added a parable, because they were near to Jerusalem, and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should immediately appear (19:11).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중얼중얼하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9:10).

잘못을 찾아라! 내가 죄인의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중얼거리는 구나.
그러나 나는 잃은 자를 찾기위하여 왔고 구원하기위하여 왔노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 이러라 (19:11).

Now they had heard Zacchaeus saying, "All that I have, half of it I'm going to give to the poor." Now Jesus accepted that, didn't He? He said to the rich young ruler, "Sell everything that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But now with Zacchaeus saying, "A half that I have I give to the poor. And I restore fourfold anything that I have taken dishonestly." Jesus said,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o you see, it isn't a demand that I have to sell everything to follow Jesus, it's just that I can't let that be my god.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Now Jesus, because they were getting near to Jerusalem, and because...notice...they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should immediately appear. He had just told them, "I'm going to despised, I'm going to be rejected, I'm going to be slain, I'm going to be spit upon," and the whole thing, and yet, they still thought the kingdom was going to immediately appear. And so He spoke a parable unto them to the intent that they would see that there will be a delay of time before the kingdom will be established.

그들은 삭개오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렇찮습니까? 그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고 말씀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보시다시피 예수를 따르기위해 모든것을 팔아야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나의 신이 될수 없다는것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와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줄로 생각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시당하고, 버림 받고 침 뱉음을 당고 죽음을 당하게 되리니” 그것이 전부일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시간의 지체가 있으리라는것을 그들이 보게 되기를 시도하여 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so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ho went 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19:12).

Now, it is interesting that Jericho was the city where Archilles had built his palace. And Archilles was the Roman procurator over that area. And Archilles, prior to this, had gone to Rome in order that he might be elevated to the title of king. Because he felt that procurator just wasn't a big enough title for him, and he was wanting the title of king. And that could only be bestowed by the Roman senate. And so Archilles had gone to Rome to receive the title of king, that he might come back and dwell in his palace and reign there in the area of Jericho.

여리고가 아킬레스의 궁을 지은 도시라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킬레스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관 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킬레스는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이라는 명칭이 그에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왕의 칭호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호는 오직 로마 정부에서만 하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갔으며 그후에 돌아와 그의 궁전에 살면서 여리고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And when he went to Rome, he left his duties in the hands of some of his subordinates with whom he left the funds that they might run the affairs of state. With Archilles, however, there were other emissaries who went to Rome and spoke in the senate against him; and rather than receiving the title of king, the Roman senate took away his position even as the procurator of that area. So Archilles had sort of a bad experience, much as did Herod later, who went to Rome with the same desires and was actually banished to Spain...not Herod the Great, but one of his sons, Antipas.

그가 로마에 갔을때 그는 지역의 정치를 하도록 자금과 함께 자기의 부하들의 손에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서 상원에서 아킬레스를 대적하여 말하러 간 다른 밀사들이 있었으며 로마 상원은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기는 커녕 그 지역의 행정 장관직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아주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그후에 헤롯도 같은 욕망을 가지고 로마에 갔을때 그는 스페인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중의 하나인 안티파스였습니다.

So, it could be that Jesus, in giving this parable, is touching on something that historically had not happened too long ago, and something that they had all known about in Archilles' leaving Jericho to go to Rome to get the title king.

"But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ent 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And he called his ten servants, and delivered to them ten pounds, and he said unto them, Occupy till I come (19:13).

그것은 이 비유에서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일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사건인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로 떠나는 아킬레스에 관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나라로 간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 열을 불러 은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9:13).

Now, this is the word of Jesus to the waiting church, "Occupy till I come." We are not to sit back and say, "Well, the Lord is coming; there's no sense of finishing my education. Well, the Lord is coming; there's no sense of not entering into this business venture...or, let's just wait, because the Lord is coming." We are not to plan our lives, "Well, let's go out and charge everything, because the Lord's coming, and we won't have to pay for it." We are not to plan our lives predicated upon the Lord's coming in a particular span of time.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기다리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와, 주님이 돌아 오신다. 내가 학업을 끝낼 이유가 없어. 주님이 돌아 오시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어, 혹은 주님이 돌아 오실테니까, 그냥 기다리자” 라고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 나가자 그리고 전부 외상으로 물건을 사자. 주님이 돌아 오시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느 특별한 시간 안에 주님이 오실것을 기초로 하여 계획해서는 안됩니다.

But we are to occupy until He comes. Yet, anticipating Him to come at any moment, never getting so involved that I'm not ready to drop things in a moment's notice. Because that I may have to do. I am to use the time that I have wisely in my serving the Lord. I am to occupy until He comes, but never to just sit down and say, "Okay, Lord, we're just going to wait now here until you come. Oh, praise the Lord." And just have a glory hallelujah meeting as we're waiting for the Lord to just come and rapture us. Never! We're to occupy, we're to keep busy until He comes.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돌아 오실때 까지 장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것을 예상하면서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여 짧은 순간에 알려주실때 그 일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때 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말하되 “오케이, 주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 될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모임만 가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때까지 분주하게 일해야 합니다.

And so he delivered the ten pounds, and said, "Now occupy till I come."

But his citizens hated him [as did those of Archilles], and they sent a message after him, saying, We will not have this man to reign over us (19:14).

And that's exactly what they had sent to the Roman senate concerning Archilles, "We will not have him reign over us."

그가 십 파운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 올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9:14).

그것이 바로 아킬레스에 관하여 로마 상원에게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합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was returned, having received the kingdom [which Archilles did not do], then he commanded these servants to be called to him, whom he had given the money, that he might know how much every man had gained by trading. Then came the first, and he said, Lord, your pound has gained ten pounds. And he said unto him, Well, thou good servant: because thou has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you will now have authority over ten cities. And the second came, saying, Lord, your pound has gained five pounds. And he said likewise to him, Be thou also over five cities. And another came, saying, Lord, behold, here is your pound, which I have kept laid up in a napkin: for I feared thee, because I know that you're an austere man: you take that which you did not lay down, you reap that which you did not sow. And he said unto him, Out of your own mouth will I judge you, you wicked servant. You knew that I was an austere man, taking up that which I did not lay down, and reaping that which I did not sow: Therefore you should have given the money to the bank, that at my coming I might have required at least my own with interest? And he said unto them that stood by, Take from him the pound, and give it to him that hath ten pounds. (And they said unto him, But, Lord, he has ten pounds.) For I say unto you, That unto every one which hath shall be given; and from him that hath not, even that which he has shall be taken away from him. But those mine enemies, which would not have that I should reign over them, bring them hither, and slay them before me (19:15-27).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 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9:15-27).

Those people that say, "We'll not have Christ to rule over us," they'll be brought before judgment and destroyed. However, those servants to whom He has entrusted His goods will be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did, their stewardship of those goods with which they were entrusted. Now, it is interesting here that their reward is in their place of rulership in the kingdom. When the Lord comes to establish His kingdom upon the earth, the Bible teaches that we will reign with Him over the earth. To the church of Thyatira,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kingdom. And they shall rule over the earth with a rod of iron" (Revelation 2:26-27).

그 사람들이 한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으며 그들은 심판대에 끌려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겼던 재산을 맡았던 자들은 그들이 맡은 재산의 청지기로서의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것은 그들의 상급은 왕국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앉는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건설 하실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 2:26-27).

Actually,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irst chapter, "Unto Him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who has redeemed us, and we shall reign as a kingdom of priests with Him upon the earth." And then in Revelation, the fifth chapter, "Thou art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unloose the seals thereof, for Thou has redeemed us by Thy blood out of every nation, kindred, tribe, tongue and people and hath 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Thee upon the earth." So the church reigning with the Lord upon the earth. Now, reigning over five cities, reigning over ten cities, reigning over two cities...according to our faithfulness with what God has entrusted us now, as I am a steward of God's things. I don't know what it's going to take to get Hawaii, but I'm working towards it.

실제로, 요한계시록 일 장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오장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 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것 입니다. 다섯 고을을 다스리거나 열 고을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두 고을을 다스리는것은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나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하와이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Now when he had thus spoken, he went before, ascending up to Jerusalem (19:28).

You see, He's on His way, He's moving towards Jerusalem, and this parable was on their way up. Because they felt the kingdom was going to come immediately. "No, it's going to be like a king who went away to a far country to receive the kingdom, and then he returns later on and requires of his servants that which they did with his goods. And those who sent the message and say, 'Hey, we don't want him to reign over us,' they are to be cut off."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9:28).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올라가는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국이 당장에 이루어 질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왕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나라로 갈때에 그의 재산을 주어 종들로 관리하게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어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것을 원치 않네’ 라고 했을때 그가 저들을 죽였느니라.”

Now they are arriving near Jerusalem. "When He had thus spoken, He went before ascending up to Jerusalem." From Jericho to Jerusalem you're going from 1200 feet below sea level, you're ascending up to about 2700 above sea level, so it's a good climb.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해저 1,200 피트에서 해상 2,700 피트를 올라 갑니다. 등산하기에 적합 합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he was come near to Bethpage and to Bethany (19:29),

These are the little villages that are on the wilderness side of the Mount of Olives, away from Jerusalem.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19:29),

이 동리들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으며 감람산의 광야 쪽에 있습니다.

and the mount called the mount of Olives,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t the which when you enter you're going to find a colt that is tied, whereon a man has never sat: loose him, and bring him. And if any man asks you, Why are you loosing him? you shall just say unto him, Because the Lord needs him. And so they that were sent went their way, and they found even as he had said unto them. And as they were loosing the colt, the owners said unto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And they said, The Lord needs him. And so they brought him to Jesus: and they cast their garments upon the colt, and they set Jesus thereon. And as he went, they spread their clothes in the way. And when he was come near, even now at the descent of the mount of Olives (19:29-37),

That is, He's come over the Mount of Olives and started now to descend on the other side.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대로 만난지라 나귀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19:29-37),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감람산 까지 오셨다가 다른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the disciples began to rejoice and praise God with a loud voice for all of the mighty works that they had seen; saying, Blessed be the king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And some of the Pharisees from among the multitude said unto him, Master, you better rebuke your disciples. And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I tell you that, if these should hold their peace, the stones would immediately cry out. And when he was become near, he beheld the city, and he wept over it, saying, If thou hast known, even thou,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things which belong unto your peace! but now they are hid from your eyes (19:37-42).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19:37-42).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riding on a colt, takes us back to the prophecy of Zechariah, chapter 9. "Rejoice greatly, O daughters of Jerusalem: shout for joy! For thy king cometh unto thee. But He is lowly; He is sitting on a colt, the foal of an ass." And so, here He comes riding, the King. Notice, on a colt that had never been broken, showing again His mastery over nature. No man had ever sat on this little colt. Yet, He sat on it.

나귀를 타신 예수의 승리자로서의 입성은 스가랴 9 장의 예언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여기 나귀를 탄 왕이 오십니다. 주목 할것은 한번도 타 보지 않은 나귀는 본능적으로 다시 그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 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셨습니다.

As He is riding in, the disciples began to cry out Psalm 118, which is a Messianic Psalm. If you look at the Psalm 118, you find that the prophecy concerning Jesus there in verse 22,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fused is become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This is the Lord's doing; it is marvelous in our eyes." When Solomon built the temple, the story is told how that all of the stones were quarried away from the temple site.

주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때 제자들은 메시아 시편인 118 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 편을 보면 예수에 관한 예언이 22 절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때 모든 돌을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채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ctually, on up the hill on Mount Moriah above the site of the temple you can still see the stone quarry today. In fact, you can go into what they call the Solomon's Quarries and see where many of the stones were taken for the temple building and all out of this huge cavern that comes under Jerusalem. And, of course, the quarried area that ultimately made a canyon between the wall of Jerusalem and the top of Mount Moriah, which was later called Calvary because of the quarrying of the stone the caves left as they pulled the stones out. It left the impression of a skull in the side of the mountain.

실제로 성전 부지의 윗쪽 모리야산의 위에 채석장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실제로 들어 갈수 있으며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돌을 예루살렘 밑으로 오는 큰 동굴에서 캐어 왔습니다. 물론 채석을 했던곳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과 모리야 산꼭대기 사이에 있는 큰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그후에 그곳을 갈보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돌을 캐어낼때 채석으로 인하여 동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 옆에 해골의 인상을 남겨 놓았습니다.

And so they named the skull Golgotha, or Calvary. And so, the story goes that as they quarried the stones, each of them were marked and sent to the temple site where they were placed in place without the use of mortar. For there was to be no sound of a trowel or a tool, but everything was just there at the site itself, no chipping of the blocks there.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채석함에 따라 세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제자리에 맞도록 각 돌에 표시를 하여 성전에 보냈습니다. 흙 삽의 소리나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모든것이 그 현장에 있었으며 돌을 다듬는일도 없었습니다.

Everything was all cut to size according to the patterns, and numbered and labeled and then sent; and the builders just put the wall on up. And, according to the story, there came to the builders a stone which they did not recognize. They did not understand its place in the building. And so, according to the story, the stone was just set aside as a mistake at the quarry. And in the years that it took to build the temple, ultimately they came to the completion and the time for the dedication.

모든 돌을 모형에 따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번호를 매기고 딱지를 부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는 그냥 놓아서 벽을 쌓아 올라 갑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건축자들이 알지 못하는 한 돌을 보내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느곳에 놓아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석장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제껴 놓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수 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을 끝내고 헌당을 할 시기가 가까워왔습니다.

But they were missing one stone, the chief cornerstone of the building. And so, the builders sent the message to the quarries, "We're ready to dedicate but we're missing the chief cornerstone. You better send it." And they said, "We've already sent it." They said, "You can't. We don't have it." "Well, here's our records. Look, it's been sent. We've already sent it." And so finally, some fellow found this stone.

그러나 돌이 하나 모자랐고, 바로 그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채석장에 메시지를 보내어 "우리가 헌당식을 할 터인데 모퉁이 돌이 없노라. 빨리 보내 주기 바란다"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석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벌써 보냈노라" 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은 "우리에게 그 돌이 없노라" 고 했더니 "자, 우리의 기록이 여기 있네. 보게, 벌써 보냈다고 적혀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 돌을 발견 했습니다.

Now the bushes had overgrown and they pulled it out, the stone that had been set aside by the builders. And sure enough, it was the chief cornerstone. And so they put this thing in place and had their dedication. That's the story, whether or not it is authentic I don't know. But, here is a reference: "The stone which was set of not by the builders, the sam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Jesus, or course, is that stone.

이제 숲이 우거진곳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꺼집어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놓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것이며 예수는 물론 그 돌이십니다.

The builders of that whole Judaic religious system set Him aside. But yet, as Jesus sai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The chief cornerstone upon which the kingdom of God is to be built is the stone that was set aside by the religious leaders and of the Judaic religious system. So, it's definitely a prophecy of Jesus Christ. Peter makes reference to it and the best commentary you can get on the Old Testament is the New Testament, you know that.

모든 유대 종교제도의 건축자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 하시되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모퉁이 돌은 유대 종교체제의 지도자들에 의해 버려진 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신약 성경입니다.

Now, going on.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Psalm 118:24). What day? The day that God establishes the King, and then the cry, "Hosanna! I beseech Thee, O Lord: O Lord, I beseech Thee, send now prosperit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We have blessed you out of the house of the Lord" (Psalm 118:25-26). This is the Psalm that the disciples were crying,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ecause the Pharisees knew that that was a Messianic Psalm, they began to rebuke the disciples, or began to tell Jesus, "You better rebuke them." And Jesus said, "Look, I'll tell you something; if they would hold their peace, these stones would immediately begin to cry ou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계속해서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 리로다” (시 118:24).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외쳤던날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 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 118: 25-26). 이것은 제자들이 외쳤던 것으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했고 예수께

“저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당장 소리 지르기 시작하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So Jesus, as He looked at Jerusalem, He was coming down the Mount of Olives, looking to cross the Kidron Valley, straight across on the same level, Mount Moriah, the temple mount on the opposite side the city of Jerusalem; He began to weep. And He said, "If you had only known, even thou,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day that the Lord had made, the day when they should be rejoicing and be glad in it. "At least in this thy day, if you only knew the things that belong to your peace. If you only knew that God was establishing peace with man. If you only knew what God would do for you if you'd just surrender your lives to Him...but they are hid from your eyes." And He is weeping first at their blindness, but then at the result of that blindness, the tragedy that would befall them.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감람산을 내려 오실때 기드론 계곡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같은 고지이며 예루살렘시의 반대편에 있는 모리아 산을 쳐다 보셨습니다. 그는 우시기를 시작하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날은 주의 정하신 날로 즐거워 하고 기뻐할 날입니다. “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만일 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를 이룩하시려는것을 알았다면. 만일 네가 너의 삶을 그에게 맡겼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는 그들이 보지 못하므로 우시며 그들의 보지 못하는 결과로 그들에게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For the days shall come upon you, your enemies will cast a trench about you, they will compass thee round, and keep thee in on every side (19:43),

As Jesus is describing now the siege by the Roman legion under Titus, who in less than forty years would destroy Jerusalem and kill over one million people in the process. And so Jesus saw the devastation and the desolation, and He said,

They shall lay thee even with the ground (19:44),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19:43),

지금 예수께서는 40 년 이내에 디도 장군 수하에 있는 로마군의 한 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도시를 휘파하며 일 백만명 이상을 죽일것을 묘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황폐함과 폐허가 되는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시기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19:44),

This glorious beautiful temple that Herod had built is going to be leveled, not one stone will be left standing upon the other. These tremendous monuments in

Jerusalem all to be leveled. And Jesus, looking at this magnificent city, weeping because it's going to be destroyed,

and the children within thee will be destroyed; they will not leave in thee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19:44).

Because you were blinded to the work of God.

헤롯이 지은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엄청난 기념비들이 다 땅에 쓰러질 것이므로 예수께서 이 장엄한 도시가 파괴될 것을 보시고 우시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19:44).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hat God had planned, the redemption of Israel. This is the day for the unveiling of the Messiah to the people. Prior to this day, Jesus would not allow any public acclamation of Himself as Messiah. He would reveal it to individuals on an individual basis, but often He'd say, "Don't tell anybody. Go your way. Tell no man." But this day He is encouraging the people's demonstration. He's getting that little colt in order that He might fulfill the prophecy of Zechariah.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e day in history when the Messiah would come.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 하셨습니다. 이 날은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오기전에는 주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개인적으로 드러내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의 길을 가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주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작은 나귀를 구하십니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날입니다.

It is, to me, very significant that this day took place 173,880 days after the commandment by Artaxerxes in March 14, 445 B.C.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Which, according to Daniel the prophet, that from the time the commandment goes forth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under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prince will be seven sevens and sixty-two sevens, or 483 years, or 173,880 days in the Babylonian calendar. And exactly to the day, April 6, 32 A.D.,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But they didn't rejoice. Instead, they rejected Him. And

knowing that He was to be despised and rejected, knowing that He was to be crucified, He wept as He looked at the city, because of the blindness and the resulted devastation that would result from the blindness.

이 날은 아닥사다스 왕이 주전 445 년 3 월 14 일 에 예루살렘을 복구하며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후 173,880 일이 지난 후에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나는 봅니다. 다니엘 선지자 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때 부터 메시야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 혹은 바빌론 달력에 의해 483 년 또는 173,880 일 후에 메시야가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날, 주후 32 년 4 월 6 일이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즐거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멸시 받고 버림을 당할것도 아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가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보지 못함 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And then he went into the temple, and he began to cast them out that sold, and those that bought; saying un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is the house of prayer; but you've made it a den of thieves (19:45-46).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19:45-46).

I believe that if Jesus came today to His church that He would be doing a lot of cleaning up. I think that He would take these fraudulent computerized letters that are being mailed out by these T.V. evangelists and healers and rip them up.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in a lot of the mail that I receive, invariably those letters that come from "Faith Mission," the "Faith Broadcast," or the "Faith...wherever." They put the name *faith* in it. They are usually appeals for money. It causes me to wonder, where is their faith? Is it in man or is it in God? And these men who are willing through their great faith to bring you God's power and God's working, how is it that they can't have enough faith to maintain their fleet of jets in the Lord, but have to rely upon their mailing lists and their gimmicks?

만일 예수께서 오늘 그의 교회에 오신다면 청소를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텔레비존 전도자들이나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보내는 컴퓨터로 쓴 거짓된 편지들을 취하셔서 갈가갈기 찢으실것입니다. 내가 받는 많은 우편물은 변함없이 “믿음 선교” “믿음 방송” 혹은 “믿음...” 에서 오는 편지들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믿음 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을 믿는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들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안에서 그들의 사역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믿음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주소록 이나 그들의 간계만 의지하는고?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He said, "but you've made it a den of thieves." I thank the Lord that I'm not as other men. You see, it's hard to be in the right. No, it's sad and it's tragic, the things that have been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things that are BEING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whole fundraising gimmickry within the church, the schemes and the professionalism that has been brought in, it's tragic; it's sad. Let's just pray a moment.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건 슬픈 일이며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금운동의 속임수, 전문적 방법과 계획을 끌어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는것은 비극이며 슬픈 일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Father, we pray that You keep us from the trap of over-extending for our own ambition's sake and thus creating financial pressures, as we're trying to keep alive programs that were not given by You, but were only designed to fulfill some ambition or need that we have. Father, we wish to thank You for the way that You have abundantly provided for the needs here at Calvary Chapel. Thank you, Lord, that You have given us far more, a surplus. That through this surplus we can broadcast Thy Word around the world, Lord. And yet, just depend upon You and never have to ask, Lord. How we thank You for this, Father! For we recognize it, Lord, as Your work. You've done it. And we thank You, Lord, that You have provided abundantly so that we've not been tempted to stoop to gimmicks or some other method of raising funds.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너무 확대시키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려고 지나친 경제적인 부담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갈보리채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도록 주신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세계에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지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당신의 역사하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주께서 행하신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으로 우리가 속임수를 찾거나 모금하는 방법에 유혹되지 않게하셔서 감사합니다.

God, I pray for those that have been caught in that trap. I ask, God, that You will convict them of the distortions and fraud and lies. And may they see so, God, their fraudulent ways. And may they come to a real trust in You and cut back, Lord, if necessary on those ambitious programs that cannot bring glory to You. In Jesus' name, Father. Amen.

하나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주께서 그들을 비뚤어지고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하는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사기행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의 야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끊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Jesus taught daily in the temple. But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and the chief of the people sought to destroy him, but they could not find what they might do: for all the people were very attentive to hear him (19:47-48).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19:47-48).

So Jesus was receiving the popular ear of the people at this point. They were attentive to hear Him. However, the leaders had conspired and determined at this point that He must be destroyed. And so, we see now that movement towards the plotting, the subterfuge that will lead to the betrayal and the arrest and the crucifixion. But the next couple of chapters, we get into very interesting aspects as we get this Olivet discourse, chapter 21, as Jesus deals with the signs of the end of the age and of His return in glory to establish to His kingdom. So next week, chapters 20 and 21.

이 시점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들은 주위하여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 시점에서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이제 추세는 배반과 체포와 십자가 형으로 이끌어갈 음모와 구실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두 장에서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을 공부할때 재미있는 면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1 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과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영광중에 다시 오시는 그의 재림을 다룹니다.

You know, at the board meeting, it is great that the first thing we usually do after the minutes is we have a Bible reading and prayer and then the minutes. And then the treasurer's report. And then we have a praise and worship time, as we just praise the Lord for the marvelous way that He has provided for the needs here at Calvary Chapel. More than what we need, so that we are able to expand the ministry and are constantly looking for just new ways to extend and to expand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that He has given to us here.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난후에 의사록을 읽고 그후에 재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같보리채플에 필요한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 이상으로 주신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확장하고 넓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수 있도록 하시는것입니다.

And so as the result of the prayers, the establishment of The Word For Today broadcast, and we are presently negotiating time on the radio in Monte Carlo that has a million watts of power that covers all of Europe and North Africa. We are planning to go on the Far Eastern Broadcasting Corporation that covers all of the area of the Philippines on into large areas of China and into India. And also into a radio station in South America that covers all of the South American continent. And we are just continuing to expand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just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to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at that which God has used to bless us here can also become a blessing to people around the country.

기도의 결과로 “오늘을 위한 말씀 (The Word For Today)” 방송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유럽 전지역과 북 아프리카를 다 덮을수 있는 100 만 와트의 용량을 가진 몬테칼로에 있는 라디오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필립핀의 모든곳과 중국과 인도를 덮는 극동방송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또 남미의 전 지역을 덮는 남 아메리카에 있는 라디오에도 나갈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여기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위한것입니다.

And it is thrilling to be able to go into these various cities and to meet thousands of people whose lives are being blessed, strengthened, and are growing through the study of the Word of God through The Word For Today radio broadcast, half hour daily,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now, moving out to powerful stations that will cover the world, actually. So, it's a thrill that God has provided that we can do this. And it is all generated just right here, the surplus funds that the Lord brings in to expand His work this way. And so we have a neat praise time every month at the board meeting, as we just praise the Lord that He has so abundantly provided. Just like He said, He would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And that's exactly what He's doing. And we just praise Him for it.

미국 전역에 하루에 30 분씩 “오늘의 말씀 (The Word For Today)” 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들의 삶이 축복을 받고 강건해지며 자라는 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만날수 있게되니 전율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세계를 덮을수 있는 강력한 방송국으로 옮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일을 할수있도록 공급하신것으로 인해 전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역을 이렇게 확장하시기 위하여 잉여 자금을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의 위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주신것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하여 찬양할 뿐입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His hand upon your life this week. May your life in Christ be enriched. May you grow in your walk and fellowship with Him. May you enter into that fullness of the walk in the Spirit. In Jesus' name.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축복하시고 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 바랍니다. 행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여 충만한데까지 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uke 20-21
Tape # C2539
By Chuck Smith.

We are in the final week of the life of Jesus. He is now in Jerusalem. This is the week in which pilgrims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o celebrate the Feast of the Passover. He has made His triumphant entry, that is on Sunday. He was officially rejected. He did cleanse the temple, driving out the moneychangers, taking authority in His Father's house. And He taught daily in the temple, we read in verse 47 of chapter 19.

이제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이 주간에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세계에서 몰려 옵니다. 주께서는 일요일날 승리자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버림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청소했으며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권위를 취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매일 가르쳤음을 19 장 47 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So it came to pass, that on one of those days (20:1),

The days that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from Sunday through Wednesday or Thursday, "...one of those days,"

as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and preaching the gospel (20:1),

Proclaiming to man God's good news.

때가 차매 하루는 (20:1),

성전에서 주일부터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가르치시던 날들 "...그 날들 중의 어느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20:1),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came upon him with the elders (20:1),

So this august body of religious authority, the chief priests who were mainly Sadducees, the scribes and the elders.

And they spake unto him, saying, Tell us, by what authority do you do these things? and who is he that gave you this authority? (20:2)

They're probably still a little upset over the fact that He cleansed the temple. He drove out the moneychangers. He came in and took over and said, "This is my Father's house," and He took over. And they were upset because the high priest was in league with the moneychangers. They made a rake off of the moneychangers and those that sold the doves and the oxen and all there in the temple grounds. And so what authority?

저희들은 주께서 성전을 정리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아마 아직까지도 화가 나 있었을 겁니다. 주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가 들어 오셔서 둘러본 다음 “이 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대 제사장과 결탁되어 있었음으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돈 바꾸는 사람들로 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와 황소나 모든 파는것에 대한 배당금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Now they were expecting, or at least hoping...you see, they're looking now for charges whereby they might put Him to death, and they were hoping that at this point He would say, "I am the Messiah. God is my Father. He gave Me the authority." He referred to the temple as "My Father's house," and so they were hoping that He would make the claim of Messiahship in order that they might accuse Him of blasphemy and immediately try Him. But His hour was not yet come. So He did not answer them directly, but

he answered them [indirectly], saying, I will ask you one thing; and you answer me: The baptism of John, was it from heaven, or of men? And they reasoned with themselves, saying, If we shall say, From heaven; he will say, Why did you not believe him? If we say, Of men; all of the people will stone us: for they're persuaded that John was a prophet. And they answered, that they could not tell whence it was. And Jesus said unto them, Neither tell I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20:3-8).

그를 죽이기 위해 고소할만한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적어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시점에서 바랐던것은 그가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그가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고 말했으므로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저들이 그를 불경죄로 고소하여 당장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3-8).

Now, John had testified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This is He that was after me, but who was preferred before me, the latchet of whose shoes I'm unworthy to unloose" (John 1:27). John had declared concerning Jesus Christ, "Behold, the Lamb of God that taketh away the sins of the world" (John 1:36). So, John, who the people had accepted as from God, they recognized that John's authority was from the Lord. And John, being recognized by the people as the prophet of God, had declared that Jesus was indeed the Lamb of God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So had they said, "Well, John was of the Lord," then Jesus would say, "All right, that's the authority that I have, the same authority of John's." And basically He was saying this, "I came with the same authority that John came."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말하기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 1:27).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36).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받아 드렸고 그들도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부터 왔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식 했던 요한이 예수는 진실로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외쳤던것 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주님께게로 부터 왔다” 라고하면 예수께서 “좋다, 내가 가진 권위도 요한이 가졌던것과 똑 같아” 라고 말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도 요한이 가진 권위와 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는것입니다.

Now,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so often there is that challenge today concerning authority. For men have set up their systems by which they recognized authority. “If you go to our college and graduate and then attend our seminary, then we will recognize your authority to teach the Word of God, or to proclaim God's truth,” and the authority that man bestows upon man. I would like to offer my opinion that men have ordained many men to the ministry who have never been ordained by God. They've been ordained to the ministry purely on the basis that they have fulfilled a certain requirement of studies. But there is absolutely no anointing of God upon their lives or upon their ministries, and they'd be better off selling shoes. Or I should say maybe repairing shoes, and that's a better way that they could save souls.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도 권위에대한 도전이 빈번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권위로 그들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네가 우리 대학과 대학원에 가면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할수 있는 권위를 인정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시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을 사역에 임명하는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전히 학업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신발 장사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아니면 구두 수선을 하든지 그것이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할수있는 더 나은 길입니다.

We have made it a policy here at Calvary Chapel in the ordination board to observe a person's ministry and to see if their ministry bears witness that God's anointing is upon their life. For we are convinced that only God ordains a man for the work of the Lord, and the best we can do is ratify what God has done. So basically, we haven't ordained anybody to the ministry, nor do we ordain anybody to the ministry. But we like to recognize those that God has ordained and ratify that work of God in their lives. So, recognizing that God has ordained this man, God's anointing is upon his life, God is using him, we give to them that recognition that they need by the state. But it is interesting also how that so many of these young men who have gone out with the obvious work of God in and through their lives are challenged, "Who gave you the authority?"

갈보리채플의 안수회에서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사역을 관찰하여 만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증거가 사역에 나타나는지를 보게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안수하시며 우리가 할수있는 최상의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사역하도록 안수하지 아니 하였고 또 현재도 아무든 사역하도록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수하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비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수하셨고 기름을 부어 사용하신다면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재미있는것은 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갈때 사람들이 도전해 옵니다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주었니?" 라고.

Greg Laurie has been challenged so many times. Raul Ries has been challenged so many times. "Where did you go to seminary? Who gave you the authority?" It's sort of disconcerting and upsetting to these men with their doctorates in theology that some young kid can come into town and start a Bible study that grows into a church of over 5,000 members. When with all of their degrees and learning and knowledge of the Greek and Hebrew and so forth, they have a hard time, through pushing and programming and every guise and device that you can think, maintaining 400 or 500 people. "It's just not fair! After all, I've been trained." The authority!

그렉 로리는 수 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라울 리스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다녔니? 누가 네게 그 권위를 주었니?" 어떤 젊은 아이가 동리에 들어와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5,000 명이 넘는 교회로 자라는것이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지식과 모든 그들의 학위와 배운것으로 그들이 어렵게 사역할때 프로그램과 생각할수 있는 모든 구실과 궁리를 다하여 400 명 내지 500 명을 겨우 유지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그 권위!

Now, the Mormons quite often ask this question, because they believe that God has restored the authority to the church through Joseph Smith. And that the twelve apostles of the Mormon church are the only ones who can actually bestow authority upon a person to minister the gospel. And so they do not recognize the authority of anyone who has not been sanctioned by the twelve apostles of the Mormon church; for everybody knows that they are the only true church. And so they quite often challenge, "By what authority?" So, Jesus went through the same thing.

몰몬교회는 빈번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교회에게 권위를 회복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몰몬 교회의 12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할수있도록 권리를 위임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몬 교회의 12 사도가 허락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그들만이 유일한 진실된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위로냐?" 그래서 예수께서 똑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Then he began to speak to them a parable; A certain man planted a vineyard, and he let it out to husbandmen, and he went into a far country for a long time (20:9).

Note: Jesus is now giving a parable that relates to His going away. Letting out: it's a twofold interpretation, actually, because it also is a parable against these Pharisees.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2:9).

주의사항: 예수께서 그의 떠나심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 하십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이중 해석이 나올수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거슬리는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t the season he sent a servant to the husbandmen, that they should give him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husbandmen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 And he again he sent another servant: and they beat him also, and entreated him shamefully, and they sent him away empty. And again he sent a third: and they wounded him also, and cast him out. Then said the lord of the vineyar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beloved son: it may be that they will reverence him when they see him. But when the husbandmen saw him,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saying, This is the heir: come, let us kill him,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 So they cast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refore shall the lord of the vineyard do unto them? He shall come and destroy these husbandmen, and shall give the vineyard to others. And when they heard it, they said, God forbid. And he beheld them, and said, What is this then

that is written,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the same is become the head of the corner? Whosoever shall fall upon that stone shall be broken; but on whomsoever it shall fall, it will grind him to powder (20:10-18).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20:10-18).

Now, in the fifth chapter of Isaiah, the Lord speaks there a parable through Isaiah of a vineyard. And the vineyard was the nation of Israel. How that this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the choicest vines in it, he built a hedge around it and he put a wine press in the middle. And when the time came to gather fruit from the vineyard, there was nothing but wild grapes on the vine. And so he let the vineyard go. And the prophet was speaking about how that God had set apart the nation Israel that it might bring forth fruit unto God. But their failure to bring forth that fruit that God was desiring from them would bring actually a rejection by God, or just being let go by God, and their demise.

이사야 5 장에 여호와께서 포도원에 대하여 비유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극 상품 포도를 심고 울타리를 쳤으며 그 가운데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웠을때 포도 나무에 달린것은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버려 두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올까하여 그 백성을 구별하신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져 오지 못한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신것 혹은 황폐케 버려 두신것이며 포기하신 것입니다.

So when Jesus began to speak the parable of the vineyard, aware of the prophecy of Isaiah, their minds flipped back and they realized that He's talking now about the nation of Israel, God's vineyard. The servants that were sent to the vineyard were the prophets who were rejected by the people. Some of them were stoned, others of them were killed; Isaiah was actually sawed in two. And so, these are the prophets that God

sent to the nation. Finally,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Surely they will reverence Him." But the husbandmen, when they saw Him, said, "This is the heir; let's kill Him, that the inheritance may be ours." And so Jesus, here, is predicting His death at their hands.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을때 이사야의 예언을 깨닫고 마음에 깨달음이와서 그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도원에 보낸 종들은 사람들에게 거절 당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의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아죽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그는 틀림없이 공경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들의 손에 당할 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Now, the result of their rejection of the Son, The commandment of the Lord--destroy the husbandmen. The nation of Israel was destroyed by Titus. Josephus said that he killed 1,100,000 Jews and they carried 97,000 as slaves to Rome. When they heard this, they said, "God forbid!" For they recognized that Jesus was speaking about them. And so then He asked them, "What does this parable mean? That which is written,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have rejected, the same i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Psalm 118.

그 아들을 거절한 결과로 주님의 명령은 그들을 진멸하는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 당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110 만명을 죽였고 구만 칠천명이 노예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때 "그렇게 되지 말찌 어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느뇨? 기록된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 118).

Now Peter, in the fourth chapter of Acts, when he was standing before the elders and the scribes and the high priest, this same group that was challenging Jesus here, when Peter stood before them in Acts the fourth chapter, they were asking Peter, "By what authority did you work this miracle on this lame man? By what name or by what power have you done this?" So they were giving him much the same business as they gave to Jesus. "We want to know, by what power did you do this? By what name?" And Peter said, "Ye men of Israel, if we have been examined this day because of the good deed that has been done to this lame man, you judge for yourselves on that. But be it known unto you that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this man stands before you whole, and this is the stone which was set of naught by you builders, but H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 other name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Acts 4:8-12).

사도행전 4 장에 베드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 제사장앞에 섰을때 예수에게 도전했던 같은 무리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기적을 이 았은 뱁이에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예수에게 행하였던것과 똑같이 그에게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저 하니,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이름으로?” 그리고 난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8-12).

So Peter was here when Jesus was challenged concerning authority. He remembered the answer of Jesus to these men. He remembered this parable that Jesus ended by saying unto them, "What does this mean, 'The stone that was set of naught by the builders, the sam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so Peter brings it right back to them very forcibly, declaring of Jesus, "This is the stone which was set of naught by you builders, but the same i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예수께서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신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비유를 끝내셨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는 말이 무슨 뜻이뇨?” 그래서 베드로는 대단히 힘있게 예수께서 선언 하신것을 꺼집어 냈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Now Jesus declaring, concerning that stone, said, "Whosoever shall fall upon that stone shall be broken, but upon whomsoever that stone shall fall, it will grind him to powder." You have one of two relationships to Jesus Christ: either that of submitting to Him, falling upon the stone, or resisting Him, and ultimately being ground to powder. Woe unto him who strives with his maker! Many people are so foolish as to fight against Jesus Christ. Fall upon the stone, fall upon Jesus Christ! You'll find you'll be broken; better that you do that than in judgment have Him fall upon you and be ground to powder.

예수께서 그 돌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에게 따르거나 아니면 그를 거역하여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창조주와 타투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돌 위에 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위에 떨어집니다. 당신 자신이 깨어진것을 발견할것입니다. 그의 심판이 당신에게 떨어져 가루로 되는것보다 당신이 자신을 심판하는것이 낫습니다.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the same hour sought to lay hands on him; but they feared the people: for they perceived that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20:19).

They got the message. They knew that He was referring to them, and so they were actually wanting, wanting desperately to arrest Him at this point. And yet, because of the popular acclaim of the people, they did not do it.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줄 알았습니
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필사적으로 예수를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필사적으로 예수를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And so they watched him, and they sent forth spies, which should feign themselves to be just men, that they might take hold of his words, in order that they might deliver him to the powers and authorities of the governor (20:20).

They're now going to try and trap Him so that they can accuse Him of sedition or of rebellion against Rome and turn Him over to the governor.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0:20).

이제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함정에 몰아 넣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선동이나 반역죄로 고소하여 그를 총독에게 넘겨 주려고 합니다.

And so they asked him, saying, Master, we know that you say and teach the truth, and you do not accept the person of any,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truly (20:21):

In other words, "You're no respecter of man's persons. You are a straight shooter. We know this. We know that You don't bow to man, that You tell the truth, You speak the truth. Therefore,"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axes to Caesar, or not? (21:22)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0:21):

바꾸어 말하자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사람에게 굽신 거리지 않고 바른 말씀을 하며 진리를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21:22)

If Jesus says, "No, it is not lawful for you to give taxes to Caesar," immediately, they'll run to the Antonio fortress, call for the Roman centurion and have him come down and arrest Jesus for advocating a tax rebellion against Caesar. If Jesus says, "Yes, it is lawful for you to pay taxes to Caesar," these zealots who would not recognize the power of the Roman government, who hated these taxes that were levied by Rome...and there was a certain tax that was levied upon every man just for the privilege of living...this was the tax they were referring to. It wasn't much of a tax, but it was just to show the Roman authority. And so they felt that they had Jesus cleverly trapped; either way, He's wrong. And so He said, "Show me a coin."

만일 예수께서 “아니야, 가이사에게 세금내는것은 부당한것이야” 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당장에 안토니오 성곽에 쫓아가서 백부장을 불러 내려와 가이사에게 세금내는것을 반대하는 예수를 체포하라고 할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것이 합당하지” 라고 하신다면 열성 당원들은 로마 정부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로마정부 지배하에 사는 생활의 특권에 대한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금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금이라기 보다는 로마제국의 권위를 보여주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롭게 예수를 함정에 몰아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그가 틀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고 하셨습니다.

Show me a penny. Whose image, superscription does it have on it? And they answered and said, Caesar's. And he said unto them, Render therefore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20:24-25).

If it's got Caesar's image on it, give it to Caesar. But He added, "You should be rendering un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And they could not take hold of his words before the people: and they marveled at his answer, and they held their peace. And then there came certain unto him who were Sadducees, who deny that there's any resurrection; and they asked him, saying, Master, Moses (20:26-28)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다투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0:24-25).

만일 가이사의 화상이 거기 있거든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그가 던부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20:26-28).

Now, the Sadducees were materialists. They accepted as authoritative only the five books of Moses. They rejected the prophets; they would not accept them as a part of the scriptures. Only the five books of Moses did they consider to be divinely inspired. And so if you would get into an argument with them and you would quote from the Psalms or quote from the prophets, they would reject it as not being authoritative. Only the five books of Moses. So, they said,

Moses wrote unto us, If any man's brother die, having a wife, and he die without children, that his brother should take his wife, and raise up a seed unto his brother. Now there were therefore seven brothers: and the first took a wife, and he died without children. And the second took her as wife, and he died childless. And the third, and in like manner the seven also: and they left no children, and they all died. Last of all, the poor woman died too. Therefore in the resurrection whose wife of them is she? for all seven had her as their wife (20:28-33).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자 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 오경만 권위있는 책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들은 예언서는 거부하며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과 토론 할때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인용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세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 아내가 되리이까? (20: 28-33).

The endeavor was to make the resurrection seem so ridiculous that people would say, "Well, that's stupid, that's foolish," and thoroughly discount the idea of the resurrection. There have been those who have done the same thing today, only in a little different way. They hypothesize that back in the days of the wild

West, when a man was shot in a gun battle and they went out and just dug a shallow grave and buried his body, that as his body decomposed...we know the body is made up of chemicals and elements...and as the body decomposed, these chemicals just actually went into the soil, became a part of the soil. And the prairie grass, its little roots, went down into the soil and the chemicals of this decomposed body were picked up in the roots of the prairie grass and, of course, came up through the root system and into the grass itself, nourishing the grass.

그 노력은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거 바보같아, 어리석은 소리야’ 라고 말하게 만들어 부활을 철저히 저하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오늘날에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부 활극의 시대로 돌아가서 가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싸우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깊이 않은 무덤을 파고 그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시체는 여러 가지 화학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체가 분해될때 이 화학원소는 땅에 흡수되어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디의 뿌리가 그 흙으로 번져가서 시체에서 나온 원소를 흡수하여 잔디의 뿌리에 들어가고 물론 뿌리를 통해서 잔디가 영양을 받아 자랍니다.

And the cows came and ate the prairie grass that has the chemicals of the decomposed body of this man who was shot in the gun battle. And the cows gave their milk that contained part of the chemicals from the decomposed body and I drank that milk. And thus, those chemicals have become a part of my body now. So that in the resurrection, in what body are these chemicals going to go, because they've been a part of many bodies? And they've tried to make the idea of the resurrection seem ridiculous by these hypotheses that they have created. Now Jesus said, "You er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resurrection or the power of God." In the resurrection there will be no marrying or giving in marriage. But we will be as the angels, who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그 다음에 소가 잔디 밭에 와서 싸움에서 죽은 이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화학원소를 섭취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서 나온 화학원소가 들어있는 우유를 내가 마셨습니다. 이제 그 화학 원소들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때 이 화학원소는 누구의 몸에 가게 됩니까? 지금은 그 원소들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假定)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As I understand God's purpose for marriage, it is to establish a beautiful healthy environment for children to be raised, to be brought into the world. The basic plan for marriage, that we might reproduce, that we might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Now, in heaven the angels do not reproduce. Thus, no need for marriage. We

will not be reproducing, thus, no need for marriage. We will be as the angels are. A lot of questions... "Will we know each other, then, in heaven?" Of course we will; we're not going to be more stupid there than we are here! The Bible says we will know even as we are known.

내가 이해하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기르는 아름답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것입니다. 결혼을 위한 기본적 계획은 재생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땅에 충만하게 되는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재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재 생산하지 않으며 결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게 됩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니까? 물론, 서로 알아보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바보스럽지만 천국에서는 훨씬 더 똑똑해질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나를 아신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고 하십니다.

"But what kind of relationships will we have?" Deeper, richer than any we could ever experience on the earth. Now just how, when all of these relationships, God has not really gone into details with us. He's just told us that we'll be as the angels. Now, there are some poor people that feel, "Well, if I can't be married, I don't want to go there." Well, the alternative is not so pleasant. And there's nothing that says you're going to be married there either.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이땅에서 경험했던것보다 훨씬 더 깊고 부요한 관계를 가질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이관계가 언제 이루어 집니까? 주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천사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만일 내가 결혼을 할수 없게 된다면 나는 거기에 안가고 싶어" 라고 느끼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안은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당신이 거기서 결혼하게 되리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You say, "But what about that milk I'm drinking?" I'm not going to have this body in heaven. We know that when the earthly tent, this body, is dissolved,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I'm going to get a new body,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So whatever happens to this body, I could care less. Someone said, "Well, what about cremation?"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마시던 그 우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이 몸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장막인 이 몸이 무너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가지게 되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화장하는것을 어떻게 생각 하세요?"

They can do what they want. You know that when this earthly tent is dissolved, and if they do it by cremation it'll be dissolved in thirty-seven minutes. If they let the

natural processes go, it'll take a little longer. But I will have moved out and have moved into my new house,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Jesus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You say, "Oh, but what about the resurrection of our bodies?" Well, what about them?

그들이 원하는대로 할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때 그것을 화장하면 37 분이면 완전히 분해됩니다. 만일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면 좀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사를 나와서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할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당신은 “ 오,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어쨌단 말인가요?

Paul the apostle said, "Some will say, 'How are the dead raised and what kind of a body will they have?'" And he said, "Don't you realize that God teaches resurrection in nature? For when you plant a seed into the ground the seed does not come forth into new life until it first of all dies, and then the body"...and listen carefully..."the body that comes out of the ground is not the body that you planted" (I Corinthians 15:35-37). I feel sorry for you that are so in love with your body that you want to carry it on into the new kingdom. "For the body that comes out of the ground is not the body that you planted, because all you planted was a bare grain and God gives it a body that pleases Him. And if it pleases God, you can be sure it's going to please me. So i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Paul asserts, "for we are planted in corruption and we will be raised in incorruption. We are planted in weakness; we will be raised in power. We are sown in dishonor; we'll be raised in glory. We are planted as a natural body; but we'll be raised as a spiritual body. For there's a natural body and there's a spiritual body, and the glory of the terrestrial differs from the glory of the celestial. And even as we have born the image of the earthen and have been earthy, so shall we bear the image of the heavens" (I Corinthians 15:37-44).

사도 바울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씨를 땅에 뿌릴때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 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고전 15:35-37). 나는 당신이 당신의 육체를 새 나라에 가져가기를 원할 정도로 애착심을 많이 가진것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은 틀림 없이 내게도 기뻐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장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37-44).

So, the body that comes out is not the body that was planted. All we planted was a bare grain. God gives it a body that pleases Him. So I'm really quite interested in that new model and all of the gadgets, the capacities of that new model. It's probably just fantastic. As this corruption puts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puts on immortality. For you see, God created this body out of the earth for the earth, of the earth, earthy, designed it fo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earth. The atmosphere around the earth is made up of seventy-nine parts of nitrogen, twenty parts of oxygen, and one part of neon and other gases.

나타나는 형체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모든 기능을 가진 새 모형에 대단히 흥미를 느낍니다. 그것은 아마 대단히 훌륭할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몸은 흙으로 빚어져서 이 지구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것입니다. 이 지구 주변의 대기층은 79%의 질소와 20%의 산소와 1%의 네온과 다른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ow when God made my body, He designed it so that it needed this 79:20 ratio in the atmosphere. It operates well under it. If He put more oxygen in, my heart would beat faster and I would die sooner. More nitrogen, it would have the opposite effect, but I'd still die sooner. My heart would go slower. If He put equal parts of nitrogen and oxygen in the atmosphere, we'd all go around like a bunch of laughing maniacs, because that's nitric oxide, which is laughing gas in the dentist chair. So we'd all go around with uncontrollable laughter. So He designed the body for the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of the earth. But to come into the heavenly scene, I need a body that is designed for that environment. And so God has a new body prepared for me, and one day my spirit and soul are going to move out of this body into the new body that God has. And with Paul, I'll say,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Oh, grave, where is your victory?" We have been caused to triumph over them through Jesus Christ. Thanks be unto God who gives us that continual victory through Jesus our Lord.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드실때 대기권에 있는 이 79-20의 비율의 공기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잘 작동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더 많은 산소를 넣으신다면 나는 빨리 죽게 됩니다. 더 많은 질소를 넣으면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빨리 죽게 됩니다. 내 심장은 천천히 돌아갈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똑 같은 분량의 산소와 질소를 내 심장에 넣으시면 나는 돌아 다니면서 실 없이 웃는 사람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산은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돌아 다니면서 걸잡을수 없이 웃을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이 지구의 환경조건에 맞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려면 그 환경에 맞도록 설계된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새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내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새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 없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So, they did not understand. And so,

Jesus said, The children of this world marry (20:34),

That is, in this age, in this time, they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but they which shall be accounted worthy to obtain [that age,] or that world, and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neither can they die any more (20:35-36):

그들은 그것을 알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20:34),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대, 즉,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20:35-36).

My new body is indestructible, eternal in the heavens...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So, you better like your new one, because that's where you're going to be.

for they are equal unto the angels; and are the children of God, being the children of the resurrection (20:36).

Uh-oh, wait a minute! You said something, Jesus. These guys don'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하늘에 있는 나의 새 몸은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새 집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곳이 당신이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20:36).

어-오, 잠깐만!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하셨죠. 이 친구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at the bush (20:37),

You see, these men, only accepting the first f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held a position that there was no resurrection. And though there were many arguments prior to the time of Christ as others were seeking to prove the resurrection to them, because they only accepted Moses as authoritative, no one had ever offered them from the writings of Moses any proof of the resurrection. So Jesus goes right back to Moses. "Now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at the bush,"

when he calleth the Lord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20:37).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므로 (20:37)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첫 다섯권만 받아 드리며 구원이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오경만 권위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므로 아무도 모세의 오경에서 부활을 증명하는 어떤 글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 죽은자가 일어났고 모세까지도 숲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모세도 ...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20:37).

Jacob, at the time that Moses stood before the bush, had been dead for 400 years. Isaac and Abraham even longer. And yet, God, when He spoke to Moses out of the bush, said, "I am the Lord.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Jesus adds,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20:38):

모세가 떨기나무앞에 섰을때는 야곱이 죽은지 400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은 더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20:38),

Declaring that 400 years after their recorded deaths, Abraham, Isaac and Jacob were still alive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here. But still alive, because God is the God of the living, not the God of the dead. And the scribes, when they heard that they said, "Hey, that's all right." They had never been able to argue their case with the Sadducees. But when they heard that argument, they were really pleased at that. "Hey, that's all right! You nailed 'em, you got 'em." And so, they answered Jesus saying,

Master, you have said well (20:39).

That's good.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이 기록된 400 년후에 그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별에서 아직도 살아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것을 들었을때 말하기를, “그게 옳아!”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우를 사두게인과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20:39).

그거 속이 시원합니다!

And after that they dared not to ask him any more questions. And so he said unto them, How say they that Christ is David's Son? (20:40-41)

Now one of the titles for the Messiah was Son of David. Last week you remember when we were in Jericho, and Jesus was entering the city, there was the blind man who cried out, "Jesus, Th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Son of David was a Messianic title, because they were looking for some descendant of David to arise in power and in authority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to overthrow the Roman rule. "Thou Son of David": a common title of the Messiah. So He said unto them, "How is it that you say that the Messiah..." and the word *Christ* is the Greek for the Hebrew *Messiah*... "How is that you say the Messiah is David's Son?"

저희는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20:40-41).

메시아의 호칭중의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로 들어가실때 한 소경이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것을 기억 하실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 왕국을 세워 로마의 통치를 넘어뜨릴것을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메시아라 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Christ) 는 히브리어의 메시아 (Messiah) 의 헬라이어 번역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David himself said in the book of the Psalms (20:42),

That is in Psalm 110,

The Lord [that is Yahweh] said unto my Lord [my Adonai], Sit thou on my right hand, til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David therefore called him Lord, how then could he be his son? (20:42-44)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20:42),

그것은 시편 110 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20:42-44).

You are dealing with a culture that is a very strong patriarchal culture, the father rules. No matter how old he is, as long as he's living he rules over the household. You can be married and have your own grandkids, but if your dad is still alive, he rules. No father would ever call his son "Lord." That was a title for the father, for the patriarch of the family. He ruled. So no father would ever say to his son, "Lord," using that title. So Jesus said, "Look, if he's a son of David, how is it that David called him 'Lord' if he's his son?" And, of course, they had no answer.

우리는 아주 강한 족장제도 즉 아버지가 집안을 다스리는 문화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드라도 그가 살아 있는한 모든 가구를 그가 다스립니다. 당신이 결혼해서 당신 자신의 손자를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다면 그가 다스립니다. 자기 아들을 “주님” 이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족장제도에서 아버지의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면서 아들에게 “주님” 이란 칭호로 부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라,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그를 ‘주님’ 이라 부렀느냐?” 물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Then in the audience of all the people he said to his disciples (20:45),

And you know, He turns to His disciples now, all the people listening in, He said,

Beware of the scribes, which desire to walk in long robes, and love greetings in the markets, and the high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chief rooms in the feasts; which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show make long prayers: the same shall receive greater damnation (20:46-47).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0:45),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우려 들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20:46-47).

Beware of those who seek to make a public show, for a pretense make long prayers, devour widows' houses, send out computerized letters filled with deceit and fraud to the little women on Social Security, asking, "Go down to the bank and borrow some money to send to them to help them out of this emergency;" who love the honor and the greetings and the palavering of man. Pray for them, because Jesus said they will receive the greater damnation.

대중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사회보장의 혜택으로 사는 늙은 할머니들을 거짓과 속임으로 편지를 컴퓨터로 찍어 보냅니다. 구걸하기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헤어 나도록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명예를 원하고 인사하며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Chapter 21

And he looked up, and he saw the rich men casting their gifts into the treasury. And he saw also a certain poor widow casting in thither two mites (21:1-2).

A mite was one-sixteenth of a penny. In other words, it took sixteen mites to make a penny. Two mites would be an eighth of a penny. Now here are these rich people putting in their great gifts and this certain poor little widow goes up...and there in the temple the offering things are sort of like a horn and they would drop them in...and the poor little widow cast in her two mites.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21:1-2).

한 렵돈은 십육분의 일 쉰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6 렵돈이 일 쉰트가 됩니다. 두 렵돈은 팔분의 일 쉰트가 됩니다. 여기에 많은 돈을 연보궤에 넣는 부자들도 있었으며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연보를 하는것은 마치 나팔을 부는것 같으며 그들은 돈을 떨어뜨렸고 이 과부는 두렵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And he said, Of a truth I say unto you, that this poor widow has cast in more than all of them: for all of these have of their abundance cast into the offerings of God: but she of her penury hath cast in all of the living that she had (21:3-4).

So, an interesting thing in God's economy is not the amount that you give, but what it costs you to give. So, many who are giving less in God's economy are giving more. The amount is immaterial. What's the sacrifice? What's it costing you to give?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1:3-4).

흥미있는 일은 하나님의 경제는 당신이 바친 액수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데 따르는 희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게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경제에서 보면 더 많이 바칩니다.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얼마나 되나? 바치는데 따르는 희생은 얼마나 되는가?

When David was wanting to buy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because the angel of the Lord had stopped there at the threshing floor and David had wanted to buy it and to offer a sacrifice unto the God, Araunah says, "Take it, man, it's yours." And David said, "No, I will not give to God that which costs me nothing." And David insisted on buying it. He wouldn't take it as a gift, because he wanted to give it to God. And he said, "I won't offer to God that which costs me nothing." What does it cost you to give? That's what God measures the gift by.

하나님의 천사가 타작 마당에 멈추었으므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기를 원했을때 다윗은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말하기를 "이것을 왕께 다 드리나이다" 라고 했을때 다윗은 "아니야, 내가 값을 치루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값없이 내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려할때 따르는 희생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바친것을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And as some of them spake of the temple, how it was adorned with goodly stones and gifts (21:5),

In "The Wars of the Jews" by Josephus, book number 5 and chapter 5, he gives an interesting descrip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of these great white columns of solid marble, each column a single stone of solid white marble. And how along the fascia all

of these gold shields, so that if you would look at the temple, the reflection of the gold was so tremendous that it was like looking at the sun itself.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21:5),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 이란 책 5 권 5 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한 재미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거대한 흰색의 대리석 기둥들에 관한 묘사와 흰색의 대리석의 한개의 돌로된 기둥에 관한 묘사입니다. 금을 입힌 처마밑의 띠 모양이 얼마나 나란한가 또 성전을 바라보면 금의 반영이 너무나 훌륭하여 그것이 마치 해를 쳐다 보는것 같다고 합니다.

And you couldn't just look at the temple because of these gold plates when the sun was reflecting off of it. It would be hard on your eyes and like looking in a mirror. And he describes the beauty and the glory of this temple that was built by Herod, describing some of the stones as weighing as much as 180 tons. And so some of them were speaking to Jesus of the temple, how it was adorned with these goodly stones, these beautiful marble towers, and the gifts, the gold and the silver and the brass gates and all that were around it. And He said,

As for these things which you are looking at, the days will come in the which there sha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21:6).

햇빛이 이 금판에 반사하므로 성전을 바라 볼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쳐다보는것 처럼 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묘사하며 심지어 어떤 돌은 180 톤이나 나간다는것을 설명합니다. 또 그들중 어떤 이들은 예수에게 성전에 관하여 말할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대리석 탑과 선물들과 사방에 달린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문들에 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1:6).

Today when you go to Jerusalem, as you go up the walk next to the western wall that leads on to the temple mount area, they have excavated the area to the right side of this walk. They have excavated down to the pavement that was the Roman street that went through the bottom of the Teropian Valley. And as they have excavated down to this Roman street, street level at the time of Christ, down there on the pavement which was made of great huge stones, there are these huge stones that have been pushed over the wall and that cracked the pavement down below.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서편의 담)을 하하여 걸어가서 성전대지로 가게 되며 걸어 가면서 오른쪽을 보면 그곳의 일부를 사람들이 발굴하기 위해 파헤쳐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로피안 계곡의 바닥에서 부터 로마 거리인 포장된 곳까지 발굴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로마 거리까지 발굴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당시의 거리로서 거대한 돌들로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큰 돌들은 성전의 담벽에서 아래쪽으로 밀어 내려서 포장한 돌들을 깨뜨린 것들입니다.

And you see them as they are just lying there in disarray as they fell and were pushed over the wall and crashed into the valley several hundred feet below, breaking the pavement down below. I've climbed down in to that area and I've touched these big stones and I've marveled at them. Because as I looked at them, I realized I was seeing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of Jesus Christ. "Not one stone was left standing upon another." They filled the Teropian Valley with stones that they pushed over from the temple, watching them crash below.

그 돌들을 벽위로 밀어서 수 백 피트 아래로 떨어져 밑에 있는 포장도로를 깨뜨렸고 돌들이 무질서하게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 큰 돌들을 만져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쓰리우리라." 로마 병정들이 성전에서 돌들을 밀어 내릴 때 그것들이 아래로 부닥치며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으며 그 돌들이 트로피안 계곡을 채웠습니다.

When we were up in the Grand Canyon, there was one area that I had a bunch of kids. And they were starting to push stones over this canyon cliff, because there was about a 3,000-foot drop before they hit. And it was terrifying to see the momentum that these stones would develop before they hit the bottom, and the crash, of course, echoing up the canyon. But here were the Roman soldiers, when they destroyed the temple, pushing the stones over.

우리가 그랜드캐년에 갔을 때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캐년 절벽으로 돌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이 3,000 피트의 낭떠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돌들이 바닥에 부딪지기 전에 생기는 운동량은 어마어마해서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는 계곡 골짜기에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 병사들은 그 돌들을 밀어 내려 성전을 훼손시켰습니다.

And that whole Teropian Valley was filled with the debris and the stones that they pushed over the wall at the time of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But it fulfilled literally the prophecy of Jesus, as He said, "You look at these stones, but there shall not be one left standing upon another that will not be thrown down." Thus, as you go up on

the temple mount, there is no evidence anywhere of where the temple of Solomon stood. The temple mount that he built is there. But there is no evidence at all of the place of the temple, because not one stone was left standing upon another.

온 트로피안 계곡이 성전을 훼파할때 벽에서 밀어낸 돌들과 쓰레기로 메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고 예언 하신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성전대지에 올라가 보면 아무곳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서있었던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성전을 그곳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장소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돌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y asked him, saying, Master, when shall these things be?
(21:7)

What things? When the temple is destroyed and the stones are thrown down.

and what sign will there be when these things (21:7)

That is,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21:7),

무슨 일들이 일어날것입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돌들을 밀어 내리는 때가 언제
입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1:7).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파괴입니다.

what will be the sign when these things come to pass? And so he said unto them, Take heed that you be not deceived: for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and that the time is drawing near: but go ye not therefore after them. But when you shall hear of wars and commotions, don't be terrified: for these things must first come to pass; and the end is not yet. Then he said unto them,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in different places, and famines, and pestilences; and fearful signs and great signs shall there be from heaven. But before (21:7-12)

Now He's going on to the times of the end with these signs of the great earthquakes in different places, the famines, the pestilences, the fearful signs in heaven, and the worldwide state of wars.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21:7-12)

이제 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으리라.

But before all of these, they shall lay their hands on you (21:12),

Coming back to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they will persecute you, delivering you up into the synagogues, and into the prisons, and you'll be brought before kings and rulers for my name's sake. And it shall turn to you for a testimony (21:12-13).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21:12),

성전의 파괴로 돌아가서,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21:12-13).

Jesus said, "Look, you're going to get arrested, you're going to be hauled before the kings and all for My name's sake, but that's all right. It's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witness." And I find it fascinating that every time Paul was brought before a judge or before the king, he took the opportunity to give a witness for Jesus Christ. "Oh, King Agrippa, I count it a privilege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what's happened to me, because I know that you've studied the law of the Jews and you understand these things. And the things that Jesus did weren't in a corner. Now, I myself was like you, I thought to be against this Man, and I was commissioned to arrest Him," and so forth. And he went on and he gave a heavy witness to King Agrippa. "King Agrippa, do you believe? I know you believe." He says, "Paul, wait a minute! Your much learning has made you mad." And King Agrippa says, "Hey, wait a minute! Hold on! You think that you're going to persuade me to be a Christian?" But Paul was trying. Jesus said, "Hey, they're going to bring you before kings, but don't worry. It's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witness." And Paul used it every time he got before the king.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들이 붙들려 내 이름으로 인하여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 가리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할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바울이 재판관이나 임금들앞에 끌려 갈때마다 그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삼는것을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 아그립바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도 모르는 구석에서 하신것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처럼 이사람을 반대했으며 그를 체포할 임무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그립바왕에게 중대한 일을 증거했습니다, “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베스도가 소리쳐 말하기를 “ 바울아, 잠간만 기다려라!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그립바 왕이 말합니다 “ 잠간만 기다려! 잠간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노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그들이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 가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증거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설때마다 그 기회를 사용하였습니다.

Now, Paul was taken before Nero. There's nothing in the biblical account that tells us what Paul said, but as we study secular history, it would seem that Nero wasn't too bad a fellow. He was actually very anxious to leave his mark upon Rome and to build some monuments in Rome. His castle is a great monument in itself that has been uncovered recently. But Nero wasn't really too awful a fellow until in history he met this fellow Paul the apostle. The first time that Paul was imprisoned in Rome, he had his opportunity. You remember when he was before Festus he appealed to Caesar. And so he was sent to Rome, placed there in prison where he wrote his Philippian epistle and he had his chance to go before Nero.

이제 바울은 네로앞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한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없었습니다만 세속적인 역사를 공부하면, 네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그는 실제로 로마에 그의 흔적을 남기고 기념비 세우기를 대단히 갈망했습니다. 그의 성 자체가 기념물이었던것을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로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만날때까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었을때 그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베스도앞에서 가이사에게 상고하던 때를 기억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로 보냈고 그곳에 있는 감옥에 그를 감금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빌립보서를 썼으며 네로앞에 설 기회도 있었습니다.

Now, you think that the witness he laid on Agrippa was heavy. You can be sure that Paul thought, "Man, if I can convert this pagan to Christianity, what that would do!" And I'm sure that Paul laid on Nero a witness second to none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그가 아그립바왕에게 증거한것이 막중한 것이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이방인을 기독교로 전환 시킬수 있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내가 확신하기는 바울이 네로에게 증거한것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증거였을것입니다.

Secular history records this dramatic personality change of Nero right after the time that Paul laid the witness on him. It was at that same period of time in history that Nero went through a drastic personality change and became a beast. He burned Rome because he wanted to rebuild a new glorious Rome for his credit. And then he blamed the Christians for it. But he became almost a man possessed, insane. I feel that, personally, that he became demon possessed after Paul's witness and his rejection of Paul's witness. I believe that he opened his heart and life to demon possession. And I believe that the things that he did can only be ascribed to a man possessed by an evil spirit. But up until that time of Paul's witness, he wasn't that bad of a fellow, his story.

세속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네로에게 증거한 이후 그의 인간성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의 인간성에 극적인 변화가 왔고 그가 짐승 처럼 변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려고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들린 사람 같았고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견해는 바울의 증거후에 그가 그 증거를 거절함으로 인해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기에 그는 귀신이 그를 점령하도록 그의 삶과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 오직 귀신 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할때까지 역사적으로 볼때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So, Jesus said, "Now don't worry about it. It's going to give you a chance to witness." And Paul took that chance every time he got it. And He said, "Don't make up a little speech in advance in your own heart, what you're going to say... 'Well, I'm going to say this and that and the other...'" But He said,

For I will give you a mouth and wisdom, which all your adversaries shall not be able to gainsay nor resist (21:15).

Now don't worry about what you're going to say, because I'll give you the words in that time. And you can wipe 'em out.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염려하지 말라, 증거할수있는 기회가 올것이니라.” 바울은 기회가 올때마다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무슨 말을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것과 저것과 또 다른것들을 말하겠노라...’” 그러나 주께 말씀 하시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21:15).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내가 할 말을 주리라. 생각을 다 지워 버리십시오.

And you will be betrayed both by your parents, and your brothers, and your kinfolk, and your friends; and some of you they will cause you to be put to death (21:16).

Fox's "Book of Martyrs" relates to us that sad portion of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ye shall be hated of all men for my name's sake. But there shall not a hair of your head perish (21:17-18).

They may kill your body, but after that, they have no power.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21:16).

폭스 (Fox) 의 " 순교자의 책 (Book of Martyrs) " 은 교회 역사의 슬픈 부분을 우리와 연관 시켜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21:17-18).

그들이 당신의 몸은 죽일수 있지만 그 후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And in your patience possess ye your souls (21:19).

What an important bit of instruction! "In patience." God help us! We're so impatient when it comes to the things of God. "In your patience possess ye your souls." God, give me patience!

And when you will see Jerusalem encircled with armies (21:20),

Which happens within forty years.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1:19).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가! " 인내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려고 할때 우리에게는 참을성이 너무 없습니다. "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21:20),

그일이 40 년내에 벌어집니다.

then know that the desolation is near. Let them which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and let them which are in the midst of it depart out; and let them that are in the countries enter in there too. For these are the days of vengeance (21:20-22),

Rome is going to take out here vengeance upon the rebellion.

and all of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may be fulfilled. But woe unto them that are with child, and to those that are nursing, in those days! for there shall be great distress in the land, and wrath upon this people. And they sha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they will be led away captive to all nations: and Jerusalem shall be trodden down of the Gentiles, until the time of the Gentiles be fulfilled (21:22-24).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 가지 말찌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21:20-22).

로마가 그들의 반역에 대해 보복하려고 나올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으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1:22-24).

So, in 70 A.D., when Titus came with the Roman troops and besieged Jerusalem, killed 1,100,000 Jews, carried away the remaining 97,000 as captive, Israel ceased to be a nation. They were carried away captive into all nations and the prophecy of Jesus was fulfilled. And Jerusalem from that day had been trodden down by the Gentiles until June of 1967.

그래서 주후 70 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백 십만명을 죽였고 남은자 97,000 명은 포로로 잡아 갔으며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은 1967 년 6 월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Now, as I understand prophecy, in June of 1967 the time of the Gentiles came to an end. You say, "Well, what are we in now?" Just a space gap. I believe that the Lord is going to begin a very special work with the nation of Israel very soon. There is a seven-year period of prophecy that is not yet been fulfilled, Daniel's seventieth week. And that seven-year period of God's Spirit upon the nation of Israel and dealing with them, and their restoration must come.

내가 예언을 이해 하기에는 1967년 6월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겠죠. 시간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주께서 짧은 시간내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이레의 예언중 7년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7년이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성령의 기간이며 그들을 다루어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That period has not yet begun. But in 1967, for all practical purposes, when Jerusalem became again the territory of the nation of Israel, when they drove out the Jordanian troops and they took the city of Jerusalem, at that point, according to the words of Jesus, Jerusalem shall be trodden down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 of the Gentiles be fulfilled. Since that time, it's just been a short period of God's grace giving others that opportunity to become a part of God's kingdom before He gathers His church together unto Himself. So, we're just living in a period of God's extended grace to man. But even as God said in the time of Noah, "My Spirit wi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I believe that God's striving with men has just about come to an end. The time of the Gentiles fulfilled.

그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요르단군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1967년에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목적을 생각할때,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시점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리라고 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그에게로 모으시기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짧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장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도 말씀하신것과 같이 “나의 신이 영영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하리라”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씨름하는것이 거의 끝장이 난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왔습니니다.

And now Jesus goes ahead to give signs of His return. And He said,

There shall be signs in the sun, and in the moon, and in the stars; and up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 with perplexity (21:25);

Signs in the heavens. We know that the comet known as Halley's Comet will be returning into our area of the solar system in just a couple of years. And with the advent of the return of Halley's Comet, there's been a lot of writing in the astronomy magazines and a lot of speculation about asteroids and about comets, and the possibilities of a comet or an asteroid striking the earth. And it is interesting that a large part of the physical makeup of comets is cyanide. And it is also interesting that in the book of Revelation, "he saw a star fall from heaven and strike the earth and all of the fresh waters became bitter; they were called wormwood because they were bitter." It sounds

like it could almost be a comet striking the earth and that cyanide poisoning the fresh water systems turning them bitter.

이제 예수께서 그가 재림하실 때 있을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 하시기를,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1:25);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년 이내에 우리가 알고있는 할레의 혜성이 태양계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레의 혜성의 돌아 오는 것이 가까워 짐에 따라 천문학 잡지에 소유성과 혜성에 대한 의견들과 소유성과 혜성이 지구와 부딪칠 가능성에 관한 기사들이 많아집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혜성들의 대 부분의 구성물질은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계시록에서 “그가 보니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를 치니 모든 물들의 삼분의일이 쓰게됨을 인하여 썩이라 부르더라.” 그것은 아마도 혜성이 지구를 치매 지구의 마시는 물이 청산가리의 독으로 인하여 쓰게될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The cyanide taste, of course, is a bitter taste. You might pick up the Astronomy Magazine; I think it was December's issue. It had an interesting issue on comets and their makeup. And, of course, because Halley's is returning, there's just a lot of things that you can read now in the astronomy journals and all about asteroids and comets. And there's always that likelihood that an asteroid is going to strike the earth. In fact, our government is making contingency plans. If there seems to be some threat of a large asteroid striking the earth, of sending a rocket out with a nuclear warhead to try and explode it in space so that it won't get to the earth. And these kind of things are things that are being thought of by the science. Signs! "...and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물론 청산가리의 맛은 씁니다. 천문학 잡지 12 월호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실린 혜성과 구성물질에 관한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할레이 혜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천문학 잡지에 소유성과 혜성에 관해 읽을만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성이 지구를 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큰 소유성이 지구를 칠 위협을 느끼게되면 핵탄두 미사일을 보내어 그것이 지구에 오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일입니다. 징조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On the earth there will be distress of nations with perplexity." That means that the distress of nations is problems that nations will be facing. The word *perplexity* in the Greek is "no way out." Now the government is searching for a way out. We're going to cut taxes and we're going to balance the budget. Government has become burdensome. In fact, government has become so expensive, we can't afford it anymore. And that's the problem that we've hit.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중에 곤고하리라.” 그것은 나라의 곤고함이 민족들의 당면할 문제가 되리라는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로 혼란이란 말은 “나갈 길이 없다” 는 뜻입니다. 현재 정부는 헤쳐 나갈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고 균형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너무 비싸졌고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There's no way that we can afford government any longer. It's a monster that has just continued to grow, gobbling up everything, until it has grown to such an extent that there are not enough people left to support the government workers. I read a statistic someplace, and I don't know the accuracy of it. But it said some 49% of the people are on the government payroll some way or another; either through welfare or through jobs that are related to the government. So 51% of the people are productive, and the rest are working for the government, supporting the 49. What are we going to do? What's the answer? There is none. So, what shall we do? Have heart failure.

우리가 더 이상 정부를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괴물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닥치는 대로 삼켜 버립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뒷바침해줄 충분한 사람들이 남지 않는 단계까지 정부는 자랍니다. 어디선가 통계를 읽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49%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부의 돈을 받는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엔 정부의 고용인도 있고 사회보장비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중 51%는 생산적이며 나머지는 정부를 위하여 일하며 49%를 보조해 줍니다. 우리는 무얼 해야하겠습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얼 해야합니까? 심장마비가 일어나겠습니다.

I thought that this was interesting that it came this week.

the sea and the waves roaring (21:25);

Any of you live at Sunset Beach? Seal Beach?

Men's hearts failing them for fear, and for the looking after of those things which are coming upon the earth: and the powers of the heaven will be shaken. And then (21:26-27),

그것이 이번주에 왔는데 이 사실은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21:25);

누가 썬셀 비치나 썬 비치에 삽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1:26-27),

Of course, He's describing events of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here, "And then," after this Great Tribulation,

shal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And when these things begin to come to pass, then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 for your redemption is drawing close (21:27-28).

물론, 그가 묘사하는것은 대 환난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대 환난후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21:27-28).

Now, last October in one of the shopping malls, towards the end of October, I saw them putting them up Christmas decorations. And I said, "Well, Thanksgiving must be getting close." Why? Because I know that Thanksgiving comes before Christmas. And if they're putting up Christmas decorations and Thanksgiving hasn't come yet, then Thanksgiving must be getting close. Because it's got to come before Christmas. Now Jesus is giving you signs of His return. Signs that will happen before His second coming. But if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to precede the second coming by seven years, then when we will see the signs of the coming of the Lord, we have to say, "Hey, the rapture must be getting close. I see the signs of the Lord's return." That makes the rapture that much closer.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beginning to come to pass, then you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 for your redemption is drawing nigh.

지난 10 월말 한 시장에서 나는 크리스마스 장식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추사감사절이 더 가까운데.” 왜 그런가요? 나는 추수감사절이 크리스마스 앞 에 오는걸 잘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도 추수감사절이 아직 오지않았다면 추수감사절이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크리스마스전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의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들은 그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휴거가 재림보다 7년앞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보게될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보게, 휴거가 틀림없이 가까웠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니까 말일세.” 그것이 휴거가 더 가까운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And he spoke to them a parable; Behold the fig tree, and all of the trees; When they now shoot forth, and you see and you know of your own selves that summer is now near end (21:29-30).

And Jesus is basically saying the same thing. If you see the trees start to blossom out and leaf out, you say, "Oh, summer must be getting close." Because I see the trees leaving out, I see the blossoms; summer must be getting close.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21:29-30).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같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싹이나고 잎이나는것을 보면 “오,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Verily I say unto you,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away, till all is fulfilled. Now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21:32-33).

We have the solid word of Christ. Now even as Jerusalem was destroyed and not one stone was left standing upon another, and the Jews were decimated and the remainder were made slaves throughout the earth, and Jerusalem went under the hand of the Gentiles...just as all of that was fulfilled, you can be sure that Jesus is coming again. The rest of the prophecies will be fulfilled. God didn't bring it along this far to drop it now. We are moving towards the end. The whole system is moving towards this climax, the return of Jesus Christ in power and glory. But when we see the signs of that return, we know that our redemption is so close. And Jesus affirms it; He says, "Now look,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not My words."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1:32-33).

우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돌위에 돌하나가 남지않드라도, 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남은 사람들이 온세계에 노예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들어간다 할찌라도, 모든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것 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남아있는 예언도 다 이루어질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포기하시려고 여태까지 끌고 오신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절정인 권능과 영광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림의 징조를 볼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Take heed to yourselves (21:34),

Now this is a message for you. "Take heed, be careful."

lest at any time your hearts are overcharged with surfeiting, drunkenness, [partying,] the cares of this life, and that day overtake you unaware (21:34).

There is a party spirit in the world today. Be careful you're not caught up in it, and that Day of the Lord catch you by surprise. Be careful of these things. Jesus warns you that these things are going to be like a trap for men. "...drunkenness, surfeiting, gourmet type of eating, cares of this life, so that Day come upon you unaware.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1:34),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21:34).

오늘날은 파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주의 날이 기대하지 않은때에 임할것입니다. 이 모든일에 주의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일이 사람들에게 덮과 같이 임할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술취함과 과식함과 식도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For as a snare (21:35)

It's a trap.

shall it come upon all of them that dwell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Watch ye therefore (21:35-36),

The Lord's command to His church to watch.

and pray always, that ye may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 (21:36)

덮과 같이 (21:35)

그것은 함정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21:35-36).

주님이 그의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21:36)

All what things? These things of God's judgment that will be coming to pass upon the earth as there are the signs and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and the heaven shaken, and the earthquakes and the pestilences and the famines... "pray that you'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of these things."

that sha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21:36).

모든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때 일어날 일들이며 여러 징조가 있고 하늘에서는 일월 성신이 흔들리며 지상에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일을 당신이 피하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기도 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21:36)

Now, i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5, John saw a scroll in the right hand of Him who was sitting upon the throne, sealed with seven seals, and it had writing both within and without. "And he heard an angel proclaim with a loud voice, 'Who is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loose the seals?'" And when no one was found worthy in heaven or earth, John began to sob convulsively until the elders said, "Don't sob, John.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hath prevailed to take the scroll and loose the seals." "And I turned and I saw Him as a Lamb that had been slaughtered, and He took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 who sat upon the throne. And when He did, the twenty-four elders came forth with their golden vials full of odors,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and they offered them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is the Lamb to take the scroll and to loose the seals, for He was slain; but He has redeemed us by His blood, out of every nation, tribe, kindred, tongue and people, and He has 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Him upon the earth.'"

요한계시록 5 장에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자로 봉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들으니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으므로 요한이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장로중의 하나가 내게 말하되 "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것 같았으며 그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더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 책을 가지 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

Listen to the lyric of the song in heaven. "Worthy is the Lamb; He was slain, He has redeemed us by His blood...out of all of the nations, tribes, tongues and people...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Him upon the earth." These are those who ar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And the Great Tribulation does not begin until the beginning of chapter 6. "And when He loosed the first seal, the angel said unto me, 'Come. And I saw a white horse coming forth upon the earth, conquering and to conquer with his rider."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들어 보십시오. “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인자의 앞에 서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은 6 장의 시작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And there begins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when, after the book is open. But while the book is there in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when Jesus steps forth to take it, that glorious song of the church, "Worthy is the Lamb," sung by those who ar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Jesus is saying, "Look, you pray always.

Watch and pray always that you'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going to be happening upon the earth, that you'll b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It is my prayer and anticipation that I will be accounted worthy to be standing with the company of God's redeemed saints in heaven, singing of the worthiness of the Lamb to take the title deed to the earth, and to lay claim to it. I want to b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I surely do not want to be down here on this earth when God's wrath is poured out, as Jesus has described a portion of it here, but you find the full description in Revelation chapter 6 through 18.

책이 펴졌을때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책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그 책을 취하러 나가실때 인자 앞에 서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노래 “합당하도다, 어린양” 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항상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모든일을 피하기에 합당히 여기셔서 인자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들과 함께 서서 이 땅의 소유권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어린양을 노래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부분을 묘사하신것과 같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어실때 나는 정말 여기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환란의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6 장에서 18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n the daytime (21:37)

That's the end of the message,

he was teaching in the temple; and at night he went out, and stayed at the mount which is called the mount of Olives (21:37).

So He crossed the Kidron Valley and went up into the Mount of Olives in the evening.

And all of the people came early in the morning to him in the temple, to hear him (21:38).

예수께서 낮이되면 (21:37),

그것이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되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21:37).

그는 밤이되면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오라가셨습니다.

So, there was a popular movement towards Jesus by the common people as the chief priest and the scribes and the elders were plotting His death. And so, we move into the final chapters as we get into chapter 22 and Judas' betrayal, the last supper. And we're moving into the final events of Jesus' life, which we will complete next Sunday night, as we finish the book of Luke.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할때 예수를 향한 일반 군중들의 인기가 높아져 갔습니다. 우리가 22 장에 들어감으로서 유다의 배반과 최후의 만찬등 그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들로 들어갑니다.

Shall we pray? Father, as we look around the world in which we live, and as we look at Your Word and as we see these things beginning to come to pass, we see the nation of Israel existing once again. We see the city of Jerusalem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 of Israel. And we see the distress of nations and the perplexities, we see the nation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 increased earthquakes, these pestilences and famines. Oh Lord, help us that we wi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going to come to pass. Oh God, we want to stand in that heavenly throng around the throne of God proclaiming the worthiness of Jesus, our Lord and Savior, who died for us, who redeemed us by His blood and has 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Thank you, Jesus, for that redemption that we have tonight.
Oh Lord, may we be worthy to be in that throng. In Jesus' name. Amen.

기도 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살고있는 이세상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것을 볼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한번 존재하는것을 봅니다. 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게된것도 봅니다. 여러 나라들의 근심하고 낙담하는것을 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지진과 질병과 기근이 더 많아지는것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을 외치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것을 이 저녁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Luke 22
Tape # C2540
By Chuck Smith

Luke's gospel, chapter 22.

Now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drew nigh, which is called the passover (22:1).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ctually was for six days, from the fifteenth of Nisan to the twenty-first. However, the fifteenth of Nisan was the day of the Passover. And so it was drawing nigh. People were beginning to prepare for it. Two days before the feast they would go through the house with brooms and brushes and make sure that they got rid of all of the leaven out of the house, in quite a ceremony. And of course, they would always leave a little bit of leaven for one of the children to find, in order that they could find the last bit of leaven that was there. And they would purge the house of leaven in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And so this time was drawing close.

누가복음 22 장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22:1).

무교절은 실제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니산월 15일이 무교절이었으며 그 절기가 가까워 왔습니다. 사람들은 무교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교절 이틀전에 그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집안을 샅샅이 청소합니다. 물론, 항상 조금의 누룩을 남겨 놓아 한 아이로 마지막 조각의 누룩을 찾게 합니다. 그러다음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집안의 누룩을 다 치워 깨끗하게 합니다.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ought how they might kill Jesus; but they feared the people. Then Satan entered into Judas surnamed Iscariot, being of the number of the twelve. And he went his way, and communed with the chief priests and the captains, how he might betray him unto them. And they were glad, and covenanted to give him money. And he promised, and sought opportunity to betray him unto them in the absence of the multitude (22:2-6).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2:2-6).

So it was their desire to catch Jesus away from the multitudes. Because, as we noticed last week in our study, the crowds were coming to hear Him in the temple daily as He was teaching, and many counted Him to be a prophet. And so, though the scribes and the high priests and all were wanting to move against Jesus, they were too cowardly to move against the popular movement of the crowd that was being attracted to Jesus at this point. And so when Judas came to them, they were very happy, actually, that they might have this opportunity of catching Jesus away from the crowd, arresting Him and getting the movement going the other direction before the people would really realize what was happening.

군중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예수를 잡는것이 그들의 바라는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대로 그가 성전에서 가르칠때 무리들이 매일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으며 그를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대 제사장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할수있을 정도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왔을때 실제로 그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기전에 군중에게서 떨어져있는 예수를 잡아 그를 체포하며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운동을 일으킬 기회를 잡을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udas Iscariot is, of course, a very interesting character. We are not really told too much about him. As we get into John's gospel, we'll learn that he was actually the treasurer of the group. And according to John, had been pilfering out of the group treasury. Here we are told that Satan entered into him. He is called the Son of Perdition by Peter. And Jesus said of him, "It would have been good for that man if he had never been born." A tragic life. A man who became obsessed by the greed, the desire for power. And there are many suggestions as to the motives behind Judas' betrayal of Jesus.

가룟 유다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 들은 바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그는 그룹의 재정담당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는 그룹의 돈주머니에서 좀도둑질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관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뻔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 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동기에 관하여 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There are those who suggest that he was only trying to force Jesus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that he felt by betraying Him and turning Him over to the Jews, it would force the hand of Jesus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wait any longer, but would have to manifest who He was and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And that when Jesus was not defending Himself, but was submitting to the edict of death, that his plan more or less backfired, and that's when he came to the priests bringing the money back and throwing it at their feet. Who knows what the true motive of a man is? These are only speculations by men who have perhaps tried to somehow excuse in a way the actions of Judas Iscariot. I personally feel that his actions are inexcusable. The method by which he chose to betray the Lord with a kiss is reprehensible.

그가 예수로 하여금 왕국을 빨리 세우도록 독촉한것뿐이라고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하여 저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줌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하여 그의 손을 쓰도록 해서 그가 누구인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유다는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죽음의 판결을 따라서 그 계획이 무너졌을때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도로 가져와서 그것을 그들의 발아래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누가 압니까? 이런것들은 어떤 면에서 유다의 행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주려는 사람들에게 의한 추측일 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행위는 용서 받을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인 주님과 의 입맞춤은 비난받을 것입니다.

Now, verse 7: The Day, or the Preparation of the Passover, has come.

Now the day came of unleavened bread, when the passover must be killed (22:7).

The Passover was a Sabbath day in which they were to do no work; it was a feast day. And this day had come in which they were to kill the lamb for the Passover dinner. All of the cooking, all of the baking, all of the preparation had to be done before sundown. It is important that we recall that the Jewish day begins at six o'clock in the evening. So all of the preparation had to be made for the Passover dinner before six o'clock in the evening. And to them, the day began, the day of Passover began at six o'clock in the evening and did not end until the following day at six o'clock in the evening.

유월절은 안식일이었고 축제일이었으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엔 유월절 만찬을 위해 양을 죽이는 날입니다. 모든 요리와 빵을 굽는일과 모든 준비를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여섯시부터 시작 된다는것을 기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저녁 6 시 전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이 저녁 6 시에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날 6 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Now, by the end of the following day, Jesus had been crucified, which means that Jesus was crucified on the day of the Passover Feast, which began at six o'clock the evening before when He celebrated the feast with His disciples. But He was crucified on the day of Passover. Which, of course, is extremely significant when you remember that the Passover was a memorial feast to remind them of how God had delivered their fathers from the plague of death in Egypt when they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God and had slain the lamb and put the blood on the lintel in the doorpost of their house. So that when the Lord passed through Egypt that night, when He saw the blood upon the doors of their houses, He passed over those houses; hence the word *passover*. He had passed over those houses and the firstborn was saved alive, because of the sacrificial lamb, the lamb for the house.

그 이튿날이 끝날때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축제일 전날 저녁 여섯시에 만찬을 시작하셨고 그는 유월절 축제일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집트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사망의 재앙에서 건져주신것을 되새기는 기념 잔치인것을 생각할때 그것은 대단히 의미있는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셨으며 유월 (passover) 이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희생 된 양으로 인하여 그 집들을 지나가셨으므로 장자들의 생명이 보존 되었습니다.

That was only to look forward to the Lamb of God that would one day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Our sacrificial Lamb, who by His death, by His sacrifice, has spared us from death. And so this Passover feast that the Jews observed was looking back, but it was also looking forward. And it had its fulfillment in Jesus. Paul, in writing to the Colossian church about the Sabbath days, about the new moons, the holy days...and of course, the Passover was related to the new moon...in talking to them about these, he said, "These were all a shadow of things to come, but the substance is of Christ" (Colossians 2:17).

그것은 오로지 앞으로 있을 어느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양은 그의 죽으심, 즉 그의 희생 으로 우리를 죽음 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과거를 돌아 보면서 지켰으나 또한 앞을 바라보며 지킨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안에서 성취 된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식일과 새 달과 거룩한 날에 대하여 쓴 그의 편지에서 유월절은 새 달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것들에 대하여 말할때 “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 2:17).

They were all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ir fulfillment in Jesus Christ. And so the Feast of the Passover was fulfill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at very day, God's Lamb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The Feast of Pentecost was fulfilled fifty days later when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upon the church and 3,000 people were converted, the first fruits of what we see the continuing work today. As the Feast of Pentecost was the Feast of First Fruits, the offering of the first fruits unto the Lord.

그들은 진실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질것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바로 그날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후 50 일이 차서 오순절이 되었을때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3,000 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첫 열매와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Inasmuch as these two major feasts have their fulfillment in the New Testament and in the church, we would then conclude that that third feast, which was inaugurated by God in the Old Testament, the Feast of Trumpets, must also have a fulfillment within the church...that feast that looked back to God's delivering their fathers out of the ravages of the wilderness and bringing them into the promised land. And so its fulfillment is yet awaited by the church. "When the trumpet of God shall sound, and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ever be with our Lord" (I Thessalonians 4:17).

"And so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when the Passover must be killed."

이 두 중요한 명절이 신약성경과 교회에서 성취되었으므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번째 명절, 즉 나팔절도 교회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구원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것을 회고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는 아직도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것입니다. "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22:7).

And he sent Peter and John, saying, Go and prepare the passover for us, that we may eat. And they said unto him,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it? And he said to them, Behold, when you enter the city, there you will find a man who will meet you, and he is bearing a pitcher of

water; follow him into the house where he goes. And you shall say to the goodman of the house, The Master says to thee, Where is the guest chamber, where I shall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And he sha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there make ready. And they went, and found as he had said unto them: and they made ready the passover. And when the hour was come, he sat down, and the twelve apostles with him. And he said unto them, With desire have I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say unto you, I will not eat any more thereof, until it be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And he took the cup, and he gave thanks, and he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rselves: for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shall come. And he took the bread, and he gave thanks, and he broke it, and he gave it un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And likewise also the cup after the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22:8–20).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2:8-20).

And so Jesus, here, instituted what we call the Lord's Supper with His disciples, as He took the traditional Jewish Passover feast and gave to the emblems of that feast their true meaning. Now, they always had these three pieces of bread that they would put in these little sacks. The middle piece was broken, sort of a matzoh loaf, and it was broken. And Jesus bro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was broken for you." And then, after dinner they always had the final cup. And when they were having this after dinner cup, Jesus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 부르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유월절을 택하여 그 절기의 상징물들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세 조각의 떡을 조그마한 자루안에 넣습니다. 중간에 있는 떡은 깨어진것 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쪼갬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나서 저녁식사 후에는 항상 마지막 잔을 돕니다. 저녁 식사후에 잔을 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To study the traditional Jewish Passover feast, even as it is observed by them today, is extremely enlightening and extremely significant to us as Christians, because you can see in its symbolism Jesus Christ so clearly. You can see the gospel so clearly. Their hearts surely should have been prepared by it for the receiving of Jesus Christ. It's just woven into the traditions of the Passover feast. But to them, it was a memorial of God's deliverance in Egypt. From the time the child said, "What makes this night different from all other nights?" and the father begins to explain the story of God's delivering of their fathers out of the bondage of Egypt, with the various things around the table representing the bondage of Egypt and God's deliverance. Now a whole new meaning is given to it by Jesus Christ, for it is now been fulfilled. And the bread now represents the broken body of Jesus, and the cup now represents His blood that was shed for our sins.

오늘 날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들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공부하는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대단히 교육적이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징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분명히 깨달을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됩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전통속에 엮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애집트에서 하나님을 구출해 주신것을 기념하는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묻습니다 "오늘 저녁이 다른 날 저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상 주변에 놓인 애집트에서의 속박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을 애집트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으며 그것이 성취된것입니다. 떡은 예수의 상한 몸을 상징하고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But, behold, [He said,] the hand of him that betrays me is with me on this table. And truly the Son of man goes, as it was determined: but woe unto that man by whom He is betrayed! (22:21-22)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knew who it was that was going to betray Him. Here He is just giving a solemn warning. I think that with this solemn warning, Judas still had a chance to back out if he wanted to.

And they began to inquire among themselves, which of them it was that should do this thing. And there was also a strife among them, of which of them should be accounted the greatest (22:23-24).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2:21-22).

성경은 누가 예수를 배반할것을 주께서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께서 엄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엄숙한 경고로 유다가 자신만 원했다면 아직까지 돌아설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2:23-24).

It's sort of sad, sort of pathetic...here Jesus is filled with the knowledge that He is soon going to be suffering on the cross. And He is saying, "Look, I've really wanted to eat this supper with you before I suffer. Now this bread is My body; it's going to be broken for you. This cup is My blood; it's going to be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This is going to be God's new covenant." And He is really now sort of obsessed with the suffering and the cross. And the disciples are arguing among themselves as to which one is going to be the greatest when He establishes the kingdom.

그것은 슬프고도 애처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래지 않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길것이라. 이 잔은 내 피라. 죄 사함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 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그리고 난후 그는 참으로 고통과 십자가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께서 나라를 세울때 저희 사이에 누가 크게될것인지를 토론 하고 있었습니다.

And so he said un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22:25)

And the word *Gentiles* in the New Testament is equivalent to *heathen*.

they exercise lordship over their subjects; and they that exercise authority upon them are called benefactors (22:25).

It hasn't changed much. The government today declares that they are our benefactors. They take away a hundred and then give you back one, declaring them to be your benefactors.

But [He said,]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but he that is the greatest, let him be as the youngest; and he that is chief, as he that does serve. For whether is greater, he that sits at meat, or he that serves? Is not he that sits at meat? but I am one fro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22:26-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22:25),

신약성경의 이방인 (Gentiles) 은 야만인 (heathen) 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2:25).

변한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우리의 은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수백 불을 받아가서 몇 불만 돌려 주면서 그들이 우리의 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찌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2:26-27).

Jesus is teaching His disciples that the true path to greatness is the path of serving. Jesus said,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He also said in another place,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Too many ministers have the wrong concept of the ministry. They fail to see the servanthood of the ministry. They get to the place where they almost expect people to do special favors for them because they are the minister. But in reality, as a minister, it means that I am a servant, a servant to all. Now the Gentiles loved these positions of authority. They loved to rule over people. They loved dominion over people's lives. But Jesus said, "It shall not be among you. You need to learn to be servants."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위대하게 되는 길은 섬기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는 다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니라.” 많은 목사들이 사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서 종의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위치에 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실상, 목사로서, 나는 종이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 하시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종이 되는것을 배워야 할지니라.”

"And then He said unto them,"

You are those who have continued with me and my temptations. And I appoint you a kingdom, as my father has appointed unto me;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the kingdom, and sit on th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22:28–30).

Now this He is saying to His twelve apostles; of course, excluding Judas Iscariot. But He is telling the apostles. And I think Paul actually is the one who got appointed to take the place of Judas, though the church drew straws and picked Mathias. That was the luck of the straws, but it would appear that it was God's choice that Paul was the twelfth. But the Lord is saying, and this to me is something that is glorious to contemplate,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이것은 가룟 유다가 빠진 12 제자에게 말씀 하신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유다의 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비 뽑아 운이 좋았던 것이지만 바울이 12 번째 제자가 되는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 던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을 생각 해보는것도 내겐 영광 스러운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And the Lord said,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sired to have you, that he may sift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thee, that thy faith fail not: and when thou art converted, strengthen your brothers (22:31–32).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Simon. They say that he was large of physical stature. He was impulsive, lovable, just a big, strong, lovable guy. Because of his impulsiveness, getting into trouble, he would often speak up and say the first thing that came into his mind, right or wrong. And sometimes it was right and very good, and sometimes it was very wrong. But Jesus said of him, "Satan has desired to have you, that he might sift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 faith fail not." I believe that the prayer of Jesus was answered. I don't believe that the problem of Peter was the problem of faith. Oh, he failed as a witness. He denied his Lord, but there was never a failure of his

faith. He always believed in the Lord. "...and when you are converted, when you're turned, strengthen your brothers."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22:31-32).

시몬에 관한 특별한것이 있습니다. 그는 체구가 컸다고 합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사랑스러우며 크고 기운이 좋고 사랑을 받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빈번히 생각 나는대로 옳건 그르건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한 말이 대단히 틀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나는 예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증인으로서 실패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실패한적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믿었습니다. "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And he said unto him, Lord, I am ready to go with thee, both into prison, and to death (22:33).

Yes, Peter, we know.

And he said, I tell thee, Peter, the cock shall not crow this day, before you shall have thrice denied that you even know Me. And then he said unto them, When I sent you out (22:34-35)

Now, this is when He had sent them out into the ministry two by two.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22:33).

그래, 베드로야, 우리가 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22:34-35).

이것은 주께서 사역 하도록 두사람씩 내어 보내셨을때 입니다.

I told you not to take a purse, not to take any script, not to take extra shoes, did you lack anything? And they said, Nothing, Lord. And he said unto them, But now, if you have a purse, take it, and likewise script: and he that has no sword, let him sell his garment, and buy one. For I say unto you, that this that is written must be accomplished in me, And he

was reckoned among the transgressors: for the things concerning me have an end (22:35-37).

Jesus is saying, "Look, I sent you out before. I provided for you. But you're going to be going out soon again. I'm not going to be there this time. And things are going to be different; it's going to be tough. Before you were received, you're going to be rejected, you're going to be imprisoned, you're going to be hailed before the courts, you're going to have persecution. It's going to be hard."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찌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22:35-37).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보라, 내가 전에도 너희를 내어 보냈노라. 네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아 갈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다르고 좀 더 어려울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받아주기 전에 거절당하리라. 또한 너희를 옥에 가두리라. 법정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핍박을 받게 되리라. 어려워 지리라.”

And they said, Lord, here are two swords. And he said unto them, It is enough (22:38).

In other words, "You don't really understand, but you will." Jesus is not telling them to go out and make war against the world with swords, but He's just indicating the difficulty of that ministry that they are going to face after He has been taken away from them.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22:38).

바꾸어 말하면, “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엔 깨달을 거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밖에 나가서 칼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후 그들이 당면할 사역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Now, in verse 37 He said, "Those things must be accomplished in Me, which the scriptures declared." Jesus had absolute confidence in the prophecies, declaring, "They must be fulfilled." You can have that same absolute confidence in the word of prophecy. You can know that it must be fulfilled. Now, many times we make a mistake when we guess how it is going to be fulfilled. And a lot of damage has been done to the subject of prophecy by men's guesswork. To try

to guess just who the anti-christ is, is a dangerous and futile bit of speculation. We know that there shall arise an anti-christ. We don't know who he is. We know they're going to rebuild their temple. We don't know when or how. We know tha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They will be fulfilled. And Jesus had that confidence. And the scripture said, Isaiah 53, "He will be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This," He said, "has to be fulfilled."

이제 37 절에서 그 분은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도 예언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당신은 압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하는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추측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추측함으로 인해 예언의 주제가 많은 손상을 받았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추측하는것은 위험하고 투기하는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서 53 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것이라”는 “이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so he came out of the upper room, and he went, as he was accustomed to going to the Mount of Olives;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And when he was at the place, he said unto them, Pray that you enter not into temptation (22:39-40).

Good prayer! Lord, help me not to enter into temptation.

And he was withdrawn from them about a stone's cast, and he kneeled down, and prayed, and he said, Father, if thou b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And there appeared an angel unto him from heaven, strengthening him. And being in a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as it wer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And when he rose up from prayer, and he was come to his disciples, he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and he said unto them, Why sleep? rise and pray,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22:41-46).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22:39-40).

주님, 홀르 ○ 하신 기도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않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22:41-46).

The prayer of Jesus is significant because Jesus is talking about redemption for man. "If it is possible." If what is possible? "If salvation for man is possible by anything other than the cross, let this cup pass from Me." That's basically what He was praying. That is why the cross of Jesus Christ offends many people today, because they say Christianity is too narrow. "All roads lead to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believe in, it's just important that you believe and have faith." But the cross of Jesus Christ declares that there is only one way to God and that is through the cross. If it is possible, if it were possible that man could be saved by being religious, the cross would be unnecessary. If you could be saved by keeping the law, the cross would be unnecessary.

예수의 기도는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무엇이 할만하시단 말입니까? “만일 인간을 위한 구원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가 하였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당신이 무얼 믿든지 상관 없어. 오로지 중요한것은 믿고 믿음을 가지는것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다고 선언 하십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즉 사람들이 종교인이 됨으로서 구원 받을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If you could be saved by being good, the cross would be unnecessary. The cross declares that there is only one way by which a man can have forgiveness of sins and approach God, and that is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and it declares a narrow one-way path. And that's why it offends a lot of people. And so the cross, the Bible says, is an offense to the Jews. To the Greeks, it's foolishness. But unto us who have been saved thereby,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So Jesus is praying about the cross, really asking the Father for a substitute way, if it is possible. And the fact that He went to the cross declares it was not possible. There's only one way by which man could be redeemed.

만일 선한 사람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을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수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치는것이며 좁은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된다고 합니다. 헬라인들 에게는 미련한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기도하시기를 진실로 가능하다면 대안을 주실것을 구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가신것이 다른 어떤 가능한길이 없다는것을 말해 줍니다. 인간이 구속함을 받는 길은 한길 밖에 없습니다..

And while he was yet speaking to his disciples, behold a multitude, and he that was called Judas, one of the twelve, went before them, and he drew near to Jesus to kiss him. And Jesus said unto him, Judas, betrayest thou the Son of man with a kiss? When they which were about him saw what would follow, they said to him, Lord, shall we smite with a sword? (22:47-49)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22:47-49).

The disciples had just awakened. Now there's a crowd there and they're getting ready to arrest Jesus. And the disciples are confused and they asked, "Lord, shall we smite with the sword?" He had just said, you know, "If you don't have a sword, sell your garment and get one."

제자들은 방금 잠에서 깨었습니다. 저쪽에 무리들이 예수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묻기를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것입니다. “만일 검이 없거든, 겜옷을 팔아 하나 살지어다.”

And one of them (22:50)

We are told in another gospel which one it was. And, of course, we could guess, couldn't we? Peter.

smote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and cut off his right ear (22:50).

He can be lucky Peter was sleepy. Peter would have had halved him.

그 중에 한 사람이 (22:50)

다른 복음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할수 있는건 그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증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22:50)

베드로가 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운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반쪽으로 만들뻔했습니다.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hat's enough. And he touched his ear, and healed him. Then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captains of the temple, and the elders, which had come to him, Are you come out, as against a thief with swords and staves? When I was daily with you in the temple, you did not stretch forth your hand against me: but this is your hour, the power of darkness (22:51-53).

Oh, what a horrible hour in the history of mankind, when the power of darkness took over!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22:51-53).

오, 흑암의 권세가 차지하는 인류역사의 최악의 시간입니다.

And they took him, and led him, and brought him to the high priest's house. And Peter followed afar off. And when they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hall, and they were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among them. But a certain maid beheld him as he sat by the fire, and earnestly looked upon him, and said, This man was also with him. And he denied him, saying, Woman, I don't know him. And after a little while another saw him, and said, Thou art also of them. And Peter said, Man, I am not. And about the space of an hour after another one confidently affirmed, saying, Of a truth this fellow was also with him; for he is a Galilean. And Peter said, Man,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immediately, while he yet spoke, the cock crew.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he had said unto him, Before the cock crows, you will deny me thrice. And Peter went out, and wept bitterly (22:54-62).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2:54-62).

"Lord, I'm ready to go to prison. I'm ready to die with You." Now, do not think that Peter was insincere. I believe with all of my heart that Peter meant that exactly; that in his heart he was ready to go to prison, he was ready to die for Jesus. Even as when we make our promises to the Lord, there is great sincerity. However, so many times when the showdown comes, we find ourselves with Peter, denying even in simple things. How is it that he denied his Lord? First of all, I think that we observe that he was sleeping when he ought to be praying. I think that that's one of the reasons behind his failure.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진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베드로가 그 마음에 있는것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약속을 할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베드로 같이 대단히 간단한 일에서도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첫째로 내 생각에는 마땅히 기도해야할때 그가 잠을 자고 있는것을 봅니다. 나는 그것이 그가 실패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s it is a reason behind our failure, so often we are sleeping instead of praying. Secondly, he sought to follow the Lord afar off. That again is a dangerous place to be--trying to just be a fringe Christian, follow the Lord from afar. Not to make that deep total commitment, but just, "Oh, yes, I think it's great to go to church and that's fine and people should, you know." And then, he was warming himself at the enemies' fire, another dangerous thing. The result is denial. Now, how did Jesus look at Peter? I do not think it was a... "Peter, how could you?" look. Nor do I think it was a... "I told you so!" look.

우리의 실패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빈번히 기도하기 보다는 잠을 자는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히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위험한것은 -

변두리 크리스찬이 되는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것입니다. 깊숙하게 전적으로 맡기는것이 아니라 그저 “오, 그래, 교회 가는것은 좋은 것이야, 그게 좋다는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일은 적군의 불을 쫓여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것입니다. 그결과로 부인하게 되는것 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떤 표정으로 보셨을까요? 내 생각엔 주님이 “베드로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니?”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네게 말했잖아” 라는 표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Someone came up to me this morning, and they had been in the fellowship hall where you get a close-up. And they noticed this spot on my head. And they said, "Tell your wife to be more gentle with you." And I said, "Would you believe that I bumped it on a cupboard door in the kitchen?" I was messing around in the kitchen and I had left the upper cupboard door open slightly and, you know, wasn't looking or paying attention and "whamo!" And here I saw that skin and flesh on the corner of the door. And my dear wife, when she saw my head, said, "I've told you to close those doors!" Oh, the sympathy I get.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펠로우십 홀에 있다가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될때에 내 머리에 점이 하나 있는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라고 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부엌에 가서 위에 있는 찬장문을 열다가 부딪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부엌에 가서 이것 저것하다가 위에 있는 찬장문을 살짝 열어놓았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가다가 “아이쿠!” 그래서 내가 보니 문 한쪽에 살쥎이 붙어 있더라구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머리 다친것을 보고 하는말이 “내가 찬장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받는 동정이었습니다.

I think that the look that Jesus gave Peter was, "Peter, I understand. I understand, Peter. I love you still, Peter." I think it was a look of love; perhaps the deepest love that Peter had ever observed in one's eyes. The understanding of Jesus. More or less, "That's alright, Peter. I understand." And that's what broke Peter's heart. The Bible said, "Don't you realize that it is the goodness of God that brings man to repentance?" You know, if a person comes down really hard on you, your tendency is to defend yourself, to stiffen, to justify your actions. But when a person comes and puts their arm around you, and you say, "Ah," they say, "I understand and I'm praying for you. And I love you brother." Hey, that breaks you up. You know, you have no defenses against that. It melts you. And I think that's exactly how Jesus looked at Peter. "Peter, I love you. I understand, Peter, that's okay."

내 생각엔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 보셨을 때의 표정은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너의 입장을 이해해.” 그것은 사랑하는 표정이었고 베드로가 사람의 눈에서 관찰 해 온중 아마 가장 깊은 사랑을 담은 표정이었을것입니다. 예수님의 이해, 그것은 거의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는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정말로 심하게 다구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방어하고 굳어지며 정당화하는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팔로 안고 하는 말이 “네 사정을 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녹일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녹일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표정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해하고 있어, 괜찮아.”

"And Peter went out and he wept bitterly." Failure! "God, must I always be a failure?" "No, Peter, not always. In a few days you're going to receive power and you're going to be the witness God wants you to be." We'll get to that in the twenty-fourth chapter.

And the men that held Jesus mocked him, and smote him. And when they had blindfolded him (22:63-64),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나라.” 실패! “하나님, 왜 나는 항상 실패만 해야 합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항상아 아니야. 몇날이 못되어 네가 능력을 받고 네가 원하는 증인이 될거야.” 우리가 24 장에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22:63-64).

A very cruel thing to do! Because the body is marvelously constructed so that when we can see a blow coming, there is that natural reflex action of the body of a movement with a blow that cushions the blow. The body is marvelously coordinated and we have marvelous reflex capacities. The quarterback is injured when he's blindsided. You see these big three hundred pound guards coming in and throwing their shoulder in and knocking him to the ground, and another guy pouncing on him. And he bounces up and gets back into the huddle. When they get hurt is when he gets blindsided. He doesn't see it coming, he isn't able to roll with it, he isn't able to relax and roll with it; that's when you get hurt. You can jump off of a table and not hurt yourself, because you're expecting it, you're bracing for it and you're bending your knees and you're giving with it when you hit. And yet, you can step off of a curb and break your leg if you don't realize the curb is there.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놀랍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강타가 오는지를 볼수있도록 충격이 올때 그 충격에 대한 자연적인 반사적 행동이 있습니다. 몸은 놀랍게 조정을하며 우리에게 놀랍게도 반사적인 작용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풋볼 코터백이 닥아 오는 충격을 보지 못할때 많이 다칩니다. 이 300 파운드나 되는 방어를

말은 가-드가 와서 그들의 어깨를 들이 대어 코타백을 땅에 떨어뜨릴때 또 다른 한 선수가 그 위에 너댓 없이 덮칩니다. 그는 뛰어 올랐 다 가 마구 밀어넣습니다. 그들이 다치는것은 그들이 보지 못할때 일어 나는것 입니다. 그가 닥아오는것을 보지 못하여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돌리지 못해서 다치게 됩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뛰어 내릴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쥐고 무릎을 꾸부려 바닥에 닿을 때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자리 돌에 뛰어내리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Just that six inches can jar you so bad it can break an ankle, break a leg if you're not expecting it, if you're not coordinating for it. The same with a blow. If you're blindfolded and you can't see the blow coming, you're not able to move, you're not able to faint with it or move with it. And it hits you with its full force. And that hurts. And so, blindfolding Him and then beginning to hit Him, His face began to be disfigured, as these lumps began to rise. The eyes began to blacken and these huge lumps began to form from these blows. Isaiah tells us that His face was so beaten, so marred, that when they were through, you could not recognize Him as a human being. And he sai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To look at Him was such a shocking thing; we couldn't stand to look. You just sort of cringed and closed your eyes and turned away. It's too horrible. You just can't look; you're shocked.

비록 6 인치 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의 발목뼈를 부러 뜨리거나 기대 하지 않고 조화를 잘 못맞추어 다리를 부러 뜨릴수도 있습니다. 강타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만일 당신의 눈을 가리고 주먹이 날라 오는것을 보지 못하면 움직일수 없고 기절하거나 움직일수 없습니다. 그것은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린후 때리기 시작했을때 그의 얼굴은 이그러졌고 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멍이 들었고 이렇게 맞음으로 인해 심히 부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얼굴이 너무 많아서 상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 맞은후에는 사람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되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얼굴인 것처럼 그로 부터 우리 자신을 감추었다" 고 합니다. 그를 바라 보는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그를 바라 볼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움츠리고 눈을 감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입니다. 바라볼수가 없으며 떨립니다.

"And they mocked Him,"

saying, Prophecy, who is it that hit you? And many other things blasphemously spake they against him (22:64-65).

As He said, "This is your hour; it is the power of darkness." And we see man at his worst.

And as soon as it was day, the elders of the people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and they led him into their council, saying, Art thou the Christ? (22:66-67)

“저희들이 그를 회롱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욱하더라 (64-65).

그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세력이니라” 고 말씀하셨으며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6-67).

You see, it was not lawful for them to assemble until daylight. And so they held Him. And as soon as it was day, they gathered into their chambers and they said, "Art Thou the Messiah? Tell us."

And he said unto them, If I told you, you wouldn't believe: And if I ask you, you'll not answer me, or let me go. Hereafter shall the Son of man sit on the right hand of the power of God. Then said they all, Are you then the Son of God? And he said unto them, You said it. And they said, What need we for any further witness? we ourselves have heard it out of his own mouth (22:67-71).

낮이 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은 그를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자마자 그들은 공회를 소집했고 문초하여 묻기를 “네가 메시야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22:67-71).

Luke 23-24
Tape # C2541
By Chuck Smith

And the whole multitude of them arose, and they led him unto Pilate.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found this fellow perverting the nation and forbidding to give tribute to Caesar, and saying that he himself is Christ [or the Messiah,] a king (23:1-2)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23:1-2).

Now notice, their accusation against Him was blasphemy, "You're saying You're the Son of God." When they brought Him to Pilate to accuse Him before Pilate, they didn't make that charge at all before Pilate. Why? Because they knew that Pilate would throw it out. You say, "It's just your own problem if your own religious superstitions don't come to the Roman court with that." So when they came to the Roman court, they came with a whole different set of charges. The charges before the Roman court was that of perverting the nation, seditious. "He is a man who said you shouldn't pay taxes to Caesar." That's not true. He said, "Give to Caesar that which is Caesar's." And then they also accused Him of declaring Himself to be the King.

그들이 그를 반대하여 고소하는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것 이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하노라." 그들이 그를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려고 데려왔을때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는 그것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디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그러한 경우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종교적인 미신은 너희 자신들의 문제니 그런걸 가지고 로마법정에 오지말라." 그래서 그들이 로마법정에 올때 전혀 다른 죄목을 가지고 왔습디다. 로마법정 앞에서의 죄목은 나라를 뒤엎으려는 선동의 죄입니다. "그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치 말라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고 말했습디다. 그 사람들은 또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다는고 고소했습디다.

And Pilate asked him, saying,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nd he answered and said, [You said it] Thou sayest it (23:3).

Equivalent today of saying, "Hey, you said it!"

And then said Pilate to the chief priests and to the people, I find no fault in this Man. And they were the more fierce, saying, He stirs up the people, teaching throughout all of Judea, beginning from Galilee to this place (23:4-5).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네가 말했어) (23:3).

그것은 오늘날의 “ 네가 말했어 ” 라는 말에 상당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23:4-5).

Now Galilee was the place where all the rebellions against Rome started. So by placing Him in Galilee, they were seeking to place Him at the heart of rebellion against Rome. "This man is stirring up people everywhere, up there in Galilee." And it was one of those buzzwords by which they intended to get Pilate excited.

But when Pilate heard Galilee, he asked whether the man was a Galilean. And as soon as he knew that [he was a Galilean,] he belonged to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to Herod, who himself was also was at Jerusalem at this time (23:6-7).

갈릴리는 로마를 반대하는 모든 반역행위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그를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동하고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빌라도를 흥분시키기 위한 상투어 중의 하나였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23:6-7).

This is Herod Antipas.

And when Herod saw Jesus, he was exceeding glad: for he was desiring to see him for a long time, because he had heard so many things about him; and he had hoped that he might see some kind of a miracle done by him. Then when he questioned him in many words; but Jesus answered him nothing (23:8-9).

이 사람은 헤롯 안티푸스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23:8-9).

This is the Herod, of course, who had beheaded the cousin of Jesus, John the Baptist. And Jesus had nothing to say to him at all.

And so then Herod with his men of war set him at nought, and mocked him, and arrayed him in a gorgeous robe, and sent him again to Pilate. And the same day Pilate and Herod were made friends together: because there had been enmity between them for quite some time. And Pilate, when he had call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of the people, he said unto them, You've brought this man unto me, as one that is perverting the people: and, behold, I have examined him before you, and I find no fault in this man touching those things whereof you accuse him: no, nor did Herod: for I sent you to him; and lo, nothing worthy of death has been done by him. I therefore am going to chastise him, and release him (for of necessity it was a custom that he would release unto them one prisoner at the feast). And they cried out all at once, saying, Away with this man, and release unto us Barabbas: (who for a certain sedition made in the city, and for murder, was cast into prison.) (23:11-19)

물론, 이 사람은 예수의 사촌인 침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푸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전혀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명절에는 그들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23:11-19).

Now Barabbas was guilty of these very charges which they were making against Jesus. False charges against Jesus; they were true against Barabbas.

Pilate, therefore, willing to release Jesus, spake again to them. But they cried, saying, Crucify him, crucify him. And he said unto them the third time, Why, what evil has he done? I have found no cause of death in him: I therefore will chastise him, and let him go. And they were instant with loud voices, requiring that he might be crucified (23:20–23):

And the tragic scripture...

and the voices of them and of the chief priests prevailed (23:23).

바라바는 그들이 예수에게 뒤집이 씌우려는 바로 그러한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대한 거짓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는 바라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23:20-23)

슬픈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23:23)

How sad when the voices of the mob prevail.

And Pilate gave sentence that it should be as they required. And he released unto them him that for sedition and murder was cast into prison, whom they had desired; but he delivered Jesus to their will. And as they led him away, they laid hold upon one Simon, a Cyrenian, coming out of the country, and on him they laid the cross, that he might bear it after Jesus (23:24–26).

폭도들의 소리가 이기다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써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23:24-26).

Now the procession, typical Roman procession, was, they had four Roman soldiers; two going slightly ahead and two slightly behind, and the prisoner in the middle. And then, one soldier would lead the procession. And the soldier leading the procession had a sign with the accusation against the person to be crucified. In this case, the sign said, "The King of the Jews."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of crucifixion, this sign was then nailed to the top of the cross so that the people would all know the reason why this man was being put to death by the Roman government. As they would go through the streets of the city, they would usually take the longest route. And, of course, there was always a lot of noise and a lot of clamor, and this was intended to draw the people out to see what was happening. And they would see this man walking in the midst of the Roman soldiers, pulling his cross along, and they knew that he was going to be crucified and the accusation against him was in front. And it was like terror in the hearts of the people against trying to rebel against Rome.

전형적인 로마의 행렬은 네 명의 로마 병사가 조금 앞에 두 사람과 조금 뒤에 두사람이 따르며 죄수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 한 병사는 행렬을 인도합니다. 행렬을 인도하는 병사는 십자가에 못박힐 죄수가 고발 당한죄를 쓴 패말을 가지고 갑니다. 이 경우에는 패말에 “유대인의 왕” 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을곳에 왔을때 이 패말을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의해 처형을 당하는 이유를 만인이 알도록 십자가 꼭대기에 못으로 박아 놓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지나갈때 가장 먼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매우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거기에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보도록 그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것입니다. 무리들이 로마 병사들 중간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끌면서 걸어가는것을 볼수 있으며 그들은 그가 패말에 쓰여있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 위한것입니다.

Jesus, weakened by the chastening, was probably physically unable to bear the cross any further. And so they compelled this man Simon, who was a Cyrenian, to bear the cross. What the Roman soldier did was just take his sword and lay it flat on your shoulder, and he could order you to carry his bags for a mile. And that was Roman authority; you couldn't say no. You couldn't say,

"Well, I'm busy. I have to get this quart of milk home to my wife. She's baking cookies and expecting me to come home with milk." You couldn't do that. He laid that sword flat on your shoulder and if he'd tell you to do something, no arguments. You had to do it. And so they laid the sword flat on Simon's shoulder and said, "Carry this man's cross," and Simon began to carry the cross.

매를 많이 맞아 약해진 예수는 아마도 신체적으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인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로마 병사가 한것은 그의 검을 뽑아 당신의 어깨에 올려 놓으면 그의 짐을 일 마일 운반하도록 명령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인의 권세이며 그것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나는 바빠요. 이 우유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다. 지금 쿡기를 굽고있는데 내가 우유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만일 그 병사가 그의 검을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무얼 하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냥 해야합니다. 그가 시몬의 어깨에 그의 검을 올려 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고 했으며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Now, according to Josephus, the Roman government, the Jews would not allow a census to be taken since the time of David, when the judgment of God came against Israel because David numbered the people. And so, the Roman government wanted to know approximately how many people there were. And so they counted the number of sheep that were killed for the Passover at the time of Christ. And according to Josephus, there were 26,572 sheep killed for this one Passover. And there was, according to the law, a minimum of ten people to eat the one lamb. You had to have at least ten people. So the number of people at that particular Passover was over 2,700,000. Of course, it was the longing desire of every Jew to go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some time in his life. If you lived within fifteen miles of Jerusalem, an adult male, you were required to be there.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다윗의 시대 이후로는 로마정부가 인구조사 하는것을 유대인들이 허락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는 그곳의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월절 양을 몇 마리나 죽이는지 그 수를 헤아렸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유월절에는 26,572 마리를 죽였다.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도 10 명이 양 한마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양 한마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10 사람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한 특별한 유월절에 모인 사람의 수는 2,700,000 명 이상 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의 생애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는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15 마일 거리 안에 살면 모든 어른 남자들은 그곳에 가야합니다.

Further away it was always your dream. And so, when they would partake of the Passover, they would say, "This year here; next year Jerusalem." Even to the present day, it's a traditional part of the Passover feast. "This year here; next year Jerusalem." Simon had, no doubt, come from Tripoli, for that is a Cyrenian who was from Tripoli, for this Passover. It could be that he was very upset when that Roman sword was laid on his shoulder and he was compelled to bear the cross. We do not know, but we are told that this Simon was the father of Rufus and Alexander. The fact that his sons are named, I believe it's in Mark's gospel, it means that his sons were well known by the Christians. So there is a very good likelihood that this Simon, as a result of his encounter with Jesus and bearing the cross of Jesus, was converted. And his sons became well known in the early church, Rufus and Alexandria. As Paul is writing to the church in Rome, he said, "And greet Rufus, who is as my brother, and his beloved mother, who is as my own mother." It could be the very Rufus, the son of Simon who was compelled to bear the cross of Jesus.

멀리 떨어져 사는 삶들에겐 그것이 항상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참석할때 말하기를 “금년엔 여기서,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까지도 “금년엔 여기서,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라고 하는것이 유월절의 전통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시몬은 트리폴리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월절을 위하여 트리폴리에서 온 구레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의 검이 그의 어깨에 놓였고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당했을때 그는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듣기엔 그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가 개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초대교회에 루포와 알렉산더로 잘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때 그는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강요를 당했던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And there followed him a great company of people, and of women, which also were bewailing and lamenting him. And Jesus turning unto them said, Daughters of Jerusalem, don't weep for me, but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For, behold, the days are coming, in the which they wi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23:27-29),

To be barren was a curse. They'd always say, "Cursed are the barren." If a woman could not bear a child, that was cause for divorce, legal cause for divorce,

an acceptable cause for divorce. If you could not bear a son for your husband, that was an acceptable cause for divorce in those days. And they would say, "Oh, she's cursed; she can't bear children." But Jesus said, "The day is going to come when they're going to say, 'Blessed are the barren.'"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23:27-29).

아이를 낳지 못하는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것은 저주로다” 라고 합니다. 만일 여인이 애기를 가지지못하면 법적으로 받아 드러지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만일 남편을 위해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도 그 당시엔 이혼의 사유로 받아 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 그 여인은 저주 받았어. 아이를 낳지 못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하셨습니다.

and the womb which has never born, or the breasts which have never nursed. Then shall they begin to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he hills, Cover us. For if they do these things in a green tree (23:29-31),

That is, while I am here, the light of the world...

what are they going to do in the dry? (23:31)

These days did come. In less than forty years, the Roman troops came and ravaged the land of Palestine. And the vast majority of the Jews were killed. In the final assault upon Jerusalem, according to the account of Josephus, over a million Jews were killed. And 96,000 were carried captive back to Rome to be slaves for life.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23:29-31),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23:31)

이러한 날이 왔습니다. 40년 이내에 로마군이 들어와 팔레스타인을 약탈했습니다. 유대인의 대 다수가 학살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공격해 왔을 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백만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6,000명은 로마에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노예가 되었습니다.

There were also two other, malefactors, who were led with him to be put to death. And they were come to the place, which is called Calvary,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malefactors, one on the right hand, and the other on the left. Then said Jesu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nd they parted his raiment, and cast lots (23:32-34).

This statement of Jesus,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according to Luke's gospel here, was made as they were preparing them for the cross. That is, they would lay the cross down on the ground, which was in a shape sort of a "T." And they would stretch out the prisoner's hands on the crossbars and they would drive these spikes through his hands.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쌔 (23:32-34).

예수의 이 성명,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준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를 땅에 내려 놓았고 그것은 "T" 자의 모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수의 팔을 펴서 양손을 뚫고 들어 가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Last year when I was in Jerusalem, I was visiting in a house of a Theo Sidonboom, who had excavated under his house and had come back to the Roman period. And had found there this large spike, which looks like a railroad spike.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he spikes that it is believed the Romans used in crucifixion." I said, "Theo, I've got to have one of the spikes. I don't care what it costs; I want one." I hope that he has one for me when I go back. I'm going to call and see. He said he thought he could get me one. I want to show you what the Roman spikes look like that they have uncovered there in Jerusalem. But they would drive these spikes through the hands on the crossbars. And in the case of Jesus, they drove the spikes also through his feet, as they nailed Him to the cross. And then they would implant the cross in the ground.

Now, while they were nailing Him,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작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때 데오 시돈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는 자기집 밑을 발굴해서 로마시대의 지층까지 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못을 발견했는데 철도에 박는 못과 같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못들은 로마시대 십자가 처형에 사용되었던 것들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데오, 내가 하나 가져야겠는데, 값이 얼마든지 하나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그가 내것으로 하나 보관했기 바랍니다. 내가 전화해서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나한테 하나 줄수있을거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로마시대의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못을 십자가의 평행목에 손을 박는데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경우에는 그들이 못을 박을때 그 못이 발을 뚫고 지나 가도록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 땅에 심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못을 박을때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Here we find that Jesus, having been brought to the place physically, where He could no longer go around touching the blind eyes, touching the deaf ears, because His hands are now held fast to that cross. Though He cannot minister in an active way, walking around their villages any more, still there's one avenue of ministry left. And He exercises it; the ministry of prayer. And He prays for them. And the prayer of Jesus was answered.

우리가 여기서 볼때 예수는 신체적으로 한곳에 끌려왔고 그가 더 이상 다니면서 장님을 만져주거나 귀머거리를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그의 손이 이젠 십자가에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역을 활발하게는 할수 없고 각 동네마다 두루 다닐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가지 사역할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On the day of Pentecost some fifty days later, when they were again gathered in Jerusalem for that celebration, when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the early church and the people gathered to observe the phenomena that accompanie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Peter stood up and he said, "You men of Israel, harken unto me. For these men are not drunken as you suppose. It's only nine o'clock in the morning. But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of by the prophet Joel, when he said, 'In the last days,' saith the Lord, 'I'm going to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and your sons and daughters are going to prophesy, and your young men are going to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And upon My servants and handmaidens will I pour out of My Spirit in

that day,' saith the Lord. And there shall be blood and fire and vapor and smoke, and the moon shall be turned to blood and the sun into darkness before the great and notable day of the Lord come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d Peter said, "Jesus of Nazareth, a man who proved Himself to be of God among you by the marvelous works that He did, whom you,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accounts and foreknowledge of God,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hat He could be held by death. For David, by the Holy Spirit, said, 'Th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ell, neither will You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And Peter said, "This was fulfilled, for His soul was not left in hell. Neither did the Holy One see corruption, but the same Jesus hath God raised from the dead, Who ascended on high and is now given this which you see...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cts 2:14-33).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웠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14-33).

And they were convicted in their hearts. And they said unto them, "Men and brethren, what shall we do since we'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And Peter said, "I realize that in ignorance you did it. But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Acts 2:37-3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 형제들아 우리가 영광의 주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 너희가 무지하므로 그렇게 하였으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행 2:37-38).

Now,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Peter said, "You did it in ignorance." And 2,000 souls were added to the church. The prayer of Jesus was answered. Those who had ignorantly put Him on the cross had found forgiveness and were now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And the people stood beholding. And the rulers also with them derided him,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Messiah, the chosen of God. And the soldiers also mocked him, coming to him, and offering him vinegar, and saying, If thou be the King of the Jews, save thyself. And a superscription also was written over him in letters of Greek, and Latin, and Hebrew,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23:35-38).

주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지하므로 그렇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 명의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무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팔십 사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23:35-38).

Now this was the cry, the taunt, the jeer of the people: "Save Yourself!" You know where the inspiration for that cry came? From the pit of hell. For had Jesus saved Himself, He would not be able to save you. That cry was coming from the pit of hell. It was a taunt, it was a jeer. The high priest said, "He saved others. Himself He cannot save. Let Him come down now if He is the Son of God. Let God save Him, if God will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because He said He's the Son of God." And this was the mockery, this was the cry. The soldiers, "Hey, if you'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man." The people, they picked up this chant, this cry, "Save Yourself!"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Him," the priests said.

이것은 사람들의 외침과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네 자신을 구원하라!” 그 외침에 대한 영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옥의 깊은 곳에서 온것입니다. 예수 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더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침은 지옥의 깊은곳에서 온것입니다. 그것은 조롱이었고 또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대 제사장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게 할찌어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찌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롱이었고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군병들도 “여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 하라”하면서 희롱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말을 좃어듣고 “네 자신을 구원하라!” 고 외쳤습니다. 제사장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고 말했습니다.

And one of the malefactors which were hanged railed on him, saying, If thou be the Christ, save thyself and us (23:39).

So, the same taunt that was coming from the crowd, this thief picked up. During the time of great psychic experiences, emotional experiences, emotions are close to the surface and there's this mob psychology and people begin to act like something other than people when they get into crowds many times. Even in football games. You know, people put on chicken suits and do all kinds of weird things. And everybody accepts it, everybody laughs. And you watch some of these people, you know, the weird get-ups and people do weird things in a crowd. There's sort of an anonymity in a crowd that people like. "Nobody knows me so I can act like a freak," and everybody laughs and has a good time. And there is that thing with the crowd of wisecracking. Have you ever been in a crowd when things were going on and people begin to make their smart remarks, and then it gets a little competition of who can make the smartest or cutest remark? And of course, you measure them on the laugh scale. You know,

"You got an eight." "Well, you got a five." "Well, I got a ten." And these things to play on the emotions of the people, especially if it's a very shocking thing.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23:39).

무리들도 똑 같이 조롱했으며 이 도적에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굉장한 심리적, 또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감정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무리 속에 들어갈때 군중 심리에 의해 무리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풋볼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괴상한 옷을 입고 여러가지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걸 받아 드립니다. 또 웃기도 합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군중가운데서 일어나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알려 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나는 장난꾸러기 같이 할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즐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농담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들의 재치있는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재치있는 발언을 하는가 경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나 우스우냐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8 점 이요." "당신은 5 점입니다." "와, 나는 10 점이네." 이 모든것들을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하며 특히 그것이 아주 심각한 일일때 더욱 그러합니다.

I can imagine that to watch a man dying on a cross would be an extremely shocking thing to your psyche. I would think that tha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just watch a man hanging there, watching him as he is fighting for breath, watching him as his body heaves, knowing the pain and just seeing him as he is gradually being worn down by the pain and the suffering and know that he is dying. That must be a tremendously shocking thing for the psyche. And so, I imagine that because you can't really think on that too long without really getting bugged by it, that there would be those that would make these off-handed remarks to divert the attention for awhile and to bring laughter, because just the shock of this thing settling in would be too hard to take.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것은 심리적으로 대단히 몹서리치는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나무에 달려서 호흡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 또 거기서 그의 몸을 끌어 올리는 모습을 쳐다보는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며, 그 고통을 알고 아픔과 고통으로 점점 기진하는 모습과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쳐다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몹서리쳐지는 일일것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생각하면 정말 미칠정도가 될것 같음을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돌리도록 걸맞은 농담을 해서 사람들을 웃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때문입니다.

And because it was the cry of the crowd and the common mockery and jeering against Christ, the thief, probably just to get a rise out of the crowd and maybe some sympathy towards himself by joining with them, reviled Jesus and

said, "Hey, why don't You save Yourself and us?" Ho-ho-ho! Funny! And there probably went the ripple of laughter through the crowd.

But the other thief turned to him, and he said, Don't you fear God, seeing that you're in the same condemnation? (23:40)

Hey, you're in the same boat, man, you're dying. Don't you fear God? It's the hour of death. Don't you realize that we're going to be facing the judgment of God soon? Don't you fear God?

그리고 그것은 군중들의 외침이었고 그리스도와 도적을 조롱하며 희롱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군중속에서 일어났고 자신들이 군중에 휩쓸려 예수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여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호-호-호! 웃기네! 그 웃음이 아마 군중을 거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23:40).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 하느냐? 죽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We indeed are here justly [justice is being served];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amiss (23:41).

Pilate said, "I find no fault in Him." The thief testified, "He has done nothing amiss." Judas said,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And he said to Jesus,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23:42).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23:41).

빌라도가 “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적도 증거했습니다 “ 이 사람의 행한것은 옳지 않은것이 없느니라.” 가롯 유다는 “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23:42).

How did he know that Jesus was a King? Because above the cross there was written the word, "The King of the Jews." But this shows us that for

salvation, faith has to come from God. For somehow his faith transcended even that of the disciples. And somehow, by God, he knew that though this Man was dying, He was yet to come into His kingdom. He had a faith greater than the disciples, because at this point the disciples had been wiped out; they had forsaken Him and they had fled, they had given up hope. "We had trusted in Him for the salvation of Israel, but He now is crucified. It's all over." But somehow, God planted faith in the heart of this man. For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예수가 왕인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머리위에 있는 죄 패에 "유대인의 왕" 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터 오는것임을 보여 줍니다. 어떻게해서든지 그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능가했습니다. 어떻게해서인지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왕국을 세우기위해 다시 오실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도 사라졌 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모든것이 끝났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아니라.

It is a gift of God an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God planted faith, saving faith in the heart of this man. And he somehow realized that even though he was dying, there was a message, just a short message,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And he believed it. It had to be the faith of God planted in his heart. And so he said, "Lord,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would You remember me?" Not, "Would You honor me?" Not, "Would You exalt me?" Just, "Remember me, Lord." The disciples were the ones that were saying, "Lord, when You come into the kingdom, exalt me. Let me sit at Your right hand, let me sit at Your left hand, let me be prime minister. Let me have Hawaii!" This man was just saying, "Lord, would You just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Oh, what a simple prayer! But it brought him salvation. Oh, how close each of us are to salvation! It's just a simple prayer;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Lord, remember me." We read, "Wherefore He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all who come unto God by Him." Where Jesus said, "And whosoever cometh un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Even a dying thief in his last hour who says, "Lord, remember me," can find salvation." And Jesus said,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23:43).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죽어 가고 있었지만 여하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존중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나를 높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여, 나를 기억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높여 주소서. 내가 당신의 오른 쪽이나 왼쪽에 앉게 하여주소서. 수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와이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사람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오, 우리가 구원에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에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도적 까지 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3:43).

This word *paradise* is a word that was used for the garden of the king, where he would invite his special guest to come and walk with him. Jesus said,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It was about the sixth hour (23:44),

That is noon. It's interesting that this all transpired before the miracles of the day. Before the earthquake, before the sun became dark, God had planted the faith in the heart of this thief to bring him salvation. "It was about the sixth hour,"

and there was darkness over all the earth until the ninth hour (23:44).

이 단어 “낙원” 은 왕의 정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이며 특별한 손님을 청하여 함께 거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때가 제 육시쯤 되어 (23:44),

그것은 정오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낮에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것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기 전이며, 태양도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도적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 때가 제 육시쯤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23:44).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And the sun was darkened, and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he midst (23:45).

"The sun was darkened," that is, nature refused to look at this horrible sight. Nature revolted against man.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the rocks were torn, nature revolting against man. Had God not restrained it, I'm sure that nature would have destroyed man at that point for his heinous crime.

오후 3 시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23:44-45).

“해가 빛을 잃고” 는 자연도 이 끔찍한 장면을 보기를 거절하였다 는것 입니다. 자연도 인간에게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흉악한 죄를 짓는 그 시점에서 틀림 없이 자연이 인간을 죽였을것입니다.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he midst." We are told in another gospel, "from the top to the bottom." Oh, how significant! The veil of the temple was the testimony of how unapproachable God was to man. No man dared to enter in beyond that veil, except the high priest, and that only one day in the year. And that only after many sacrifices and washings. And that only with great reverence and fear, having these bells tied on the bottom of his coat and a rope tied around his foot, so that those outside of the veil would listen for these bells to be tinkling inside. And if they would stop, then they would pull the guy out by his foot, knowing that he went into the presence of God with some blemish and God smote him dead. And so the rope, so they could pull him out and wouldn't even have to go in to get him. God was unapproachable by man. Man's sin had alienated from God. God's hand was not short, His ear was not heavy, but sins had separated people and the veil represented that separation of the unrighteous man from God. But at the death of Christ the way was made by

which man might come to God, and God ripped that veil from the top to the bottom, saying, "Come, come, it's open." The way is now made through Jesus Christ for you, for me, to be able to come directly to God.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또 다른 복음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해줍니다. 오, 의미가 깊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인간으로서 접근할수 없는 하나님을 말해주는것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대제사장의 아무도 감히 휘장을 지나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것도많은 희생을 드리고 찢은 후에 만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경외와 두려움으로 대제사장 겉옷밑에 많은 벨을 달고 밧줄로 그의 다리에 묶어 휘장 밖에서 벨의 땡그랑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것을 듣습니다. 만일 그 벨 소리가 멈추면 대제사장을 노끈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때 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끈은 사람이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끌어낼수 있게 한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고 그의 귀도 어둡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휘장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갈라진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마련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열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이젠 나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에게 나아갈수 있습니다.

And when Jesus had cried with a loud voice (23:46),

Luke doesn't tell us what He said, but the other gospels do. He cried, "It is finished!"

he then said,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and having said thus, he dismissed his spirit. Now when the centurion saw what was done, he glorified God, saying, Certainly this was a righteous man. And all of the people that came together to that sight, beholding the things which were done, smote their breasts, and they returned. And all of his acquaintances, and the women that followed him from Galilee, stood afar off, beholding these things. And,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counselor; and he was a good man, and a just: (And the same had not consented to the counsel and the deed of them;) he was of Arimathea, a city of the Jews: and who also himself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is man went unto Pilate, and he begged for the body of Jesus. And he took it down, and wrapped it in linen, and laid it in a sepulchre that was hewn in stone, wherein never before a man was laid. That day was the

preparation, and the sabbath was drawing on. And the women also, which came with him from Galilee, followed after him, beheld the sepulchre, and how his body was laid. And they returned, and prepared the spices and the ointments; and they rested the sabbath day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23:46-5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23:46),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 다 이루웠다’ 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좇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23:46-56).

Chapter 24

Now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y came to the sepulchre, bringing the spices which they had prepared, and certain others with them. And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sepulchre. And they entered in, and they found not the body of the Lord Jesus. And it came to pass, as they were very perplexed, behold, two men stood my them in shining garments: And as they were afraid, and

bowed down their faces to the earth, they said unto them, Why seek ye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is risen: remember how he spoke to you when he was still in Galilee, saying,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e third day rise again. And then they remembered his words, And they returned from the sepulchre, and told all of these things unto the eleven, and to all the rest. Now it was Mary Magdalene, Joanna,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 women that were with them, which told these things to the apostles. And their words seemed to them as idle tales, and they believed not (24:1-11).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치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 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 (24:1-11).

"Oh, hysterical women. Lord, deliver us!" And they just didn't believe.

Then rose Peter, and he ran to the sepulchre; and stooping down, he beheld the linen clothes laid by themselves, and he departed, wondering in himself what it all meant, [what's happened]. And, behold, two of them went that same day to a village called Emmaus, which was from Jerusalem about three score furlongs [or about eight miles]. And as they talked together of all of these things which had happened, it came to pass, that, while they were communing together and reasoning,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ent with them. But their eyes were holden that they should not know him (24:12-16).

“오, 신경질을 부리는 여인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는나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푸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4:12-16).

So God sort of put blinders on them and they didn't recognize Him.

And he said unto them, What are you guys talking about as you're walking along here? How is it that you look so sad? And one of them, whose name was Cleopas, answered and said unto him, Are you a stranger in Jerusalem, you don't know the things which have come to pass in these days? And Jesus said unto them, What things? And they said unto him,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ich was a prophet mighty in deed an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and how the chief priests and our rulers delivered him to be condemned to death, and they've crucified him. And we trusted (24:17-21)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24:17-21).

It's past tense.

we had trusted that it had been he which should have redeemed Israel: and besides all this, this is the third day since these things were done (24:21).

"Hey, man, you must be a stranger; you don't know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around here. There was this fellow, Jesus of Nazareth, a great guy! Mighty and power in God, and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 brought us hope. We hoped, we had trusted that He was going to be the One to bring deliverance. But they crucified Him, and this is the third day."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24:21).

“여보시오, 당신은 외방인임이 틀림없소. 여기서 생긴일을 모르다니. 나사렛 예수라는 작자는 대단한 사람 이었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자로서 두루 다니며 선행을 행했고 소망을 주었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자로 바랐고 신뢰했었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못박았고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라오.”

And there were certain women also of our company which made us astonished, they went early to the sepulchre;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and said that they had a vision of angels, which said that he was alive. And certain of them which were with us went to the sepulchre, and found it was even as the women had said: but they did not see him. Then he said unto them, O fools,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24:22-25):

What's He do? He takes them right back to the Word, right back to the prophecies.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4:22-25).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언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Ought not Christ to have suffered these things, and to have entered into his glory? And beginning at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ounded un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24:26-27).

And I'll never forgive Cleopas for not writing them down. This is one of the messages of Jesus that I would give anything to have! How I would love to have heard Him start with Moses and go through the Old Testament and bring out all of the scriptures that related to Him, three hundred prophecies that He fulfilled by His birth, life, death, resurrection. Oh, what I wouldn't give to have this sermon recorded. Wouldn't it be great if they had cassettes or something and we could just listen to this message? Oh my!

클로에 파스가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는걸 나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값을 치뤄서라도 갖고 싶은 예수의 메시지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가 모세로 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에게 관련된 모든 말씀을 들쳐내어 그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삼백 여개의 예언들을 강해하는것을 듣고 싶습니다. 오,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녹음해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카셀 테이블이나 녹음할것이 있어 들어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게습니까? 오, 실망 스럽네요.

And they drew near to the village, where they were going: and Jesus acted like he would just keep going on further. But they constrained him, saying, Abide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and the day's almost over. And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And it came to pass, as he sat at meat with them, he took bread, and he blessed it, and he broke it, and he gave it to them.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him; and he vanished out of their sight (24:28-31).

It's interesting to me that it was when He handed them the bread that they recognized. Is it possible that they then saw the nail prints? And their eyes were opened... "Wow!" And then He vanishes out of their sight, disappears.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 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24:28-31).*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그가 빵을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와-!” 하고 나니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으며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by the way, an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24:32)

Have you ever had a burning heart as you read the Word of God? Has it ever just kindled a fire within your hear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look for excitement in their religious experiences. They look for emotional highs. They look to discover some kind of a miracle or phenomena that they can get all

excited about; an angel appeared, or some other type of phenomena. These men said, "Did not our hearts burn when He talked to us and opened the scriptures to us?" I think that it is a sign of spiritual health and maturity when a person begins to get that burning heart as he searches the scriptures, as the Holy Spirit begins to open the scriptures to him. I tell you, I get so excited just reading the Word of God. I get so excited, there are times when I just really can hardly contain myself; as God's Spirit begins to open up the scriptures to me just as I'm reading. The Spirit of God just begins to open them up, and I just get so excited. I can't describe to you just how exciting it is to be taught of the Spirit, the truth of God's Word, and suddenly just have the understanding given to you and the scriptures opened up to you. That's healthy. There are some people that get excited when people speak in tongues or when people utter prophecies. I get excited over the Word of God. Some people get excited with visions or dreams. I get excited over the Word of God.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24:32).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때 마음이 뜨거워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불이 붙어 본적이 있습니까? 종교 경험에서 감격을 찾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고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어떤 종류의 기적이거나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상고하며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때 몹시 감격해 집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때 성령께서 열어 주시기 시작할때 너무 감격해서 혼자 간직할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나는 감격해 집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며 성경을 열어주시는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때 대단히 감격해 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해 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을 꾸어서 감격해 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게 됩니다.

So they rose up in the same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24:33),

I'll bet they got back to Jerusalem a lot of faster than they got to Emmaus.

and they found the eleven gathered together, and those that were with them, and they said to them, [Hey,] the Lord is risen indeed, he appeared to Simon (24:33-34).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24:33),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땐 엠마오에 왔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갔을것 입니다.

열 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24:33-34).

Telling these two fellows that came in, "The Lord is risen! He appeared to Simon!" And they said, "Hey, we had an experience."

And they told what things were done as they were on the path,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when he broke the bread. And as they were talking about this, Jesus himself stood in the midst, and he said unto them, Shalom (24:35-36).

Typical Hebrew greeting.

But they were terrified and frightened, and they thought that they were seeing a ghost. And he said unto them, Why are you troubled? why do these questions arise [in your minds and] in your hearts? Behold my hands, my feet, it is me: handle me, and see; for a spiri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me have (24:37-39).

들어온 두 사람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 나시고 그가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도 “우리도 경험했다” 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24:35-36).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24:37-39)

Now there are some people that find difficulty here because Jesus is saying, "Handle Me. See if it isn't Me." When earlier in the day He said to Mary,

"Touch Me not. I'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The words of Jesus to Mary, "Touch Me not," the words "touch Me not" are a poor translation of the Greek. In the Greek, it reads, "Don't cling to Me." Mary was, no doubt, touching Him already. She, no doubt, had a death grip on Him. "You got away from me once, You'll never get away from me again! All right, I'm not going to let You go." And He said, "Don't cling to Me, Mary. Go and tell My disciples that I'm risen." So it wasn't, "Don't touch Me," some mystic thing, but it's just, "Don't cling to Me, Mary. Go tell the disciples I am risen." Here He's saying, "Look, handle Me. See if it isn't Me. Ghosts don'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Me have."

예수께서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나 인지 보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에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찌기 주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오라가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고 하신것은 헬라어의 빈약 한 해석입니다. 헬라어로는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로 읽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마리아는 벌써 주님을 손으로 붙들뿐만 아니라 꼭 붙들고 늘어집니다. “한번은 떠나 가셨지만 이제 다시 떠나 가실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젠 다시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리아야,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가 아니고, 신비스러운 어떤것도 아니며, 그것은 오로지 “마리아야, 나를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만져보라. 정말 나인지 아닌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And while they yet believed not for joy (24:40-41),

Now it was just too much. "We can't believe it; it's just too much."

and they were wondering, he said unto them, Do you have any meat? And they gave him a piece of broiled fish, and some honeycomb. And he ate it before them. And he said unto them, These are the words which I spake unto you, while I was yet with you, that all of the things must be fulfilled, which were written in the law of Moses, in the prophets, and in the psalms (24:41-44),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24:40-41),

그것은 너무합니다. “그건 너무 심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24:41-44),

The Psalms are filled with prophecies concerning Jesus Christ. There are entire Psalms that are known as Messianic Psalms; Psalm 22, graphic description of the crucifixion. Psalm 110, the priest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Psalm 118...and just over and over, many Psalms. And so He said, "Didn't I tell you that thes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hen opened he their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understand the scriptures (24:45).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꼭 차 있습니다. 어떤것은 시편 22 장 같이 한장 전체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졌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관한 그림 같은 묘사가 있습니다. 시편 110 편은 벨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의 묘사이며, 시편 118 편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시편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24:45).

And that's a glorious gift, when God opens your understanding that you might understand. And that happens when you're born again. If you try and read the scriptures without being born again, they're a mystery to you. "For the natural man does 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But he which is spiritual understands, though he is not understood by any" (I Corinthians 2:14-15).

And he said unto them, Thus it is written, and thus it behooved the Messiah to suffer, and to rise from the dead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should be preached in his name among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And you are the witnesses of these things (24:46-48).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도록 해주실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중생할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중생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 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신비로울 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전 2:14-15).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4:46-48).

So, here He is commissioning them, that they should go out and preach the repentance and the remission of sins to all nations. "And behold, I sent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This is the promise, no doubt, made to Joel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prophecy of Joel when God said, "And in the last days, saith the Lord, when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I send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tarry ye in the city of Jerusalem, until you be endued with this power from on high (24:49).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But they were to wait in Jerusalem until the promise was fulfilled.

여기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은 가서 죄의 회개와 사함을 만민에게 전파 할 사명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요엘서 2 장에 요엘에게 하신 예언의 약속이며 “주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고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24:49).

이것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Now this translation, "Tarry ye in Jerusalem," was picked up by the Pentecostal churches and they had traditional tarrying meetings where people gathered to tarry to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at's unscriptural. Jesus said, "Tarry in the city of Jerusalem." So to tarry in Santa Ana would not be scriptural.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는 이 번역은 오순절 교회들이 그것을 선택하여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까지 머물러있는 전통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타아나에 유하는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Jesus was not prescribing the method by which the Holy Spirit should be poured out upon all believers during church history. There was to be that initial day in which the Spirit of God would be poured out upon the church as an

abiding gift. They were to wait for that day, they were to wait in Jerusalem for that day. Once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and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as an abiding gift upon the church, it was never necessary for them to tarry again to receive the Holy Spirit. All that was necessary was for them to by faith receive the gift of God. You don't have to tarry to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t's God's gift. You receive it by just faith. "This gift is unto you and your children and to those that are far off, even as many as the Lord our God shall call."

예수께서는 교회 역사상 성령을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는 방법을 처방하지 않았습니 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은사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첫 날이 있게 되어 있었습니 다. 그들은 그 날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날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 다. 오순절이 완전히 가까워져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은사로 성령이 한번 부어 졌을 때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시 머물 필요가 없습니 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 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 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 다. "이 선물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행 2:39)."

And so he led them out as far as Bethany, and he lifted up his hands, and he blessed them. And it came to pass, while he blessed them, he was parted from them, and carried up into heaven (24:50-51).

Now notice, He went as far as Bethany, lifted up His hands and blessed them. And as He was doing it, He was lifted up and went on into heaven. This was forty days after His crucifixion. He had been around among them for forty days. When you go to Jerusalem today on the Mount of Olives, I think there are three different sites where great churches have been built over the spot where Jesus ascended. The Russians have the Church of Ascension, the Lutherans have the Church of Ascension, and the Catholics have the Church of Ascension, all on the top of the Mount of Olives. And one of them, they'll even show you the footprints that He left in the rock when He ascended. It's interesting they're all on the top of the Mount of Olives, when the scripture said He went as far as Bethany. I'm glad there's no Church of the Ascension in Bethany. So you can just go to Bethany and think, "Somewhere in here Jesus ascended." But you don't have a spot. Nor do you have a lot of baubles and trinkets and souvenir salesmen. Where He ascended is not so important as the fact that He did ascend there from Bethany.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24:50-51).

주목해서 보십시오.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위] 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후 40 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주께서는 40 일간 제자들의 주변에 계셨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 예수가 승천하신 지점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러한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승천한 교회 (The Church of Ascension) 를 지었고 루테란 교회도 승천한 교회 (the Church of Ascension) 을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도 역시 승천한 교회 (the Church of Ascension) 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그가 승천하신 바위에 발자국 까지 보여줍니다. 흥미로운것은 성경에 그들이 베다니 앞까지 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전부 감람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그리스도 승천의 교회가 없어서 기쁩니다. 그러니 베다니에 가서 “ 여기 어디에 예수께서 승천하신곳이 있다” 고 생각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지점은 없습니다. 또한 많은 값싼 물건들이나 쓸데없는 물건들과 선물을 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가 승천하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And they worshipped him, and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and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 praising and blessing God. Amen (24:52-53).

They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which means that when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the church, they were probably in one of the rooms of the temple. Because it was ten days after this that the Holy Spirit did descend. And the fact that they were continuing daily in the temple praising and blessing God, means that this phenomena probably took place right there in the temple, in one of the rooms of the temple where they had gathered to worship and praise the Lord. We'll get to that when we get to Acts, the second chapter, but we won't get to that until we get to John, which we will start next week--the first two chapters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4:52-53).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있었습니다...그것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을때 그들은 아마 성전의 어떤 방에 머물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는지 열흘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한 사실은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방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바로 그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 사도행전 2 장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Father, give us burning hearts by unfolding to us the truth of Your Word. And may we feel that excitement, that rush, that thrill of having Thy Spirit, Lord, just opening up the truths and giving us understanding and helping us to know You, Your love, Your way, Your will. Lord, as we go forth this week, guide us. May this be a week of spiritual growth. May this be a week of deepening relationship. May we draw closer to You, Lord. And may You work in our hearts and lives by Your Holy Spirit, as You would conform us into the image of Christ and make us true and faithful witnesses of our Lord. Bless us, strengthen us, help us, Father. In the name of Jesus, our Lord. Amen.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열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